황실 제5기사단의 본관 정문계단 앞에는 부단장을 중심으로 기사들이 시립해있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기사단을 떠나는 기사단장을 배웅하기 위함이었다.

부단장 칼리프는 손목에 찬 시계를 힐긋 바라보았다. 슬슬 떠나기로 예정된 시간이었다.

이윽고 굳게 닫힌 정문이 열렸다. 기사들은 일제히 계단 위를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중앙계단을 내려오는 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거구의 중년남성 등에는 가려질 정도로 작은 체구의 여인이 달라붙어있었다.

“할아버지. 정말 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 어?”

검은 머리는 겨우 단발 길이로 짧았다. 앳된 티가 가시지 않은 동그란 얼굴과 물기어린 큼직한 두 눈은 누가보아도 순해보였다. 올해로 갓 스무 살인 아나샤 라이나였다.

“아샤…, 자꾸 애처럼 굴지 마려무나. 네가 이렇게 울고 불며 붙잡아도 이미 정해진 일이야. 어쩔 수 없단다.”

“그치만…! 안 울게 생겼냐고.”

“기사가 그렇게 우는 거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중년남자가 버럭 고함치자 아나샤는 눈꼬리에 매달린 눈물을 훔쳤다. 큽 하고 내려오던 콧물을 도로 집어넣고서 얼굴과 어울리지 않게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니면 난 싫단 말이야.”

“누가오든 단장은 단장이야. 무를 수 없는 황실의 명이란 말이다. 네가 이 기사단의 일원이라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단다.”

“그치만!”

“그치만은 무슨 그치만이야! 나도 좀 쉬자, 이것아!!”

계단을 내려와서도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되었다. 가려는 자와 붙잡는 자의 상황을 아래에 집합해있던 기사들은 그저 질린다는 눈으로 지켜보았다.

“또 시작이네요.”

“마지막 날은 좀 얌전할 거라 여겼는데...”

기사들 중 엘빈은 짧은 감상을 던졌고, 크리스는 두통에 시달리는 얼굴로 한숨을 쉬었다. 경례를 올리려던 부단장 칼리프는 굳은지 오래였다. 그를 의식한 기사들은 웃음을 참느라 살을 꼬집거나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부렸다.

“할아버지 가지마! 은퇴 그거 좀 미루면 되지!”

“그래도 아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 단장님께서 정말 친손녀처럼 아껴줬으니...”

훤칠한 키의 기사들 중에서도 눈에 띌 만큼 산만한 덩치를 가진 마브릭이 아련한 눈을 하며 말했다. 그것도 잠시였지만.

“할아버지 가면 난 누구랑 노냐고. 단장실 소파에 누워서 노는 것도 이제 못하잖아!”

“...그래. 아껴도 너무 아껴줬지. 그러니까 저렇게 버릇이 없지.”

기사 크리스가 담담하게 가라앉은 눈으로 말했다. 14년을 이 기사단에서 자라온 아나샤였다. 그 시간동안 단장직을 맡고 있던 아버트 벨더스는 누구보다 아나샤를 오냐오냐 대했던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그 장본인은 오늘로 은퇴하게 되었다. 말괄량이를 이 기사단에 남겨둔 채.

뒤늦게 굳은 얼굴을 푼 칼리프가 단장 아버트에게 다가갔다.

“모든 짐은 다 실어두었습니다. 바로 오르시면 됩니다.”

“그래. 아샤녀석 좀 잘 붙잡아주게나.”

“할아버지!”

아나샤가 외쳤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그간의 노고에 기사단을 대표해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 아버트 단장님께 경례!”

기사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아버트는 마차에 오르기 위해 발을 움직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기사들의 손에 붙잡힌 아나샤를 내려다보았다.

“적적하면 영지로 언제든 놀러오렴. 기다리고 있으마. 물론 이번에 오는 단장이 그만큼 긴 휴가를 내줄진 모르겠지만 말이다!”

하하 하고 짓궂은 웃음을 터뜨린 아버트가 마차에 올랐다. 투명한 마차창문 너머로 수염을 쓸면서 앉아있는 그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만 갔다.

“안돼애애애!!”

마차 뒤꽁무니를 보며 아나샤는 절규했다. 마차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동안이나.

“그 뒤로 통 기운이 없네, 아샤.”

마브릭이 걱정스러운 눈치로 먼발치 나무위에 앉아있는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땅 위에 서있는 모습을 보기 힘들만큼 원래도 잘 안내려오는 아나샤라지만 최근에는 항상 혼자 저러고 앉아 멍 때리기 일쑤였다.

“그럴 만도 하지. 단장님 가시고 부단장한테 불려가서 몇 시간 동안 설교를 들었으니... 그보다 난 새 단장님이 온 후가 더 걱정인데.”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는 듯 크리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아나샤의 성장과정을 봐온 사람으로서 아나샤가 얼마나 예법에 무지한지 잘 알고 있었다. 예법은커녕 일반적인 상식과 약간 어긋난 면도 있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억지로라도 예법을 배우게 하는 거였는데.’

물론 이제와 후회를 해봤자 늦었다는 것을 크리스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마브릭을 대신해 나무 밑으로 다가가 아나샤에게 말을 걸었다.

“아샤. 다음주에 새 단장님이 온다는 소식 들었지?”

“…새? 삼촌들은 몰라도 나는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됐다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

크리스는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양 미간을 주물렀다.

“…너 말이야. 네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상탠지 알아?”

“내가 왜?”

“봐봐, 지금도 반말이잖아. 이제까지 단장님이 그냥 놔둬서 그렇지 기사단은 원래 위계질서 체제라고. 다른 기사단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례를 너는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보고 예법이라도 구사하란 말이야?”

아나샤는 콧방귀를 뀌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삼촌인 그가 이런 말을 하니 조금 웃긴 탓이다.

“이런 옷에 예법 같은 게 어울릴 리 없잖아. 그런 건 제복 입은 삼촌이나 열심히 하셔.”

“너 설마 아직도 제복 안줬다고…,”

“전혀요. 나도 멋지고 깔끔한 제복 입고 싶다는 건 아니고. 정말 부럽지만 아니지.”

역시 마음에 쌓아두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릴 때부터 자기도 제복이 입고 싶다고 얘기하던 것을 크리스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물론 어엿한 황실 제5기사단 소속인 아나샤에게 아직까지도 제복이 없는 이유라면 있었다.

“네가 새 단장님의 심기를 거스를까 미리 말해두는 거야. 너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잖아? 새 단장님께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간 그대로 댕강이라고.”

목을 긋는 시늉을 한 크리스가 여전히 정색한 얼굴로 외쳤다.

“해고라고. 어?! 알아듣겠어!”

“애한테 왜 겁을 주고 그래?”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마브릭이 끼어들며 말했다.

“마브릭... 네가 계속 그렇게 받아주니까 심각성을 모르는 거잖아.”

“아샤도 이제 성인인데 어련히 잘 하겠지.”

“맞아. 마브릭 삼촌 최고!”

“쟤가 어련히도 잘하겠다!”

크리스는 퍽퍽 하고 제 가슴을 세게 두드렸다.

“잘 들어. 새로 오시는 기사단장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 몇 백년간 북부영지를 다스리고 지켜온 유서 깊은 가문의 귀족이라고. 뭔 말인지 알아? 귀족 중의 대귀족이라고.”

“귀족 중의 대귀족…?”

아나샤는 눈을 찡그렸다.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아버트 단장님이나 부단장도 귀족이지만 그 두 사람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끄덕끄덕,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치곤 반 정도 이해한 얼굴이었다. 크리스는 한숨을 내쉬다말고 다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 분이 우리 기사단에 단장으로 오는데 네가 아무 말이나 찍찍하고 그래봐. 특히나 너는 일단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지금 말 다했어?”

“그래. 매일 온몸에 먼지와 검댕이를 묻히고 다니잖아. 금방이라도 들쥐나 떠돌이개가 친구하자고 해도 될 만큼 지저분한 모습이지.”

“그치만 내 일이 이건데,”

“알아. 네가 매일 힘들게 천장 위를 기어 다닌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해해줄 수 있다 해도 새로 오시는 단장님은 아니란 거지.”

“...?”

“그런 분들은 더러운 걸 질색하시거든.”

긴장한 듯 작게 숨을 들이켠 아나샤가 그대로 뒤로 넘어갔다. 나뭇가지에 두 다리를 단단히 고정한 채 반 바퀴 뱅그르르 돈 그녀는 흡사 나무에 거꾸로 걸린 시체 같은 꼴로 입을 열었다.

“그래서?”

“그래서 라니, 인마. 너 내 얘기 제대로 들었냐?”

크리스는 눈을 부라리면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아나샤를 보았다.

“몇 년간 옆에 붙어있던 자기 수족도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가볍게 갈아 치워버리는 게 귀족인데 하물며 대귀족은 어떻겠냐? 새 단장님한테 밉보이는 순간 네가 잘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치사해도 이게 단장의 권한이고 권력이란 거다. 이제 좀 네 상황의 심각성이 느껴지냐?”

“그럴 리가... 그래, 지금부터 청소를 해야겠다!”

시무룩해있는 것도 잠시 아나샤가 다시 재빠르게 나뭇가지위로 올라갔다. 그러곤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 맞은편에 있는 기사단 본관건물 3층 창문 안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아나샤를 눈으로 좇던 크리스와 마브릭은 서로를 돌아보았다.

“내가 쫓아가볼게.”

크리스는 바쁘게 발을 움직였다. 그도 이십 년간 기사단에 몸 담그고 있는 기사라지만 민첩함으로는 아나샤를 따라잡을 수 없었다.

아무래도 기사단의 전속 첩자이니 말이다.

일반 기사들과는 달리 침투, 은신, 첩보 등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바로 첩자였다. 크리스의 생각에도 아나샤만큼 이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도 없었다.

체구가 작고 왜소해서 웬만한 남자첩자들보다 몸놀림이 날렵하고 조용했다. 다람쥐처럼 나무나 천장 위를 날아다니는 그녀를 볼 때마다 참 천직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사단 내에서 이런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서 유일하기도 하고 첩자로서의 자질도 뛰어났다. 단순히 오랫동안 봐온 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녀는 기사단에서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보다 아나샤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원했을 크리스였다.

그렇기에 이번 일이 심히 걱정되는 것이었다.

다행히 크리스는 아나샤를 빨리 찾을 수 있었다. 물론 기사단 건물의 반을 뒤지느라 한 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이 정도도 빠른 편이었다. 그녀가 작정하고 숨으면 한 달이 걸려도 못 찾았을 것이다.

“...너 뭐하냐?”

“청소.”

“그러니까 거기는 왜…?”

크리스는 어이없는 눈으로 단장실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정확히는 천장 한 가운데에 네모나게 뚫린 구멍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아나샤를.

천장 위를 누가 다닌다고 그렇게 정성들여 청소하는지 모르겠다. 아 한명 있었지.

“삼촌이 말했잖아. 대귀족은 더러운 걸 질색한다고. 그러니까 언제든 나타나도 먼지 하나 안 묻게 여길 청소하려고. 그럼 먼지 묻을 일도 없잖아?”

“그냥 그때마다 씻거나 옷을 털면 되잖아?”

“에이, 어떻게 매번 그래?”

구멍사이로 얼굴을 내민 아나샤가 진심으로 번거롭다는 듯 손사래까지 쳤다. 다시 쏙 구멍 안으로 들어가더니 얼마안가 구멍사이로 까맣게 때가 탄 수건들이 하나둘 떨어져 내렸다.

크리스는 자신의 발밑에 던져진 까만 수건을 보고 질겁했다. 짓뭉갠 찌그러진 거미가 달라붙어있었다.

“어우. 거길 다 닦으려면 수건 천 장, 아니 만 장은 있어도 부족할 걸?”

“괜찮아! 내가 다니는 길만 닦을 거니까!”

“…뭐? 길? 길도 있어...?”

새롭게 안 사실에 크리스는 아, 하고 입을 벌렸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다. 부디 새 단장님이 그녀의 정성을 알아주기를, 하고 속으로 빌 뿐이었다.

대낮부터 시장은 활기로 가득 차있었다. 호객행위를 하는 상인들과 부산스레 움직이는 사람들, 조금은 정신없지만 생동감 넘치는 이 풍경을 아나샤는 좋아했다.

아나샤는 수도 외곽에 있는 시장에 나와 있었다. 임무가 없으니 한가했다. 물론 그것도 이번 주까지겠지만.

나흘 뒤면 새 단장님이 기사단에 오는 날이었다.

그녀가 생각하는 귀족이란 틀 안에 갇혀 융통성이 없고, 오로지 규칙만을 따르는 까다로운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귀족 중의 대귀족은 어떠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어쩌면 할아버지보다 더 괴팍한 성미에, 부단장보다 잔소리가 많고 깐깐할 지도 몰랐다.

‘그래도 청소도 했으니까.’

시장에서 산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며 아나샤는 흥얼거렸다. 매일 입고 있는 검은 복장이 아닌 무릎까지 오는 흰 원피스차림의 그녀는 누가 보아도 수도 외곽에서 흔히 보이는 평민소녀 같았다.

잡화점에 새로 들어온 신기한 물건들을 구경하던 그녀는 알록달록한 장신구들이 나열된 가판대 앞에서 멈춰 섰다. 맑은 푸른 빛깔의 구슬이 달린 머리 장신구가 단번에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거 얼마예요?”

“어디 보자. 원래는 15실루나는 받아야하는데 아가씨한테는 10실루나에 팔게.”

상인의 말에 아나샤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동전들을 세어보았다. 총 일곱 닢이었다.

“3실루나만 외상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지. 아가씨가 누군 줄 알고.”

“저 아나샤 라고 해요.”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고, 처음 본 아가씨를 어떻게 믿냐 이 말이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뭐. 새로 오셨죠? 원래는 이 자리에서 신발 팔았었는데 바뀌었네요.”

“일주일 전에 수도로 올라왔어. 젊은 아가씨가 이 바닥은 훤히 꿰고 있구먼.”

“그렇죠?”

어깨를 으쓱 들었다 내린 아나샤가 밝은 얼굴로 입을 조잘거렸다.

“새로 오신 아저씨를 위해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요. 저기 시장 위쪽에 장신구 파는 곳이 두 곳이고, 아래쪽에는 오래된 곳이 한 곳 있어요. 아래쪽이 가격이 제일 저렴해서 제 또래들은 대부분 아래쪽으로 가요.”

“그래…?”

“근데 그 세 곳 다 오래된 곳들이라 그런지 장신구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아저씨 거는 색상도 다채롭고 모양도 하나같이 다 독특한 것 같아요. 수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장신구들이에요.”

“암, 내가 영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집한 건데 다른 데서는 쉽게 볼 수 없지!”

그렇게 외친 상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어려있었다.

“다른 곳에서 다 하나하나 수집한 거라고요?”

“속고만 살았나. 지명도 다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아나샤가 정말 기억하느냐고 호기심을 드러내면서 대화는 자연스레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었다.

이 팔찌는 어디서 구했고, 이 머리핀은 어디서 구했으며, 가장 힘들게 구한 것은 무엇인지 등 한참동안 신나게 떠들어대던 상인은 뒤늦게 낮은 헛기침을 터뜨렸다.

“들은 정보가 있으니 아가씨한테는 특별히 7실루나에 팔게.”

“정말요?”

“대신 친구들한테 여기 좀 많이 알려줘.”

“당연하죠! 엄청 좋은 장신구 가게가 생겼다고 여기저기 소문낼게요.”

아나샤는 주머니에서 냉큼 동전 일곱 닢을 꺼내 그의 손에 얹어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얻은 구슬 머리핀을 조심스레 오른쪽 귓등위에 꽂았다. 거울을 한번 확인한 아나샤는 활짝 미소를 지었다.

“엄청 예뻐요. 많이 파세요!”

정말이지 운이 좋았다.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은 그녀의 빠른 걸음걸이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아나샤는 남은 사과를 베어 먹으며 다른 가게를 구경하다가 한산한 골목 어귀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 안을 걷던 그녀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벽에 다가갔다. 그리고 두 손으로 벽의 튀어나온 부분을 붙잡았다. 사뿐히 높은 벽 위로 올라선 것은 순식간이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아나샤는 길게 이어지는 벽 위의 길을 따라 걸어갔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길이라 눈 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였다.

아슬아슬하게 지붕들을 건너다니며 꽤 높은 곳까지 다다른 그녀는 펄럭이는 치맛자락을 누르며 지붕위에 주저앉았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탁 트인 마을풍경이 좋았다. 흰 구름이 흘러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느긋하게 기지개를 켤 때였다.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그녀가 지붕 너머를 내다보자 좁은 골목길 안을 걷고 있는 사람이 보였다. 검은 로브를 머리끝까지 눌러쓰고 있었는데 체격으로 보아 남자 같았다.

지붕위에서 납작 몸을 숙인 아나샤가 슬쩍 고개만 내밀어 그를 관찰할 때였다. 로브 사이로 드러난 검 손잡이가 스치듯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수상쩍은데?’

그녀의 감은 제법 좋은 편이었다.

아나샤는 잠시 남자를 뒤쫓을까 고민했다.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척을 숨긴 채 조심스레 천장위에서 남자를 쫓기 시작했다.

남자는 구불진 골목 안을 계속해서 걸어 들어갔다. 아는 길은 아닌지 막힌 골목으로 들어섰다가 다시 돌아나가기도 했다.

‘접선 장소라도 찾는 건가?’

이곳은 민가였다. 사람 눈에 띄지도 않고, 비밀리에 무언가를 꾸미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였다.

역시나 남자는 골목 모퉁이를 돌아 햇빛이 들지 않는 으슥한 길로 들어섰다. 아나샤는 조금 거리를 둔 채 골목 안을 응시했다. 다른 인기척들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골목에 서있는 자들은 총 세 명으로 전부 남자였다. 그리고 저마다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이윽고 검은 로브를 쓴 남자가 그들 앞으로 다가가자 아나샤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봐. 어디로 가려는 거지?”

험상궂은 목소리가 골목 안을 울리며 가장 앞에 서있던 거구의 사내가 그를 막아섰다. 은밀한 접선의 현장을 볼 거라 여겼던 아나샤로서는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었다.

“이 자식 뭔가 수상쩍은데.”

남자가 로브를 억지로 벗기려는 듯 머리쪽으로 손을 가져간 순간이었다. 뽑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예리한 검날이 정확히 거구의 사내 목 앞에서 멈췄다.

“인신매매단의 근거지가 이곳인가.”

낮지만 또렷한 저음의 목소리가 아나샤의 귀로 흘러들어왔다.

그 말에 뒤에 서있던 갈색머리 남자와 검은머리 남자가 조용히 검을 빼들었다. 그들이 동시에 달려드는 순간, 로브를 쓴 남자가 재빠르게 눈앞에 있는 자의 목을 베어내고서 다른 이의 검을 받아쳐냈다.

챙, 하는 날카로운 울림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목을 향해 날아든 다른 검을 피해 몸을 숙였다. 눌러쓴 로브로 인해 시야가 방해될 법도 할 텐데 남자는 망설임 없이 달려나갔다.

미처 방어할 틈을 갖추지 못한 갈색머리 남자가 틈을 보인 순간이었다. 자세를 낮추며 함께 아래로 늘어뜨렸던 검이 위로 방향을 바꾸었다.

순식간에 긴 검은 가슴부터 어깨까지 단숨에 베고 지나갔다. 치명상은 피한 것 같았으나 고통이 심한지 갈색머리 남자는 비틀거리다 벽에 부딪쳤다.

로브를 쓴 남자가 다시 검을 휘두르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뒤에서 다른 사내가 달려들었다. 높이 쳐들어진 검은 팔을 통째로 베어낼 것처럼 무서운 기세로 아래로 내리그어졌다.

그러나 베어낸 것은 펄럭이는 로브의 끝자락이었다.

동시에 로브를 쓴 남자가 검을 움직였다. 잘린 천 자락이 땅바닥위에 떨어지기도 전, 서슬 퍼런 검이 날카로운 궤도를 그리며 빠르게 적의 목으로 날아들었다.

아나샤는 입을 벌렸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깔끔히 머리만 베어낸 실력에 소름이 쫙 돋을 정도였다. 단번에 머리를 벨 정도의 괴력을 갖춘 실력자는 기사단 안에서도 흔치 않은 편이었다.

머리를 잃은 몸이 무너지듯 쓰러지자 그제야 로브를 쓴 남자는 검을 늘어뜨렸다.

두 명이나 죽어버리자 갈색머리 사내는 승산이 없다고 여겼는지 주춤주춤 물러나기 시작했다. 그런 사내를 향해 로브를 쓴 남자는 태연히 걸음을 옮겼다. 피가 뚝뚝 흐르는 검은 정확히 사내의 목 중앙을 겨누었다.

“납치한 자들은 어디에 있지?”

“…저, 저기에,”

사내가 떨리는 손을 들어 어느 평범해 보이는 낡은 건물을 가리켰다. 로브를 쓴 남자는 그대로 그를 지나치더니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지켜보던 아나샤도 눈에 띄지 않게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남자를 뒤쫓았다. 아나샤가 지붕과 지붕 사이를 건너는 동안 남자는 먼저 집안으로 들어갔다.

뒤늦게 지붕 위에 소리 없이 착지한 그녀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다행히 오른쪽 끝에 있는 썩은 나무판자를 밀어내자 쉽게 집 천장으로 숨어들 수 있었다.

어두운 천장 위에서 아나샤는 작은 구멍을 통해 남자를 관찰했다.

남자는 지하로 통하는 문을 발견한 상태였다. 바닥에 설치된 문을 연 그가 이윽고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으로 내려가자 아나샤는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기다려볼까...’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냥 돌아가기엔 아쉬웠다. 그리고 남자가 무사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약간 흥미가 일었다. 보통 조를 짜서 움직이는 것에 반해 혼자 근거지에 쳐들어온 이유도 궁금하긴 했다.

‘독단 행동을 할 정도면 부단장 정도 되려나.’

다른 기사단에 부기사단장이 누가 있는지 떠올려보는 동안 시간은 꽤 많이 지나있었다.

‘어, 올라온다.’

뒤늦게 지하에서부터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아나샤는 모든 신경을 귀로 집중시켰다.

“생김새가 귀족처럼 보이던데 저렇게 놔둬도…,”

“우리 뒤를 봐주시는 분들이 누군지 잊었냐? 고작해야 기사 나부랭이겠지.”

“저놈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야. 다른 놈들은 더 없는지 살피는 게 우선이다.”

여섯 명의 사내들이 계단 위로 올라와 모습을 드러냈다. 하나같이 검은 천으로 코와 입을 가린 상태였다.

그들은 잠시 서서 대화를 나누었다. 서로 어디 구역을 살필지 정하더니 두 명씩 나뉘어 집을 빠져나갔다. 아나샤는 그들이 완전히 밖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요. …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다. 리히르트는 움찔 곧은 눈썹을 찌푸렸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목소리에 완전히 정신이 든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뒤였다.

리히르트는 힘겹게 무거운 두 눈을 들어올렸다. 눈앞이 잠시 어지러웠으나 곧 시야가 맑게 걷히는 느낌이 들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단발 길이의 까만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누군가의 얼굴이었다.

“어, 정신이 들어요?”

“...”

다시 한 번 또렷한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리히르트는 눈앞의 여자를 응시했다.

동그랗게 떠진 눈과 작은 코와 입이 차례대로 그의 시선에 들어왔다. 기껏해야 십대 후반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다.

“...이곳은,”

“보다시피 지하 감옥 안이에요.”

그는 눈앞에 위치한 얼굴에서 시선을 떼고 옆을 돌아보았다. 녹이 슨 쇠창살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입고 있던 로브는 사라져있었고, 두 손은 등 뒤로 묶여있었다. 거기다 지니고 있던 검마저 빼앗긴 상태였다. 낮게 한숨을 내쉰 그가 옆으로 눕혀진 몸을 일으키려던 찰나였다.

“풀어줄게요. 잠깐 가만히 있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모든 행동을 멈췄다. 여자는 양손이 자유로운 모양인지 조그마한 손으로 빠르게 밧줄을 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뭘요.”

두 손이 자유로워지자 리히르트는 몸을 일으켜 앉아 뻐근한 손목을 풀었다.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를 응시했다.

한눈에 봐도 깡마른 몸은 왜소했다. 입고 있는 원피스는 까만 얼룩들이 군데군데 묻어있었다. 누가 봐도 오랫동안 갇혀있던 것 같은 행색이었다.

그가 그녀를 납치된 사람들 중 한명이라고 여기는 동안, 아나샤는 그가 과연 기사가 맞는지, 자신이 봤던 그 검은 로브의 남자가 맞는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도 그럴게 남자의 얼굴은 고된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보일만큼 희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은은히 빛이 흐르는 듯한 연한 금빛머리카락과 푸른 눈동자는 같은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 정도였다.

“기사…? 인거죠?”

“맞습니다.”

아나샤의 물음에 남자는 담백할 만큼 고저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거짓말 같지는 않아보였다. 전투 중에도 로브를 푹 눌러쓰고 있었던 이유가 이 외모를 가리기 위함이라면 납득이 되는 것이다.

“근데 혼자 임무 수행하러 온 거예요?”

“네.”

이어진 물음에 리히르트는 잠시 뜸을 들이며 대답하고서는 완전히 여인에게서 눈길을 거두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철창 밖을 내다보았다.

이 감옥을 벗어난다 해도 당장 문 밖에 있을 적들을 상대해낼 수 있을지가 문제였다. 무기가 없는 상태로 다수를 상대하기에는 위험이 컸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기밀 임무였기에 자신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는 임무를 내린 황태자 에르디온뿐이었다. 이런 지하에 갇혀있어선 외부의 도움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납치된 사람들은 안쪽 감옥에 있어요.”

다시 들려온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옆을 돌아보았다.

“한 스무 명 정도 갇혀있어요. 근데 수면향을 피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잠들어있어요.”

그는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아래로 내려가자마자 견딜 수 없는 졸림과 동시에 약한 마비 증세가 나타났던 것을 떠올리면 단순한 수면향은 아닐 것이다. 오래 중독되어 있던 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다 같이 몰래 탈출하는 건 무리겠죠?”

“…당장은 불가능하겠지만 어떻게든 전부 구출해낼 생각입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그럼 도와드릴게요. 그쪽 몸만 괜찮다면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그는 긴 눈썹을 슬쩍 들어올렸다.

“문밖에 보초가 두 명 있어요. 나머지는 밖에 나가있고요.”

“...”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냐고 물으려했으나 리히르트는 이어지는 여인의 말에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나머지 놈들이 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지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잔당들을 쓸어버리고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전부 구해내는 거죠.”

까만 눈동자가 작은 자신감과 정의감을 띤 채 반짝거렸다. 리히르트는 그 눈을 조용히 응시했다.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곱씹던 그가 이윽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준비됐죠?”

자리에서 일어난 아나샤는 감옥 문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곤 머리에 꽂고 있던 머리핀을 손에 쥐고서 장식이 달리지 않은 끝부분을 열쇠구멍에 끼워 넣었다.

몇 번을 돌려댔을까, 철컥 하고 구멍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나샤는 보란 듯이 활짝 감옥 문을 열어젖히고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문 밖에서 수면향을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코랑 입은 가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나샤는 제 옆으로 다가온 사내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입고 있는 튜닉의 아랫자락을 길게 찢어내었다.

아나샤도 따라서 원피스 자락을 쥐었지만 생각보다 찢는 것은 쉽지 않았다. 끙끙대며 애꿎은 원피스만 쥐어짜낼 때였다.

“위험하니 안에서 기다리십시오.”

“혼자 싸울 수 있어요? 검도 없잖아요.”

“괜찮습니다.”

표정 변화 없는 담담한 얼굴로 남자는 그렇게 말했다.

“음, 알겠어요. 그럼 피해있을게요.”

무기도 없으니 나서는 것보다는 물러서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아나샤가 뒤로 물러서자 리히르트는 걸음을 옮겨 철문으로 다가갔다.

잠시 문밖의 기척을 살피던 그는 문고리를 쥐었다. 최대한 소리 없이 열 생각이었으나 철문의 이음새에서 끼익 대는 소음이 울려 퍼졌다.

그녀의 말대로 문밖에는 두 명의 보초가 서있었다. 가장 가까이에 서있던 적 하나가 검을 뽑아들려고 하자 리히르트는 곧바로 적의 팔을 붙잡아 반대로 꺾었다.

그리고 적의 허리춤에 걸려있던 검을 뽑아들어 적의 복부에 찔러 넣었다. 배를 관통한 검을 뽑아든 그는 곧바로 달려드는 적까지 단숨에 베어내었다.

그가 붉은 피가 묻은 검을 허공에 한번 털어낼 때였다. 철문이 열리며 그 사이로 작은 머리가 내밀어졌다.

“다 해치웠어요?”

그 물음에 그는 대답 대신에 쓰러져있는 시신 두 구에 눈길을 주었다. 아나샤는 오, 하고 의미 없는 소리를 내고서 코를 킁킁거렸다.

“여기는 향을 피우지 않았네요. 놈들이 돌아오기 전에 얼른 나가요.”

아나샤의 재촉에 리히르트는 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은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하고 위로 올라갔다.

“잠깐만요.”

문을 열고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던 순간이었다. 아나샤가 그를 붙잡았다. 동시에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오자 리히르트는 검 손잡이를 고쳐 쥐며 아나샤에게 눈짓했다.

“뒤로 물러나십시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깥에선 여러 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가장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선 남자는 서있는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검을 빼들었다. 이어서 다섯 명의 사내들이 각자 무기를 꺼내들고 리히르트를 향해 달려들었다.

모두 그에게 달려들어 홀로 남게 된 아나샤는 자연스레 동떨어진 채 그들의 전투를 구경하게 되었다.

숫자로 보면 불리한 상황이겠지만, 실제로 불리한 쪽은 반대였다. 순식간에 세 명을 해치운 리히르트는 도망치려는 두 명의 등을 차례대로 베어내었다.

그 살벌한 위력에 남은 두 명은 서로 눈치를 보며 양공을 시도했다. 한 명은 리히르트의 정면으로 달려들고, 다른 한 명은 그 반대 방향에서 공격을 시도한 것이다.

“큭!…,”

그러나 정면에서 달려들던 남자가 쉽사리 베이면서 남은 한 명은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재빠르게 목표물을 바꿨다. 백금발의 사내가 아닌 그 옆에 떨어져서있는 작은 여자에게로 달려든 것이다.

“움직이지 마!”

아나샤는 자신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채는 손길에 미처 반항할 새도 없이 끌려가야만 했다. 동시에 목에서 느껴지는 따끔한 고통에 눈을 느릿하게 감았다 떴다.

피로 흥건한 검을 아래로 늘어뜨린 백금발의 사내는 모든 움직임을 멈춘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나샤는 눈동자를 굴려 아래를 바라보았다. 짧은 길이의 칼이 제 목을 겨누고 있었다.

“당장 그 검 버려! 이 여자가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살다보니 붙잡히는 일도 다 있네.'

고작 며칠 쉬었다고 그새 몸이 둔해진 걸까. 목숨을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누군가에게 붙잡혀있다는 사실에 아나샤는 큰 충격을 받았다. 홀로 비틀대며 생각에 잠겨있을 때였다. 툭, 하는 소리가 들려오자 아나샤는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백금발의 사내는 스스로 검을 바닥에 떨어뜨린 채였다. 본인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도 이름 모를 저를 살리겠다고 그 야비한 말에 따른 것이다.

“검을 이쪽으로 차라. 허튼 수작부리면…,”

목에서 살짝 칼날이 떨어진 순간이었다. 아나샤는 그 틈을 노려 힘껏 위로 뛰었다.

“순순히 양손을, 컥!!”

아나샤의 머리에 턱을 세차게 부딪친 남자가 뒤로 물러서며 단검을 떨어뜨렸다. 단검이 바닥에 닿기 전 아나샤는 발을 뻗어 발등으로 손잡이 부분을 차올렸다.

팽그르르, 허공에서 몇 바퀴 돈 단검은 정확히 그녀의 손에 착지했다. 아나샤는 몸을 뒤로 돌리며 남자의 턱 아래를 단검으로 그었다. 목을 부여잡은 채 비틀대던 남자는 얼마안가 바닥에 쓰러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나샤가 별안간 홱 고개를 돌렸다.

“검을 버리다니 미쳤어요! 절 죽이고 그쪽한테 덤벼들면 어쩔 뻔했어요!”

성큼성큼 리히르트를 향해 다가간 아나샤는 눈을 부릅뜨고 그를 쏘아보았다. 묵묵히 그녀를 내려다보던 리히르트가 뒤늦게 입을 열었다.

“괜찮습니까?”

“저야 보다시피 멀쩡하죠.”

“목에 피가 흐릅니다.”

그제야 아나샤는 제 목에 손을 가져갔다. 조금 피가 흘렀을 뿐이었지만 남자는 자신의 목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 정도는 뭐, 금방 나아요. 그보다 선배로서 충고하는데 절대 검을 버리는 짓은 하지 마요.”

“…그대는 기사입니까?”

“맞아요. 황실 제5기사단 소속이에요.”

직업 특성상 ‘나 첩자예요’하고 당당히 말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아나샤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서 먼저 문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른한 햇살이 머리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나샤는 이제야 든 안도감에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옷에 묻은 검은 먼지를 털어내던 그녀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입을 열었다.

“그쪽은 어디 소속이에요? 임무도 도와줬는데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잖아요.”

하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치사하게, 정말 안 알려줄 거예요?”

아나샤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바로 뒤에 와있는 남자의 몸에서 은은한 향이 맡아졌다. 피 비린내와 섞이지 않은, 시원하면서도 차분한 느낌의 향이었다.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고개를 든 아나샤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으나 남자는 대답해주지 않았다. 그냥 밝히고 싶지 않아 딴소리를 하는 것이라 여긴 그녀는 부루퉁하게 입술을 내밀었다.

그것도 잠시 아나샤는 남자에게 손을 내밀었다.

“짧지만 만나서 반가웠어요. 전 여기서 이만 빠질게요.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 잘 부탁해요.”

“오늘 있었던 일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이죠?”

“...”

“남의 임무를 떠벌리고 다닐 정도로 가볍진 않거든요. 이래봬도 입 무거워요.”

맞잡은 손을 푼 아나샤는 “그럼.”하고 짧은 인사를 남기고서 벽을 타넘었다. 여인이 사라진 자리를 바라보던 리히르트는 뒤늦게 몸을 돌렸다.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할 때 그의 시야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바닥 위에서 작게 반짝거리는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핀이었다. 여인이 감옥 문을 열 때 사용했던 것이었다.

리히르트는 몸을 숙여 머리핀을 주웠다. 곧 만날 테니 그때 전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으나 그는 그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다.

눈부신 샹들리에 빛이 쏟아져 내리는 화려한 공간이었다. 그 중앙에 두 남자가 마주보고 앉아있었다.

한 명은 이 공간의 주인답게 화려한 금발을 가진 황태자 에르디온이었다. 그는 보고서에서 시선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자신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내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었다.

“혼자서 인신매매 근거지 하나를 절멸시킬 줄이야. 그대의 무공은 늘 상상을 초월하는군.”

“아닙니다.”

대답한 사내는 웨일그레슬 공작, 리히르트였다. 그가 황태자의 부름을 받고 수도로 올라온 지 이제 나흘 째였다. 그동안 리히르트는 비밀리에 내려진 임무를 수행했었다.

“겸양 떨 것 없어. 자네 실력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약 3년 전, 북쪽 변방의 전투에 참가한 에르디온은 그가 싸우는 모습을 직접 보았었다.

거친 북방의 땅에서 수없이 많은 침탈을 막아온 자답게 그의 검법은 오로지 빠른 살생을 목표로 했었다. 피를 뒤집어쓰고 무자비하게 적들을 베어내던 모습은 멀끔한 이목구비도 잊게 만들 정도였다.

그의 성정이 냉혹하고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다지만, 에르디온은 그래서 그가 더욱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도 웨일그레슬 공작은 과묵하면서도 청렴했다. 무표정한 그를 대하기 어려워하는 자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두려워한다지만 알고 보면 그만큼 대하기 쉬운 자도 없었다. 특히나 일적으로는.

“수고 많았어. 웨일그레슬 공. 그대의 공을 치하하며 한 잔 따라주지.”

“감사합니다.”

그는 그저 무심한 낯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 어디에서도 작은 기쁨이나 뿌듯함 따위의 감정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도의 귀족들은 이 한 잔을 받기 위해 제게 온갖 아부를 떠는데 참으로 돌 같은 사내가 아닐 수 없었다.

“그대는 내 계획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정말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이라는 소리이기도 해.”

에르디온은 황금색 술잔을 들어 입에 가져갔다. 잠시 묵묵히 술을 들이켜던 그는 술잔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중앙귀족들 중 부패하지 않은 가문을 찾아내는 게 더 힘들 정도야. 아마 나를 지지하는 세력 안에도 있을 테지.”

지금도 수도 외곽 지역에선 버젓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수도 귀족들의 자본과 연줄이 닿아있는 매음굴을 중심으로 은밀히 노예와 마약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니 범죄의 온상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더 이상은 제국의 곯은 부분을 방치해둘 수는 없었다. 즉위 후 부패한 세력들을 가차 없이 엄단할 것이라는 결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믿을 수 있는 자들을 골라내는 것이 중요했다.

“표적이 되었단 걸 안 이상 관련된 귀족들은 몇 달간은 잠잠하게 몸을 사리고 있겠지. 제 몸은 누구보다 잘 챙기는 이들이니 말이야. 그동안 나는 배후세력들을 알아내는데 주력을 기할 생각이야.”

결심이 느껴지는 단호한 목소리로 에르디온은 말했다. 그리고 부드러운 듯 강한 눈빛으로 눈앞에 있는 자를 응시했다.

“그러니 자네가 고생 좀 해줘야겠어. 제5기사단의 새 단장으로서 말이야.”

“맡겨주십시오.”

리히르트는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하지만 그 무심한 목소리에서 충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단장직을 받아들인 것은 어디까지나 황실의 명령에 의해서였을 뿐,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었다.

수도의 귀족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지만 말이다. 무력과 재력으로도 모자라 권력에까지 손을 뻗으려한다고 여겼다. 사교계에서는 이미 웨일그레슬 공작의 중앙 진출에 대한 얘기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당사자 리히르트는 태연했다. 세간은커녕 바로 옆 주변에도 무신경한 그였으니 그 사실을 알 턱이 없는 것이다.

그저 황실 제5기사단과 연관된 한 여인이 머릿속에 잠시 떠올랐다 사라질 뿐이었다.

리히르트 폰 웨일그레슬. 오늘 새로이 기사단 단장직에 부임한 사내의 이름이었다.

수도와는 연이 없는 먼 북방영지의 주인답게 들리는 소문은 매우 적었다. 물론 그 소문조차 북쪽의 넓은 영토를 다스린다는 것, 수없이 많은 이민족의 침탈을 막고 국경선을 지켜내어 젊은 나이에 쌓아온 무공이 대단하다는 등의 소문이었다.

크리스는 그렇게 대단하고 잘난 귀족일수록 사적인 흠이 크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가령 성격이라거나 성품, 성미 말이다.

그리고 기사단에 막 도착한 ‘리히르트 폰 웨일그레슬’의 실물을 마주한 순간 더 강하게 믿고 싶어졌다.

수도에 잘생겼다고 소문이 난 귀족사내들을 단번에 깔아뭉개고 남을 만큼의 미남자였다. 같은 남자가 봐도 잠시 넋을 잃고 보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다.

태생부터가 다르다는 듯 머리색은 그 보기 힘든 고귀한 백금발이었다. 훤칠한 장신의 체격과는 달리 그의 이목구비는 날카로우면서도 섬세하게 빚은 가면 같았다. 냉하고 무심한 표정은 거만하다기보다는 그의 미모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다.

같은 인간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 완벽한 피조물 앞에서 크리스는 잠시 경례자세를 취하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뒤늦게 예를 차려 환영의 말을 전하던 그는 문득 생각난 인물에 힐긋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보다 아샤녀석이 안 보이는데... 아냐, 안 온 게 다행일지도.’

옆에 있던 다른 기사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아나샤에게는 미안하지만 새 단장님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난리치던 게 불과 며칠 전이라 다들 조금은 불안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나샤는 취임식이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리히르트는 단장실에 도착해서야 겨우 혼자가 될 수 있었다. 수도에 입성하는 것조차 꽤 빠듯한 일정이었다. 거기다 기밀임무까지 수행해야했으니 쌓인 피로가 상당했다.

그는 황실의 인장이 새겨진 검을 책상 옆에 기대어놓았다. 그리고 마호가니 책상 위에 한 손을 얹어두었다. 항상 앉으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강박에서 생긴 습관이었다.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은 없는 것 같았다. 리히르트는 깊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취임식에는 그날 본 여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었다. 하나같이 사내뿐이었으니 만약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을 터였다.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챙겨온 머리핀은 여전히 그의 품속에 있었다. 왠지 모를 허무감이 들었으나 그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은 버리면 그만일 텐데 말이다.

“부단장 칼리프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때, 노크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곧바로 허가하자 문이 열리며 취임식에서 보았던 검은 머리의 사내가 안으로 들어섰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기사단장 칼리프 뮌베르트입니다.”

정중하게 머리 숙여 인사한 칼리프는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들고 있던 가죽 서류철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서 이어 말했다.

“오전 중으로 간단한 서류 몇 개가 올라갈 겁니다. 오늘은 그것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결재만 받으면 되는 서류이기에 아래쪽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칼리프는 생각에 잠겨있는 듯한 새 기사단장을 바라보았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시키실 일은 언제든 제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여성인 기사는 없는가?”

“네? …여성 말씀이십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칼리프는 자신도 모르게 굳은 얼굴을 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어느 인물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여성인 기사는 없습니다만…, 이곳에 소속된 첩자는 있습니다.”

칼리프는 빠르게 굳은 표정을 갈무리하고서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제 대답이 마음에 안 든 것인지 그는 무거울 만큼 긴 정적을 지켰다.

이에 칼리프는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생각을 엿보기 힘들 만큼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그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것은 확실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체감상 2분은 흐른 것 같았다. 굳게 다물려 있던 그의 입술이 열렸다.

“왜소한 체구에, 머리길이는 단발로 검은 머리의 여성이었다. 혹시 내가 말한 인상착의와 동일한가?”

“…첩자이다 보니 얼굴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저도 얼굴은 잘 몰라서 찾으시는 여성이 맞는지는 모르겠군요.”

사무적으로 대답했으나 하마터면 크게 사레에 들릴 뻔했다. 그는 정확히도 자신이 생각한 그 인물에 대해 묻고 있었으니 말이다.

“혹시 무슨 연유로 그 여인을 찾으시는 건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서늘하다 못해 냉기가 흐를 것 같은 얼굴은 상념에 잠긴 지 오래인 것 같았다. 칼리프는 조용히 묵례한 후 단장실을 벗어났다. 그리고 복도로 나오자마자 어딘가를 향해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오 분 뒤, 기사단 연무장.

“아나샤 경!”

허옇게 사색이 된 칼리프가 냅다 연무장에 쳐들어와 외친 말이었다. 훈련 중이던 기사들은 일제히 검을 내리고 그를 바라보았다. 누구보다도 품위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그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아나샤…, 아나샤 경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샤야 뭐, 지금쯤 방에서 자고 있겠죠?”

이마의 땀을 닦으며 마브릭이 대답했다. 그 말을 들은 칼리프는 곧바로 몸을 돌려 연무장을 벗어났다. 그 모습이 흉흉해 말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나왔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기사단 내에서 제일 날랜 아나샤라면 알아서 잘 도망치겠지 하는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한편, 숙사에 도착한 칼리프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복도 맨 끝에 위치한 방문을 열었다.

벌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아나샤는 놀라 눈을 떴다. 누군가 성큼성큼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눈을 비비며 상체를 일으키자 아주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부단장님이 왜 내 방에 있는 거지?’

설마 꿈인 건가싶어 가늘게 실눈을 뜬 채 그를 응시할 때였다. 다가온 칼리프가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았다.

“또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무, 무슨 사고를 쳤다고 그래요! 나 오늘 가만히 있었는데!”

억울함에 아나샤는 대뜸 소리쳤다. 그야 자신이 오늘 한 것이라고는 지금 일어난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럼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알며, 왜 당신에 대해 묻는 겁니까!”

“나에 대해 물었다고요?”

아나샤는 순간 자신이 잘못들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 하지만 진지한 그의 얼굴을 보건데 자신이 옳게 들은 게 맞는 것 같았다.

“나를 어떻게 알고요? 아니 왜, 아니…,”

당혹스러운 건 아나샤도 마찬가지였다. 설명을 요구했지만 그는 자신을 의심하는 눈길로 저를 뚫어져라볼 뿐이었다.

“나 아무것도 안했어요! 취임식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의 인상착의를 줄줄이 읊는 거냔 말입니다!”

“그거야 나도 모르죠!”

그렇게 외친 아나샤는 정말 답답해죽겠다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칼리프는 그녀의 항변을 믿지 않았다. 이제까지 줄곧 새 단장 취임반대를 외치던 그녀였다. 취임식 전에 새 단장님을 찾아가 무슨 사고를 저지른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자연스레 드는 것이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새 단장님께서 당신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해 얘기한 뒤 매우 심기가 안 좋아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신에 대해 모른다고 둘러댔습니다만. 아나샤 경.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로…,”

계속 이어지는 잔소리에 아나샤는 귀를 틀어막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간 잔소리가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과거에 겪어 잘 알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전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새로 오신 단장님께서는 매우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것도 적들 사이에서 자비 없이 잔혹하기로 말입니다.”

“잔혹하다고요…?”

“네. 그분의 가문에서 대대로 사용되는 고문법을 전문고문 기술자들이 감탄하며 배웠다고 전해질 정도로요.”

아나샤는 딱딱 소리를 내며 깨물던 손톱을 입에서 떨어뜨렸다.

“…손톱을 뽑나요?”

“손톱만 뽑히겠습니까? 손가락을 자르시겠죠.”

순간 섬뜩한 감각이 등허리를 훑고 지나갔다. 아나샤는 곧바로 이불 속에 들어가 심신의 안정을 취했다. 하지만 따스한 이불 속에서도 왠지 등허리는 계속 서늘하게 느껴졌다.

동그랗게 이불을 말고 앉아있는 아나샤를 내려다보던 칼리프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처구니가 없다는 눈빛이었다.

“소리 없이 사람도 죽이면서 고작 손가락에 겁먹은 겁니까? 당신은 참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내 손가락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무섭다구요!”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진 모르겠으나 이미 엎지른 물. …일단 제가 새 단장님의 곁에서 그분이 당신을 찾아서 어떻게 하려는 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그대는 절대 새로

|  |
| --- |

오신 단장님 눈에 띄지 마십시오. 제가 허락할 때까지, 절대. 절-대.”

“안 그래도 피해 있으려고 했거든요.”

‘절대’를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그에게 아나샤는 소심하게 반박했다.

그가 나가자 아나샤는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 머리를 굴렸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 며칠동안 새 단장님의 눈밖에 날만한 일을 저지른 기억은 없었다. 아니 저지르기는커녕, 그와 만날 수나 있었던 건지 의문인 것이다.

‘…정말 나에 대해 어떻게 아는 거지?’

새 단장님이 높으신 대귀족이라는 것은 귀가 닳도록 들었었다. 그런 사람과 자신이 우연이라도 길에서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자신이 귀족들이 다니는 무도회장이나 연회에 갈 리 없으니 말이다. 기껏해야 수도 외곽 시장에나 놀러가는 자신이 그런 대귀족을 어디서…,

‘잠깐.’

아나샤는 가느다랗게 눈을 접었다. 비록 무도회장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귀족처럼 생긴 아름다운 미남자를 만난 적은 있었다. 거기다 그는 검술 실력까지 뛰어났었다.

앞뒤가 착착 맞아떨어지는 기분에 팔등 위로 살짝 소름이 돋았다. 단번에 머리를 베어내던 모습은 솔직히 좀 잔혹하긴 했었다. 웬만해선 그렇게 잘 안 죽이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던 남자의 말까지 떠오르자 아나샤는 벌떡 몸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아나샤는 서둘러 침대 아래로 내려와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창문을 빠져나와 벽을 타고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며 달리던 그녀는 이윽고 본관 지붕에 도착할 수 있었다.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리고 단장실의 창문 위에 매달려 슬그머니 창문 안을 훔쳐보았다.

뒤집어진 풍경 속에 새하얀 백금발의 남자가 앉아있었다. 금색 수가 놓인 근사한 제복을 차려입고 단장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는 그는 그날 본 그 남자가 맞았다.

‘이럴 수가,’

아나샤는 다시 창문 위로 몸을 숨겼다. 놀란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날 자신이 무례하게 느껴질 만한 행동을 했었는지에 대해 떠올려보았다.

다행히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은 것 같았다. 감히 높으신 대귀족님께 ‘그쪽’이라고 부른 정도? 그리고 검을 버렸다고 ‘미쳤냐’고 말한 정도?

‘하지만 몰랐다고!’

아나샤는 머리를 감싸 쥐고서 끙끙거렸다. 감히 대귀족님을 그쪽이라고 부르고, 미쳤냐고 화를 내기까지 했다. 손가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끼손톱 한 개정도는 뽑힐 지도 몰랐다.

한동안 지붕위에 쭈그려 앉은 채 부르르 몸을 떨던 그녀는 빠르게 몸을 일으켜 그 자리를 벗어났다. 왜 자신을 찾는지, 찾아서 무얼 하려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숨어 지내야겠다고 다짐했다.

기사단에 부임한 지도 열흘째가 되었다.

그동안 리히르트는 쉴 틈 없이 업무에 시달려야만 했다. 넘겨받을 중요한 자료나 밀린 서류들이 섞여 올라오다 보니 일처리는 자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공작령에서 올라오는 업무까지 처리하느라 며칠 째 철야였다.

다행히 오늘은 제 시간에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리히르트는 잠시 하던 일을 내려두고 밖으로 나왔다.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것이 더 익숙한 그로서는 이런 장시간 업무는 맞지 않는 편이었다. 검술 훈련이라도 하며 몸을 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정무를 보기에 적합한 제복차림이었다. 그렇기에 그는 잠시 나와 걷기로 했다.

넓은 복도에는 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었다. 노을빛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복도의 풍경은 고즈넉했다. 오랜만에 찾은 여유였지만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조차 안겨주지 않았다.

그는 공적인 일 외에 다른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어린 나이부터 철저히 가주로서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자라왔다. 사소한 것에 정신적인 소모를 할 여유도 없을뿐더러, 이제는 이것이 너무도 당연해 어떤 것에도 깊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매사에 무관심하다는 것이 옳으리라. 가주나 단장으로서는 완벽한 인물일지는 몰라도 그의 최대의 흠은 바로 이것이었다.

그런 그에게 최근 들어 한 가지 관심이 가는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하면 그날 자신을 도와준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는 분명 스스로를 제5기사단의 기사라고 얘기했지만 소속을 속인 것인지, 아니면 기사가 아닌 것인지 기사단 내에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은 찾을 수 없었다.

유일하게 여성이라는 첩자는 아직 얼굴조차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부단장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 있다고 말할 뿐 첩자가 언제 기사단으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리히르트는 답답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와의 재회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걸은 것인지 창밖은 어두워져 있었다. 리히르트는 걸음을 돌려 왔던 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곧 난관에 봉착했다. 세 갈래로 나뉜 복도 중 자신이 어느 방향에서 왔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았다.

잠시 멈춰 서서 고민하던 그는 우측 복도로 들어섰다. 그리고 묵묵히 걸음을 옮길 때였다.

무언가가 떨어지는 작은 소리가 휑한 복도 위로 울려 퍼졌다.

리히르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복도바닥 위에는 작은 무언가가 떨어져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 들었다. 부서진 호두 껍질조각이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갑자기 떨어졌다고 하기엔 상당히 의심쩍은 물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창밖의 나무를 응시할 때였다. 톡, 하고 조금 더 먼 곳에서 작은 껍질조각이 떨어졌다.

리히르트는 그것이 떨어진 높은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 위에서 일부러 떨어뜨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천장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멈춰서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좀 더 먼 곳에서 천장 타일이 살짝 들리더니 그 좁은 틈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져 내렸다.

이번에도 견과류 껍질조각이었다. 리히르트는 천장 위에 있는 자가 이것들을 떨어뜨려 자신을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했다.

그는 순순히 조각들을 따라 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단장실과 이어지는 익숙한 복도풍경이 나타나자 그는 높은 천장으로 고개를 들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울린 목소리가 복도 안을 채웠지만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다.

“혹시 이곳 첩자입니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천장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물었다. 운명이나 직감은 잘 믿지 않는 그였지만 왠지 저 위에 있는 자가 자신이 찾고 있는 자일 것 같다는 감이 들었다.

혹여 라도 작은 목소리를 놓칠까, 천장 위에서 들려올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단장님!”

엉뚱하게도 대답은 먼 곳에서 들려왔다. 끼어든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입을 다문 채 천장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부단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급하게 처리해주셔야 될 서류가…,”

한걸음에 달려온 행정관은 그의 뒤에 서서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뒤를 돈 기사단장과 마주하고서 그대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상대를 압도할 만큼 서느런 눈이 행정관에게 향했다. 눈이 마주친 그 짧은 시간동안 행정관은 자신이 어떠한 큰 결례를 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온갖 고찰을 해야 했고 말이다.

리히르트는 행정관에게서 시선을 떼고 천장 위로 시선을 옮겼다. 하지만 이미 떠난 것인지 더 이상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거의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와있던 작은 초식동물을 눈앞에서 놓친 소년처럼 그는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물론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겉으론 냉랭한 무표정을 짓고 서있었지만.

잠시 침묵을 지키고 있던 리히르트는 행정관을 뒤로하고 먼저 걸음을 옮겼다. 오면서 주웠던 견과류 껍질들을 수북이 한 손에 쥔 채로 말이다.

“다른 영지에 있는 것이 확실한가?”

다음날 오전, 업무보고를 위해 찾아온 칼리프에게 날아든 질문이 이것이었다. 대체 무슨 잘못을 지었기에 시종 과묵한 기사단장이 아나샤에 대해서만은 집요하게 묻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이해 못했습니다. 무엇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기사단장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 날렵하게 눈치 채었으나 애써 모른 척 그에게 되물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칼리프는 그가 혹시 무언가 눈치 챈 것이 있지는 않은지 빠르게 그를 훑었다.

표정으로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으니 주변에 무언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매의 눈으로 훑어볼 때였다. 넓은 책상 가장자리에 흩어져있는 견과류 조각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기사단 전속첩자에 대한 얘기다.”

“아. 그자라면… 아마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는 기사단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가.”

“네.”

감정이 담기지 않은 벽안 앞에서 칼리프는 매끄럽게 가죽을 당겨 웃었다. 다행히 걸리는 것은 없는지 기사단장은 시선을 거두고서 서류를 넘겨보기 시작했다.

‘후...’

속으로 안도한 칼리프는 용무가 끝나자마자 연무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연무장 근처에서 한가롭게 기사와 떠들고 있는 그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나샤 경!”

나무위에 앉아있던 아나샤는 자신을 부르는 외침에 화들짝 놀라 나무에서 떨어졌다. 물론 깃털이 내려앉는 것처럼 가벼운 착지였다.

“간 떨어지게!”

아나샤는 홱 하고 칼리프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금방이라도 자신을 눌러버릴 것처럼 험상궂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절대 단장님 눈에 띄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을 텐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무서워요.”

아나샤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어딜 도망가려는 겁니까!”

하지만 붙잡혀 다시 코앞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시작되려는 잔소리에 아나샤는 빠르게 입을 열어 항변했다.

“맹세코 새 단장님 눈에 띈 적은 없어요! 저를 봤을 리 없다고요!”

“그 말은 단장님 근처에 간 것은 사실인 모양이군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단장님께 그딴 견과류 찌꺼기들을 준 겁니까?”

“찌꺼기라뇨! 제 소중한 식량인데!”

“어찌됐든 말입니다!”

찌릿하고 매서운 눈길이 쏘아지자 아나샤는 주눅 들었다.

“…아무튼 전 천장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길을 헤매는 것 같아서 좀 도와주자 싶어서 그, 견과류를 떨어뜨려서,”

“떨어뜨려서?”

“길을 좀 알려줬을 뿐이에요.”

“알려줬을 뿐?”

기가 차다는 듯한 어조였다. 칼리프는 한손으로 이마를 짚다가 곧 한숨 쉬듯이 말을 이었다.

“오늘 오후에 단장실로 가십시오.”

“네?! 대신 상황 지켜봐준다면서요! 그때까지 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대가 이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변명은 이제 무효입니다.”

“모습 드러낸 적 없다니까요. 그게 난 줄 어떻게 안다고요!”

“상식적으로 첩자가 아니고서야 천장 위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둘러대는 것도 한계인 것 같고, 아무튼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조심성 없는 행동을 탓하십시오.”

후련해 보일 만큼 싱그러운 미소를 만들어낸 칼리프는 그대로 등을 돌렸다. 그의 제복자락을 아나샤는 냉큼 붙잡았고 말이다.

“이렇게 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버리다니, 처음부터 그대를 주운 적도 없습니다!”

“너무해요. 같이 고민해주기로 해놓고서!”

“혼자, 알아서, 잘, 해결해보십시오. 알아들었으면 놓으시죠.”

“못 놔줘요! 내 새끼손톱이 달렸다고요!”

“사이좋아 보이네요.”

한걸음 떨어져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엘빈이 말했다.

“어디가!”하고 아나샤가 외치는 사이, 칼리프는 그녀의 손을 제 몸에서 떼어냈다.

“앗!”

간발에 차로 아나샤는 그를 놓치고 말았다. 쫓아가서 끈질기게 달라붙어볼까 싶었지만 그렇게 해도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다. 오히려 잔소리만 듣고 올 가능성이 컸다. 그렇담 이제 남은 것은,

“엘ㅂ…,”

“미안. 휴식시간 끝나서.”

엘빈에게마저 버림받은 아나샤는 한동안 그 자리에 덩그러니 서있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시무룩해있는 것도 잠시, 그녀는 결심한 듯 발을 움직였다.

기사들의 훈련을 봐주고 단장실로 돌아온 리히르트는 잠시간의 휴식조차 없이 서류를 처리했다. 살짝 젖어있던 백금색의 머리칼이 자연스레 마르고 집중하는 눈빛에도 피곤함이 떠오를 때였다.

마지막 서류까지 전부 처리한 그는 서류철을 덮고 창밖을 응시했다. 슬슬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해가 지기 전에는 만날 수 있을 거라 여겼던 여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였다.

리히르트는 그녀가 기사단의 첩자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기사라 하기엔 많이 왜소해보였던 체구나 감옥 문을 쉽게 열던 모습, 몸놀림이 유난히 날랬던 것을 떠올리면 기사보다는 첩자일 확률이 더 높은 것이다.

그리고 어제, 천장에 있던 자 또한 그녀가 맞을 것이다.

이제까지 기사부단장은 그녀가 이곳에 없다고 했지만, 리히르트는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런 거짓말을 제게 한 이유에는 그녀의 부탁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어제 자신의 앞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도 그렇고, 그녀는 자신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드러내기가 곤란한 건가.’

하지만 스스로를 감춰야했다면 소속을 알려주지 않았어야 옳았다.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그는 무의식중에 책상 위를 톡톡 두드렸다.

그 순간이었다. 갑작스럽게 무언가가 그의 앞에 착,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내렸다. 리히르트도 제법 빠르게 반응했지만 검 손잡이에 겨우 손이 가닿은 정도였다. 만일 적의 습격이었다면 간발의 차로 치명상을 입었을 터였다.

그러나 그는 다른 의미에서 놀라있었다. 검은 천이 눈 밑 아래를 가리고 있었지만 리히르트는 눈앞의 상대가 누군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오해예요! 후, 훔쳐본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놀란 아나샤는 허둥거리다 책상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리히르트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서기도 전에 여인은 잽싸게 몸을 일으키더니 등을 돌렸다.

“제 자리가 원래 이 천장 위라서요. 그럼 저는, 원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려 했으나 뒤에서 자신을 붙잡는 목소리에 아나샤는 딱딱하게 굳었다.

‘설마 알아본 건가…? 목소리도 일부러 깔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지.’

그 짧은 시간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으나 결국 도달한 결론은 하나였다. 엎드려서 빌자.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아나샤가 뒤를 돌아본 순간이었다.

“어…그거.”

바로 바닥에 넙죽 엎드리기로 결심한 것이 무색하게도 아나샤는 어정쩡하게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정확히는 그의 손에는 들려있는 푸른 구슬의 머리핀을 보았다.

“고마워요.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에게서 머리핀을 건네받은 아나샤는 언제 긴장했냐는 듯이 작게 미소를 띠었다.

“엄청 마음에 들어 했던 거였거든요. 사자마자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

“혹시 저 찾으신 이유가, 이거 전해주려고…”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아나샤는 다시 흠칫 하고 몸을 굳혔다. 이제 본론인 건가 싶은 것이다.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르려는 것인가, 긴장해있는 그녀에게 리히르트는 담담히 말을 건넸다.

“그날은 감사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오히려 공작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쪽이라느니, 버릇없게 말해서 죄송해요! 제가 예법이나 그런 거에 많이 무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머리를 숙이고 있던 아나샤는 슬그머니 다시 고개를 들었다.

“공작님이신데요?”

귀족이 예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 마치 물고기가 물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처럼 괴상하게만 들렸다.

부단장 칼리프도 지금이야 조금 풀어지긴 해도 전에는 자신을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날 정도로 예법에 미친 자였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의 사내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수도의 귀족들이라면 몰라도, 저는 그런 것에는 둔한 편입니다.”

그의 말은 진실이었다. 사교계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그는 예법이나 겉치레 따위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휴, 다행이다. 저는 그날의 무례를 벌하려고 저를 찾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엄청 걱정했거든요.”

“무례하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어진 그의 말에 아나샤는 비로소 모든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숨어 다녔던 것을 생각하면 허탈한 기분도 들었지만, 그를 오해한 것에 살짝 미안한 기분도 들었다.

‘좋은 사람 같아서 다행이다.’

아나샤는 그 모르게 살포시 미소 지었다.

“아 그러고 보니, 책상 두 번 두드리는 거요. 모르고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전 단장님과 저의 신호였거든요. 하긴 할아버지가 미리 알려줬을 리 없겠죠.”

그가 조금은 편해지자 아나샤는 그의 곁에서 조잘조잘 떠들어댔다.

“앞으로는 저한테 뭐 시키실 일 있으면 책상을 두 번만 두드리시면 돼요! 어, 그 외에 알려드릴 건, 아! 제 이름은 아나샤 라이나예요.”

“리히르트 폰 웨일그레슬 입니다.”

“저는 편하게 아샤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선 다들 아샤라고 부르거든요. 물론 부단장님 빼고요.”

리히르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딱히 시킬 일이 있을 때말고도 그냥 심심할 때 아무 때나 불러주셔도 돼요. 왜냐면 특별한 임무가 있지 않은 이상은 한가하거든요. 보통 단장실 천장위에 있으니까 언제든 불러주세요!”

말을 끝낸 아나샤는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천장 구멍사이로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뚫려있던 천장의 타일도 원래대로 다시 맞춰놓았다.

리히르트는 그녀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단장님. 식사는 밖에 두고 가겠습니다.”

문밖에서 들려온 노크소리에 리히르트는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시계를 확인했다. 어느덧 정오를 넘긴 시간이었다.

문을 열자 식사가 담긴 트레이가 놓여있었다. 그는 식사를 안으로 가져왔다. 막 식사를 시작하려던 그때 문득 어제 만났던 여인이 떠올랐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천장으로 향했다. 리히르트는 책상 위로 손을 가져갔다. 약간의 망설임이나 고민조차 없이 가볍게 책상을 두드린 순간이었다.

책상에서 조금 먼 거리의 천장타일이 들리더니 어둠속에서 작은 인영이 떨어져 내렸다. 가뿐히 착지한 여인은 어제 보았던 모습 그대로 새까만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뭐든 명령만 내려주세요!”

까만 눈동자엔 열정이 가득했다. 그 눈빛이 부담스러울 만도 할 텐데 리히르트는 미동 없이 무표정했다.

“확인 차 두드려봤습니다.”

“네?”

“용무는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보십시오.”

“아, 아니에요! 그냥 막 불러도 돼요!”

아나샤는 외쳤다. 그러고는 머뭇대면서 몸을 일으켰다.

“벌써 점심시간인가 보네요.”

이어지는 대화는 없었다. 리히르트 그가 워낙 과묵한데다 남과 대화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었기에 둘 사이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리히르트는 식사를 했다. 상대를 앞에 두고 편히 먹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 특유의 무신경함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보통은 상대도 이쯤에서 어색함을 못 견디고 말을 걸거나 돌아가 본다고 할 텐데 그런 무신경은 아나샤도 보통이 아니었다.

“소파 앉아도 돼요?”

책상 위를 구경하던 아나샤가 그에게 물었다. 옛날엔 허락 따윈 받지 않고 드러누웠던 전용소파를 허락 맡고 앉아야한다는 사실에 조금 시무룩한 기분이 들 때였다.

“허락 받을 필요 없습니다.”

들려온 대답에 아나샤는 잠시 제 귀를 의심했다가 그가 취소할 새라 황급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던 리히르트는 문득 든 생각을 입 밖으로 내었다.

“그대는,”

“네?”

“식사는 안합니까?”

“아, 괜찮아요. 사실 저기 위에서 꾸준히 먹고 있었거든요.”

‘무엇을?’하는 물음이 담긴 시선에 아나샤는 부끄럽다는 듯이 허리에 매달고 있던 주머니를 그에게 보였다. 성인주먹만한 주머니에는 견과류와 말린 과일, 육포가 들어있었다.

“조금씩 틈틈이 먹기 때문에 언제든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답니다!”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처럼 기합이 들어간 목소리였다. 그 사이 리히르트는 이틀 전 일을 떠올렸다. 그 많은 견과류 껍질들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길을 알려준 일은 감사했습니다.”

“뭘요.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말하는 건데 그날 몰래 훔쳐본 거 아니에요. 저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복도에 계신 걸,”

아나샤는 조잘조잘 떠들다가 서랍을 여는 그의 행동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손수건에 감싸인 무언가를 꺼내들었는데 곧이어 손수건을 펼치자 그 안에 쌓여있는 견과류 껍질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거 설마…주워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보관했다기보다는 버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난 아나샤는 그에게 다가갔다.

“주세요. 제가 버릴게요.”

감히 대귀족에게 자신이 먹다 남은 쓰레기를 보관하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에게서 손수건 째 건네받은 아나샤는 창문을 열고서 견과류 껍질들을 탈탈 털어내었다.

비싸 보이는 매끄러운 재질의 손수건에게 다 미안할 지경이었다. 아나샤가 깨끗해진 손수건을 돌려주자 그는 그것을 받아들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뭘요.”

‘정말 보기완 다르시네.’

대귀족이면서 예법이나 격식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조금도 오만하게 굴지 않았다. 오만은커녕 오늘만 해도 자신에게 감사인사를 두 번이나 했다.

아나샤는 그가 신기하면서도 조금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마어마한 신분차이 때문에 거리감을 느꼈던 것이 허무해질 지경이었다.

‘친해지면 좋을 텐데.’

새 단장님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다시 소파에 앉은 아나샤는 견과류를 야금야금 꺼내먹으며 그를 관찰했다.

식사를 끝내고 다시 일을 시작하는 그의 모습은 변화 없이 정적이었다. 흐트러짐이라곤 없는 자세로 조용히 손과 눈만 움직이고 있었다.

보는 사람마저 마음이 고요해지는 풍경에 아나샤는 절로 터져 나오는 하품을 참느라 고될 정도였다. 배도 부르고 딱 졸리기 좋은 시간이었다. 새 단장님은 일하느라 바빠 보였다. 잠깐 눈을 붙여도 모를 것 같았다.

아나샤는 무거워진 눈을 감았다. 하지만 딱 5분만 자야겠다는 다짐이 무색하게도 깊이 곯아떨어졌다.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지나서 아나샤는 눈을 떴다. 안잔 척하려했지만 이미 옆으로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에 화들짝 정신이 들었다.

아나샤는 곧바로 책상 쪽을 돌아보았다. 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망했다.’

새 단장님과 친해지려는 계획이 물거품 됐음을 그녀는 직감했다. 누구는 일하는 동안 그 부하되는 사람은 한가롭게 낮잠이나 퍼질러 잤으니 눈 밖에 나도 할 말이 없었다.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을 때, 스르륵 하고 허리께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려오는 것이 느껴졌다. 아나샤는 그제야 제 몸을 덮고 있는 큼직한 제복 재킷을 발견했다.

분명 새 단장님이 입고 있던 옷이었다. 아나샤는 그것을 잠시 쥐고 있다가 혹여 라도 귀한 옷에 먼지라도 묻었을까 여러 번 털어서 소파 위에 내려놓았다.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것을 매일 업무책상 위에 두고 가는 자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렸다. 리히르트는 쪽지를 다시 곱게 접어 제 주머니에 넣고서 일을 시작했다.

두 시간 정도 업무를 보고, 한 시간 정도 기사들의 훈련을 봐주고 돌아오자 어김없이 책상 위에는 쪽지가 놓여있었다.

"오늘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리히르트는 무표정하게 쪽지를 챙겼다. 잠시 천장에 시선이 머물렀지만 자리에 앉아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되고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도 그는 쪽지를 보낸 범인의 머리카락 한 올조차 볼 수 없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쪽지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기운차게 하루를 시작해요!"

"오늘은 왠지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우중충하네요. 혹시 우산 안 가져왔으면 부단장님한테 빌리면 돼요. 부단장님 우산 두 개거든요!"

"오늘 아침에 배식으로 나온 사과인데 맛있더라고요. 단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하나 가져왔어요! 드셔보세요!"

쪽지 옆에 놓여있는 새빨간 사과를 집어든 그는 그대로 입으로 가져갔다. 한입 베어 물자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져나갔다.

사과는 몹시도 달았다. 단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였으나 특별하게도 그는 맛있다는 생각을 했다. 잠시 사과를 더 맛보던 그는 뒤늦게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거기 있습니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달그락 거리는 소리와 함께 타일이 들리며 머리가 불쑥 내밀어졌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앞에 착지한 아나샤가 경례자세를 취해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사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딴청을 부렸다.

“저도 방금 막 도착한 참인데 그게, 우연이네요. 하하.”

“이건 고맙습니다.”

“...저란 거 언제 눈치 채셨어요?”

아나샤는 그의 시선을 피하며 볼을 긁적거렸다. 숨길 생각은 아니었지만 대놓고 감사인사를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다보니 괜히 머쓱해졌다. 물론 그것도 잠시, 그의 손에 들린 사과에 시선이 닿자 반사적으로 말이 튀어나갔다.

“그보다 어때요? 맛있죠?”

“네.”

상대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만드는 대답이었으나 리히르트로서는 의도하고 한 말은 아니었다. 그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익숙지 않을 뿐이었다.

“맛있다니 다행이에요. 이번 달이 사과가 제일 잘 익을 시기래요. 맡아보면 향도 되게 달달해요.”

단답 정도로 대화가 끊길 아나샤가 아니었다. 그녀는 방긋 웃었다. 사과를 챙겨온 보람이 있었다.

“앞으로는 굳이 이런 번거로운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에 아나샤는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은 듯한 얼굴을 했다. 곧 표정을 갈무리했지만 어깨가 조금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나샤는 새 단장님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다. 할아버지만큼 친해지지는 못해도 적어도 서로 신뢰할 만큼 가까워지고 싶었다.

과묵한 그를 귀찮게 할까봐 일부러 쪽지로 대신해서 다가간 것이었지만, 이것마저도 그를 귀찮게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제 말은…,”

그때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아나샤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새하얀 금빛 머리카락 아래로 조금 곤혹스러운 듯 눈매를 일그러뜨린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잠시 한숨을 내쉰 후 운을 떼었다.

“쪽지가 아니라 그대와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약간은 부드럽게 풀어진 얼굴이었다. 아나샤는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환하게 벌어지려는 입술을 애써 다잡으며 말했다.

“진짜요? 정말 그래도 돼요?”

“네.”

“제가 틈만 나면 내려와서 엄청 귀찮게 굴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또 말도 많아서 일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자칫 무례하게 굴 수도 있는데도 요?”

“괜찮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깔끔한 대답이었다. 아나샤는 그제야 활짝 웃으며 기쁜 티를 내었다.

“그럼 일단은요! 아직 기사단 건물 전부 돌아다녀본 적 없으시죠?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특별히 지름길이랑 비밀장소도 알려드릴게요.”

새 친구를 사귀어서 들뜬 소녀처럼 조잘대던 아나샤는 뒤늦게 “그럼 점심에 봐요!”하고 외치고서는 단장실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점심, 기사단 별관 복도에 나타난 두 사람에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온 기사들은 일제히 멈춰서야만 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눈을 비비던 마브릭을 선두로, 뒤이어 온 기사들도 따라서 먼발치의 광경을 응시했다.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는 두 남녀가 보였다. 정확히는 한 명만 신나게 떠들고 있었지만.

“…아샤 아니야? 건물안내를 해주는 건가?”

“…그보다 왜 단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야?”

쟤가 왜 저기에 있냐는 물음에 기사들 중 아무도 대답해줄 수 없었다.

매우 기묘한 조합이 아닐 수 없었다. 애당초 ‘그 단장님’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부터가 기묘하다지만.

그동안 기사들이 봐온 기사단장은 상당히 과묵하고 조금의 인정도 기대할 수 없는 메마른 성미의 소유자였다.

전 기사단장 아버트도 왕년엔 기사들을 굴리기로 유명했다지만 그래도 인간미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 기사단장은 인간미가 완전히 소멸된 것 같았다.

훈련 첫날, 무표정한 얼굴로 연무장을 돌라고 지시한 뒤 2시간동안 아무 말 없이 지켜본 사건은 유명했다. 기사들 중 절반 정도가 지쳐 쓰려져서야 “그만.”하고 말하던 그 무감정한 얼굴은 악마나 다름없다고 기사들은 생각했고 말이다.

훈련 중에도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활발한 분위기를 띠던 기사들이 그가 나올 때마다 누구 하나 죽어나간 것처럼 칙칙한 분위기를 띠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냉한 벽안이 닿을 때마다 기사들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스레 오금이 저렸다. 차라리 불만사항이 있다면 말로 해줬으면 좋을 만큼, 그는 말이 없어서 더 무섭다는 말을 아주 혹독한 예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다행히 멀리 보이는 그는 훈련 때보다는 조금 풀어진 표정이었으나 그럼에도 특유의 차갑고 무심한 느낌은 지울 수 없었다.

“저럴 때보면 아샤도 참 대단해... 아버트 단장님 앞에서도 곧잘 어리광부리곤 했다지만.”

입담이라든가, 붙임성이라든가. 어떻게 저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혼자 떠들 수 있는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실수를 안해야 될 텐데.”

마치 혼자 심부름을 보낸 아이를 몰래 지켜보는 부모 같은 심정으로 그들은 한동안 복도 벽 뒤에 숨어 아나샤를 지켜보았다.

평소와 달리 리히르트는 제복이 아닌 가벼운 차림으로 연무장에 나와 있었다. 기사들과 직접 대련하기 위해서였다.

“혹시 무례가 되지 않는다면, 단장님의 검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영광을 제게 주시겠습니까?”

처음 나선 자는 기사단 내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대장이었다. 가르침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나섰으나 젊은 기사단장의 실력이 궁금하던 차였던지라 그의 눈은 호승심으로 타올랐다.

그것을 읽어낸 리히르트도 쉽사리 봐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담담한 시작이었으나 막상 검을 겨루자 분위기는 돌변했다.

노련한 분대장의 검은 이기기 위해 전력으로 휘둘러졌다. 훈련을 빙자한 대련이었으나 두 사람의 검 사이로 전장에서나 흐를 법한 살기가 오갔다. 대련은 십 분간 지속되었다. 흙먼지 속을 구르면서도 멈추지 않는 두 사람의 치열한 대련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으나, 분대장이 어깨에 피를 보면서 끝이 났다.

스치듯이 베인 상처에 불과했지만 분대장은 만일 대련이 아닌 실제 전투였다면 팔 하나는 떨어져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찔한 생각을 해야만 했다. 그 대련을 지켜보았던 기사들 또한 머릿속이 아찔하긴 마찬가지였다.

그 뒤로도 다른 기사들과의 대련이 이어졌으나 전부 승을 가져간 리히르트였다. 그는 승부가 나기 무섭게 깔끔히 검을 거뒀지만, 그와 상대한 기사들이 느꼈던 위압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대련을 마친 리히르트는 연무장 뒤편에 위치한 수돗가로 향했다. 흙먼지와 땀을 씻어 내리고 손으로 머리의 물기를 털어내려는 그때 그의 머리위로 수건이 내려앉았다.

리히르트가 고개를 들어 상대를 확인하기도 전에 발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단장님이 다 이겼다면서요? 아까 오다가 들었어요.”

아나샤는 나무위에서 사뿐히 뛰어내려 그의 옆에 착지했다.

“언제 저랑도 대련해주시면 안돼요?”

“…대련 말입니까?”

“네! 솔직히 장검이랑 싸울 때 제가 좀 불리해서 전투연습을 틈틈이 해놓고 싶어서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한치 앞도 모르는 거잖아요.”

첩자는 직접 적을 상대하기보다는 적의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직업이라지만, 아나샤는 호오옥시 모르는 일이라며 그에게 연거푸 설명했다.

“이참에 장검도 배워볼까 싶기도 하고요. 예전에 할아버지한테도 부탁해봤는데 저한테는 무거워서 안 된다나, 뭐라나.”

툴툴 대던 아나샤가 그의 검으로 시선을 옮겼다.

“단장님 검 한번만 휘둘러봐도 돼요?”

리히르트가 끄덕하고 괜찮다는 의사를 보이자 아나샤는 냉큼 그의 검을 집어 들었다. 손잡이를 두 손으로 붙잡고 힘껏 휘둘러댔으나 점점 팔에서 힘이 빠지자 도로 내려놓아야만 했다.

“엄청 묵직하네요. 단검만 써야 되나…,”

“얇고 가벼운 소재로 된 것을 쓰면 될 겁니다.”

수건을 쥔 리히르트가 젖은 머리칼을 털어내듯 닦아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흡사 비라도 맞은 듯 흐트러진 모습이었지만 이 모습마저 뭇 여성들에겐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단검보다는 중간 길이의 검을 사용하는 게 전투에 더 용이할 겁니다.”

“오. 중간 길이면 휴대하기도 괜찮을 것 같고, 봉급 나오면 사야 될까 봐요.”

물론 그의 모습보다는 검 얘기에 눈을 빛내는 아나샤였다.

두 사람은 집무실로 걸어가며 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대화의 8할은 아나샤가 담당했지만, 그에게서 2할의 대답을 이끌어내었다는 것만으로도 예전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었다.

단장실에 도착한 리히르트는 제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뒤따라 들어온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아. 나가있을게요. 다 입으면 말해주세요!”

아나샤는 서둘러 문을 닫고 나가주었다. 문밖에서 몇 분을 기다렸을까. 충분히 다 갈아입고도 남을 시간일 텐데 이상하게도 안에선 들어오라는 말이 없었다.

설마 자신을 잊은 건 아닌지 문득 불안함이 들자 아나샤는 문에 대고 그를 불렀다.

“단장님? 저 들어가도 되죠? 들어갑,”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아나샤는 고개를 들었다. 동시에 그와 마주한 까만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연무장에 있는 동안, 계속 단장실에 있었습니까?”

“소파에 누, 아니 앉아있었어요. 왜요?”

“책상 위에 올려둔 브로치가 사라졌습니다.”

“네?”

금방이라도 아나샤의 두 눈은 튀어나갈 것만 같았다. 그야 정황상 자신이 가장 의심받을 입장이었으니 말이다.

그녀는 곧장 그를 지나쳐 단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책상 밑에 떨어져있지는 않을까 책상 아래에 기어들어가 살펴보았으나 브로치는 보이지 않았다.

“그 은색 브로치 말하는 거죠? 정말 책상 위에 둔거 맞아요?”

리히르트는 이미 책상 주변은 모두 살펴보았다고 얘기했다. 브로치를 따로 빼두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던 것이 고작 2시간 전이었다. 헷갈릴 리가 없는 것이다.

“혹시 많이 비싼 거예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겁니다.”

그는 담담히 얘기했지만 듣는 입장은 달랐다. 그가 공작이면, 전 공작님은 돌아가셨다는 얘기일 텐데 즉 유품이란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아나샤는 책임을 느꼈다. 브로치에 발이 달리지 않은 이상 자신이 수건을 전해주러 간 사이 누군가가 침입해 훔친 것 같았다. 자신이 단장실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약간의 가책이 들었다.

그가 자신을 꾸짖기는커녕 의심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더 그랬다. 자신을 의심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는 정말 한 점의 의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사람이 착하다고 해야 될지...’

기사들이 들었다면 기함할 생각을 하며 그를 바라보던 아나샤는 고개를 돌렸다. 혹시나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작은 증거가 떨어져있진 않을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일단 기사들은 아니었다. 다들 연무장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몰래 빠져나올 순 없었을 테다.

‘외부인이 침입한 건가? 아니면…,’

그때였다. 창가 아래에 떨어져있는 검은 깃털이 눈에 들어온 것은. 아나샤는 검은 깃털을 주워들었다. 열려있던 창문,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반짝이는 브로치, 마지막으로 창문아래 떨어져있는 까마귀 깃털.

“까마귀, 까마귀가 물어갔나 봐요!”

까마귀가 반짝이는 것을 물어가는 습성이 있다고 어디서 들은 적이 있었다. 제 추리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아나샤는 곧바로 창문을 타넘어 나무 위에 올라섰다.

“찾으러갔다 올게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당장 근처에 있는 둥지란 둥지는 모조리 다 뒤져보려던 아나샤는 그의 말에 그 자세 그대로 멈췄다. 아나샤는 뒤를 돌았다. 자신이 잘못들은 건가 싶어 그의 얼굴을 살폈으나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얼굴이었다.

“이런 사사로운 일로 그대가 움직일 필욘 없습니다.”

"네...?"

“애초에 그대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잖아요.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제게도 사적인 일일뿐입니다. 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몹시 차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중하다 못해 좀 딱딱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아나샤는 그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일 줄은 몰랐다.

“단장님은...뭐랄까 정이 없네요.”

돌아서려던 걸음을 멈춘 채 리히르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감정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그새 털어낸 것인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아나샤는 아까 이미 그의 얼굴을 본 후였다. 처음 보는 다급해 보이는 얼굴이었었다. 왜 그러냐고 반사적으로 물어봤을 정도로.

“임무도 없어서 저 진짜 시간도 남아돌고 할 일도 없어요. 아침부터 계속 소파에 앉아있던 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아나샤는 나뭇가지 위에 걸터앉아 그를 내려다보았다.

“단장님은 바쁘니까 찾을 시간도 없고 바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많은 제가 대신 찾아드릴게요.”

“하지만 그렇게 할 이유가 그대에겐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얻을 이득도,”

“정이요.”

또렷하게 들려온 말에 리히르트의 푸른 눈동자가 미묘하게 커졌다.

“제가 무사히 브로치를 찾아오면 저에게 정을 주세요.”

불어오는 바람에 짧은 단발머리가 흩날렸다. 아나샤는 그와 눈을 마주친 채 말을 이었다.

“할아버, 아니 예전 단장님과는 거의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뭐, 가족이나 다름없죠. 임무가 없을 땐 종종 심부름도 하고, 어깨가 결린다고 하면 어깨도 주물러줬어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나샤는 작게 웃었다.

“단장님이 도와달라고 하면 전 도와줄 거예요. 어떤 사소한 것도, 개인적인 것도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처음 만났을 때도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그녀의 입에서 조금은 툴툴대는 말투가 흘러나왔다. 그때 일은 없는 셈치고 차갑게 선을 긋는 그가 조금은 괘씸해진 것이다.

“새삼스럽지만 저는 단장님이랑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요. 앞으로도 딱딱하게 공과 사니 따지면서 지내고 싶지도 않고요.”

“...”

"그러니까 도와드려도 되죠?"

그 말에 리히르트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다. 공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이제껏 누구도 자신의 곁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었다. 오히려 눈치를 살피거나 불편해하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로 자신은 남들에게 있어서 대하기 힘든 유형인 것이다.

그렇기에 친해지고 싶다는 그녀의 말이 지극히 낯설게만 느껴졌다.

낯설음은 곧 두려움으로 이어졌다. 뭐든지 간에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것에 손을 뻗기란 어려운 법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마음은 정해져있었단 듯이, 망설여도 그는 결국 운을 뗄 수밖에 없었다.

“...부탁하겠습니다.”

솔직한 그의 대답에 아나샤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눈을 접었다. 그러곤 벌떡 나뭇가지 위에 서서는 곧바로 위에 달린 가지를 붙잡았다. 눈 깜빡할 새에 사라진 그녀였지만, 리히르트는 한동안 창가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나샤는 반짝이는 것들을 모조리 모아 본관으로 돌아왔다. 건물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눈에 잘 띄는 곳에 반짝이는 것들을 놓기 시작했다.

나무위로 올라간 아나샤는 아래를 주시했다. 유인할 미끼도 있겠다, 곧 범인이 나타날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오산이었다. 세 시간이 넘도록 까마귀 한 마리로 볼 수 없었다. 해가 기울어지고 지면이 붉게 물들어갈 때쯤 주변 수풀에서 파스스, 소리를 내며 작은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애옹.”

새하얀 털의 고양이가 나무 아래에서 길게 울었다. 가끔 기사단에 나타나기에 놀아준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아나샤만 보면 쓰다듬어달라고 울어댔다.

“안 돼. 저리가.”

“애옹- 애옹.”

“어허!”

“애옹.”

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나무 밑동을 긁기 시작하자 아나샤는 하는 수 없이 나무 아래로 내려와야 했다.

“쓰다듬어 주니까 기분 좋아?”

아나샤는 제 손에 머리를 부비며 그르렁거리는 고양이를 내려다보았다. 털 상태가 깔끔하다 못해 윤기가 흘렀다. 역시 주인이 있는 모양이라고 여기며 엉덩이를 두드려줄 때였다.

까악, 하고 긴 울음소리가 아나샤의 머리위에서 울려 퍼졌다.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날아온 까마귀는 곧바로 반짝이는 물건이 놓인 땅에 내려섰다. 그리고 부리로 물고 재빠르게 하늘위로 날아올랐다.

“아!”

아나샤는 쭈그리고 있던 몸을 일으켜 까마귀를 뒤쫓았다. 홀로 남게 된 고양이는 그 자리에서 애옹하고 한번 울다가 다시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창밖에선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리히르트는 하던 업무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손을 가져갔다. 톡톡 하고 두 번 두드렸으나 천장에선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에서 불쑥 나타나는 여인의 모습에 완전히 익숙해져버린 것인지 잠잠하기만 한 천장이 문득 낯설게 느껴졌다. 매 시간마다 그녀가 오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있는 스스로도 말이다.

리히르트는 한숨을 삼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술렁이며 자꾸만 초조한 기분이 드는 것이 업무를 보기엔 틀렸다고 여겼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에서 비를 맞고 있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던 것이 사흘 전이었다. 아직까지도 브로치를 찾고 있는 것인지 그녀는 그 뒤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유품인 그것은 자신에게 있어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건 제게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다.

리히르트는 그녀에게 부탁한 것을 후회했다. 찾더라도 자신이 직접 찾는 것이 옳았다.

혹여라도 비를 맞고 있지는 않을지. 차라리 이만 찾기를 포기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다. 동시에 무엇이 이렇게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다.

‘정이라...’

그녀가 제게 했던 말을 떠올리며 리히르트는 창문 유리에 맺힌 빗방울을 바라보았다. 이윽고 소리 없이 미끄러져 내린 빗방울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으나, 답지 않게 긴 고민에 잠긴 그는 그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

저녁에 가까워진 시간이 되어서야 아나샤는 눈을 떴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그친 것인지 방안엔 노을빛이 내려앉아있었다. 눅눅한 습기를 털어내듯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난 그녀는 나갈 준비를 마쳤다.

이틀 동안 수도를 돌아다니며 눈에 띄는 까마귀란 까마귀는 모조리 쫓아다녔으나 브로치를 찾을 순 없었다. 오늘 아침엔 비가 와서 수색이 힘들 것 같아 퍼질러 잤다지만, 덕분에 체력은 쌩쌩했다.

아나샤는 성곽을 지나 외곽으로 나왔다. 웬만한 수도 안은 다 뒤져봤으니 이제 외곽만 남은 것이다.

수도 외곽을 돌아다니던 아나샤는 거의 해가 진 뒤에나 까마귀를 찾을 수 있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를. 고목나무 위에 한데 모여 앉아서 깍깍 대고 있는 까마귀들의 모습은 으스스한 기분마저 들게 했다.

아나샤는 곧장 나무를 타고 올라 나뭇가지마다 놓여있는 둥지들을 살펴보았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까마귀들의 공격까지 막아내느라 시간은 더 지체되었다.

이중에 하나는 있겠지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전부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끝내 브로치는 찾을 수 없었다.

그때, 가장 높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날아올랐다. 아나샤는 곧장 까마귀의 뒤를 쫓았다. 벽을 기어올라 지붕 위를 내달리며 최대한 가깝게 까마귀의 행적을 쫓았다. 날지만 않을 뿐 거의 날아다닐 정도의 빠른 속도였다.

서쪽을 향해 날아가던 까마귀는 어느 집의 굴뚝위에 내려앉았다. 그리고는 몇 번 기웃하더니 굴뚝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아나샤는 낡은 지붕에 올라서서 굴뚝 안을 살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인지 굴뚝에서는 연기는커녕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새까만 굴뚝 안에서는 희미하지만 새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이곳에 둥지를 튼 모양이었다.

아나샤는 천천히 굴뚝 속으로 내려갔다. 밑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이 두려울 만도 할 텐데 그녀는 익숙하다는 듯 어둠을 손으로 훑었다. 두 발로 벽 안 쪽의 틈을 찾아 밟아 내려가며 두 손은 좁은 굴뚝을 꽉 붙잡았다.

얼마나 더 내려갔을까 희미하던 울음소리가 더 가깝게 들려왔다. 아나샤는 어둠에 적응한 눈으로 자신의 왼발 아래에 깊은 홈이 자리 잡은 걸 발견할 수 있었다. 그곳을 피해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 내려가자 홈 속에 만들어진 작은 둥지가 보였다.

‘브로치다!’

나뭇가지와 함께 얼기설기 모여 있는 잡동사니 가운데 은색의 브로치가 보였다.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브로치로 손을 뻗었다.

그 순간 까악 하고 아나샤의 얼굴을 향해 까마귀가 사납게 부리를 벌렸다. 아나샤는 재빠르게 브로치를 움켜쥐는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중심을 잃고 굴뚝 아래로 떨어졌다. 다행히 가까스로 두 팔과 다리를 펼쳐 굴뚝바닥에 세워진 쇠꼬챙이에 찔리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아슬아슬했다...’

십 년은 감수한 얼굴로 아나샤는 조심스레 쇠꼬챙이를 피해 굴뚝 아래로 기어 나왔다. 역시나 폐가인지 드러난 집안 풍경은 누가 살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빠져나온 그녀는 곧장 기사단으로 돌아갔다.

늦은 저녁쯤이라 생각했으나 꽤 늦은 시간인지 단장실의 불은 꺼져있었다.

아나샤는 바로 기사단 숙사 건물로 향했다. 벽을 타고 단숨에 3층까지 올라간 그녀는 왼쪽 다섯 번째 창문을 두드렸다.

“삼촌! 삼촌! 자?”

“...이럴 때만 삼촌이지? 왜 무슨 일인데?”

“단장님 사는 곳이 어딘지 알아?”

자다 일어난 얼굴로 창문을 연 크리스가 여전히 감긴 눈으로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그 어디냐, 호레이슨 50번가, 그 남쪽거리에 유명한 백작저택 있고 거기서 더 가면 휑한 숲 하나 보이잖아. 거기 너머에 네가 예전에 성 같다고 했던 큰 저택 기억나? 거기서 머무른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그보다 너 꼴이 왜 그,”

“고마워!!”

눈을 뜬 크리스가 경악에 차 묻기도 전에 아나샤는 잽싸게 바람처럼 사라져버렸다.

수도 남쪽에 위치한 웨일그레슬 공작가문의 저택은 거의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전 공작이 일찍이 타계한 후 그 뒤를 이은 리히르트가 줄곧 직할령에서만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인들의 부지런한 관리 덕에 저택은 주인이 언제 돌아와도 될 만큼 깨끗하고 호화로운 상태였다. 은과 금으로 장식된 자기와 황실의 가구에 버금가는 고급스런 가구들, 샹들리에 아래 반질거리는 넓은 바닥마저 하나하나 세심한 손길들이 닿았다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리고 이 저택의 주인 리히르트는 야심한 시각 홀로 집무실에 앉아있었다. 사적인 공간이라 린넨 셔츠와 면바지의 간편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럼에도 옷매무새에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영지에서 올라온 서류를 확인하는 중이었다. 얼마나 집중한 채 앉아있었을까. 리히르트는 똑똑하고 들려온 작은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이 아니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창문이었다.

달도 뜨지 않아 어두운 창밖에는 작은 실루엣이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일단 이곳은 4층이었다. 이 높이를 자유자재로 다닐 사람은 그가 아는 한 한명밖에 없었다. 리히르트는 창가로 다가가 잠긴 창을 열었다.

“단장님. 약속한대로 찾아왔습니다!”

기다렸단 듯 불쑥 나타난 아나샤는 해맑게 브로치를 그의 앞에서 흔들어보였다.

리히르트는 무표정했지만, 되찾아온 브로치보다는 그녀의 모습에 더 놀란 참이었다. 새어나오는 방의 불빛을 고스란히 받은 여인의 모습은 상당히 많이 엉망이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옷의 팔꿈치부분은 찢어져있었다.

할 말을 잃은 듯한 그를 대신해 아나샤는 한발 먼저 운을 뗐다.

“약속한 대로 정 주셔야 해요. 발뺌하기 없기에요?”

리히르트는 브로치를 건네주는 그녀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았다. 그가 한참동안 받지 않고 가만히 서있자 아나샤는 손끝으로 시선을 내렸다.

방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받은 제 손의 상태는 상상이상으로 더러웠다. 굴뚝 안에서 묻은 건지 손끝도, 손등도 까만 재가 덕지덕지 묻어있었다.

“...헉, 죄송해요!”

그제야 그가 왜 브로치를 받지 않은 것인지 납득이 갔다. 아무리 다른 귀족들과는 달리 지저분한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하더라도 이런 손으로 전해주면 꺼려지는 게 당연할 테다.

아나샤는 자책했다. 어둠 속에 있느라 못 본 것도 있지만, 들뜬 마음에 확인을 하지 않은 제 실수였다. 빨리 전해줘서 톡톡히 칭찬받으려던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이었다.

“진짜 죄송해요. 가져오다가 묻었나 봐요. 저..., 이건 여기다 놔둘 테니까,”

“고맙습니다.”

“네...?”

뜻밖의 말에 아나샤는 황당하다는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내 소중한 물건을 더럽혀줘서 참 고맙다’라는 비꼼일까 싶어서였다. 그러나 그는 여느 때처럼 정중함이 묻어나는 단정한 얼굴이었다.

“그대에게는 항상 도움만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옷이 찢어졌는데 어디 다치지는,”

멍하니 그의 말을 듣던 중이었다. 몸의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덩달아 풀린 손힘에 브로치가 떨어졌다.

아나샤는 반사적으로 브로치를 낚아채기 위해 몸을 숙였다. 허공에서 브로치를 잡아챈 그 순간 강한 악력이 그녀의 한쪽 팔을 붙잡았다. 곧이어 굵은 팔이 허리를 와락 낚아채듯이 안았다.

“...?”

아나샤는 흡사 엄마 품에 매달린 아이처럼 창문턱에 앉혀져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크게 눈을 키웠다.

“...악!! 단장님 옷이!”

비싼 재질의 하얀 셔츠위에 지저분한 재가 얼룩덜룩 번져있었다.

“괜찮습니다.”

“그치만 엄청 시커멓게 묻었는데요? 진짜 죄송해요. 빨면 지워질까요...?”

물어줘야 하나, 낭패한 얼굴로 옷 상태만 묻는 아나샤는 들을 생각이 없어보였다. 덕분에 리히르트는 재차 입을 열어야만 했다.

“저는 괜찮지 않은 걸 괜찮다고 말할 성격이 못됩니다. 옷이야 갈아입으면 될 일입니다.”

“…단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해주니까 저도 마음이 조금 놓이네요.”

아나샤는 그의 대답에 머쓱한 기분이 들었다. 하긴 공작님씩이나 되는 사람이 옷 하나 버린 것에 크게 신경을 쓸 리 없는 것이다. 똑같은 걸로 다시 사면 될 테니 말이다.

“아무튼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브로치는 한번 깨끗이 씻으세요. 폐가 굴뚝 안에 있었거든요.”

할 말을 마친 아나샤는 그에게 브로치를 전해주고서 몸을 일으켰다. 아니 일으키려 했다.

“그럼 내일, 저 단장님...?”

“밤이 늦었습니다.”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손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이대로 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객실을 내어줄테니 자고 가십시오.”

“객실이요? 제가 감히 그런 곳에서 자도 될는지... 보다시피 몸도 지저분한데.”

“목욕 시중을 들 자를 붙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요! 욕실만 빌려주세요. 그냥 제가 씻을게요.”

얼떨결에 아나샤는 그의 제안을 수락해버리고 말았다. 뒤늦게 아차 싶었으나 피곤하기도 하고, 언제 또 이런 호화로운 저택에서 머물러볼까 싶으니 편하게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곧바로 저택의 시녀에게 객실을 안내받은 아나샤는 가장먼저 욕실로 들어갔다. 따스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넓은 욕조 안에 눕자 천국이 따로 없었다.

‘사흘 동안의 고생을 이렇게 보상받는 구나.’

이런 보상이면 까마귀 둥지 뒤지는 일을 매일 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여러 차례 탁한 물을 흘려보내고 깨끗해진 상태로 욕실을 나온 아나샤는 시녀가 가져다 놓은 잠옷으로 갈아입고 그대로 침대에 뛰어들었다.

푹신하고 보드러운 이불 속에서 아나샤는 금방 잠에 빠져들었다. 내일이 기대되었다.

“...어제 뭐 별일은 없었고? 단장님의 표정이 좀 별로였다거나 널 좀 피하는 것 같았다거나.”

크리스는 별관 식당에서 아나샤를 만나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어젯밤 그녀의 몰골을 직접 목격한 그로서는 걱정이 안 될 리 없었다.

“놀라지나 마시라!”

“역시 뭔 일 있었구나? 그 마음에 담아 두진 말고...솔직히 좀 많이 더러워보였어.”

“나는 오늘부로 단장님이 총애하는 부하가 될 거니까!”

아나샤는 조식으로 나온 사과를 크게 베어 물고서 외쳤다.

“아, 총애...뭐? 총애?”

더럽다고 경멸하지만 않으면 다행이라 여겼던 크리스는 크게 눈을 떴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묻는 말에도 아나샤는 콧방귀만 꿔댈 뿐이었다.

“아침부터 무슨 얘기중이야?”

“아까 총애 뭐라고 하지 않았어?”

“누가 누구를?”

주변에 있던 기사들이 하나둘 흥미를 보이며 물었다. 그러나 아나샤는 마저 남은 사과조각을 입안에 밀어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다란 의문만을 남기고서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단장실로 향했다.

자신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이미 업무를 보는 중이었다.

“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네.”

기합이 잔뜩 들어간 인사에 비하면 김빠질 만큼 단조로운 대답이었지만 아나샤는 마냥 기분이 좋았다.

“그럼 오늘도 힘내시고, 저는 이만!”

“잠시만.”

천장위로 올라가려는 그녀를 리히르트가 불러 세웠다.

“오늘 점심은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식사 말인가요...?”

‘점심’과 ‘같이 먹다’를 조합하여 도출해낸 결과였다. 역시나 점심식사가 맞는지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저야 당연히 좋죠!”

“그러면 식사는 그대 것까지 해서 따로 준비하라 이르겠습니다.”

“네!”

크게 고개를 끄덕인 아나샤는 후다닥 천장위로 올라갔다. 작은 흥얼거림이 천장너머로 들려왔지만 리히르트는 애써 못들은 체 해주었다.

그렇게 점심시간은 약 3시간 뒤에 찾아왔다. 미리 사항을 전달받은 황실 주방장은 두 개의 쟁반을 가져왔다. 책상은 한 사람만 앉을 수 있다 보니 손님응접용 테이블에 식기가 놓아졌다. 기다려왔던 시간인 만큼 아나샤는 들뜬 모습으로 스푼과 포크를 동시에 들었다.

목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을 입은 여자와 잘 차려입은 귀족적 생김새의 미남자. 마주보고 앉은 모습부터가 참으로 묘한 조합이 아닐 수 없었다.

“잘 먹겠습니다!”

아나샤는 푸짐한 식사를 모조리 먹어치울 것처럼 손을 댔으나 실제로 그녀의 접시에는 아기주먹만 한 양이 덜어졌다. 직업상 조금씩 나눠먹는 것이 몸에 아예 뱄기 때문이다.

물끄러미 그녀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던 리히르트가 운을 뗐다.

“그걸로 됩니까?”

“네?”

"활동량에 비해 먹는 게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말입니다. 기사란 체력이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딱 이정도 양이 적당하달까, 아무래도 첩자는 민첩함이 생명이다 보니까요. 체중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젠 습관이 돼서 맛있는 것도 적게 먹게 되네요.”

헤픈 웃음소리가 뒤따랐지만 그는 여전히 진지한 얼굴이었다.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아니라지만 한눈에 봐도 그녀의 팔다리는 가늘어보였다. 조그맣고 날렵한 초식동물도 이렇게까지 마르진 않았을 것이다.

"맛있는 것을 한두 개 더 먹는다고 해서 민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브라운소스가 어우러진 고기요리가 담긴 접시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며 그가 말했다. 아나샤는 그와 접시를 번갈아가며 보다가 슬며시 고기 한 조각을 집었다. 평소보다 과식한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기분은 좋았다.

식사가 끝나자 두 사람은 자연스레 후식으로 차를 마셨다. 그녀가 따뜻한 차를 호호 불어마시는 동안, 리히르트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는 눈이었으나 그는 깊은 고뇌에 차있는 중이었다.

“무슨 생각하세요?”

남들보다 감각이 배로 예민한 아나샤는 그것을 자연스레 읽어내었다. 갸웃하며 그를 마주보자 그제야 리히르트는 느리게 운을 뗐다.

“정을 주는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는 사람 사귐에 많이 서툰 편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대와 가까워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나싶더니 정말이지 답지 않은 귀여움이었다. 아나샤는 입술을 꾹 다물어 튀어나오려는 웃음을 참아내야 했다.

“그러니 그대가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하신 거였어요? 약속대로 정 주려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대가 원하던 것과는 달랐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솔직히 엄청 기뻐요. 약속 지켜주시려고 고민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아나샤는 슬금슬금 기어 나오려는 웃음을 해맑은 표정으로 바꾸었다.

“그보다 정말 남한테 정을 준 적이 없어요? 진짜 정 없이 살았나보네요.”

돌려 말할 생각이 없는 입은 직설적이었다. 신기하다는 눈으로 아나샤는 그를 직접 훑어보기까지 했다.

“단장님이 준적은 없어도 다가온 사람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야 단장님은 좋은 사람이니까요. 특별히 성격이 못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주위엔 늘 사람이 많거든요.”

리히르트는 ‘마치 그대같이?’ 하고 속으로 물었다. 그녀는 자신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지만 오히려 그의 눈에는 눈앞에 있는 그녀가 더 신기했다.

“다가온 사람은 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못해 다 떠나더군요.”

“헉! 그런 사연이...너무 안타깝네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제 발로 떠나갔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런 거라면 뭐.”

언제 슬픈 눈망울을 빛냈냐는 듯이 담담해진 얼굴로 아나샤가 후릅, 차를 들이켰다. 입맛에 맞았는지 얼굴에 밝은 감정이 떠올랐다. 그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변화를 하나하나 눈에 새기듯 리히르트는 그녀를 보고 있었고 말이다.

뒤늦게 아나샤가 감싸 쥐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럼 잡아두고 싶었던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아마 그 인연을 오래 이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리히르트는 생각했다.

전투 중 돌아가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주가 되었을 때가 열넷이었다. 영지와 가문을 다스리는 것으로 유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내었고, 성년이 된 이후부터는 국경지대에 직접 나가 싸웠다. 그것이 그가 일평생 걸어온 길이었다.

“누군가를 신경 쓸 여력도,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눌 시간조차 없이 대부분의 나날이 바빴습니다.”

“힘들었겠네요.”

“힘들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침묵이 깔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칼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리히르트 그가 먼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대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힘듭니까?”

“저요? 음...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확실히 입이 근질근질해서 힘들 것 같아요. 저 근데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요. 제 이름 까먹었죠? 예전부터 계속 저보고 그대라고 해서...”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까먹었다는 말이었다. 아나샤는 역시! 하는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며칠 전 일이기도 하고 워낙 갑작스럽게 시작된 소개라 따로 새겨들을 경황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준다면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제까지 몇 명의 귀족여인들이 그를 지나친지 모른다. 이름이란 곧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렇기에 사교계에서는 상대의 이름을 잊는 것이 대단한 실례였다. 즉 관심이 없다는 말이니까.

하지만 리히르트는 이론적으로만 사교술을 배웠을 뿐 이런 귀족사회에 통용된 상식은 알지 못했다. 수도와는 거리가 멀다보니 황실의 큰 행사가 아니고야 사교계 쪽으로는 잘 참여하지도 않을뿐더러 그럴 여유도 없었다. 사교행사에 직접 참석한 횟수를 세자면 아마 열 손가락은커녕 다섯 손가락 정도 꼽을 것이다.

물론 지금은 대단한 실례라는 것은 숙지하고 있었고, 그 나름대로의 변명까지 첨언한 상태였다.

“다행이다, 사실 저도 까먹었거든요.”

그리고 그보다도 무지한 자가 있었다. 아나샤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밝은 표정을 지었다.

“단장님 이름을 까먹어서 어떻게 또 물어봐야할지 몰랐거든요. 몰래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까 했는데, 단장님도 제 이름을 까먹으셔서 마음이 편하네요.”

“그렇다니 다행입니다.”

“네! 휴~ 역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요.”

리히르트 역시 불쾌하다거나 괘씸하다거나하는 감정은 느끼지 않았다. 그저 잊었다면 다시 외우면 되는 것이라 여겼다.

그때 아나샤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났다. 리히르트는 자신의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민 그녀의 행동에도 당황하지 않고 담담히 자리를 지켰다.

“아샤예요. 다음에도 물어볼 테니까 잊으면 안돼요?”

“이번에는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히...,”

“아! 제가 맞혀볼게요. 왠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

“리히루트! 리히라트? 아니다! 리히리트, 리히리트 맞죠?”

그리고 아나샤는 결국 끝까지 맞추지 못했다.

아나샤는 자칭 ‘총애 받는 부하’답게 매일 그의 주변에 있었다. 딱히 내려진 임무가 없다보니 주로 하는 일은 단장님과 담소 나누기가 되었다.

리히르트도 다른 자들과는 지극히 업무에 국한된 얘기만 짧게 하는 것에 반해 그녀와 있을 때는 일상적인 얘기를 주로 나누었다.

시답지 않다고 할 만큼 사소한 얘기였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보면 대화의 주제에서 어느덧 멀어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만큼 영양가 없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나 이상하게도 그는 이 대화시간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미묘하지만 수다의 즐거움을 알아가고 있는 참이었다.

“네?! 정말요?”

물론 그걸 받아주는 상대가 과할 만큼 잘 받아줘서인 탓도 있었지만. 아무튼 아나샤가 그에게 수다의 묘미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진짜로요? 여기 와서 한 번도 수도구경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네.”

“저번에 휴일도 있었잖아요. 모처럼 수도에 왔는데 둘러보시지! 얼마나 재밌는 곳도 많은데요.”

본인이 더 열을 내며 아쉬워하는 모습에 리히르트는 그저 차분히 물을 뿐이었다.

“어느 곳을 가야 재밌습니까?”

“음, 일단 서쪽에 큰 시내 쪽도 재밌고요. 그 주변에 구경할 거리도 많아요. 그리고 엘레니움 광장이라고 있는데 가끔 악단이 와서 공연도 해요. 아, 시장도 재밌어요!”

누가 보면 여행객을 꼬셔서 한몫을 챙기려는 관광업자처럼 보일 만큼 아나샤는 현란하게 혀를 놀렸다.

“근데 혼자 가시게요?”

“네. 그대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잘 생각했다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곤 비장하게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꼭 가봐야 하는 명소를 제가 지도에 표시해드릴게요. 일정은 휴일날 단 하루죠? 그럼 한 다섯 시간 정도 돌아다닌다고 치면, 음 시장이 나을 것 같아요. 주변에 먹을 거랑 구경할 거리가 많거든요. 제 말대로 다녀온다면 분명 후회하지 않을 걸요?”

“그렇군요. 그대 말대로 해보겠습니다.”

“길은 잘 찾으세요? 지도 보실 줄 아시죠?”

좋다고 추천할 때는 언제고 그녀는 한편으로는 그가 못내 걱정된다는 얼굴이었다. 마치 세 살배기 어린 아들을 물가에 내놓은 어머니처럼 말이다.

“그, 혹시라도 불쌍한 척하면서 돈 달라고 접근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요. 그리고 길거리 공연을 봤다고 해서 무조건 돈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잘 봐서 돈을 내고 싶다면 줘도 되는데 너무 큰 액수는 좀 위험해요. 그런 거 엿보고 있다가 삥 뜯으러 오는 불량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리고 길 알려주겠다고 따라오라고 해도 절대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이해했습니다.”

“단장님은 뭔가 너무, 아니에요.”

곱게 자란 귀족 중의 귀족이라는 이미지가 너무나도 딱 들어맞는 그였다. 예의가 바르고, 청렴결백하고, 남에게 따지기는커녕 조용히 넘어갈 것 같은 심성마저 여린 그였다.

물론 아나샤가 그에 대해 크게 오해하고 있다지만, 그녀의 눈에 비치는 그는 그랬다. 보호해줘야 할 아름다운 사슴 같았다.

“아! 아니면 휴일날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불안해할 바에는 차라리 같이 가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그녀였다.

“제가 길도 안내해드리고 이것저것 소개해줄게요. 어떠세요?”

“이번 달 한 번뿐인 휴일인데 괜찮겠습니까?”

“에이, 저도 한번뿐이면 단장님도 한번뿐인데요 뭘. 그리고 휴일에는 원래 놀러가 줘야하는 거예요.”

그녀의 말에 리히르트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좋다는 뜻을 보였다.

그리고 약속 전날 밤 리히르트는 늦게까지 서재에 있었다. 이전부터 읽어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책들이 그의 책상 왼편에 가득히 쌓여있었다.

책의 제목들은 하나같이 ‘에스코트 이론서’, ‘귀족남녀 간의 만남’, ‘데이트의 기본 매너’로 그가 평상시 읽던 전투서나 관련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종류였다.

사실 리히르트는 이제와 복잡한 심경이었다. 여성과의 사적인 만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감히 공작인 그에게 대놓고 만남을 신청할 여인이 어디 있겠으며, 또 그렇다 해서 쉽게 만나줄 그도 아니었었으니 말이다.

물론 그녀는 그런 이성적인 접근을 원한 게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사전적 의미로는 데이트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으로서 어떤 매너를 갖춰야하는지 정도는 배워둘 필요는 있다고 여겼다.

밤새 남은 책들을 마저 완독한 그는 다음날 아침 시녀들이 준비한 옷을 갖춰 입었다. 따로 신경 써서 준비하라 이른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첫 휴일 외출복에 시녀장이 특별히 신경을 쓴 것이었다.

검은 조끼를 안에 입고 짙푸른 계열의 정장코트를 덧입은 그는 누가 봐도 귀족들의 초대에 응한 사람 같았다.

마차에 오른 리히르트는 미리 말해둔 목적지로 향했다. 작은 시계탑이 서쪽을 향해 세워진 광장거리 앞에서 마차는 멈췄다. 한적한 거리를 둘러보며 그가 세 걸음 정도 내딛은 순간이었다.

어디선가 나타난 작은 무언가가 그의 가슴팍에 부딪쳐왔다. 일부러 인지 오히려 그의 팔을 꽉 잡아채더니 다시 마차 안으로 그를 밀어 넣었다.

리히르트는 얼떨떨한 감정이 가시지 않은 눈으로 제 품에 반쯤 묻힌 것 같은 여인을 내려다보았다. 그때, 아나샤가 팩하고 고개를 들었다.

“세상에! 저희 오늘 시장 간다고 했는데!”

아나샤는 그의 품에서 서둘러 떨어지고선 혹여 라도 누가보진 않았나 창문 밖을 응시했다. 다행히 한적한 거리라 아무도 없었다. 다시 그에게로 고개를 돌린 그녀는 앉아있는 그 앞에 서서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다.

“...이렇게 시장에 가면요. 바로 폭력배들한테 찍혀서 뒷골목으로 끌려가요. 탈탈 털리고 싶으세요?”

“탈탈, 말입니까?”

“저도 한 번 털려봤는데 진짜 숨겨놨던 동전까지 턴다니까요? 아무튼 일단 위에 그 옷 좀 벗으시고요. 바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확실히 셔츠 하나만 입는 게 눈에 덜 띄고 낫네요.”

그의 정장코트와 조끼를 차례로 압수한 아나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벗은 옷들을 마차 소파 한 편에 대충 던져놓고서 그녀는 나가려는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아직 덜 됐어요!”

“...?”

동시에 리히르트의 시야가 비스듬히 가려졌다.

“짜잔, 이제 됐어요.”

방긋 웃으며 아나샤가 그의 머리 위에 암갈색 베레모를 눌러 씌운 것이다.

사실 뭘 입든 간에 그는 너무 눈에 띄는 외양이었다. 잘생긴 얼굴이야 그렇다쳐도 머리마저 무려 백금발이니 말이다. 모자를 챙겨오기 잘했다고 여기며 아나샤는 그 모르게 얕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가요. 놀러.”

손을 잡고 앞장서는 모양새가 흡사 그의 보호자였다. 아나샤는 익숙하게 길을 찾아 걷다가 뒤늦게 제 손바닥 안에서 조금씩 꿈틀대는 긴 손가락들을 눈치 챘다.

”헉, 미안해요. 들떠서 그만생각 없이 잡아버렸나 봐요.”

“...아닙니다.”

색소가 옅은 긴 속눈썹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생각에 잠긴 것 같기도 하고, 차가운 인상 때문인지 몰라도 어딘가 불쾌한 것 같기도 했다. 역시 친하지도 않은데 허락 없이 손을 잡아서 불편했던 걸까? 아나샤는 정말 미안한 얼굴을 했다.

그 티 나는 얼굴에 리히르트는 빠르게 입을 열어 해명했다.

“정말로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편했던 건 아닙니다. 그저...,”

“그저?”

“조금 당황한 탓에...”

이상했다. 손을 잡는 것이면 그저 잡는 것일 텐데, 자신도 모르게 잠시 표정이 굳어버렸으니 말이다. 단지 그녀가 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접촉에 묘한 기분을 느끼는 것도 이상했다. 리히르트는 새삼스레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당황할 만하죠!”

그리고 그런 그의 심각한 내적고민을 아나샤는 한 방에 부숴버렸다.

“저 같았으면 미친놈이 아닌가 생각했을 거예요. 당황할 만해요, 암.”

“그렇습니까.”

그녀가 그렇다니 그런 것이리라, 리히르트는 넘겨짚었다. 더 깊게 생각할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 아나샤는 바로 걸음을 옮겼다.

“여기부터 저어어어기 까지가 전부 시장이에요. 아마 여기만큼 다양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곳도 없을 걸요?”

열 걸음정도 앞서서 걷던 아나샤가 몸을 돌려 뒤따라오던 리히르트를 바라보았다. 하늘색 원피스자락이 둥글게 퍼졌다가 다시 잠잠히 가라앉았다.

“왜 그러세요? 목말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옷차림새에 줄곧 눈길을 두고 있던 리히르트는 숫제 아닌 척 시치미를 뗐다. 하지만 무늬하나 없이 수수한 원피스는 계속해서 그의 눈에 밟혔다.

다시 그의 눈길이 머무르자 아나샤가 대번에 눈치 채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아, 제 옷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하긴 신기할 만도 해요. 삼촌들도 가끔씩 제가 이렇게 입고 나돌아 다니면 못 알아보거든요.”

쾌활하게 재잘거리던 아나샤가 짐짓 눈에 힘을 주었다.

“그치만 저도 원래는 일반적이게 입고 다닌다고요. 이런 밝은 색깔의 샤랄라한 원피스도 좋아하구요. 저희 처음 봤을 때도 원피스 차림이었잖아요.”

“미안합니다. 이상해서 본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더 이상해서 봤다는 말로 들리는데요.”

이상한 것은 본인이라,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리히르트는 입을 다물었다. 그를 올려다보던 아나샤는 다시 먼저 몸을 돌려 앞으로 나아갔다.

“아까의 사과의 의미로 맛있는 거 사주려고 했는데, 흠. 좀 생각해봐야겠어요!”

“사는 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절 위해 일부러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전 그냥 같이 놀려고 온 것뿐이에요. 뭔가 해주지 않아도 돼요. 애초에 단장님, 돈은 바꿔서 온 거죠? 막 금화를 들고 온 건 아니죠?”

리히르트는 대답대신에 조용히 허리춤에 차고 있던 가죽주머니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렇게 했는데 무언가 잘못 되었냐는 표정이었다.

“세상에! 이게 다 뭐야?!”

말로만 들어본 ‘번쩍거리는 금화’를 하나도 아닌 주머니째 본 아나샤가 기겁했다. 물건을 사고 이걸 지불한 순간 이 시장바닥은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오늘은 그냥 제가 낼게요.”

“하지만,”

“갚으세요. 나중에.”

역시나 따라오길 잘했다고 아나샤는 생각했다.

시작부터 위태로웠던 관광은 예상외로 순조롭게 잘 흘러갔다. 아나샤의 걱정과는 달리 그는 튀는 일없이 시장분위기에 완벽히 스며들었다. 시끄럽고도 활기찬 분위기 속에 덩달아 들뜬 아나샤는 그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많은 것을 구경시켜주었다.

“아까 본 건 렌티나 라는 춤이에요. 좀 격했죠? 귀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평민들이 축제 때 흥을 돋우기 위해서 추는 춤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춰요. 원래는 수도에서는 가끔씩만 공연하는데 오늘은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반을 가른 열매껍질을 잔 삼아 파는 과일음료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여전히 흥에 겨운 모습이었다.

석양이 져가는 하늘은 아름다웠다.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언덕위에 앉아 두 사람은 오늘 하루 경험한 것을 얘기했다. 대부분 그가 질문하고, 그녀가 답하는 식이었다.

“마지막으로 단장님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시간 괜찮아요?”

“네.”

“그럼 갈까요?”

먼저 일어난 아나샤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까지 리드는 모두 아나샤가 맡고 있었다. 에스코트는 남자가 여자에게, 라는 이론상식을 머리에 담은 것이 무색해질 정도였다.

하지만 리히르트는 이제는 상관없다는 입장이었다. 남자든 여자든 그런 형식적인 것은 무의미했다. 오히려 그녀가 이끌어줬기에 오늘 하루가 더 즐거웠던 것이리라.

“아직 안 지쳤죠?”

농담 삼아 묻는 것인가 싶었지만 그녀는 진지해보였다. 앞장 선 그녀가 향한 곳은 인적 드문 언덕 위 숲길이었다. 처음에는 조금 가파르다 싶던 경사는 걸으면 걸을수록 비탈진 길이 되었다. 바위와 수풀이 무성해 길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녀는 재빠르게 바위들을 지나쳐 길을 안내했다. 원피스를 입어도 날렵한 것은 변함없었다. 다른 이라면 진즉에 지치고도 나가 떨어졌을 길이었지만 리히르트는 조금의 지친 기색 없이 묵묵히 뒤따라갔다.

산행은 무려 한 시간이나 더 이어졌다. 붉게 타들어가던 석양도 종적을 감추고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거대한 바위들을 기어오르듯 올라가던 아나샤가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윽고 도착한 것인지 그녀가 꼭대기로 추정되는 넓적한 바위 앞에 멈춰 섰다. 먼저 편하게 자리를 잡더니 그에게 옆자리를 양보했다.

“예쁘죠?”

그녀와 같은 자리에 앉은 순간 리히르트는 그녀가 왜 자신을 이곳에 데려오고 싶어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탁 트인 시야에 수도의 아름다운 야경이 들어찼다. 수도 한 가운데를 차지한 황성을 중심으로 작은 불빛들이 반딧불처럼 옹기종기 퍼져있었다. 성의 불빛을 머금은 강과 넓게 펼쳐진 별 가득한 하늘,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손이 뻗어졌다.

“보세요. 하늘도 예뻐요.”

어느 곳에서 보든 하늘은 다 같다고 여긴 그조차 잠시 넋을 놓을 정도였다. 인공적인 빛에 조금도 노출되지 않은 별들이 새벽녘의 이슬처럼 빛났다. 셀 수 없을 만큼 끝없이.

“수도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곳이에요. 물론 저도 선물 받은 곳이지만요.”

뿌듯한 얼굴로 수도를 내려다보던 아나샤가 고개를 돌렸다.

“저의 새로운 단장님이 되신 기념으로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항상 이 풍경처럼 좋은 것만 보셨으면 해서요!”

“...”

“단장님은 되게 무뚝뚝할 거 같이 생겼는데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엔 대귀족이라고 해서 엄청 깐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뻐요. 단장님이 새 단장님으로 와줘서요.”

그는 본래 무뚝뚝한 사람이 맞았다. 이렇게 편하게 말을 걸고 다가오는 아나샤가 오히려 더 특별할 정도였다.

“저도 그대와 만나서 기쁩니다.”

그리고 리히르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감정을 표현했다. 크게 기쁘다고 여겨본 적도, 사소하게나마 기쁘다는 감정이 들었어도 무시하고 말았을 그가 처음으로 그 감정을 인지하고 인정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변화의 폭풍을 불러일으킬지 알 리 없는 아나샤는 그저 말갛게 웃었다.

리히르트는 항상 정직함을 제 인생의 중요한 가치로 삼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스스로든 타인이든 죄를 숨기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다. 영지에선 심문에 응하지 않는 범죄자를 본인이 직접 맡아 고문할 정도로 그는 솔직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만큼 자비가 없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자가 있었다.

“잊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는 것이 저는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분명 외웠단 말예요. 그저...갑자기 떠올리려고 하니까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잊은 것과 의미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그녀는 모르는 것 같았다. 리히르트는 오늘에 와서야 자신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실망감을 드러내던 귀족여인들의 반응이 이해가 갔다. 자신도 지금 그런 기분이었다.

“잠시만요! 으으, 방금! 방금 기억이 났어요.”

“...”

“리히로트...? 리히로트 맞죠?”

“아샤 경, 알겠습니다. 힘들면 그만해도 됩니다.”

리히르트는 조금도 서운하지 않은 얼굴과 무덤덤한 어조로 말했다. 포마드형태로 깔끔히 쓸어 넘긴 백금색 머리칼은 한 올 내려오지 않았고, 자세도 네 시간 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의 흐트러짐이 없었다. 다시 서류를 검토하는 그의 모습은 석상과도 같았다.

다시는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은 모습에 아나샤는 급히 입술을 떼어야만 했다.

“그러면 더 서운해 보인다고요!”

“서운하지 않습니다.”

“네? 완전 서운해 하는 얼굴인데요? 지금도 막 서운하니까 갑자기 서류 보려고 하고...”

“원래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아샤 경 그대가 나와서 말을 걸기 전까지.”

“갑자기 보는 거 맞잖아요! 이러면 제가 더 마음이 불편하단 말예요...단장님.”

아나샤는 앉아있던 몸을 일으켜 업무책상 주위를 기웃거렸다.

“혹시 저한테 시킬 일 뭐 없을까요오?”

“괜찮습니다.”

“갑자기 뭐가 땡긴다거나. 사다줄 수도 있는데.”

“천장으로 오고 다니면서 사다주는 것이라면,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제대로 바깥으로 다닐 거예요!”

장담한다며 가슴 위를 통통 두드리는 모습에 리히르트는 사무적으로 근처에 있는 주전자를 눈으로 가리켰다.

“그럼 목이 마르니 저기 있는 주전자에 물을 채워와 주겠습니까?”

“네!”

밝게 대답한 아나샤는 그대로 소리 없이 열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2층이었지만 아무소리도 없는 것이 잘 내려간 듯했다.

아나샤는 거친 나무줄기 표면 위를 마치 미끄러지듯 내려왔다. 그리고 기사단 분관에 위치한 식당부엌 창문을 빠르게 타 넘어갔다.

“어이고야!”

부엌에서 마른 접시를 나르던 중년여성이 갑작스런 검은 인영의 등장에 소스라치게 놀라 접시를 떨어뜨렸다. 접시가 요란하게 바닥에 부딪치기도 전에 먼저 아나샤의 손이 그것을 낚아챘다. 그리고 가볍게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착지해 멀쩡한 접시를 중년여인의 앞에 내밀었다.

“미안해요! 진짜로!”

“...아, 아니에요.”

시커먼 옷을 두르고 있는 자가 작은 체구의 여자라는 것을 눈치 챈 중년여인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럽게 풀렸다.

접시를 건넨 아나샤는 물주전자를 든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실 물을 찾는 거라면 저기예요. 내가 갖다줄게요.”

“정말요?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나야말로 고마운 걸요. 그보다 혹시 아가씨는 암살자나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뇨, 아뇨, 여기 기사예요. 제가 보다시피 이런 옷차림이라...하하 놀랄 만도 하죠?”

“아아, 그런 것도 모르고 미안해요! 요즘 기사님들은 이렇게 은밀한 복장들을 하고 다니시는군요. 여기서 일 한지 얼마 안돼서, 호호.”

괜한 오해를 했다며 넉살 좋게 웃어 보이는 중년여인과 아나샤는 그 자리에서 빠르게 통성명까지 했다. 세 달 전부터 주방에서 일하게 됐다는 얘기부터 시작해 별의별 이야기가 오가는 동안 물주전자의 존재는 까맣게 잊혀져가고만 있었다.

“그보다 얘기 들었어요. 새로 기사단에 오신 공작님 말이에요. 정말 잘생기셨다면서요. 호호, 나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듣기론 정말 잘생기셨다고 그러더라구요. 벌써 수도 밖까지 소문이 쫙 돌았는걸요?”

“맞아요, 엄청 잘 생기셨어요!”

“어머나, 정말요? 어떻게 생기셨대요? 역시 기사님이시라 벌써 아시나보네!”

“새하얀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지셨어요. 장담컨대 제가 이제까지 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울 걸요?”

“거기다 결혼도 안하신 상태라면서요? 귀족아가씨들이 지금 난리래요. 이번 연회 때 입을 드레스를 벌써부터 서로 앞 다퉈서 제작하는 바람에 지금 없어서 못 판대요, 글쎄.”

“정말요? 단장님 때문에요?!”

아나샤는 크게 입을 벌리며 감탄했다. 그의 존재가 이렇게까지 대단할 줄은 몰랐는데 역시 귀족 중의 대귀족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보다...기사님은 뭐 따로 준비 안 해요?”

“네? 저요?”

“네, 기사님도 아리따운 아가씨잖아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공작님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에이, 아니에요. 단장님은 단장님일 뿐인걸요?”

크게 손사래를 치며 아나샤는 말했다.

“어머나, 혹시! 따로 정인이라도 있던 거예요? 내가 입이 방정이었네요. 못들은 걸로 해줘요, 호호.”

“아녜요. 괜찮아요! 아, 그보다 물 가져가야하는데! 이만 가볼게요.”

아나샤는 창문을 타넘었다. 빠르게 단장실로 돌아온 그녀는 깊게 가라앉은 푸른 눈과 마주치자마자 머쓱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미안해요, 목 많이 말랐죠? 중간에 부엌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다가 그만 같이 떠들다 와버렸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아세요? 단장님이 지금 수도에서 최고로 인기 만점이라는 거? 귀족아가씨들이 다 단장님한테 잘 보이려고 앞 다퉈서 새 드레스를 산대요, 글쎄!”

물주전자를 원래 자리에 내려놓기 무섭게 아나샤는 아까 전 아주머니의 말을 흉내 내며 너스레를 떨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별 반응이 없었다.

“왜 반응이 없으세요? 안 좋으세요? 전 듣자마자 감탄했는데.”

“솔직히 아무 생각 안 듭니다.”

“오오, 혹시 이젠 너무 당연해서 놀라지도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들이 누군지조차 모릅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들 얘기에 왜 제가 좋은 감정을 느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쭐해야 정상인 겁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나샤는 갸웃하며 말했다. 그래도 그의 반응은 뭐랄까 너무 김이 샜다.

“단장님 혹시 애인 있으세요?”

“...그건 왜 갑자기 묻습니까?”

“그냥, 요?”

수도의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모두 그를 위해 치장에 열을 내고 있다는데 이런 무반응에 가까운 반응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나샤는 세 가지의 경우를 생각했다. 그가 정말 관심이 없거나, 속으로만 좋아하고 있거나, 이미 애인이 있거나.

“없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냐고 당황해 묻던 것치곤 칼 같이 깔끔한 대답이었다.

없을 리가 없을 텐데, 하는 의심을 담아 그의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았지만 진실인지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하긴 이런 걸로 왜 거짓말을 치겠냐는 생각에 아나샤가 먼저 뒤를 돈 순간이었다.

“...아샤 경은 애인이 있습니까?”

“저요?”

그가 질문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아나샤는 놀란 얼굴로 그를 봤다. 왠진 모르겠지만 어딘가 초조한 기색을 띤 얼굴로 그가 자신을 응시하고 있었다. 푸하하 하고 아나샤는 조금 경박할 정도의 웃음을 터뜨렸다.

“없어요! 없어! 제가 있어 보여요?”

“네.”

“애인은커녕 한 번도 연애 해본 적도 없는 데요 뭘.”

“그대가...말입니까?”

그대 같은 사람이 애인이 없었을 리가 없다는 물음에 되레 아나샤가 놀란 반응이었다. 반쯤 벌렸던 입을 서서히 다문 그녀는 손을 들어 입을 틀어막았다.

“단장님 정말, 사람을 기쁘게 만들 줄도 아시구.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떤 부분에서 그녀가 감명을 받은 것인지 리히르트는 알 수 없었다. 고작 한 달간 알고지낸 사이라지만 그가 본 아나샤는 이제껏 만나온 그 어떤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이었다.

솔직한 매력과 독특한 행동으로 상대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줄 알았다. 사람 사귐에 있어서는 대가나 다름없으니 당연히 연애경험도 풍부할 거라 여겼던 것이다.

“단장님. 오늘 오전 중으로 처리하셔야할 서류 가져왔습니다.”

그때 문밖에서 들린 노크소리에 아나샤는 단장실 천장위로 잽싸게 올라갔다. ‘조금 있다 또 내려올게요.’하고 입모양으로 말한 그녀는 천장 타일을 덮었다. 뒤미처 행정관이 들어왔다.

“서류는 그게 단가?”

“네.”

“11시쯤에 다시 오도록.”

“알겠습니다.”

리히르트는 사무관이 나가자 쥐고 있던 서류를 내려놓았다. 당장 일을 시작해도 시간 안에 맞추기에 빠듯한 감이 있었지만 지금 그에겐 아무것도 개의치 않아 보였다.

애인이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지 그로선 알 수 없었다.

훈련을 마치고 연무장을 빠져나오던 기사들은 수돗가에 있는 두 남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전이라면 헛것을 본 게 아닌가, 혹은 아나샤가 실수라도 할까 걱정했을 기사들은 이제는 익숙하게 그 광경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저거, 저거. 또 찰싹 붙어있네.”

오늘도 나란히 붙어있는 두 남녀의 모습에 크리스는 혀를 찼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새 단장님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던 태도는 온데 간 데 없는 모습이었다.

크리스의 옆에 서있는 기사들도 저 변화가 신기하긴 마찬가지였다. 정확히는 아나샤보다는 단장님 쪽이.

“묘하게 단장님도 아샤 앞에서는 물러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난 잘 모르겠다. 표정이 워낙 한결 같으신 분이니.”

“잘 봐봐. 분위기가 달라졌잖아. 저게 훈련에서 보던 그 단장님이냐고.”

기사들은 한마디씩 내뱉었다. 대화의 주제는 단장님에서 어느새 아샤의 태도변화로 돌아와 있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뀐 태도는 그렇다 쳐도, 아샤가 단장님에겐 유독 살갑게 군다는 것을 기사들은 모두 눈치 채고 있었다. 꼬리가 달렸다면 그의 앞에서 연신 살랑거렸을 모습인 것이다.

“총애 받는다느니 뭐라 했던 거보면, 승진하고 싶은 건가?”

“승진은 무슨. 그냥 잘생긴 외모에 약해진 거지.”

“쟤가 그런 거에 휘둘릴 성격이냐. 나는 아샤를 그런 애로 키운 기억이 없다!”

“네가 뭘 키웠다고! 열에 오십은 내가 키웠지!”

“이 자식들이 뭔 소리야. 아샤가 제일 좋아하는 삼촌은 나랬어.”

몇몇이 삼촌부심을 부리는 사이, 크리스만이 알 수 없는 찝찝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간 어미오리를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오리마냥 기사단장을 따라다니는 아나샤였다. 왠지 모를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여길 때 마브릭이 지나가듯이 말했다.

“어릴 적보는 것 같네. 리온 뒤만 졸졸 따려 다녔단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 리온!!”

크리스의 외침에 마브릭이 덩치와 어울리지 않게 흠칫 놀라며 그를 돌아보았다.

“왜 그래…? 갑자기.”

“저거 리온녀석한테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잖아.”

“응? 리온? 뭐 비슷해 보이기는 한데, 아무리 그래도 단장님과 리온은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리온녀석도 연한 금발이지 않았냐…?”

“그러고 보니...”

마브릭은 입을 다물었다. 두 사람이 무거운 침묵을 지키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그 광경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

“그래도 뭐…둘이 덥석 눈이 맞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젊은 남녀잖아. 누가 알아? 일 년도 안돼서 결혼까지 갈지.”

낭만주의 연애론자 니콜라스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그러나 곧 뒤통수를 후려갈기는 손길에 푹 고개를 숙여야했다.

“야. 단장님이 스물여덟인데! 그러면 순 도둑놈이지!”

“아샤가 나이가 몇인데, 결혼은 무슨!”

“이르다 일러. 적어도 우리들 다 결혼하고 나서 보내야지.”

기사들의 결사반대가 이어지는 동안 그 대화의 주인공들은 한가롭게 날씨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오늘 정말 날씨 좋네요. 이럴 때 놀러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파랬다. 오늘도 아나샤는 대부분의 시간을 리히르트 그와 함께 보내고 있었다. 그가 어딜 가든 따라다녔는데 최근엔 그를 따라 연무장에서 훈련을 돕고 있었다.

웬만한 연인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이 둘이었지만, 아나샤도 리히르트도 그런 쪽의 자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서로를 무척이나 아끼는 상관과 부하일 뿐이었다.

“애옹.”

수돗가 근처의 수풀이 바스락거리더니 하얀 고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아나샤를 발견한 고양이가 곧장 그녀에게 다가가 다리 주변을 맴돌았다.

“단장님은 처음 보죠? 여기 자주 오는 애예요. 누가 키우는 것 같은데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기분이 좋은지 골골 거리기 시작했다.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고양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리히르트와 마주보게 했다.

“새로운 단장님께 인사해야지.”

관심이 없다는 듯이 고양이는 나른하게 입을 벌릴 뿐이었다.

“야옹해봐. 야옹.”

“먀.”

“야옹, 야옹해야지.”

“애-옹.”

“아유, 착해라.”

고양이를 땅에 내려준 아나샤는 그 옆에 쪼그려 앉아 부드러운 털을 슥슥 쓰다듬어주었다. 그 손길이 좋은지 고양이는 완전히 드러누워 버렸다. 개가 아닌지 의심이 들었으나 아나샤는 계속해서 등을 쓰다듬어주었다.

“주인에게 사랑을 많이 받나 봐요. 사람을 엄청 잘 따른다니까요.”

“먀아.”

“그래그래. 여기가 기분 좋아? 보세요. 너무 귀엽죠?”

“…네.”

올려다보며 묻는 그녀의 말에 리히르트는 무의식중에 대답해버렸다. 그것이 속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곧 그녀의 시선을 피해 고개를 돌려버렸다.

왠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는 그의 모습에 아나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고양이를 귀엽다고 말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건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확실했다.

그러나 아나샤는 알지 못했다. 그의 눈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고양이가 아닌 자신에게 고정되어있었단 사실을 말이다.

“오늘 낮 진짜 덥네요! 이 날씨에 검 휘두르다 돌아가시겠어요. 먼저 단장실에 가서 차가운 냉수라도 준비해놓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목마르잖아요. 임무도 없이 한가한 저를 부려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요?”

“그대도 오늘은 훈련을 돕느라 힘들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리히르트는 세상 무심한 투로 말했지만 아나샤는 그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좋은 단장님이 또 어딨을까! 거짓말을 좀 보태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저 오늘도 든 생각인데 영원히 단장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무표정한 얼굴처럼 보여도 이젠 그의 희미한 웃음기를 알아채낼 수 있었다. 입꼬리를 올려 웃는다면 훨씬 더 잘생기셨을 텐데 아쉽기도 했다. 아나샤는 나무위에서 평소처럼 재잘대다가 다시 업무를 하러 들어가는 그를 배웅했다.

“단장님은 일하러 가시고, 삼촌들은 다 훈련 중이고, 이제 난 뭐하지?”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다리만 한들한들 흔들어댈 때였다.

“너 오늘도 할 일 없지?”

익숙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무시했는데 역시나 나무 밑에 온 사람은 크리스였다. 아나샤는 으쓱 눈썹을 들었다 놓았다. 왜, 라고 묻는 거만한 표정에 크리스는 짐짓 근엄한 척 팔짱을 끼고 서서 입을 열었다.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시내 순찰.”

“오예!”

언제 지루한 얼굴이었냐는 듯 아나샤가 밝게 외쳤다. 그리고 한 바퀴 공중제비돌기를 하며 사뿐히 그의 앞에 착지해 섰다.

“근데 왜 우리가 시내 순찰이야?　그쪽 관할 치안대는 뭐하고?”

“낸들 알겠냐? 인력이 부족하니까 오라는데 어쩌겠어. 마침 비번은 나뿐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호오. 비번도 다 반납하고 참 부지런하셔라.”

“너야말로 아까 할 일 없다고 하늘 보면서 궁상을 떨던 건 기억 안나나 보지?”

평소와 같이 투닥투닥 대며 두 사람은 마구간에 도착했다.

아나샤의 몸이 워낙 가볍다보니 말은 한 필이면 충분했다. 크리스의 뒤에 뒤돌아 앉은 아나샤는 달리는 말위에서 두 다리를 접기까지 했다. 묘기처럼 아슬아슬해 보이는 자세였지만 그녀 본인은 평지에 앉은 것처럼 편안해보였다.

성문을 벗어나 수도 거리로 말을 몰던 크리스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러고 보니까 말이야. 줄곧 궁금했는데 단장님은 왜 너한테는 존댓말로 말씀하시냐?”

“그야 내가 총애 받으니까 지, 뭐겠어. 삼촌도 불만이면 총애 받는 부하가 되던지.”

“총애 좀 받더니 예전보다 더 건방져졌다? 아주 살 맛 나나보네?”

“응! 가끔씩 단장님이 맛있는 과자 같은 것도 주시고, 차도 같이 마시자고 하시고, 소파에 누워있는 것도 허락해주시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부럽지? 부러운 거 다 알아.”

나무 위에서 개를 놀리는 원숭이처럼 아나샤는 얄밉게 혀를 놀렸다. 그러나 크리스는 전혀 그것이 얄밉게 느껴지지 않았다.

“...단장님이?”

믿기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이느라 얄밉다고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하마터면 쥐고 있던 고삐마저 놓을 뻔한 크리스는 멍하니 입술을 달싹였다.

“아버트 단장님이 아니라...?”

“삼촌도 참! 할아버지가 나한테 과자 챙겨주고 차 따라주고 그럴 위인이야? 오히려 뺏어먹고 시치미 떼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이렇게 열까지 내니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걸로 거짓말할 애도 아니었고 말이다. 하지만 크리스는 그녀가 말하는 단장과 자신이 아는 단장의 사이에 괴리감을 느꼈다.

딱히 가까이 두는 부하라고 해서 정을 줄 것 같지는 않아보였는데, 생각보다 인간미가 있는 사내였던 모양이다. 물론 그것마저도 아샤에게 한정된 것 같다지만.

“노파심에 하는 말이긴 한데… 단장님이 너를 보는 눈빛이 조금 끈적하다거나 사적으로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러지는,”

“우리 단장님을 뭐로 보고!”

아나샤는 크리스의 등에 주먹을 먹였다. 작은 주먹이었으나 워낙 잽싸서 그런지 아프기는 더럽게 아프다고 크리스는 생각했다.

“녀석아! 단장님 안 지 얼마나 됐다고!”

“안지 얼마 안됐지만 단장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영원히 단장님 밑에서 일하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어.”

“그래봤자 외간남자야. 좀 거리를 두란 말이야. 아버트 단장님이나 리온이랑은 다르,”

“…여기서 리온 얘기가 왜 나오는데?”

아나샤는 인상을 찌푸렸다. 물론 앞에 있는 크리스는 그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조용해진 아나샤의 반응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치안대 건물이 보이자 그는 서서히 고삐를 당겨 속도를 줄였다.

“갑자기 리온 얘기 꺼낸 건 미안하다. 근데 너 하는 행동이 꼭 예전에 리온한테 하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 타고 있던 아나샤가 먼저 말등 위에서 뛰어내렸다.

“난 먼저 들어갈게. 수고!”

“...진짜 저게.”

저 혼자 건물로 쏙 들어가 버리는 행태에 크리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저걸 총애하는 단장님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며 그는 근처 나무에 고삐와 이은 밧줄을 꽉꽉 조였다. 뒤늦게 건물에 들어서자 이미 제 집인 양 의자에 앉아 떠들고 있는 아나샤가 보였다.

‘누가 보면 치안대 소속인 줄 알겠네.’

크리스가 어이없다는 눈으로 아나샤의 뒤통수를 보고 있을 때, 그의 앞으로 기사 하나가 다가왔다. 익숙한 얼굴에 크리스는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오랜만이야. 테윌러 경. 예전에 봤을 땐 신참 병아리였는데 말이야.”

“크리스 경,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비번이기도 했고. 쟤도 데려왔지.”

그가 힐끗 아나샤를 눈으로 가리키자 테윌러라 불린 기사가 눈웃음을 머금었다. 노랗게 보일 만큼 밝은 갈색머리에 연두색 눈을 가진 사내는 이젠 제법 몸에서 기사 태가 났다. 크리스가 기억하는 그의 일 년 전 모습은 더 앳됐었는데, 젖살이 더 빠져서 그런지 선하고 준수한 얼굴엔 약간의 날렵함이 배어있었다.

‘그때도 아샤랑 친했었지.’

당시 기사견습생 신분이었던 테윌러가 다른 곳으로 발령받아 아쉽다고 징징대던 아나샤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도 그렇고 아샤도 그렇고, 안변한 것 같아보여도 생각보다 모습들이 많이 변했어. 하긴 뭐 그땐 아샤는 십대였으니까.”

“네. 아샤도 많이 예뻐졌네요.”

테윌러의 조용한 대답에 크리스는 ‘어쭈? 요것 봐라?’하고 속으로나마 생각했다. 그때 멀리 떨어져있던 아나샤가 그들 곁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테윌러는 오늘 어디로 순찰 도는데?”

“나는 오늘 동편 시가지 쪽 상가를 돌기로 했어.”

“일단 크리스 경은 저와 함께 가시죠. 생각보다 순찰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테윌러, 너는 이 아가씨를 부탁하마.”

곰처럼 거대한 체구의 중년기사가 다가와 그들 셋에게 말했다. 그의 말에 테윌러는 어색하게 시선을 내리며 애써 “네!”하고 힘차게 대답했고, 아나샤는 상가 쪽이 볼거리가 많아 좋다며 웃었다.

그렇게 두 조로 나뉘어가게 된지 오 분도 지나지 않아 뜻밖의 시련이 찾아왔다. 먼저 출발한 크리스가 말을 타고 가버려 졸지에 아나샤는 발이 묶이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여분의 말을 또 구해오기에는 시간이 걸렸다.

테윌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차있을 때 아나샤가 아무렇지 않게 그의 말 옆에 서며 말했다.

“말 타고 갈 거지? 같이 타자.”

“네가 불편할 것 같은데…, 아샤 괜찮겠어?”

“뭐 어때? 그리고 불편할 게 뭐있겠어?”

먼저 훌쩍 말 위에 오른 아나샤가 재촉하자 테윌러도 뒤따라 안장에 올랐다. 넉넉히 뒷공간만 남은 상황에 당연하게도 그의 자리는 그녀의 뒤가 되었다.

“미안. 실례할게.”

테윌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지나쳐 고삐를 쥐었다.

천천히 말을 모는 동안 팔뚝 안쪽에 스치듯 그녀의 가녀린 허리가 닿았다. 동시에 불어오는 바람에 단발머리가 그의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짧았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하던 테윌러는 다시 단단히 고삐를 움켜쥐었다.

속도를 높이자 살짝씩 제 품에 닿던 그녀의 등이 품에 안기듯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다시 속도를 줄여야 하나 고민할 때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아무런 사심 없이 그저 맑은 까만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테윌러는 순간 제 가빠진 심장소리를 들킨 건가 싶어 침음을 삼켰다.

서서히 달아오르던 귓불이 뜨겁다. 이대로라면 분명 그녀가 눈치 챌 것이라는 조급한 생각에 더 심장소리가 크게 쿵쾅거렸다. 결국 테윌러는 도중에 고삐를 잡아당겨야만 했다.

“역시 마차를 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안될 것 같아.”

테윌러는 고개를 숙이고서 말했다. 근 1년 만에 만난 짝사랑 상대 앞에서 태연하기란 역시 무리였던 모양이었다.

“말하지 그랬어, 참나. 아픈 걸 왜 숨긴 거야?”

시내마차로 이동하자는 그의 말에 이상함을 느낀 아나샤가 그의 이마에 손을 가져다댄 것이 오해의 시작이었다. 달아올라있던 그의 얼굴 열에 아나샤는 감기라고 판명 지었다. 테윌러는 애써 웃으며 가벼운 감기일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만 그녀는 조금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은 나한테 맡기고! 절대 무리하지 마. 알겠지?”

“하하.”

“웃지 말고. 테윌러 넌 무리하는 그 버릇은 여전하구나?”

“아샤 너도, 여전히 너다운 것 같네.”

“나 답다고? 내가 뭘?”

“이런 다정한 점은 변함없구나 싶어서... 기억나? 예전에 내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채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녀는 까무룩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테윌러에게는 아직도 그 기억만큼은 생생했다. 견습생시절, 견습생들 중에서도 실력이 썩 좋지 않았던 그는 항상 남들보다 무리하는 버릇이 있었다. 성실한 건지 필사적인 건지 그때는 그랬다.

팔 상태는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검을 휘두르다가 어느 날은 팔 윗부분이 퉁퉁 부어오르는 경지까지 이르렀었다. 어떻게든 힘든 내색하지 않고 오기로라도 훈련시간동안 버텨보려고 했던 그때, 아나샤가 그를 잡아챘다. 그리고 무작정 연무장 밖으로 끌고나가기 시작했다.

‘이봐, 아샤 이 녀석아!! 훈련 중에 테윌러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지금이 쉬는 시간인 줄 알아?’

‘나 일손 부족해서 좀 데려갈게!’

임무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니 선배들도 별 말 없이 보내주었다. 그리고 연무장을 벗어나자마자 아나샤는 사악하게 입꼬리부터 끌어올렸다.

‘바보 같은 삼촌들, 일손 부족하다는 건 거짓말이지.’

‘이래도 돼?’

‘응? 괜찮아. 안 들켜, 안 들켜. 평소에도 자주 속이고 땡땡이 쳤는걸 뭐.’

‘...’

‘사실 일이 있긴 한데 나 혼자 해도 되는 일이거든. 넌 가서 쉬어. 아프잖아?’

‘...어떻게 알았어?’

‘맞췄어? 오늘 어딘가 안색이 안 좋아 보이길래 찍어본 건데.’

‘나 잘했지?’하고 말하는 그 해맑은 얼굴에 그 당시 테윌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말대로 그날 하루 푹 쉬자 다음날 팔 상태도 괜찮아졌었다. 그리고 아마 그 뒤부터였을 것이다. 그녀가 자꾸만 눈에 밟히게 된 건.

“내가 그랬었다고? 그때도 삼촌들은 멍청했었군.”

작게 소리 내어 웃은 아나샤는 먼저 마차에서 내렸다. 뒤따라 내린 테윌러는 그녀와 함께 나란히 순찰지대를 걸었다. 귀족들이 이용하는 상점가 주변이라 그런지 거리는 깔끔했다.

두 사람은 간만에 여러 얘기를 나누었다. 그동안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다른 기사들은 잘 지내는지, 제일 많이 떠든 아나샤가 새 단장님에 대한 얘기를 막 꺼내려던 찰나였다.

“착오가 있었다니요?”

“죄송합니다.”

의상점 앞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레이스 양산을 쓴 금발머리의 귀족아가씨는 의상점 직원으로 보이는 남자에게 말했다.

“고작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직접 걸음 해야 되나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보고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자수야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기간 내에 완성만 해줘요.”

“지금이라도 허락해주신다면 수정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격다짐이 매일 같이 일어나는 다른 거리에 비하면 실랑이라 하기에도 뭐한 실랑이였다. 끼어들어 중재할 필요도 없어보였다. 아나샤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긴 거리를 걸으면 걸을수록 시종을 대동한 귀족영애들이 많이 보였다.

“아, 혹시 무도회 때문인가?”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말하자 테윌러가 그런 것 같다고 얘기했다.

“테윌러, 너도 무도회에 참가해?”

“그렇지. 가족들이 참가하니까.”

“무도회는 어떤 곳이야? 한 번도 안 가봐서 잘 모르거든.”

“글쎄. 우아한 연주소리가 흐르는 정신없는 곳?”

그의 비유에 아나샤는 웃음을 터뜨렸다. 확실히 사람 많고 시끄러운 장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다운 비유였다.

“가보고 싶어?”

“물론! 난 축제 분위기 좋아하거든. 내가 너 대신 가면 딱 일 텐데.”

“...그럼 갈래?”

잠시 뜸을 들인 테윌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나샤는 놀란 얼굴로 멈춰 서서 그를 돌아보았다.

“농담이었는데, 진짜로? 근데 키부터가 이미...,”

이 키 차이는 어떻게 해도 속일 수가 없겠다며 그녀가 진지하게 고민에 빠지자 테윌러는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엉뚱한 것도 여전하단 생각이 들었다.

“속일 수 없을 거야. 너가 나로 아무리 비슷하게 변장한다고 해도 말이야.”

“역시 그렇겠지?”

“무도회에 같이 가자는 애기였어. 너에게 파트너 신청한 거야.”

“뭐...?”

아나샤는 이해하지 못했다. 처음엔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농담은 아닌가 그의 표정을 살폈다. 그런 그녀에게 테윌러는 친절하게도 재차 나긋한 어조로 얘기해주었다.

“이번 무도회 때 나의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해. 아샤.”

저택으로 귀가한 리히르트는 집무실 책상에 놓인 서류철을 집어 들었다. 중앙귀족 가문들의 이름과 최근 정치적 행보, 재정 상태가 간략히 적혀진 서류였다.

귀족은 물론 황족들까지 오는 공개적인 자리였다. 표면적으로는 이성적으로 호감을 가진 파트너와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상류층 귀족들의 사회는 마냥 낭만적이지 않았다. 대동하는 파트너로 친분과 세력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 은연중의 정치적 행보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 귀족들 간의 결합이란 그런 것이니 말이다.

특히나 리히르트는 지방에 있다 수도로 올라온 거물급 귀족이었다. 그의 정치적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렇기에 무도회의 파트너로 어느 가문의 영애를 대동하느냐는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이다.

밤새 검토한 끝에 대략 열 개의 가문을 추려낼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그리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다. 파트너 신청을 위한 서신을 보내려면 넉넉잡아 이번 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다음날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파트너 후보들이 적힌 서류철을 챙겼다. 기사단에서도 틈틈이 보기 위함이었다.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으니 없는 시간을 쪼개려는 것이다.

물론 그가 시간이 없는 이유라면 있었다.

“운반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는데 하필이면 그게 경례자세를 하고 있던 분대장 발등위로 떨어진 거예요. 순간 놀란 분대장이 단장님께웩!! 하는데 방금 나온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누가 돼지소리를 내냐고 화를 낸 거 있죠! 푸하하! 아, 지금 생각하니까 또 웃겨죽겠어요!”

아나샤는 소파에 편히 앉은 상태로 제 허벅지위를 팡팡 두들겨댔다. 그 얘기를 들은 리히르트도 살짝 웃겼던 건지 슬그머니 고개를 모로 돌렸다. 업무 중에 즐기는 다과타임이었다. 이렇게 즐길 건 다 즐기고 있으니 시간이 남아돌 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리히르트는 이 휴식시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 인생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었으니 말이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이야 또 쪼개고 쪼개면 된다는 게 근래 들어 든 생각이었다.

“아, 이제 슬슬 일해야 되는 거 아녜요?”

오히려 늘어져있던 아나샤가 다 걱정할 정도였다.

“그러고 보니.”

해야 할 일이 생각난 그가 다과자리에서 일어났다. 업무는 아니었고 원래 이 시간에 살펴봤어야할 서류철이 떠오른 것이다.

1시간 16분 만에 다시 업무책상 앞에 앉은 그는 서류 사이에 따로 놓아둔 서류철을 들었다. 그때 그를 따라 일어선 아나샤가 호기심을 띠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처음 보는 건데 뭐예요?”

다른 서류철과는 확연히 다른 붉은 벨벳의 재질이었으니 관심을 가질 만도 했다. 평소라면 간략하게라도 설명해주었을 리히르트였지만, 그는 그녀가 볼 새라 빠르게 서류철을 소리 나게 덮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어, 저한테 보여주면 안 되는 기밀사항 같은 거예요?”

깜짝 놀란 아나샤가 멈춰 섰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알겠어요! 궁금하지만 절대 안 볼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상관의 서류를 불쑥불쑥 훔쳐보는 게 잘못이죠.”

언제 당황했냐는 듯 아나샤는 사람 좋아 보이는 얼굴로 웃으며 뒤로 물렀다. 빠른 포기였다.

“아샤 경.”

그녀가 제게서 한 걸음 더 물러서자 리히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다급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낮은 목소리에 아나샤는 모든 행동을 정지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대가 옆에서 서류를 본다고 해서 그것을 단 한 번도 무례라 여겨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할 중요한 기밀서류도 아닙니다.”

“...정말요?”

“그저 제가 예민했습니다.”

그녀와 자신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만은 원치 않았다. 리히르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지만 역시나 손에 든 서류철은 덮인 채였다. 보면 안 되는 서류도 아닌데 왜 보여주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들만도 할 텐데 아나샤는 그저 밝은 얼굴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마워요. 저, 정말 신뢰받고 있군요!”

눈을 반짝인 그녀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가련한 여주인공처럼 과장되게 훌쩍였다. 뻔뻔하게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얼굴로 말이다.

“저 사실 좀 감동했어요. 사실 제가 잘못한 게 맞긴 하지만요. 믿고 아껴주신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그래서 든 생각인데 저도 단장님한테 이것저것 털어놓고 싶어요. 시간만 된다면요.”

“시간이야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다는 자각은 온데 간 데 없이 그는 차분한 대답을 내놓았다.

그와 중에 그의 손은 서류철을 책상아래에 딸린 서랍 속에 깊숙이 밀어 넣었다. 숨겨야할 필요가 전혀 없을 내용일 텐데 이상하게도 그녀에게만큼은 이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알 수 없는 감정이었다.

열 명이었던 후보는 다섯 명으로 줄어있었다.

리히르트는 간만에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황태자를 지지하는 브리태너 공작가와 사업 쪽으로 영향을 넓히고 있는 펠덴 후작가, 그 외 나머지 세 가문도 썩 나쁘지 않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일회적인 관계가 아닌 혼인까지 생각했을 때의 얘기일 테지만 말이다.

그는 본인의 혼인에 대해서도 무덤덤했다. 그저 최대한 가문의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고자 신중할 뿐이었다.

상념에 잠겨있던 그때, 위에서 작은 노크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자 살짝 벌어진 천장 타일 틈사이로 나타난 까만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쳤다.

“단장님, 저 내려갈까요?”

“네. 마침 업무도 끝난 참이었습니다.”

리히르트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서류철을 덮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보다 먼저 응접용 소파에 착석한 아나샤는 상체를 흔들거렸다. 뭔가 할 말이 있지만 어떻게 꺼내야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흡사 뭐 마려운 강아지 같은 모습이었다.

그가 차분히 기다려주며 그녀 앞에 물을 따라주자 아나샤는 냉큼 컵을 집어 들었다. 목이 말랐는지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마신 그녀가 다시 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양손의 손가락들을 꼬았다가 풀었다가 하며 뜸을 들이다가 고개를 들었다.

“저 뭐하나 여쭤볼게 있는데요.”

“뭐든 물어봐도 좋습니다.”

“...무도회에 같이 가는 파트너 말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뭐든 물어봐도 좋다 말했던 리히르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어째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제가 아는 게 맞나 싶어서요... 그 호감 있는 사람한테 신청하는 거예요?”

“...”

자기 생각만으로 가득 찬 터라 그는 대답해줄 경황조차 없어보였다.

“친한 사람한테 파트너 신청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겠죠? 마땅히 데려갈 사람이 없으면 그냥 친한 사람을 데려갈 수도 있는 거겠죠?”

아하하... 하고 어딘가 영혼이 없는 얼굴로 웃던 아나샤가 그대로 쾅 하고 테이블에 머리를 박았다. 그 큰소리에 그제야 리히르트는 굳은 표정을 풀었다. 아나샤는 엉엉 우는 소리를 내며 말을 이었다.

“사실은요...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애기를 들었거든요오...”

고개를 든 아나샤가 굳어있는 리히르트를 응시했다.

“무도회 파트너가 대체 뭐죠?! 대체 뭐길래 사람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드는 거죠! 아악! 이런 거 삼촌들한테 말했다가는 분명 평생 놀림당할 게 분명해요... 단장님도 이런 제가 너무 바보 같겠지만... 들어주세요.”

물기는 없었지만 금방이라도 눈물에 젖을 듯 애처로운 눈이었다.

“친구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런 말 하니까...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괜히 혼자 너무 과대해석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 착각이겠죠?”

애초에 무도회 같은 곳에 가본 적도 없어서 파트너 역할을 잘해낼 자신도 없었다.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아나샤는 그래서 더 문제라 여겼다.

“그치만 만약, 만약! 진심이면... 절 진짜 호감 가는 상대로 보고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한 거면... 단장님...? 듣고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있던 아나샤는 문득 맞은편이 조용하자 그의 얼굴을 살폈다. 뭐랄까, 그는 안색이 좋지 않아보였다. 그것도 많이. 떨떠름한 맛이 나는 무언가를 입에 문 사람처럼 굳은 얼굴이었다.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닙니다.”

리히르트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내리뜨며 대답했다. 어딘가 얼이 빠진 그답지 않은 모습에 아나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들갑을 떨었다.

“완전 아파보이세요! 오늘은 이만 쉬세요. 열은 없어 보이는데, 잠시 만요.”

그녀가 이마에 손을 가져다댄 순간 리히르트의 눈이 좀 더 크게 떠졌다. 따스한 손이 느껴졌다. 앉은 채로 그녀를 올려다보던 그의 푸른 눈동자는 다시 천천히 바닥을 향해 내려갔다. 길고 옅은 속눈썹 사이로 잔잔한 떨림이 일었다.

“열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쉬셔야할 것 같아요.”

아나샤는 그를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픈지도 모르고 혼자 이것저것 떠들어서 죄송해요. 이만 쉬세요! 전 약 받아올게요!”

“아닙니다. 괜찮...”

“괜찮아요! 앉아계세요. 아니 누워 계세요!”

말릴 틈도 주지 않고 아나샤는 곧바로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잽싸게 기사단 의무실로 달려간 그녀는 의무관을 붙잡고 그의 증상을 줄줄이 나열했다. 안색이 창백하고, 눈빛이 떨리고, 어딘가 넋이 나간 사람같이 멍하다. 그리고 그 애기를 들은 의무관은 단순 감기인 것 같다는 소견을 내렸다.

“요즘 감기가 유행인가 봐.”

“웬 감기?”

“단장님도 그렇고, 테윌러도 그렇고, 다들 감기네.”

아나샤는 중얼거리며 구름 한 점 없이 쾌청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무장 나무근처에서 몸을 풀고 있던 크리스가 슬쩍 운을 뗐다.

“그보다 너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어?”

“친구 누구...? 하핫, 내가 친구가 한두 명이야?”

“시치미 떼기는, 녀석! 다 티 나거든?”

네가 감히 날 속일 수 있을 것 같냐는 눈이었다. 아나샤는 합죽이가 되어선 조용히 그를 노려볼 뿐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크리스는 얄밉게 말을 이었다.

“그 친구,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던데?”

“사,삼촌이 그걸 어떻게 알아?! 테윌러한테 들었어? 아니잖아!”

“너는 감 하나는 죽이게 좋으면서 왜 이런 쪽으론 둔감해 터졌냐...”

딱 봐도 알겠다며 크리스는 혀를 찼다. 이러니 연애를 못하지.

“적어도 내 눈엔 나쁜 녀석으로는 안보이던데, 성실하기도 하고.”

“테윌러가 나쁜 애가 아니란 건 나도 잘 알아.”

“그럼 제대로 마주해봐. 뭐가 문제야? 잘해보란 소리까지는 아니어도 생각 정도는 해보라고. 꽤 진심인 것 같던데.”

“나도 몰라. 묻지 마, 그런 거.”

“어쭈? 부끄러워하는 거냐?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 악!”

크리스는 머리 정중앙으로 날아온 작은 돌멩이에 소리를 질렀다. 언제 내려왔는지 나무 아래에 서서 아나샤가 그를 잔뜩 쏘아보고 있었다.

“남은 가뜩이나 심란해죽겠는데!!”

“그렇다고 던져! 네가 애야?”

“애다 왜! 난 아직 삼촌처럼 안 늙었다고!”

씩씩대던 아나샤가 그대로 뒤를 돌아 달려가 버렸다. 이내 사라진 뒷모습에 크리스는 “아직도 애네, 애야.”하고 중얼이며 욱신거리는 머리를 문질렀다.

“어떻게 된 게 조언해줄 사람이 한명도 없냐...”

숙사 지붕 위에 앉은 채 청승맞게 달을 바라보고 있던 아나샤가 습관적으로 중얼거렸다. 연애는 해본 적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다. 이런 쪽으로 조언을 해줄 친구가 필요했다. 주위엔 아저씨 아니면 또래남자밖에 없으니 답답하기만 했다.

그러고 보니까 난 왜 여자인 친구는 없지? 한숨을 내쉬던 아나샤는 콧잔등을 찡그렸다. 애초에 만남자체도 없었다. 이 흙먼지나 풀풀 날리는 기사단에서 또래 여자애를 만날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

‘소개시켜달라고 할까?’

또래 여자애를 알만한 삼촌이 있었던가, 한동안 머리를 굴리던 아나샤가 짝 손뼉을 쳤다.

‘단장님한테 부탁해봐야겠다!’

그도 무도회 파트너로 아가씨를 데려갈 것이 분명했다. 단장님과 그 아가씨를 도와주면서 자신도 자연스레 아가씨와 친해지는 상상을 해보았다. 다시 곰곰이 생각해봐도 완벽한 작전이었다.

내일 부탁해봐야겠다. 그렇게 깔끔하게 고민을 털어낸 아나샤는 자신의 방 창문으로 쏘옥 기어들어갔다.

그리고 쇠뿔도 단김에 빼라고, 아나샤는 다음날 아침 해가 밝아오자마자 단장실로 들이닥쳤다. 아직 그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다. 소파에 편히 누운 아나샤는 그가 올 때까지 눈을 붙이기로 했다.

그렇게 한 시간 정도 곯아떨어졌을까. 단장실 문이 열렸다. 아나샤는 그 작은 소리에 눈을 떴다. 거의 야생동물과도 같은 반응이었다.

“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아샤 경. 헌데 거기서 밤을 새운 겁니까?”

“아뇨. 여기선 한 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보다 단장님께 부탁할 게 있어요!”

여전히 놀란 기색이 가시지 않아 보이는 리히르트를 향해 아나샤는 무작정 돌진부터 했다. 들어서다말고 그는 다시 반걸음 주춤 물러섰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무도회에 같이 갈 아가씨 누구예요?”

“아직...안 정했습니다만. 왜 그럽니까?”

“그럼 잘됐네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면 제가 슬쩍 가서 밀어드릴게요.”

손바닥으로 미는 시늉을 하며 아나샤가 씰룩 웃었다. 그 모습을 담은 벽안이 그녀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어째서요? 단장님도 파트너 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대는 파트너를,”

“네?”

리히르트는 순간적으로 입 밖으로 흘러나온 말에 미간을 슬며시 접어야했다. 그 자신도 본인이 무슨 말이 하고 싶었던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큰 실수를 한 것 같다는 느낌만 강하게 들 뿐이었다.

조용한 눈길로 그녀의 얼굴을 살피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 들어왔다. 리히르트는 일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아닙니다. 어제부터 머리가 복잡해서 헛말이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게 대답했지만 아나샤는 간만에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파트너에 대한 단어를 거론한 순간, 그의 얼굴위로 떠오른 낙담한 기색을 생각하면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혹시... 파트너가 되어줬으면 하는 아가씨와 잘 안 되고 있는 건가?’

아픈 상처를 후벼 판 것 같아 미안한 한편, 그의 모습에 묘하게 테윌러의 모습이 겹쳐보였다. 아나샤는 머리를 붕붕 휘저었다. 여기서 왜 테윌러가 떠오르냐고 스스로를 타박하던 그녀는 문득 자신을 향해 닿아있는 눈길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었다.

“어, 왜 계속 서계세요?”

고개를 내젓는 그 작은 모습 하나 놓치지 않고 지켜보던 리히르트는 그제야 그녀를 지나쳐 책상 앞에 앉았다.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그가 일을 시작하자 아나샤도 천장위로 올라갔다.

한동안 서류를 넘기던 리히르트는 사위가 조용해지자 아래서랍에 손을 가져갔다.

여전히 서랍 깊숙한 곳에는 붉은 벨벳으로 덮인 서류철이 놓여있었다. 무도회까지 앞으로 일주일정도 남은 상태였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해야했으나 그는 소리 나지 않게 다시 서랍을 밀어 닫았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저 마음만 이상하리만치 답답할 뿐이었다.

저와 상관없다고 여겼던 무도회날이 가까워질수록 아나샤는 사형일에 가까워진 죄수처럼 시들시들해졌다. 크리스는 남모르게 혀를 찼고, 이 사실을 모르는 기사들은 마냥 그녀를 걱정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나샤는 화창한 날씨에 들판에 앉아 주위에 난 식물들을 죄 뜯고 있었다.

‘좋아한다, 안한다, 좋아한다, 안한다, 좋아...!’

아나샤는 마지막 남은 잎을 뜯지도 않고 바로 안 보이는 곳으로 던져버렸다. 다시 그 미친 짓은 계속되었다.

‘간다...안간다...간다, 안간다, 간다, 안간다...!’

드디어 만족스러운 대답이 걸렸는지 아나샤의 눈이 크게 확장되었다. 물론 어떻게 거절의 말을 해야 되는 지로 자연스럽게 고민이 넘어가자 그녀는 또다시 우울한 상태로 접어들었다.

마냥 대답을 기다리고 있을 테윌러에게 대답을 해줘야하는데 본인도 그 답을 내놓을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이 답을 의논해줄 여자친구 만들기 작전은 실패로 돌아간 지 오래였다.

“...무도회장이 부서지면 무도회날이 미뤄질 수도...,”

“완전히 미쳤네, 미쳤어. 그러다 황실반역이라도 일으키겠다.”

근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한번만 더 이런 이성적인 접근이 찾아왔다간 멸망론을 진지하게 읊어댈 것 같았다.

“이게 다 삼촌 잘못이야!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내가 뭘?”

“마주하라느니, 꽤 진심인 것 같다느니 했잖아!”

“그거야 뭐, 그렇게 보였으니까 그랬지.”

크리스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이에 아나샤가 눈을 부릅뜨며 일어서자 그는 그 자세 그대로 고개만 돌려 그녀를 똑바로 보았다.

“너 무도회 파트너 신청 받았지?”

“...!”

“속일 걸 속여라.”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널 몇 년이나 알고 지냈는데 그걸 모를까? 최근 무도회 얘기만 나오면 혼자 날이 서가지곤.”

벌써부터 바짝 경계의 날을 세운 아나샤를 크리스는 우습다는 듯 바라볼 뿐이었다.

“그래서, 지금 파트너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잖아?”

“하기 싫은 건 아냐. 무도회장 가고 싶기도 했고, 테윌러랑 같이 가면 재밌을 것 같으니까. 문제는... 테윌러가 날 좋아하는 여자로서 데려가는 건지, 그냥 친구로 데려가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럼 가서 물어봐.”

“그걸 어떻게 물어! 물을 수 있었으면 진작 가서 물었지!”

아무리 철면피라도 그 짓은 못할 것 같았다. 아나샤가 얼굴을 벌겋게 물들이고 외치자 크리스는 짓궂게 웃음을 터뜨렸다. 아나샤가 주위에 떨어져있는 돌멩이가 없는지 확인하자 그제야 그는 웃음을 그쳤다.

“흠! 그 친구도 널 부담주려고 한 얘긴 아니었을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고 와. 애당초 무도회 파트너가 친구를 데려오는 자리겠냐? 눈치껏 적당히 둘러대면서 거절하란 말이야.”

“역시... 그렇겠지? 그런 거겠지? 나 혼자 과대망상하는 거 아니지?”

“한때 내 별명이 독심술사였어. 그 친구 성격상 괜히 거절했다고 해서 더 마음 불편하게 만들 것 같진 않지만, 만약 그런다면 그냥 확 걷어 차버려! 그건 친구도 아니다!”

“...삼촌. 웬일로 도움이 다 되고... 고마워.”

“방금 엄청 거슬리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

“아니야, 고마워.”

아나샤는 은근슬쩍 웃으며 넘어갔다.

삼촌에게 털어놓길 잘한 것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감이 왔다. 삼촌의 말이 도움이 되는 날도 있구나, 아나샤는 신기한 기분이 들었다.

마침 가는 길이 같았기에 아나샤는 크리스와 함께 기사단 본관 쪽으로 걸어갔다. 이야기는 여전히 같은 주제로 이어졌다.

“역시 뭐든 정했으면 빨리 끝내는 게 좋겠지?”

“암, 질질 끌어봤자 좋을 게 뭐있겠어? 인생은 실전, 그리고 한방이지.”

“엄청 아저씨 같고 구려. 아무튼 나 오늘 대답하고 올래! 테윌러 일하는 곳에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거야말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근무 끝나는 시간 맞춰서 적당히 늦게 가.”

“휴, 그래도 대답해줄 생각하니까 떨리긴 떨리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제껏 피하고 싶어서 질질 끌었던 일이 맞나 싶을 만큼 마음은 편안했다. 떨리는 것과는 별개로 안정됨을 느꼈다.

어서 대답해줘야 테윌러의 마음도 편할 것 같았다. 상쾌한 기분에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는 그녀의 모습은 누가 봐도 들뜬 사람이었다.

아나샤가 홀가분한 얼굴로 걸음을 옮길 때, 한편 그 모습을 복도를 지나다 우연히 창문을 통해 보게 된 자가 있었다.

“단장님?”

갑작스레 걸음을 멈춘 그를 이상하게 여긴 행정관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혹시 뭐 빠뜨리신 거라도,”

“...”

“아, 아닙니다. 제가 다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회의장으로 가시죠.”

안 그래도 표정변화가 거의 없는 얼굴이라 눈치를 살피는 게 일인 행정관이었다. 비스듬히 그늘진 얼굴이 크게 굳어있기까지 하니 더 불안했다. 중요하게 뭐 빠뜨린 것은 없나 행정관은 서둘러 왔던 길을 돌아갔다.

그가 간 후에도 리히르트는 여전히 미동조차 없이 서있었다. 뒤늦게 걸음을 내딛긴 했지만 걸음걸이는 전보다 확연히 느려져 있었다.

리히르트는 본인 스스로를 둔감하다고 여겨왔었다. 기분 때문에 일을 그르친다거나 의욕을 상실해본 적은 없었고, 사소한 일 때문에 고민을 해본 적도 없었다.

한평생을 무디게 살아왔을 텐데, 처음으로 아무것도 집중이 되지 않고 있었다. 단순히 초조한 기분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아까 스치듯 들은 그녀의 얘기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는 오늘 저녁에 대답하고 오겠다고 말했었다. 보나마나 파트너에 관한 얘기일 게 뻔했다. 최근 들어 그녀가 이 문제로 끙끙 앓았었으니까. 그리고 밝아 보이는 목소리는 마침내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문제는 왜 이것에 본인이 초조함을 느끼는 가였다. 몇 개의 가설을 세운 그는 하나씩 따져보기에 이르렀다.

첫 번째는 그녀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들었던 입장으로서 그녀가 잘 얘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하지만 리히르트는 본인이 그렇게 사려 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다. 애초에 그런 것이라면 처음 고민을 들었을 때부터 감정적으로 이입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것은 조금 어긋났다.

두 번째는 그녀를 보고 자신도 빨리 파트너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히 조급하긴 했다. 하지만 그래서 조급하다면 왜 자신은 서류철을 펼치지 않는 것일까. 애초에 한시 빨리 파트너를 정해야한다는 건 예전부터 자각하고 있던 사실이었다. 앞뒤가 맞지 않았다.

세 번째, 그녀가 정말 파트너로 참석할까봐. 하지만 그녀가 제안을 수락하고 파트너로 참석하는 것이 왜 초조함을 느껴야하는 일인 것인가. 리히르트는 이에 대한 답을 여전히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어찌됐든 이 초조함도 한순간의 감정일 뿐이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라 여겼다.

‘...아홉 시인가.’

그러나 그의 판단은 틀렸다. 해가 지고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 동안에도 그의 기분은 그대로였다.

반밖에 처리하지 못한 서류가 그의 책상 오른편에 수북하게 쌓여있었다. 리히르트는 펜을 놓았다. 오늘은 되지 않는 일이리라. 간혹 길게 이어진 훈련에 쌓인 피곤함이 클 때 일찍 서류를 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겼다. 저택에 가서 마저 업무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해결될 것이다.

그는 서랍을 열어 한동안 쳐다보지 않았던 서류철을 꺼내들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다.

저택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마차 소파에 앉아 서류철을 펼쳤다. 리히르트는 세 명의 후보를 두고 종이를 넘겨가며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업무를 볼 때와 마찬가지로 머리는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하는 수 없이 서류철을 덮은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바깥 풍경이 빠르게 스쳐지나가고 있었다.

비쳐 들어온 노란 불빛에 그는 눈길을 따라 옮겼다. 어둑어둑한 가운데 가로등이 길게 이어지는 아치형 다리가 보였다. 수도에서 가장 큰 교였다. 그 밑에 흐르는 강 위로 주홍빛 얼룩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문득 예전에 보았던 풍경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리고 그날 제 옆에 있었던 그녀의 모습도. 서류철을 쥔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들어갈 때였다. 그의 시야 속에 다리 위를 지나는 작은 인영이 포착되었다.

어딘가 익숙하다 싶어 유심히 그 모습을 좇기 시작하던 그는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자 확신할 수 있었다. 다리를 건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샤 경이었다.

오늘 하루 종일 자신을 이토록 초조하게 만들었던 범인은 뭐가 그리 신이 났는지 걸음이 가벼웠다. 밤바람에 가볍게 흐트러진 머리칼은 금방이라도 어둠에 스며들 것처럼 까맸다. 그녀의 모습이 눈 밖에서 사라질까 뚫어져라 지켜보던 그는, 뒤늦게 그런 자신을 눈치 챘다.

‘어째서.’

무엇이 이리도 자신을 초조하게 만드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 사실은 인정하고 싶었다.

‘그녀가 가는 게 불만인건가?’

사실은 알고 있었다. 이 초조함은 그런 사람 좋은 걱정이나 새삼스러운 초조함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불편했던 것이다. 마음이.

그녀가 그런 상담을 해온다는 게, 지금 대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내에게 가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내일이면 신이 나서 어떻게 됐는지 얘기해줄 그녀를 마주한다는 게,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은 그저 타인으로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게 불편했다.

이렇게 숨어서 초조해할 바엔 적어도 자신도 솔직하게 한 마디 꺼내보기라도 했다면 좋았을 테다. 그리고 그 마지막기회가 지금 그의 손에 달려있었다. 리히르트는 가만히 손에 힘을 주고 있다가 결정을 내린 듯 마차천장을 두드렸다.

막 다리로 진입해 달리던 마차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그녀와 점차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리히르트는 문고리를 붙잡아 그대로 문을 열고 내려섰다.

“아사 경...!”

다리 한복판에서 갑작스레 불리게 된 아나샤가 뒤를 돌아보았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자신에게 급히 달려오는 남자가 보였다. 그녀는 크게 놀라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를 맞이하기 위해 발을 뗐다.

열 걸음도 남기지 않은 거리에 있을 때였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철이 땀에 의해 미끄러지며 손끝을 빠져나갔다. 바람에 의해 펼쳐진 서류철은 이내 돌로 쌓아진 낮은 난간에 부딪쳤다. 그대로 난간 아래로 떨어지려는 서류철을 아나샤가 다급히 붙잡기 위해 뛰어가던 순간이었다.

제 손을 붙잡는 뜨거운 손에 아나샤가 고개를 들었다. 어느새 몸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거리에 그가 서있었다.

“...어,”

그대로 칠흑 같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린 서류철을 바라보던 아나샤가 그를 올려다보았다.

“저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시 건져서 말리면 될 거 같긴 한데, 건져올까요?”

“중요한 것이 아니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괜찮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보다,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손을 놓으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모습은 단장실에서 봐왔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보였다. 풀어진 모습이랄까, 아나샤는 시선을 내렸다. 뜨거운 온기가 사라진 손등위로 시원한 밤바람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쩐지 허전하게 느껴졌다.

“무도회 날, 저와 함께 동행해줬으면 합니다.”

“...네?”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으로서의 강요도 아닙니다.”

아나샤가 다시 시선을 들어 그를 보자, 반대로 리히르트는 시선을 내렸다. 어두운 강 표면과 그림자가 진 돌난간 위 사이에 비스듬히 시선을 걸쳐두고서 그가 입을 열었다.

“그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런 선택지는 어떤지에 대해...”

“...어, 네?”

여전히 아나샤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다. 리히르트는 목이 타는 기분에 같은 말만 재차 반복했다.

결국은 하려던 말의 반도 꺼내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다가 그녀를 마차에 태웠다. 그리고 직접 문을 닫아주고 물러섰다.

“저기, 이 마차는, 단장님?”

“밤이 늦었습니다. 목적지를 얘기하면 그곳까지 바래다줄 겁니다. 타고 가십시오.”

“그치만 단장님은요?”

창문 밖으로 다급히 얼굴을 내민 아나샤가 물었다. 리히르트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현재 그는 아나샤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 같이 탈 수 없으니 자신이 내리는 수밖에.

“내일 봅시다. 아샤 경.”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으나 그의 얼굴에는 티 나지 않을 만큼 조용한 미소가 스며있었다. 아나샤는 정말 알 수 없다는 표정을 하고 그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출발한 마차에 실려 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

한동안 그녀가 사라진 방향을 응시하던 리히르트도 뒤늦게 걸음을 떼었다.

아나샤는 묻고 싶은 게 많아 아침부터 벼르고 있던 참이었다. 왜 어젯밤 저 혼자 마차에 태워 보낸 건지부터 시작해서 무도회 동행얘기는 또 뭔지 말이다. 물론 그 덕분에 테윌러와 얘기를 잘 끝내고 기사단까지 빠르게 마차를 타고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고마운 것과 이상한 것은 별개였다. 아침부터 단장실에 눌러앉아 그를 기다리던 아나샤는 문이 열리기 무섭게 쏜살같이 자릴 박차고 일어났다.

“단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차분한 무표정이었다. 곧 그의 얼굴에는 조그마한 의문이 피어올랐다. 두 팔을 벌려 그의 앞을 막아선 아나샤 때문이었다.

“얘기 좀 해요! 어제는 대체 왜...,”

“혹시 마상시합에 대해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마상시합은 왜요?”

“관심이 생겨서 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얘기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가 말끝을 흐리자 아나샤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비장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마상시합에 대해 신이 나서 떠들기 시작했다. 마상시합을 보려면 대회로 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시작으로 수도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큰 대회가 있는 얘기, 참가자격과 작년도 우승자에 대한 얘기까지 모조리 다 얘기해주었다.

“덕분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뭘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또 물어보세요!”

뒷머리를 긁적이며 아나샤가 웃었다. 칭찬을 받아 급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이것저것 더 떠들다가 뒤늦게 한참 시간이 흐른 것을 깨닫고 천장으로 올라갔다.

타일을 닫고 어둠 속에서 해죽해죽 웃고 있을 때 문득 그녀는 잊고 있던 사실을 깨달았다. 어제 일에 대해 묻는다는 것이 그냥 올라와버렸다. 아나샤는 다시 타일을 들어내고서 오전햇살로 물든 집무실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반듯한 자세로 일을 하느라 여념이 없어보였다.

‘...나중에 쉴 때 다시 말해야겠다.’

차마 방해는 할 수 없어 그녀는 다시 천장 타일을 바르게 원위치에 놓았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한 나중은 오지 않았다. 세 시간 뒤에도, 여섯 시간 뒤에도, 심지어 그가 퇴근할 때까지도 말이다. 그 주제를 꺼내려고만 하면 그가 말을 돌려버렸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별 의심하지 않고 곧잘 대답해주던 그녀도 삼일 연속으로 말을 꺼낼 타이밍을 잡지 못하자 의심이 들었다.

‘설마, 우리 단장님이 의도하고?’

아무리 봐도 그런 얍삽한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은 고상한 얼굴이었다. 차분한 인품에, 항상 솔직하게 자신을 대해주는 단장님이었다.

애초에 이렇게 요리조리 말을 돌려가면서까지 피해야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아나샤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뚫어지는 시선을 코앞에서 받고 있던 리히르트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무슨 용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 사실 있어요! 그... 저번에 말인데요.”

“아샤 경. 저번이라고 해서 생각난 것입니다만, 혹시 저번에 준 쿠키는 어땠습니까?”

“역시 말 돌리는 거죠?!”

아나샤는 이젠 확실히 알겠다며 그를 향해 삿대질을 했다. 무례한 부하의 행동에도 리히르트는 화를 내기는커녕 바람 한 점 없이 잔잔한 호수 같은 태도였다.

“단장님 실망이에요. 이런 얍삽한 수를 쓰실 줄도 아시고! 전 완전 좋게 봤는데, 마냥 청렴한 분은 아니었군요?”

“...그대 말대로입니다.”

푸른 눈을 내리깔며 리히르트는 순순히 인정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아나샤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다. 자신보다 큰 사내일 텐데 아름다운 외모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련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마치 자신이 모질게 괴롭힌 것만 같은 그런 죄악감이 드는 것이다.

“아, 아니에요. 역시 단장님은 청렴하시고, 누구보다 좋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못난 상관일 뿐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전혀 안 못났어요. 안 불편해요. 단장님을 의심한 제가 나빠요.”

아나샤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말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가 금방이라도 단장직에서 사라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 지금의 단장님이 너무 좋은 걸요. 그리고 저번에 주셨던 쿠키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말에 리히르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눈은 미약하게 부드러이 휘어진 채였다.

“맛있었다니 다행입니다.”

“사실 단장님이 주시는 건 뭐든 맛있지만요.”

아나샤는 대수롭지 않은 듯 말했지만 그의 눈웃음에 조금은 당황한 상태였다. 웃을 줄 아시는 구나... 그런 무례한 생각을 머릿속에 담은 채 아나샤는 그와 마주보고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아나샤는 몰랐다. 이것이 얼마나 진귀한 광경인지. 그의 이런 얼굴을 본 사람은 아나샤가 처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심지어 리히르트 본인조차 거울로도 본 적이 없는 얼굴이었다.

그도 자각 없이 지은 표정이었는지 곧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갔지만, 아나샤는 생각했다. 단장님의 환하게 웃는 얼굴이면 적의 검도 내려놓을 수 있겠다고 말이다.

무도회 날은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간 리히르트는 최대한 아나샤와 무도회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피해왔었다.

그녀가 거절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공식적인 행사 중 하나일 뿐인 그곳에 그녀와 함께 가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저 다른 이와 함께 참석하는 것에 왠지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했기에 얘기했을 뿐이었다. 물론 털어놓는다면 편할 거라 여겼던 마음은 그 뒤로 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운 것일까. 그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알 수 없기에 더 두려웠다. 지금껏 그녀의 대답을 듣는 것을 회피하고만 있던 그였지만 이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처지였다.

리히르트는 맞은편에 앉아 차를 홀짝이는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맛을 보듯 짧게 짧게 들이켜던 그녀가 곧 동그랗게 떠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다.

“이 차 뭐예요? 엄청 맛있어요.”

“달달한 차로 준비해달라고만 해서 저도 이름은 모릅니다.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보다 아샤 경.”

그는 잠시 닫았던 입술을 떼었다. 그러나 목 안쪽이 막혀있는 것처럼 쉽사리 말을 이을 수가 없었다. 몇 번의 시도 끝에야 그는 얘기를 꺼낼 수 있었다.

“…저번에 얘기했던 무도회 동행 말입니다.”

“아. 맞다. 무도회가 내일이죠?”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 같은 태도였다. 이에 그의 꽉 쥐어져있던 주먹이 절로 느슨히 풀어졌다. 알 수 없는 허무한 기분이 그를 덮쳐왔다.

“내일 동행할 의사가 있다면 나와 주십시오.”

리히르트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물론 오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는 기다리겠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부담이 될까봐, 더는 아무 말도 이을 수가 없었다. 이젠 그 자신도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무도회 당일이 되었다. 무도회장 문이 개방되는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이른 시간 리히르트는 이미 나와 있었다.

연미복을 차려입은 그는 넓은 마차 안에 홀로 앉아있었다. 약간의 기대감과 긴장감이 서린 굳은 얼굴로 그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건물을 예의주시했다. 다름 아닌 그가 매일 출근하는 기사단 건물이었다.

남성이 여성 파트너를 직접 데리러가는 것이 무도회의 관례였다. 보통은 파트너의 저택에 찾아가겠지만 아나샤가 사는 곳이 기사단 숙사이다 보니 이곳으로 온 것이었다.

숙사 앞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으면 그녀를 난감하게 만들까봐 기사단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마차를 대기시켰다.

함께 동행 할 의사가 있다면 나와 달라고만 했으니 이 정도가 적당한 것이다. 아직 그녀에게서 확답을 받지 못한 그로선 그저 기다릴 뿐이었다.

리히르트는 눈을 거의 깜빡이지 조차 않고 건물 쪽을 응시했다. 연미복에 구김이 가지 않게 미동 없이 앉아있기를 한 시간째였다.

얼마나 더 긴 시간이 흐른 건지 알 수 없었다. 손목에 찬 시계를 확인하자 이미 30분을 넘기고 있었다. 애초에 휴일이라 건물에서 나오는 이는 없었다. 그녀가 나온다면 어찌됐든 이 문으로 나올 테니 자신이 그녀를 놓쳤을 리 없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움직이던 은으로 된 분침은 어느덧 반 바퀴를 더 돌아있었다. 이미 출발해야할 시간을 넘긴지 오래였다. 초조함을 느낀 그는 괜스레 손목아래를 더듬었다가 손을 내렸다.

그는 반시간만 더 기다려보자는 생각으로 하염없이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었다.

그렇게 2시간을 넘게 기다렸지만 결국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웨일그레슬 공작의 때늦은 등장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가 공식적으로 처음 수도의 사교계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사실도 사실이지만, 무려 파트너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참석했다는 사실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물론 혼자 참석하는 귀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의 경우 약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기도 했다. 남성의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가 누군가. 수도에 온 이후로 이미 모든 미혼영애들의 신랑감으로 점 찍혀진 상대였다. 화려한 삶을 선호하는 수도의 여식들이 한평생 지방에서 지내는 것을 달가워할 리 없었다. 그렇기에 신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혼사의 상대로 거론되지 않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수도에 정착한 후로는 모든 쟁쟁한 귀족남성들을 재치고 당당히 신랑감 후보 1위에 올랐다. 그 당사자도 모르게.

신분도 신분이지만 알려진 외모에 수많은 여인들의 관심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나마 그의 실물을 본 여인들은 좀처럼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감정이라곤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무표정한 얼굴이었으나 그녀들에게는 더욱 이질적인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

북쪽의 설산을 덮은 눈처럼 새하얀 백금발은 윤이 흘렀고, 길게 내려앉은 속눈썹 아래 푸른 눈은 겨울호수보다 시리고 깊어보였다. 날카로운 턱 선이 돋보이는 옆얼굴은 차가웠지만 그래서 더 매력적이었다.

“...저런 매력적인 분이 계셨다니, 왜 이제까지 몰라 뵀던 걸까요?”

“저도 그래요. 정말 수도 밖의 남자들은 쳐다도 안 봤는데...”

“듣기로는 검술 실력도 뛰어나시다 던데, 검을 다루시는 모습은 또 얼마나 황홀할까요.”

무리지어 있던 영애들은 황홀한 탄식을 흘리기에 바빴다. 멀리서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뛰는데 차마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없었다.

그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질 만도 할 텐데 리히르트는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상석에 앉아있는 황제에게 인사를 올리고서 황태자가 있는 자리로 향했다.

황태자 에르디온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황녀 엘리시아를 그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황녀전하를 뵙습니다.”

“반가워요.”

부드럽게 물결치는 은색 머리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앉아있던 황녀는 눈앞의 사내를 향해 사근히 웃어보였다.

“그보다 공의 파트너는 어디 있지? 함께 오지 않은 건가?”

에르디온의 물음에 리히르트는 “네.”하고 짧은 대답을 내놓을 뿐이었다. 감정이 배제된 얼굴이 일순 딱딱하게 굳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에르디온은 “저런.”하고 아쉬운 탄식을 흘렸다.

“함께 할 파트너가 없다면, 내 여동생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건 어떻지?”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한 말이었다는 듯이 그는 매끄럽게 제안했다. 물론 곧바로 대답이 들려오지 않자 에르디온은 제 여동생을 돌아보았다.

“엘리시아, 너 또한 싫지 않다면 말이야. 너도 춤을 춰야하지 않겠니?”

엘리시아는 눈길을 살며시 내렸다. 그녀는 아직 약혼자가 없었다. 그러니 매번 함께 춤을 추는 상대는 오라버니인 에르디온이나 2황자 일리예스였다.

두 사람 다 아무런 말이 없자 에르디온은 낮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싫어보이진 않는 것이 둘이서 대화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줘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에르디온은 자리에서 일어나 파트너에게 향했다. 황태자가 약혼녀 브렌시아 공녀와 함께 댄스플로어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자 귀족들도 너나할 것 없이 손을 맞잡고 댄스플로어로 향했다.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남녀들을 리히르트는 멀찍이 떨어진 채 지켜보았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시아가 몸을 일으켜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동시에 수많은 귀족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몰렸다. 훤칠하리만큼 잘생긴 공작과 아름답기로 유명한 황녀의 조합은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였다.

설마 아무하고도 동행하지 않은 이유가 황녀의 파트너였기 때문인 것일까. 놀라움과 선망이 담긴 시선들이 쏟아졌으나 뛰어난 무신경함을 자랑하는 리히르트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와 함께 춤을 추시겠어요?”

리히르트는 그녀를 돌아보았다.

“미안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 같은 대답을 내놓고서는 그녀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리히르트는 댄스플로어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를 향해 고정되어 있던 시선들도 시간이 흐르자 점차 하나둘 떨어져나갔다. 미동조차 없이 서있는 그를 관찰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던 것이다.

묵묵히 술잔을 기울이던 리히르트는 비운 술잔을 내려놓기 위해 구석진 곳에 자리한 테이블로 다가갔다. 새 술잔을 쥐려다가 그는 무의식중에 손을 뒤집어보였다. 그리고 매끄러운 테이블보 위를 두 번 톡톡 두드렸다. 업무 중에 그녀를 부르고 싶을 때마다 하던 행동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소리에 그녀는 항상 어김없이 제 앞에 나타났었다.

이젠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모양이었다. 늘 곁에 있다시피 했던 그녀가 없으니 홀로 있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리히르트는 이런 제 변화가 신기하기만 했다. 혼자 있는 것을 허전하다고 여기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

그녀가 아니었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감정들이었다. 그래서 소중했고, 더욱이 지금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았다.

처음으로 가까워진 자였다. 더 가까워질 수 없다면 더 멀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리라. 다물린 입가 위로 알 수 없는 씁쓸함이 번진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톡, 하고 작은 무언가가 그의 어깨위로 떨어진 것은.

리히르트는 제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물체를 응시했다. 부서진 호두조각이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빠르게 머릿속을 스치자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드높은 천장 위에 달린 샹들리에 사이로 또 한번 작은 견과류 조각이 떨어지자 그는 확신할 수 있었다.

저곳에 그녀가 있다. 그 사실에 가슴 안쪽이 간질거렸다. 그는 이름 모를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나가겠습니다. 당장.’

리히르트는 소리 없이 입술을 벌려 말했다. 자신에게는 너무 멀어 그녀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저곳에서 자신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으리란 확신이 들었다.

그는 빠르지만 조용히 회장을 벗어나 복도로 나왔다. 푸른 달빛이 내려앉은 넓고 어두운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적당한 곳에 멈춰 서서 벽을 두 번 두드리자 곧이어 그가 서있는 천장 끄트머리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달그락대며 타일을 들어 올린 아나샤가 구멍사이로 머리를 내밀었다. 까만 단발머리가 아래로 흘러내렸다.

“단장님!”

“아샤 경. 대체 언제부터 거기 위에 있었던 겁니까?”

“음, 무도회 시작되고 나서요? 아슬아슬하게 도착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단장님과 동행한다는 약속은 지켰습니다!”

칭찬을 기다리는 듯한 그 얼굴에 리히르트는 자신과 그녀 사이에 오해가 있었단 것을 알아차렸다.

“그보다 시키실 일은요?”

아마 그녀는 동행을 개인적인 임무로 이해했던 모양이었다. 동행하자고 했을 뿐 파트너로서 함께 참석하자고 말한 건 아니었으니 말이다.

“일단 거기서 내려오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돌아서 오려는지 거꾸로 매달려있던 그녀가 다시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조차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다.

“아샤 경.”

그 나지막한 목소리에 아나샤가 다시 구멍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받아주겠습니다.”

리히르트는 고개를 한 번 끄덕였다. 그냥 제 위로 뛰어내려도 좋다는 뜻을 찰떡같이 알아들은 아나샤는 난감한 기색을 띠우며 머뭇거렸다.

“어..., 물론 대리석 바닥보다는 단장님 몸이 훨씬 물렁물렁하겠지만, 그러면 단장님 뒤통수가 아작 날 텐데요.”

“안 넘어질 자신 있습니다.”

“그치만요. 제가 단장님이 보시는 것보다 훨씬 무거울 수 있어요. 음, 많이 불안한데...,”

“제대로 받아낼 테니 한번 믿어주겠습니까?”

강경하게 나오는 그의 말에 아나샤는 잠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싶은 심정으로 천장 구멍사이로 몸을 내밀었다. 그리고 최대한 닿을 수 있는 거리까지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손을 놓았다.

‘단장님 뒤통수, 뒤통...!’

질끈 눈을 감은지 2초도 되지 않아 아나샤는 다시 눈을 떴다. 어느새 제 코앞에는 그의 부드러운 금색머리칼이 위치해있었다.

머리가 살짝 흐트러진 것 빼고는 그는 전과 비교했을 때 미동조차 없어보였다. 오히려 그의 몸이 생각보다 많이 다부져 조금 놀랄 정도였다. 안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내다 못해 엉덩이 아래를 바친 팔뚝은 강철처럼 절대 부러지지 않을 것 같았다.

“보십시오. 믿길 잘했지 않습니까?”

별안간 그가 고개를 들어 자신을 보며 말했다. 푸른 눈동자가 소리 없이 아래로 나긋이 휘어져있었다. 아나샤는 그의 품에 안겨 있다가 쥐고 있던 그의 어깨를 살짝 밀어내었다. 그제야 리히르트는 자세를 풀어 그녀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뒤통수 안 깨져서 다행이네요.”

“어쩐지 제 뒤통수가 무사해서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냥 뭔가 좀, 암튼 뭔가 그래요.”

아나샤는 순간 그 때문에 당황한 것을 필사적으로 숨겼다.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았다.

“근데 아까부터 술만 드시던데 취하신 거 아니죠?”

“…취해보입니까?”

“조금은요?”

그답지 않게 눈웃음을 지어보였던 것을 그녀는 그가 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취하면 평소 안하던 행동을 하거나 유독 기분이 들뜨는 유형인 것 같았다.

“시킬 일은 뭐예요?”

“저와,”

“?”

“놀아주었으면 합니다.”

순간 그가 장난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것치곤 그의 태도는 진지했다.

“무도회가 끝날 때까지 어디서 쉬고 싶습니다. 경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 부르셨단 말예요?”

아나샤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테윌러에게는 단장님이 그날 시킬 일이 있으신 것 같아 파트너가 되어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했는데 말이다. 물론 거절할 생각이긴 했지만 거짓말을 친 것 같아 마음이 찔렸다.

“저는 동행하자고 엄청 진지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중요한 일인 줄 알았단 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쉬는 거였는데!”

째릿 하고 상관을 쏘아보는 눈빛이 당돌했다. 다른 기사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겠지만 아나샤는 투정이란 투정은 다 부릴 기세로 말을 덧붙였다.

“이래봬도 저 꽤 비싼 인력이라구요. 제가 매일 놀아주니까 아주 쉬워 보이죠? 심심하면 막 불러내고.”

“그럴 리 있겠습니까.”

조용히 미소만 머금고 있던 리히르트가 대답했다. 그녀를 대하는 것은 조금도 쉽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는 상대는 그녀가 처음이었다.

“어떻게 하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겁니까?”

“역시 이렇게 나와야죠.”

“원하는 건?”

“음, 뭘 부탁할까... 아! 일단 목이 마르니까 음료가 필요하겠네요.”

어렵지 않은 부탁이었다. 리히르트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이 작은 부하의 투정이라면 뭐든지 다 받아들일 기세였다.

“연회장에서 마실 것을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입고 당당히 돌아다니긴 좀 그러니까 전 여기서 기다릴게요.”

“알겠습니다.”

“넵! 전 달달한 음료로.”

아나샤는 무도회장으로 걸어가는 그를 바라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한 시간 넘게 잠복해있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었다.

‘한 십분은 더 걸리려나.’

통통 다리를 두들기며 그가 언제쯤 돌아올지 추측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사라졌던 방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하지만 그는 아닌지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복도 위로 울리고 있었다.

아나샤는 잽싸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새카만 옷차림을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보면 놀랄 것 같았다. 복도 끝에서 조용히 걸어오던 인영이 이윽고 옅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몰래 지켜보고 있던 아나샤는 작게 숨을 들이켰다. 달빛이 고인 복도 위를 홀로 조용히 걷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황녀님이었다.

가까이에서 본 그녀의 얼굴은 천장위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다. 머리카락은 은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은은히 빛났고, 도톰한 입술은 과즙처럼 붉었다. 세상에 요정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숨을 죽인 채 황녀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중 희미하게나마 또 다른 기척이 느껴졌다. 정확히는 머리 위에서 느껴지고 있었다.

쥐의 움직임이라 하기엔 컸다. 기척을 좇아 천장을 올려다본 순간이었다. 어둠을 가르고 무언가가 아나샤를 향해 날아들었다.

아나샤는 황급히 기둥에서 떨어져 그것을 피했지만 완전히 피하지 못했는지 뺨이 따끔거렸다. 눈 아래로 둘러진 검은 천은 길게 찢어져있었다.

그 사이 아래로 내려온 정체불명의 복면인은 어느새 황녀의 앞에 다가와 있었다. 아나샤는 곧바로 허리뒤쪽에 매고 있던 작은 단검을 뽑아들었다. 황녀의 앞을 막아선 순간 복면인이 아나샤를 향해 달려들었다.

“윽, 도망가세요!”

부딪쳐온 단검의 무게에 손목이 다 지끈거릴 정도였다. 하지만 물러났다간 황녀에게로 검이 갈까봐 그럴 수 없었다.

예리한 후각은 눈앞의 상대가 위험하다고 외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은 피를 묻힌 건지 눈앞에 위치한 단검에선 짙은 피비린내가 맡아졌다.

굳어있던 황녀가 무도회장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하자 아나샤는 빠르게 단검을 흘려보내고서 상체를 숙였다. 순식간에 좁혀진 거리에 바로 공격을 시도했으나 암살자는 그 공격들을 가볍게 쳐내버렸다.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신 울려 퍼지는 동안 아나샤는 다른 손을 뒤로 가져갔다. 그리고 숨겨놓은 다른 단검을 쥐고서 암살자를 향해 찔렀다. 양손으로 공격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한 암살자가 그것을 쳐내기 위해 손의 방향을 바꾸자 아나샤는 재빨리 반대쪽 단검을 움직여 암살자의 팔등에 꽂았다.

제법 깊숙이 파고들어 고통이 상당할 텐데도 암살자는 잠깐 주춤할 새도 없이 아나샤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었다. 오히려 강하게 내리치듯이 단검을 휘둘러 아나샤와의 간격을 넓혔다.

그는 자신의 팔등에 꽂혀있던 단검을 뽑아내었다. 그 찰나의 틈도 주지 않겠다는 듯이 아나샤가 덤벼든 순간, 굵은 핏방울이 아나샤의 얼굴위로 튀었다. 뽑아낸 단검을 쥐고 바로 휘둘러온 것이다.

다친 팔로 반격해오리라곤 생각지 못한 아나샤가 물러나려할 때였다. 암살자가 다른 한손에 쥐고 있던 단검을 던졌다. 아나샤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몸을 튼 순간 거대한 손이 그녀의 왼쪽 손목을 낚아채듯 붙잡았다.

그리고 손을 빼내기도 전에 그대로 역으로 꺾어버렸다.

“아악!!”

순간 어마어마한 고통에 아나샤는 비명을 질러야했다. 정신을 놓아도 이상하지 않을 극통에 단검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아나샤는 떨어지는 단검을 오른손으로 받아내었다. 그대로 복면을 뒤집어쓴 옆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나 그는 가볍게 고개를 꺾어 피하곤 더 세게 아나샤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암살자는 그대로 아나샤의 머리를 붙잡아 아래로 넘어뜨렸다. 그대로 몸 위에 올라탄 그가 그대로 단검을 세워 어깻죽지에 박아 넣으려던 순간, 아나샤가 그의 복부를 걷어찼다.

갑작스러운 타격에 암살자의 몸이 일순 미동을 보였으나 그것도 잠시였다.

“…시도는 좋았지만 약해.”

복면 너머로 거칠거칠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암살자는 아나샤의 목에 단검을 가져다대었다.

아나샤는 물기가 어려 흐릿해진 시야로 검은 복면을 노려보았다. 그 정도의 악력이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제 목을 자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는 더 반항할 시간이라도 주듯 자신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아나샤는 더 분했다. 힘껏 발악해도 상대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힘 차이로 진다는 게 너무나도 분했다.

그때였다. 보이지 않는 먼 곳에서 이곳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인기척을 느낀 것인지 암살자가 서둘러 몸을 일으키자 아나샤는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윽, 기다려. 황녀님을 암살하려 하고도…무사할 줄 알아?”

잠시 아나샤를 향해 시선이 머물렀으나 암살자는 곧 가볍게 그 손길을 뿌리쳤다. 그러곤 아나샤의 머리맡에 단검을 던져둔 채 사라졌다.

무도회장으로 돌아온 리히르트는 아나샤가 마실 음료부터 찾았다. 단걸 좋아하는 그녀를 위해 작은 디저트가 담긴 접시까지 들고서 그는 빠르게 회장을 벗어났다.

공작인 그가 시종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지만 그는 조금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리히르트는 이 들뜨는 마음을 억누르지 못해 힘겨울 정도였다.

마신 술이라 해봤자 고작 칵테일 몇 잔이었다. 웬만한 독한 술에도 잘 취하지 않는 그라지만, 리히리트는 어쩌면 자신이 취했을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었다.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마음이 들뜨는 이유를, 걸음이 점차 빨라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으니 말이다.

그는 가슴을 가라앉히기 위해 깊게 숨을 몰아쉬었다. 차분한 달빛이 내려앉은 어두운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애써 차분하려 애쓰며 그녀가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

맞은편 복도에서 누군가가 오는 것을 알아차린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이윽고 나타난 사람은 그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놀란 얼굴의 황녀는 빠르게 그를 향해 다가왔다.

리히르트가 묵례를 하고 그녀를 지나치려할 때 떨리는 손이 그를 붙잡았다.

“복도에 암살자가 있어요.”

그 말에 리히르트의 눈길이 황녀에게로 향했다.

“절 해치려는 걸…어떤 검은 복장의 사람이 막아줘서,”

덕분에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는 말이 이어졌으나 그는 뒷얘기는 조금도 들리지 않았다. ‘검은 복장의 사람’이란 말을 뒤로하고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만 같았다.

리히르트는 들고 있던 것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달렸다. 그녀와 헤어졌던 장소로 향하는 동안 이상하게도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연무복과 머리가 흐트러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달려간 그곳에는 아나샤 그녀가 있었다.

어두운 복도 위에 쓰러져있는 그녀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찬 순간, 리히르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불안한 예감에 크게 술렁이던 심장이 순식간에 멎은 것 같았다.

붉은 피로 얼룩진 단검이 그녀 머리맡에 떨어져있었다. 심한 부상을 입은 것인지 그녀의 손과 얼굴도 피투성이였다.

“…단장님.”

그때, 그녀가 고개를 돌려 자신을 올려다보았다. 눈물로 번진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리히르트는 온몸의 피가 모조리 빠져나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잠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던 그는 침착하게 행동을 옮겼다.

리히르트는 그녀 옆에 다가가 몸을 숙였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 몸 위에 덮어준 후 그녀를 품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아파도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그보다 암살자가, 아직 멀리가진 못했을 거예요.”

암살자를 뒤쫓는 게 먼저라고 말하려던 아나샤는 그의 표정에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일그러진 미간과 굳게 다물린 입이 마치 본인이 다치기라도 한 것처럼 아파보였다.

애초에 그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 같았다. 아나샤가 포기한 채 그에게 몸을 맡기고 있을 때, 마침 근처복도를 지나가던 근위병들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멈춰 섰다.

“황궁 의무실은 어디에 있지?”

그들의 거수경례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단 듯이 리히르트는 본론부터 꺼냈다.

“본궁으로 가셔야합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회장 안에 암살자가 잠복해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긴 말 하지 않겠다. 조속히 황실근위대에 이 사실을 알리고 건물 주위를 포위하라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기사 하나가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그들을 뒤로하고 리히르트는 곧장 기사의 안내를 받아 의무실로 향했다.

본궁까지 조금 거리가 있었으나 그들은 최단 시간 내에 본궁에 도착할 수 있었다. 말로 재촉하진 않았으나 원체 흉흉한 분위기를 띠고 있는 공작이 뒤에 서있으면 누구라도 서두를 수밖에 없으리라.

아나샤는 의무실안 간이침대 위에 눕혀졌다. 얼마나 조심스레 내려놓는지 눕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을 정도였다. 황실의원인 늙수그레한 노인이 다가와 그녀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덮은 옷을 치우자 피투성이의 모습이 드러났다.

“저기, 이 피…제 거 아니에요.”

심각한 분위기에 아나샤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제야 리히르트의 표정이 조금은 펴지려는데 아나샤가 이어 말했다.

“근데 손이...”

아나샤는 울먹이며 제 왼손을 들어보였다. 덜덜 떨리는 손은 피로 번져있어 정확한 진단이 어려웠으나 확실히 심각한 태가 났다. 황실의원은 물을 적신 천으로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으읏…, 으으.”

“쯧쯧, 어쩌다가 이렇게...”

밝은 조명아래 드러난 왼손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얼마나 심하게 꺾인 것인지 퉁퉁 부어오른 손목은 고통에 잘게 떨리고 있었다.

“손목뼈가 아예 부러진 것 같습니다. 상태를 봐선 여러 번 꺾인 것 같은데.”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아파하는 모습에 의원은 바로 치료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여겼다. 침대 곁에 서서 여인이 고통스런 신음을 흘릴 때마다 무섭게 자신을 바라보는 사내로 인해 그럴 수도 없었지만.

“죄송하지만, 앉아계시겠습니까.”

황실의원의 말에 리히르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 사이 의원은 말린 수면초를 가져왔다. 금방 잠이 들게 하는 효능을 가진 약초로, 너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것이었다.

수면초를 씹게 하자 얼마안가 아나샤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감긴 두 눈은 눈물로 푹 젖어있었다.

치료가 시작된 동안 리히르트는 잠든 그녀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였다. 항상 밝게 웃고 있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살면서 피를 본 적은 수도 없이 많았다. 핏물을 뒤집어쓴 채 전투지를 누비던 때도 있었건만 그녀의 얼굴위에 번져있던 피를 본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리히르트는 익숙한 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다. 그 피가 그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말이다.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은 깊게 가라앉은 채였다. 푸른 벽안 속에는 어느덧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동안 황실의원은 손목에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아 치료를 마쳤다.

“최소 한 달간은 절대 왼손은 사용하지 않게 하십시오.”

“치료 고맙군.”

황실의원의 주의를 들은 리히르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잠든 그녀의 몸에 다시 덮어준 후 그녀를 안아들었다. 그 모습이 퍽 조심스러워서 황실의원은 역시 숨겨둔 연인인 모양이라고 넘겨짚을 뿐이었다.

속눈썹 사이를 찌르는 햇살에 아나샤는 눈을 떴다. 가장 먼저 느껴진 욱신거리는 통증에 그녀는 왼손부터 확인해야했다. 하얀 붕대로 감겨진 제 손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는 것도 잠시, 뒤늦게 들어온 방 풍경에 눈을 크게 떴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넓은 객실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아나샤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 일단 몸을 일으켰다. 이전에 한번 이곳에서 잔 기억이 있어 이곳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쩌지? 창문으로는…못나갈 것 같고.’

예전엔 누가 볼 새라 다음날 아침 바로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갔다지만, 지금은 손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아무리 자신이라도 이 높이에서 떨어졌다간 즉사할 게 틀림없었다.

아나샤는 창문을 다시 닫고 불안하게 방안을 돌아다녔다. 그때 문밖에서 노크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기상하셨다면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네? 네!”

아나샤는 경례라도 올릴 것처럼 바짝 긴장한 채 열린 문을 바라보았다. 회색머리를 틀어 올린 중년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발목 위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긴 치마 위로 하얀 앞치마가 둘러져있었다.

“주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는지요?”

“아, 아뇨, 전혀요.”

“시장하실 테니 아래층에서 식사를 준비해놓겠습니다. 세안과 환복을 도울 시녀를 붙여드릴 테니 준비가 끝나시면 아래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으셔도!”

태어나 한 번도 시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나샤가 부담감에 허둥지둥될 때, 이 저택의 시녀장인 마를린은 차분한 얼굴로 대답했다.

“기사님의 모든 편의를 봐드리라는 가주님의 명이 있으셨습니다. 왼손에 부상을 입으신 것 같은데 모쪼록 편히 맡겨주십시오.”

“그렇다면 뭐…부탁드릴게요.”

괜히 거절하기도 뭐하자 아나샤는 얌전히 수락했다. 그녀가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좀 더 젊어 보이는 두 명의 시녀가 들어왔다.

“원래 입고 계시던 검은 복장은 깨끗이 세탁하여 말리는 중입니다. 야외 외출복으로 적당한 옷이 셔츠와 바지뿐인데 이걸로 갈아입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제 맨살을 드러내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 아나샤는 뻣뻣하게 옷 시중을 받아야했다. 부드러운 린넨 셔츠와 편한 바지로 갈아입은 아나샤는 시녀의 안내를 받아 저택의 식당으로 내려갔다.

혼자 앉기 뭐할 만큼 긴 식탁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 식탁 옆에는 집사로 추정되는 중년 남성이 서있었다. 직접 의자를 빼주는 그의 행동에 아나샤는 왠지 부끄러워 고개만 꾸벅 숙였다.

“식사 중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십시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저기, 그보다 단장님은요? 같이 먹는 게…,”

“가주님께서는 현재 자리를 비우신 중이십니다.”

“안 계신다고요? 혹시 지금 몇 시예요?”

“두 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태연한 집사의 대답에 아나샤는 눈이 튀어나갈 것만 같았다. 아침식사라고 생각했는데 아침은커녕 정오를 훌쩍 넘긴 시간이었다.

“언제 나가셨는데요? 아니 그보다 왜 안 깨우고 가셨대요!”

“그것이…,”

아나샤의 말에 집사는 조금 곤란한 듯 뜸을 들였다.

“어젯밤 기사님을 저택에 데려오신 후 바로 나가셨습니다.”

“어젯밤에 나갔다고요…?”

“네.”

밤새 들어오지 않았다는 말에 아나샤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가 싶은 것이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다섯 시간 전쯤 기사단에서 근무 중이시라고 서신을 보내오셨습니다.”

집사는 연륜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얘기했다. 금방이라도 기사단으로 달려갈 것 같은 그녀를 달래듯 차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기사단으로 가시는 것이라면 마차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식사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동안 마차를 대기시켜놓겠다는 말에 아나샤는 별다른 거절의 말을 찾지 못한 채 얌전히 앉아야만했다. 기껏 차려놓은 음식을 한입도 먹지 않고 가면 실례일 것 같아 한 스푼 맛본 순간이었다.

아나샤는 머릿속이 작은 충격으로 번쩍이는 기분을 느꼈다. 입에 넣은 고기요리는 혀 위에서 녹아내릴 것처럼 맛있었다.

주인 없는 저택에서 혼자 이렇게 먹고 있어도 되나 조금 죄책감이 들었으나 유혹을 이겨내긴 힘들었다. 결국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고서 마차에 올라야했다.

기사단에 도착한 아나샤는 곧장 단장실로 향했다. 벽과 나무를 탈 수 없으니 계단을 타고 복도를 달려서 간신히 도착할 수 있었다.

“단장님!”

업무를 보던 상태 그대로 리히르트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을 닫고 성큼성큼 다가오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 피로에 찌들어있었다는 양 그의 눈은 오로지 눈앞에 서있는 그녀를 걱정스레 살폈다.

“몸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왼손만 빼면 완벽할 정도로 좋아요. 그보다 밤 새셨다면서요? 안 피곤해요?”

“조금 피곤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달간은 무리하지 말고 쉬십시오. 왼손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저 말고 단장님이 쉬셔야할 것 같은데요…?”

여전히 감탄이 나올 만큼 아름다운 얼굴이라지만 그 위에 피로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햇살에 물든 금빛머리칼이 바스라질 것처럼 힘없이 반짝거렸다. 하얀 피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한 것 같았고, 눈가 아래로 희미한 그늘이 드리워져있었다.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남았는데요?”

대체 하루 동안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이 쌓였기에 철야로 처리해도 남아있나 싶었다. 여기서 아나샤가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가 업무자리에 앉은 지는 고작해야 여섯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그전까지 리히르트는 황녀를 위협하려던 복면인을 잡는 것에 모든 시간을 할애했었다. 황태자에게 직접 이번 사건을 맡고 싶다고 부탁하여 모든 수사권한은 그에게로 넘어온 상태였다.

리히르트는 아직까지도 어젯밤 일이 생생하기만 했다. 나뭇가지처럼 가는 손목이 심하게 꺾인 채 잘게 떨리던 모습을 다시 생각하노라면 머릿속이 분노로 하얗게 변해버리는 것이다.

서느런 분노는 여전히 가슴속에 응어리진 채였다. 복면인을 잡는 것에 혈안이 되어있는 터라 잠시 눈을 붙여야겠단 생각도 들지 않았다.

“…저 단장님?”

“...미안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있었습니다.”

그는 평정심을 되찾으려 노력하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내렸으나, 아나샤는 여전히 눈을 동그랗게 뜬 채였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단장님, 정말 안 주무셔도 돼요? 잠깐이라도 소파에서 눈 좀 붙이는 게 어때요? 네?”

“아직 버틸 만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단장님...쓰러지시면 어떡하나. 아나샤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를 잠깐이라도 자연스레 재울만한 무슨 좋은 생각이 없을까. 한동안 뭐 마려운 강아지처럼 그의 주변을 겉돌던 아나샤가 책상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오르는 충성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문득 기가 막힌 작전 하나가 떠오른 것이다.

“예전에 저랑 기사단 뒤편에 산책 나가도 좋을 것 같단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산책 말입니까?”

“네. 지금 잠깐 바람 쐬러 갈래요? 계속 앉아있었잖아요. 어디서 들었는데 오래 앉아있으면 오히려 일에 더 집중이 안 된대요. 몸 찌뿌듯하지 않으세요?”

제법 그럴 듯한 말이었는지 그는 순순히 몸을 일으켜주었다. 아나샤는 말갛게 웃는 얼굴로 먼저 문으로 걸어갔다. 그녀를 아는 다른 사람이 봤다면 뭔가 꿍꿍이를 품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할 표정이었으나, 리히르트 그의 눈에는 마냥 해사해보이기만 했다.

두 사람은 기사단 뒤편의 산책로를 따라 함께 걷기 시작했다. 머리 위로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었고, 이따금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다.

리히르트는 그녀 말대로 나오길 잘했단 생각이 들었다. 조금 피로하긴 했지만 탁트여있는 풍경 탓인지 확실히 기분전환은 되었다.

“저희 잠깐 앉았다가요.”

먼저 달려가던 아나샤가 들판 위에 편하게 두 다리를 펴고 앉았다. 그리고 그를 돌아보며 옆자리를 토닥였다. 리히르트는 그녀 옆에서 두 걸음정도 떨어진 거리에 앉았다.

두 사람 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을 때였다. 아나샤가 짐짓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저요. 가끔 생각해요.”

“무슨 생각 말입니까?”

“사는 거요.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리고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살아있기에 행복한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 살아있는 걸까요. 애초에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소소한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녀를 아는 다른 이가 듣는다면 ‘얘가 미쳤나?’하고 생각할 얘기도 그는 아무런 표정변화 없이 잠잠히 들어주고만 있었다.

아나샤는 그 모르게 속으로 사악하게 웃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진지하게 굳힌 채 인생얘기를 끝없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가 먼저 자리를 뜰 수 없도록 무겁게 분위기를 잡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날씨 좋은날, 한가로이 들판에 앉아있다 보면 나른한 기분에 취해 눈이 감기기 마련이었다. 거기다 얘기까지 지루하면 졸음을 견디기는 더욱 힘들 터였다. 그리고 아나샤의 예상은 적중했다.

‘계획대로군...’

그가 서서히 눈을 감았다. 이에 아나샤는 횡설수설하던 목소리를 작게 낮추며 그를 살폈다.

단순히 눈만 감은 건지, 진짜 조는 건지 의심이 들 때였다. 그의 머리가 살짝 옆으로 기울어졌다. 불편해 보이는 그 모습에 아나샤는 고민했다.

그가 잠시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자신의 어깨를 빌려줄까 했지만 어깨가 너무 낮다보니 오히려 기대는 게 불편할 것 같았다. 고민 끝에 아나샤는 조심스레 그의 옆머리에 손을 가져갔다.

그 순간, 감겨있던 눈이 떠지며 푸른 눈동자가 드러났다. 곧 상황을 파악한 리히르트가 흠칫하며 고개를 뒤로 물렸다.

“죄송해요! 제가 깨웠죠. 자세가 불편해보여서 고쳐준다는 게...,”

“아닙니다. 얘기 중에 잠들어서 미안합니다...”

그 말에 아나샤는 두 눈에서 보이지 않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헛소리를 묵묵히 들어준 것도 고마운데, 진지한 고민인 줄 알고 열심히 경청해준 그에게 감동스러운 마음마저 느꼈다.

“아니에요.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 얘기였어요. 그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잠깐이라도 눈 붙여요! 제가 베개 해줄게요.”

그렇게 말한 아나샤는 리히르트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두 귀를 감싸자 그의 눈이 제게로 닿았다. 눈빛이 살짝 떨리는 것이 많이 피로한 모양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이 치민 아나샤는 그대로 그가 누울 수 있게 살짝 힘을 주어 당겼다. 붕대로 감긴 왼손으로 자신을 잡으니 리히르트는 차마 그녀의 손에 무리가 갈까 거부하지 못한 채 순순히 그녀의 손에 따라 움직여야만 했다.

이윽고 그의 머리가 아나샤의 무릎위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는 가시방석위에 머리를 댄 사람처럼 딱딱하게 굳은 낯이었다.

“괜찮...습니다. 이러지 않아도,”

“사양 말고 베고 누우셔도 돼요. 머리 하나정도야 무겁지도 않다구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아요. 무릎 정도는!”

한사코 거절하는 그를 아나샤는 외려 말렸다. 확실히 자세가 편하긴 한지 그는 곧 침묵을 지켰다.

“보세요. 편하죠?”

그렇게 묻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게 느껴져 리히르트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면에는 그녀의 말간 얼굴이 가까이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리히르트는 차마 계속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어 눈을 감았으나 그것은 그를 더욱 고역에 시달리게 했다.

이상하게 자꾸만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의 뜨거운 체온이나 부드러운 향이 무의식중에도 느껴져서 본인이 이상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다.

편히 감은 듯해도 조금씩 떨리는 긴 눈썹에 아나샤는 흘러내린 앞머리가 불편해서 그런가? 넘겨짚었다. 손을 들어 하얀 실타래 같은 금색머리칼을 조심스레 피부에 닿지 않게 옆으로 쓸어 넘겨주었다.

그러나 그 손길에 그는 고문 아닌 고문을 받는 기분이었다. 아까까지만 해도 몽롱했던 정신은 어디가고 온몸의 모든 감각이 맑게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그것도 강제로.

심장박동 소리는 원래 귓가를 가득 메울 만큼 컸었던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뿐인데도 흉부를 강하게 억눌린 것처럼 힘이 들었다. 귓가가 달아오르고, 입안이 자꾸만 말라오는 것이 이상했다.

그리고 이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태연한 척하는 것은 괴로웠다. 금방이라도 기침이 나올 것처럼 폐 속부터 피부까지 모든 감각이 간질거렸다.

처음 겪는 이상현상이었으나 그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제는 제 마음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잠은 달아난 지 오래였다.

해가 중천에 뜬 시간 아나샤는 느지막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느긋하게 하품까지 터뜨리며 방안에 딸린 작은 욕실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어푸어푸 소리가 날 만큼 요란한 세수를 했겠지만 한손으로만 씻으려니 생각처럼 잘되지 않았다. 결국 고양이세수로 대신하고서 욕실을 나와야만 했다.

옷을 갈아입는 것도 평소보다 두 배는 더 걸렸다. 고작 왼손 하나 쓰지 못하는 것뿐인데도 불편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다.

대충 준비를 마친 아냐사는 별관 건물의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 안은 점심을 먹기 위해 온 기사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아나샤는 배식을 받기 위해 서있는 기사들 중간에 끼어들며 말했다.

“오늘도 스튜야? 난 감자스프가 더 좋은데.”

“어딜!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끼어들면 모를 줄 알고?”

“그래. 오늘은 안 봐준다. 맨 뒤로 가.”

짐짓 엄한 목소리로 삼촌들이 한 마다씩 보태자 아나샤는 비장의 수단을 꺼내보였다.

“한번만 봐줘. 나 손 다쳤어.”

“뭐…, 너 손이 왜 그래?!”

붕대로 감긴 왼손을 발견한 기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눈을 부릅 떴다.

“진짜 다쳤네! 어쩌다가 다친 거야?!”

“누가 다쳤다고?”

“아샤가 다쳤대! 한손을 아예 붕대로 못쓰게 해놨는데?”

“어디, 어디 봐!”

앞에서 배식을 받고 있던 기사들도,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기사들도 일제히 아나샤가 있는 곳으로 모여들었다. 개중엔 냅다 다가와 아나샤의 손을 확인하기까지 했다.

“아니, 누가 애를 이렇게 만든 거야!”

“누가 그랬냐! 아주 잡히기만 해봐라, 혼쭐을 내줘야!!”

“혼쭐은 무슨! 그냥 나 혼자 착지 잘못해서 삔거야. 그만들 모여!”

웅성웅성 하나둘 모여드는 기사들에 아나샤는 부담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이래서 삼촌들 앞에서는 엄살도 못 부리겠다 싶었다.

“일주일이면 다 나을 거야... 뺨은 조금 긁힌 거고.”

“정말 긁힌 거 맞아? 어떤 천하의 호로잡놈의 새끼가 칼로 덤벼든 건 아니고?”

“붕대 감을 정도면 일주일은 더 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착지했길래 손목이 다 나가?”

“그러게 조심 좀 하지, 녀석아!”

동료기사들의 걱정이 담긴 위로를 뒤로하고, 삼촌들의 잔소리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 귀가 따가웠지만 반대로 몸은 몹시 편했다.

“이럴 때가 아니라 애 밥 좀 먹여야지. 너 좀 비켜봐.”

크리스가 근처 식탁에 앉아있던 기사 하나를 쫓아내었다. 덕분에 아나샤는 줄 설 필요도 없이 바로 식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한입 맛보기도 전에 강제로 식판을 빼앗긴 기사의 억울한 눈빛이 느껴졌지만.

“빼짝 말라가지고, 이래서 금방 낫겠냐? 더 먹어.”

“그래. 많이 먹어야지 금방 낫지.”

삼촌들의 배려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자신이 좋아하는 과일이나 빵을 식판 위에 손수 놓아주기까지 했다. 산처럼 쌓인 그것들을 먹어치우느라 아나샤는 어느 때보다도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좀 편리할지도?’

이런 장점이면 일주일은 편히 지낼 수 있겠다고 아나샤는 생각했다.

그 생각은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말끔히 사라졌다. 왼손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함은 생각보다 컸다. 소소한 것 같아도 쌓이고 쌓이니 꽤 답답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불만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이동할 때였다.

아나샤는 남들처럼 일일이 걸어 다니는 것에 영 적응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단장실 창문까지 벽을 오르면 단 10초면 도착할 것을, 건물정문까지 빙 돌아가 계단을 타고 긴 복도를 지나야한다는 사실이 답답하게만 느껴졌다.

훨훨 날던 새가 바닥을 총총 걸어 다니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아나샤는 나무 밑에 서서 본관 건물의 3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오르면 금방인데...’

휴, 하고 한숨을 내쉰 아나샤는 창문에서 시선을 뗐다. 어쩔 수 없이 정문으로 들어가야겠다고 여기며 터덜터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애옹.”

위에서 들려온 소리에 아나샤는 고개를 쳐들었다. 나무 꼭대기에 자라있는 푸른 잎들이 흔들리더니 얼마안가 하얀 털의 고양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너 왜 거깄어!”

익숙한 고양이의 모습에 아나샤는 눈이 번쩍 뜨였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혼자 나뭇가지 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앵앵 울고만 있었다. 마치 그녀에게 도와달라는 양 그녀만 빤히 내려다보며 말이다.

기사 중 한명을 불러올까 싶었지만 훈련시간이기도 했고, 그사이 고양이가 떨어져 다칠까 걱정이었다. 결국 아나샤는 빠르게 붕대를 풀었다. 부목과 붕대를 바닥에 내려두고서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단단히 붙잡았다.

나머지 왼손으로도 나뭇가지를 붙잡은 그녀는 나무를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손목이 살짝 지끈거렸으나 못 참을 정도는 아니었다.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정돈 가능할 것 같았다.

아나샤는 거친 나무표면 위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계속해서 위로 올라갔다. 이윽고 야옹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지자 아나샤는 고개를 들었다.

“이리 온. 착하지.”

아나샤가 손을 뻗자 고양이는 냉큼 그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무서운지 발톱까지 세우고서 옷에 매달려있는 고양이의 모습에 아나샤는 작게 웃었다,

“그러니까 왜 올라갔어. 떨어지면 어쩌려구.”

“먀아옹. 먀옹.”

“그래그래, 얼른 내려갈게.”

왼팔로 고양이를 감싸 안고서 아나샤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리에 힘을 실은 채 나무에 튀어나온 부분을 밟으며 한발 한발 조심스럽게 내딛을 때였다.

오른발을 지탱하고 있던 나무껍질이 순간 부러지며 발도 함께 미끄러지듯이 아래로 쑥 꺼졌다. 아나샤는 반사적으로 오른손으로 머리위의 나뭇가지를 붙잡아 매달렸다.

몰론 한 손으로는 오래 버티기엔 무리가 있었다. 어떻게든 발 디딜 곳을 찾기 위해 발로 나무표면을 훑고 있는데 반갑게도 인기척이 느껴졌다.

아나샤는 아래를 힐끗 내려다보았다. 새하얀 금발이 눈에 들어오자 더할 나위없는 안도감이 들었다.

“저 좀 받아주세요!”

그 말을 하기 무섭게 힘겹게 버티고 있던 오른손에서 힘이 풀렸다. 떨어져 내리는 아찔한 느낌이 드는 동시에 자신을 가뿐히 받아주는 든든한 품이 느껴졌다.

리히르트는 그녀를 땅에 내려주었다. 이에 아나샤는 휴, 하고 안도의 숨을 내뱉고는 품에 안겨있는 고양이가 무사한지 확인했다. 놀랐는지 고양이는 얌전히 매달려있었다.

“단장님 덕분에 살았어요. 고마워요.”

“...”

“너도 감사하다고 해야지?”

“애옹.”

아나샤는 고양이를 바닥에 내려주었다. 고양이는 잠깐 아나샤의 다리주변에서 떠나지 않다가 곧 리히르트가 다가오자 다른 곳으로 훌쩍 떠나버렸다.

“무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머리 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자상하면서도 어딘가 단호했다. 아나샤는 머쓱하게 왼쪽 손목을 감싸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고양이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단 말이에요.”

“절 부르면 되지 않습니까.”

“단장님께 어떻게 나무에 올라가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은 쉬어야 합니다.”

“솔직히 한 달은 너무 길어요. 로던 삼촌도 예전에 어깨에 큰 부상을 입었었는데 이주 만에 복귀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고작 손목 하나 다쳤다고 한 달을 쉴 수 있을까. 아무리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자신이라도 이건 너무하다는 입장이었다.

“답답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회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를 했다간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리히르트는 차분하게 그녀를 설득했다. 조용히 그녀를 내려다보는 눈은 담담했으나 그는 속으로 매우 안도하고 있는 중이었다. 업무 중에 잠깐 그녀를 찾으러 나와서 다행이었다.

“한 달 동안은 낫는 것에만 전념하십시오.”

“하지만...,”

“쉬는 동안은 벽 오르기, 나무 타기 등의 위험한 행위는 일절 금지입니다.”

“위험하지만 않으면 낮은 곳에는 올라가도,”

“안됩니다.”

칼 같은 대답에 그녀의 어깨가 아래로 축 처졌다. 리히르트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다잡으며 이어 말했다.

“붕대는 새로 감는 게 좋겠습니다.”

“넵. 알겠어요...”

“의무실까지 같이 가주겠습니다.”

“아니에요. 해야 될 일도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저 혼자 갈게요.”

그녀는 씩씩하게 웃으며 말했으나 의무실로 걸어가는 뒷모습은 왠지 힘이 없어보였다. 리히르트는 그녀를 따라가려던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말대로 해야 될 일이 있었다.

그는 최근 들어 매일 철야를 할 만큼 바빴다. 암살자를 찾는 일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단서는커녕 치밀하게 모든 행적을 지워 배후를 알아내기 힘들었으나, 그는 지치기는커녕 심복들까지 동원해 더욱 끈질기게 추적하는 중이었다.

타인의 감정변화에 무딘 리히르트 그였으나 그녀에 한해서만큼은 예외였다. 그의 모든 신경은 그녀에게 향해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했다.

리히르트는 무도회날 이후로 그녀가 남모르게 울적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 채고 있었다. 자신도 여전히 그날 사건으로 기분이 좋지 못한데 당사자인 그녀는 더할 터였다. 그러니 쉬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아 자꾸만 조급해하는 것일 테다.

한동안 멀어진 작은 뒷모습을 응시하던 리히르트는 뒤늦게 떨어지지 않는 발을 억지로 움직였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암살자를 잡고야말겠다는 의지만이 여전히 소리 없이 불타고 있었다.

아나샤는 새 붕대로 칭칭 감은 제 왼손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훈련 중이라 바쁘고, 자신만 한가하게 연무장 주변에 앉아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단장님은 한 달은 푹 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할 것도 없어 갑갑한 와중에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막막했다. 평소라면 단장님을 붙잡고 떠들어댔겠지만 며칠째 철야까지 할 정도로 바빠진 그를 알기에 그럴 수도 없었다.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아나샤는 흙을 털고 일어나 걸음을 옮겼다. 속이 답답한 게 혼자 술이라도 마실까 싶었다.

‘그래도 혼자 마시는 건 좀 그런대.’

누구 하나 꼬실 생각이었으나 마땅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았다. 일단 삼촌들은 안 되었다. 보나마나 단체로 우르르 몰려갈게 분명한 것이다.

어디 한가한 사람 없나 하고 기사단 부지 안을 돌아다닐 때였다.

본관 정문에서 걸어 나오는 검은 머리의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귀족’이라고 등에 딱 붙여써놓은 것처럼 꼿꼿한 자세로 걷고 있는 이는 부단장 칼리프였다.

아나샤는 동그랗게 입을 모았다. 뜻밖에도 술상대로 적합해보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무슨 푸념을 늘어놓아도 호들갑을 떨지도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그는 말이 많았다. 혼자 쓸쓸히 술을 마시는 것보단 차라리 그의 잔소리라도 듣고 있는 게 덜 지루할 것 같았다.

“부단장님!”

한달음에 달려온 아나샤의 모습에 칼리프는 상당히 떫은 표정을 지었다.

“…또 무슨 사고라도 친 겁니까?”

“사고 안쳤으니까 표정 풀어도 돼요.”

“...”

“아 진짜! 사람 말 못 믿어요?”

“경은 예외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네 말을 믿겠냐’하고 말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나샤는 눈매를 구기고 있다가 자신의 목적을 상기하고서 다시 동그랗게 눈을 떴다.

“어디가세요?”

“가택으로 갑니다만.”

“오, 퇴근하시는구나. 그럼 저랑 같이 술이나 한잔 할래요?”

“드디어 경이 미쳤군요. 하하.”

칼리프는 이마를 짚고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물론 얼마가지 않아 웃음소리는 뚝 끊겼다.

“절대 싫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바로 거절할 건 없잖아요. 저 부단장님 말고도 같이 술 마실 사람 많거든요?”

“그거 참 다행이군요.”

진심으로 상쾌한 듯 말하는 그 모습에 아나샤는 괜한 오기가 생겼다.

“아쉽네요. 물론 저 말고 부단장님이요. 거기가 맥주 맛이 진짜 일품인데 부단장님은 평생 못 마시겠네요.”

먼저 앞질러 가려던 칼리프의 눈썹 끝이 움찔거렸다. 그것을 잽싸게 캐치한 아나샤는 그의 옆에서 계속 종알종알 말을 걸었다.

“웬만한 술집은 다 가봤지만 거기만큼 술맛이 기가 막힌 데가 없거든요. 술 좋아하는 사람이면 꼭 가봐야 될 만큼! 저도 삼촌들 따라갔다가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곳인데 진짜 저만 알고 싶을 정도거든요.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 걸어가도 되는데, 뭐 가신다면 붙잡지 않겠지만요. 근데 술맛도 술맛이지만 안주도 정말 끝내주는,”

“한번 정도라면 경과 같이 마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마침 물어볼 얘기도 있었고.”

“아깐 미쳤냐면서요.”

“한번쯤은 미친 짓도 괜찮겠죠.”

칼리프는 그녀를 돌아보며 뻔뻔하게 말을 이었다. 고상한 귀족처럼 턱을 치켜든 채 안내하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에 아나샤는 기가 찼으나 결국 그를 데리고 술집으로 향했다.

성벽외곽 주변에 위치한 작은 술집은 투박한 멋이 흐르는 곳이었다. 위치도 가까워서 기사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는데 오늘은 제법 한산한 편이었다.

아나샤는 맥주 두 잔과 가장 유명한 안주거리를 시켰다. 자신의 머리만한 맥주잔을 들고서 아나샤는 술을 들이켰다. 맥주거품을 입술에 가득 묻히며 내려놓자 여전히 시원하게 맥주를 들이켜고 있는 부단장이 보였다.

나무테이블을 중간에 두고 마주 앉아있는 부단장의 모습은 제법 생소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고 있자 곧 칼리프가 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를 향해 눈길을 던졌다.

“뭡니까?”

“아니, 뭔가 이런 장소에 익숙해보여서요. 맥주잔이 나무잔이라고 못마땅해 할 줄 알았는데 엄청 덤덤하고.”

“아카데미에 다닐 때 신분을 숨긴 채 이런 허름한 술집에 몇 번 갔었습니다.”

“네?! 거짓말!”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죠.”

칼리프는 다시 맥주를 들이켰다. 아나샤는 왠지 모를 배신감에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까지 귀족 중의 귀족처럼 깐깐하게 굴어놓고 사실 이런 일탈을 몰래 즐겨왔었다고 하니 기가 막혔다.

“진짜 의외…,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거예요!”

“그야 경이 기사단의 규율과 체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적으로는 많이 봐준 걸로 압니다만.”

“배신...진짜 배신!”

“사람의 일면만 보고 판단한 그대 잘못이지요.”

반박하고 싶어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입술을 닫았다 떨어뜨리길 반복하던 아나샤는 결국 맥주만 연거푸 들이켰다. 차가운 맥주에 속이 가라앉자 조금은 답답함이 가셨다.

하긴 단장님도 전혀 대귀족 같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냉혹하다는 소문과 달리 알고 보면 아랫사람에게도 예의를 차려주는 겸손하고 자상한 사람이었다.

“캬!”

아나샤는 안주에는 손도 대지 않고 한참 술만 들켜댔다. 알딸딸하게 술기운 오르자 두 뺨 위로 발갛게 홍조가 떠올랐다.

“아나샤 경. 벌써 취한 것 같습니다만.”

“아 정말! 딱딱하게 아나샤라고 부르지 말고 아샤라고 부르라고 해도 그러네요. 단장님도 저한테 아샤 경이라고 불러주는데. 그보다 저한테 뭐 묻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직 안취했다며 부릅 눈을 뜬 아나샤가 물었다. 술집에 오기 전 물어볼 것이 있다던 그의 말이 떠오른 것이다.

이에 칼리프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나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나무테이블 위에 올려져있는 왼손에 시선을 주었다. 뭘 물으려는지 알아차린 아나샤는 슬그머니 입을 다물었다.

다시 술만 들이켜던 아나샤는 빈 맥주잔을 내려놓고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삼촌들이랑 다른 사람들한테는 착지 잘못해서 다쳤다고 했는데…뭐, 부단장님은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닐 성격은 아니니까 말해줄게요.”

“다들 그걸 믿는답니까? 그보다 왜 다친 겁니까?”

“암살자랑 싸우다가 부상 입은 거예요. 놀리지 마세요.”

“안 놀립니다. 걱정 마시죠.”

남의 부상을 놀림거리 삼을 만큼 저질스러운 인간은 아니라며 칼리프가 점잖이 말했다. 물론 표정은 대체 자신을 뭘로 보냐고 쏘아붙이려는 것을 간신히 참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가 더 자세히 묻지 않고 기다리자 얼마안가 맞은편에서 풀이 죽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분해요. 나는 이것밖에 없는데…어릴 때부터 첩자가 되고 싶어서 진짜 노력했는데도 남자들은 쉽게 나를 이겨버리잖아요. 그저 힘으로요.”

아나샤는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바람 빠지듯이 긴 한숨소리가 절로 새어나왔다.

“아무리 실력을 쌓아도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남들보다 작잖아요. 신체적인 건 아무리 노력해도 넘을 수 없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 일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번 사건으로 달라졌다. 언제든 이 일을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여기니 새삼 자신의 실력에 의문이 갔다.

“어쩌면 할아버지도, 삼촌들도, 그냥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시켜준 게 아닐까 싶고...차라리 나보다야 힘센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게 기사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 있죠.”

나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온 일은 사실 남들이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일지도 몰랐다. 억울하고 분하지만 그게 현실일지도 몰랐다.

“무슨 소리를 하나했더니, 쯧.”

그때 맞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아나샤는 고개를 들었다. 평소 자신을 혼낼 때처럼 진심으로 어처구니없는 눈빛을 한 부단장이 보였다.

“경이 상식에서 좀 벗어난 면이 있고 기사단 체제에 맞지 않는 자유분방한 인간이라지만, 경의 실력만큼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칼리프는 2년 전, 기사단에 부단장으로 첫 부임했을 때를 떠올렸다. 그날 겪었던 충격의 중심에는 아나샤 그녀가 존재했었다.

근엄한 모습의 기사단장은 어디가고 단장실에는 조그마한 여자애와 말다툼을 벌이는 중년사내만 있을 뿐이었다. 단장뿐 아니라 기사들도 그랬다. 군기는커녕 여자애 하나를 둘러싸고 가족 같은 장난스럽고 친근한 분위기가 형성돼있었다.

거기다 그 조그마한 여자애가 기사단의 직속첩자라는 사실에 더더욱 충격을 받아야만했다. 상황에 따라 가장 위험할 수도 있는 직종이 첩자였다. 적지에 숨어드는 일인 만큼 위험부담이 큰 것이다.

솔직히 많이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동시에 상식을 파괴하고 다니는 조그마한 여자애가 좋게 보이지도 않았었다.

그럼에도 그녀를 첩자직에서 내보내지 않은 것은 순전히 그녀의 실력 때문이었다. 매번 여기저기 쏘다니기 좋아하고 매사 가볍고 계획 없이 행동한다지만 저래 봬도 한 번도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었다.

고지식한 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분명했다.

“임무를 실패한 것도 아니고 사적인 전투에서 졌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사적으로는 실력 발휘하지 말라고 귀에 닳도록 얘기했을 텐데요.”

“암살자가 먼저 검 빼들고 공격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피하십시오. 그런 일에는 되도록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경은 용병이 아니라 엄연한 황실 소속입니다. 황실을 위해서만 검을 쓰십시오.”

‘황녀님 구하려한 거니까 황실을 위해서이긴 한데...’

아나샤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비밀을 지키기 위해 입을 꾹 다물어야했다. 황녀님이 암살자에게 위협을 받았다는 사실은 황실사람과 단장님을 포함한 소수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고작 한번 진 걸로 관두려하는 거면 실망할 겁니다.”

“관두다니요! 절대 안 관둬요.”

빨개진 얼굴로 도리질치며 아나샤는 서둘러 반박했다. 푸념하기도 무섭다며 폭 한숨을 내쉰 그녀는 칼리프를 쳐다보았다.

“부단장님 처음 기사단에 왔을 때 저 엄청 구박했었잖아요. 단장님한테 호칭이 왜 그러냐, 기사들이랑 농땡이 피우지 마라, 진짜 잔소리 엄청 해댔었는데...,”

지금도 잔소리 듣는 건 여전하다지만. 오래전 일들을 회상하는 아나샤의 입에 작은 미소가 걸렸다.

“그래도 인정해줘서 고마워요.”

술기운 덕분인지 솔직하게 말이 흘러나왔다. 물론 낯간지러운 기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빠르게 맥주를 더 시켜 들이켜 댔지만, 아나샤는 간만에 가슴속이 후련해진 기분이었다.

해가 진 거리는 제법 어두웠다. 칼리프는 아나샤를 업은 채 기사단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뒤에서 자신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대로 등에 착 달라붙는 행태에 칼리프는 인상을 구겼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달라붙는 걸 좋아하는지 부담스러울 지경이었다.

“이부울 줘어…딸꾹.”

“다 왔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깊은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칼리프는 걸음을 옮겼다. 많이 마시지 못하도록 제지했어야했다. 취하지 않았다며 계속 술을 쏟아 붓는 꼴을 보고만 있는 게 아니었다.

기사단에 도착한 칼리프는 조용히 본관건물을 지나쳐 걸어갔다. 누가 이 모습을 보기라도 할까봐 두려웠다. 최대한 빨리 아나샤를 숙사 방에 내려놓고 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건물 외벽을 돌기 무섭게 마주친 기사단장으로 인해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닐 수 없었다. 멈춰선 칼리프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입을 연 순간이었다.

“…내려줘어, 딸꾹.”

그보다 먼저 등에 업혀있던 아나샤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누가 들어도 술에 잔뜩 취해 꼬인 발음이었다. 동시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칼리프는 서느렇게 가라앉는 눈과 마주치기 무섭게 온몸이 굳어버렸다. 변명의 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뒤늦게 기사단장인 그가 먼저 걸음을 떼 제게로 걸어오자 칼리프는 머리를 숙였다.

“단장님께 추태를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아나샤 경을 대신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상을 입은 것이 꽤나 속상했는지 조금 과음을 해버렸습니다... 부디 깊은 아량으로 헤아려주시길.”

대하기 어렵기로 소문난 단장님과 유일하게 사이가 가까운 아나샤였다. 눈감아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으나 들려오는 대답은 없었다. 오히려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단 듯이 저를 지나쳐갔다.

그의 걸음은 정확히 자신의 뒤에서 멈추었다. 아나샤의 어깨를 붙잡아 뒤로 물린 것인지 등에 닿아있던 따스한 몸이 떨어졌다.

“아샤 경, 정신이 듭니까?”

“으음...”

나직한 저음은 분기는커녕 그녀를 향한 걱정마저 담겨있는 것 같았다. 다행스럽게도 정말 그녀에게 너그러운 모양이었다. 물론 자신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그의 태도에 안도해야 되는 건지, 기분 나빠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들지.”

그때 처음으로 들려온 말에 칼리프는 황급히 대답을 내놓았다.

“…아닙니다. 아나샤 경은 제가 방에 데려다놓겠습니다. 단장님께서 굳이 수고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하려 했으나 칼리프는 고개를 돌리기 무섭게 마주친 시선에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했다.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가 불쾌해하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안가고 뭐하냐는 듯이 냉랭하게 바라보는데 모르는 게 더 이상하겠지만.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칼리프는 예를 취하고서 한발 물러섰다. 누구한테 업힌 지도 모른 채 졸리다며 연신 꿍얼거리는 아나샤를 한번 쳐다보았다가 발걸음을 돌렸다.

단장실로 돌아온 리히르트는 아나샤를 소파에 앉혔다.

그녀가 숙사 어느 방에 머무르는지 모르는데다 그녀의 허락 없이 함부로 방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 자신의 저택으로 가 객실을 내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사이 술이 깰 수도 있으니 일단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으으음...”

“춥습니까?”

리히르트는 입고 있던 제복 겉옷을 벗어 그녀의 상체에 덮어주었다. 그리고 바로 물러나려는 순간, 두 팔이 뻗어져와 그의 허리를 와락 끌었다.

“…아샤 경?”

잠시 숨까지 참고 있던 그는 이윽고 그녀를 제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작은 어깨를 쥐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밀어내려하면 그녀는 더욱 달라붙어왔다. 얼굴을 파묻고서 따스한 어미의 품에 파고들려는 새끼짐승처럼 얼굴을 비비적거렸다.

리히르트는 가슴 아래 위치해있는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낮게 숨을 흘렸다. 도저히 이 간지러운 기분을 참을 수 없었다.

한동안 굳어있던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움직여 눌려있는 그녀의 뺨을 제 품에서 떨어뜨렸다. 어느새 잠이 든 것인지 눈을 감은 채 색색대는 뽀얀 얼굴이 드러났다.

손바닥에 닿은 분홍빛의 뺨은 따스하고 부드러웠다. 몰래 한번 만지작거려보고 싶은 충동이 들만큼.

‘...’

리히르트는 퍼뜩 손을 거두며 눈매를 일그러뜨렸다. 머리 한 부분이 이상하게 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그는 이런 제 자신이 지나치게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에게 품은 감정이 인간적인 호감 이상이라는 것을 인정한지도 며칠이 지났다.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일 감정이라고 여겼다. 그녀와 어떻게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서로 신뢰하고 편히 지낼 수 있는 지금 이 관계가 최선이라 여겼다. 무엇보다도 드러낸다면 그녀가 불편해할 거라 여겼다.

하지만 마음은 숨길 수 있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만 갔다. 그 스스로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그녀를 보는 시선이, 손길이 절로 달게만 변하는 것이다.

리히르트는 다시 한 번 흘러나오려는 숨을 삼키며 그녀에게서 시선을 떼기 위해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마음이 커져선 안 된다고 결심한지 몇 초도 지나지 않았을 때다.

“리온...”

잠결에 흘러나온 아주 작은 중얼거림이었으나, 그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평소처럼 노크를 하고 단장실에 들어선 행정관은 묵직한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맨 위에 있는 서류들은 오늘 중으로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스 지역 파견에 관해서... 저 단장님?”

행정관은 무표정한 얼굴의 기사단장을 불렀다. 그제야 다른 곳을 바라보던 푸른 눈이 행정관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딘가 흐트러진 표정이, 매사에 빈틈없고 냉정하며 차분한 그답지 않아보였다. 행정관은 당황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빠르게 말을 이었다.

“달러스에 파견 보낼 기사 명단은 일주일 안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처리한 서류들은 왼쪽에 두었다.”

“아, 네.”

행정관은 황급히 왼쪽에 쌓인 서류들을 집어 들다가 서류가 이상하게 깨끗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개를 들었다.

“죄송하지만, 이건 아직 처리 전인 것 같습니다만...”

조심스러운 그 말에 리히르트는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대답 대신에 눈길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행정관은 그의 눈길이 닿은 책상 오른편에 쌓여있는 서류탑을 품에 안아들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행정관이 나가고 조용해진 단장실 안에서 리히르트는 눈가를 문질렀다. 무표정한 낯 위로 짙은 피로가 스며들었다. 어제도 늦게까지 업무를 보긴 했지만 평소에 비하면 일찍 잠자리에 든 편이었다. 그러나 개운하기는커녕 기분은 평소보다 저조한 편이었다.

무슨 일에도 무신경한 그는 현재 한 가지가 신경에 거슬려 참지 못하는 중이었다. 어젯밤 잠이 드는 와중에도, 아침에 눈을 떠서도, 걷는 도중에도, 업무를 보는 중에도, 한 단어가 계속해서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정확히는 단어가 아닌 ‘리온’이라고 하는 어느 사내의 이름이었다. 그 낯선 이름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후부터 줄곧 이 상태였다.

무의식중에 이름을 부를 정도면 가까운 사이일 터였다. 그녀의 주변엔 늘 사람이 많으니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 또한 많을 터였다. 저번에만 해도 친한 사내에게 무도회 파트너 신청을 받았던 그녀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마음에 둔 사내가 없다고는 확신할 수 없었다. 리히르트는 이 거슬림이 저번에 그녀로부터 파트너 신청 이야기를 들었을 때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하고는 미간을 슬며시 접었다.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사내를 상대로 질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았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거두었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한 냉담한 표정으로 돌아와 업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잡념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려는 듯이 매서운 기세였다.

그렇게 점심식사도 거른 채 단장실에만 틀어박혀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던 중이었다.

똑똑. 들려온 노크소리에 그의 손이 우뚝 멈췄다. 리히르트가 고개를 들고 들어오라고 허하자 한 기사가 안으로 들어섰다.

“단장님. 업무 중에 방해 드려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지?”

“황녀전하께서 기사단에 찾아오셨습니다.”

뜻밖의 인물에 리히르트는 잠시 못마땅한 듯 침묵을 지켰다. 그동안 기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다.

“현재 아나샤 경이 본관 응접실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들려오기 무섭게 리히르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더 생각해볼 것도 없다는 듯이 빠른 행동이었다.

“바로 가지.”

아나샤는 한가롭게 기사단 부지를 돌아다니며 같이 놀 사람을 찾아다녔다. 자신처럼 한가하며 시간이 남아도는 인간이 없나, 주위를 돌아보던 그녀의 눈에 어떤 굉장한 인물이 들어왔다. 멀리서 봐도 결이 고와보이는 은빛 머리칼이 부드럽게 넘실거렸다.

마차에서 내려 기사단 본관 정문으로 향하는 황녀님의 모습은 눈이 부시다는 말로는 부족했다. 아나샤가 멍하니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돌연 황녀의 고개가 자신을 향해 돌아갔다.

“아,”

눈이 마주치자 아나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개를 꾸벅 숙였다. 예법 같은 것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빈 기분이었다. 들지 않고 얼마나 숙이고 있었을까. 아나샤는 자신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야했다.

“이곳에 여기사가 있었던가요?”

“아, 아뇨. 저는 여기사가 아니라!”

아나샤는 황녀의 곁에 서있는 호위기사와 눈이 마주치고 나서야 그녀가 제게 물은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차렸다. 혹시 말실수를 한 건가 싶어서 속으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다.

“그 목소리는 혹시…,”

놀란 듯이 눈을 키운 엘리시아가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나샤에게 한걸음 더 다가섰다.

“지난번 무도회장에서 저를 구해주었던 사람이 당신이군요.”

목소리는 물론 체구 또한 또렷하게 기억난다는 듯이 확신에 찬 말투였다. 아나샤가 맞다 아니다 말도 못한 채 입술만 뻐끔 거리는 동안 엘리시아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만나면 꼭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날은 고마워요.”

“아,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걸요.”

‘암살자도 놓쳐버렸고...’

아나샤는 아랫입술을 조용히 깨물었다. 시무룩한 그 모습에 엘리시아는 손을 뻗어 아나샤의 손을 부드러이 붙잡았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요. 덕분에 이렇게 무사한 걸요.”

그러다 그녀는 아나샤의 반대손이 붕대로 감겨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손은...그날 다친 건가요?”

“거, 거의 다 나았어요.”

잔뜩 긴장한 아나샤는 황녀에게 붙잡힌 손을 감히 빼지도 못한 채 눈을 굴렸다. 바로 눈앞에 있는 황녀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거기다 풍기는 옅은 향은 얼마나 향기로운지 코를 절로 킁킁대게 만들었다.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안해요. 저 때문에 다친 걸 텐데…”

이 얼마나 상냥하신 분일까. 아나샤는 그녀의 눈빛에 어린 미안함을 알아차리고 고개만 저어댔다. 조금 이 상황이 편해지자 긴장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저… 그보다 여기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웨일그레슬 공작을, 아니 기사단장을 만나러 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럼 응접실로 안내해줄 수 있을까요?”

엘리시아가 쥐고 있던 손을 놓자 아나샤는 냉큼 걸음을 옮겨 그녀를 응접실로 안내했다. 본관 건물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호위기사는 신경 쓰지 않은 채 계속 둘만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고 보니 은인의 이름도 못 들었네요.”

‘은인...’

간질간질한 기분에 아나샤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아나샤는 헤실헤실 입가에 미소를 단 채 대답했다.

“전 아나샤 라이나라고 해요. 저, 괜찮으시다면 편하게 아샤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아샤 경.”

엘리시아는 작게 웃음소리를 흘렸다. 응접실에 도착하자 호위기사는 자연스레 문 앞을 지켰다. 아나샤도 이제 나가보려했으나 엘리시아가 그녀를 붙잡은 탓에 떠날 수 없었다.

“사례를 하고 싶은데 혹시 원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아뇨, 아뇨. 전혀 가당치 않아요!”

“거절하지 않아도 돼요. 제 마음이 편치 않은 걸요. 혹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줘요.”

“음, 그럼… 필요한 게 딱하나 있기는 한데요...”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게 금지 당한 상태라서요. 혹시 사소하게 시키실 일 같은 거 없으실까요? 아주 간단한 거라도 좋아요. 뭐든 시켜만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잘됐네요.”

의외로 엘리시아는 흔쾌히 허락했다. 오히려 그럴 생각이었다는 듯이 여유로이 미소 지었다. 아나샤는 숨이 다 트인다는 양 반짝반짝 눈을 빛냈다. 제 아무리 단장님이래도 황녀님께서 내리신 임무를 못하게 막으시진 못하실 테다.

그때,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아나샤는 언제 눈을 빛냈냐는 양 얌전히 뒤를 돌아보았다. 곧 문이 열리고 리히르트가 들어섰다.

그의 차분한 눈길은 응접실에 서있는 아나샤부터 찾았다. 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황녀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애써 고개를 돌렸다. 가볍게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한 리히르트는 황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엘리시아였다. 아나샤는 나갈 타이밍을 잡지 못해 어정쩡하게 황녀의 옆에 서있었다. 그것을 깨달은 엘리시아는 그녀에게 옆자리를 권했다.

“아니에요. 두 분이서 편하게 말씀 나누세요!”

“아샤 경. 경에게도 긴히 할 얘기가 있으니 사양 말고 앉아요.”

상냥한 그 목소리에 아나샤는 별다른 거절의 말을 찾지 못한 채 얌전히 착석했다.

“아직 암살자를 잡지 못하셨다고요.”

아나샤가 앉자 엘리시아가 곧바로 용건을 꺼냈다. ‘암살자’라는 단어가 들려오기 무섭게 리히르트는 민감하게 눈썹 끝을 움직였다. 아나샤만이 암살자와 단장님이 무슨 상관인지 알 수 없어 눈만 깜빡거렸다.

“아직도 그날 일로 불안해요. 언제 또다시 나타나 저를 해칠지 알 수 없는 일이니...”

내리깐 눈동자에는 걱정과 불안함이 깃들어있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고 있어요. 공께서 직접 잡겠다고 하신 것은 의외였지만, 저를 위해 나서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나샤는 새롭게 안 사실에 휘둥그레 눈을 떴다. 대각선 방향에 앉아있는 그를 향해 눈빛을 건넸지만, 리히르트는 그 눈빛을 묵묵히 외면할 뿐이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호위할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온 거예요.”

“호위는 직접 뽑으실 겁니까?”

“실은 이미 정해두었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엘리시아는 옆자리로 시선을 주었다. 아나샤와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더욱 짙은 미소를 보였다.

“이분을 제 호위기사로 데려갈 생각이에요.”

“네? 네?! 저를 호위로요?!”

아나샤는 설마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고 깜짝 놀라 되물었다. 눈동자는 놀라움에서 점차 기쁨으로 번져갔다.

“여기사라면 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호위할 수 있고, 또…”

“그녀는 기사가 아닌 첩자입니다. 호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엘리시아의 말을 끊으며 냉담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이에 아나샤는 그를 돌아보았다. 평소와 달리 서느런 얼굴의 단장님은 자신은 조금도 보지 않은 채 황녀님에게 눈길을 고정한 채 말을 잇고 있었다.

“그날 일로 아직 부상이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이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저를 구하려다 부상을 입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더욱 아샤 경이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황녀님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었다. 아나샤는 이러다 두 사람이 언쟁이라도 벌일까 긴장이 될 정도였다.

“저기, 단장님.”

결국 아나샤가 나서서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로 오도록 만들었다. 리히르트는 언제 단호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띠고 있었냐는 듯이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조금은 무르게 눈빛을 바꾸었다.

“비록 한 손이 다 낫진 않았지만 황녀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비록 전투는 힘들어도 위험한 인물이 접근하면 바로 튀어나가서 알릴 수도 있고, 황녀님 말씀대로 저는 여자니까 항상 붙어서 다른 인기척은 없나 감시할 수 있어요. 밤새 침실에서 잠복도 가능하고, 또, 또,”

“정말 듬직하네요.”

“...”

황녀가 가담하며 말을 거들자 리히르트의 눈빛이 다시 서늘해졌다. 그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위험이 될 만한 일은 시키고 싶지 않았다. 특히나 암살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저번에는 손 부상으로 그쳤지만, 다음에 또 마주쳤을 때 그녀가 무사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믿어주세요.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러나 리히르트는 끝내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제발 한번만 믿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한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녀의 실력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을 테니 말이다.

리히르트는 결국 그녀가 원하는 대로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아나샤는 황녀궁에 임시 숙소를 배정받게 되었다. 앞으로는 곁에서 내내 호위만 할테니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머무는 게 좋을 것이라는 황녀님의 말에 따른 것이다. 그녀가 배정받은 방은 전속시녀들이 지내는 층에서 맨 끝쪽 방이었다.

햇볕이 드는 깨끗한 방안은 보송보송한 새 이불 냄새가 났다. 앞으로 지낼 곳을 보니 이제야 자신이 황녀님의 호위가 된 것이 실감이 났다.

“얘, 옷 가져왔어!”

설레어하는 것도 잠시, 아나샤는 들려온 목소리에 방 밖으로 뛰쳐나갔다. 자신을 방까지 안내해주었던 시녀는 곱게 개킨 옷을 들고 있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면 돼.”

"이 옷으로요…?"

그녀가 전해준 옷을 건네받은 아나샤는 의아한 얼굴이 되었다. 정말 이 옷이 맞냐고 재차 물어봤지만 들려오는 대답은 그렇다는 말뿐이었다.

"옷이 잘못된 것 같은,"

“빨리 준비해.”

황녀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니 아나샤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가 서둘러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

무릎 아래로 둥그렇게 퍼지는 검은 치맛자락은 풍성했다. 어깨부분에 프릴이 달린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자 영락없는 새내기 시녀의 모습이었다. 제대로 맞게 입은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어차피 다시 갈아입을 거라는 생각에 대충 입고 나오자 시녀가 눈살을 찌푸렸다.

"하나도 단정하지 못하잖아. 뒤돌아봐! 리본도 안 묶었네!"

“그게 저는 호위로,”

“이리 와봐. 리본 하나 제대로 못 묶다니, 대체 황녀님은 무슨 생각으로 너를...”

구시렁대면서도 깔끔하게 리본을 묶어준 시녀 로니는 곧바로 걸음을 옮겼다. 워낙 서두르는 탓에 오해를 바로 잡을 틈도 없었다.

시녀의 뒤를 따라 긴 복도를 걷던 아나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커다란 문 앞에 당도할 수 있었다. 문 앞을 지키던 호위기사 두 명이 문을 열어주자 아나샤는 홀로 안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고풍스럽고 화려한 방 안은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 중앙, 새하얀 빛이 흐르는 티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방의 주인은 더더욱 눈이 부셨다.

“귀여운 막내시녀가 됐네요. 아샤 경.”

엘리시아는 우아하게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신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 황녀님의 모습에 아나샤는 하려던 말도 잊고 부끄러운 기분에 볼을 긁적였다.

“머리띠도 있을 텐데, 로니가 깜빡 잊은 모양이네요.”

“저 그런데 이 옷은…,”

“아샤 경을 호위로 임명하면 분명 부상에 대해 말이 나올 것 같아서요. 전속시녀로 위장해있는 게 기습에도 대비하기 쉬울 테고, 경도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아나샤는 그제야 제게 시녀복을 입힌 황녀님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아샤 경을 새로 뽑은 시녀로 알고 있어요. 막내다보니 가끔 잔심부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내 곁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된 ‘시녀로 위장해서 황녀님 비밀호위하기’ 임무는 아무 탈없이 진행되었다. 너무 순탄하게 흘러가서 아나샤는 하루가 지나가기도 전에 이 일에 완전히 적응했다.

사실상 호위라고 해봐야 황녀님 주변에 서있는 것이 다였다. 황녀님의 활동량이 많지 않다보니 호위인 자신도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다. 가끔 어디서 뭘 가져오라고 시키는 선임 시녀들이 고마울 정도였다.

“얘, 사샤. 나가서 물 좀 채워오렴.”

아나샤의 주된 업무는 물병에 물 채워오기였다. 처음에는 나름 비밀호위인데 자리를 비워도 되나 싶었지만 막상 나와 보니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황녀궁 곳곳을 지키고 서있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어떤 뛰어난 암살자도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황녀님을 해치진 못할 것 같았다.

물병을 들고 밖으로 나온 아나샤는 주방으로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다 스치듯 아래를 내다본 순간이었다. 아나샤는 익숙한 사내를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다.

“단장님!”

아나샤는 들고 있던 물병을 잠시 내려두고 창문 위에 올라섰다.

그녀를 발견한 리히르트는 잠시 눈이 크게 떠졌다가 재빠르게 몸을 움직였다.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자세라 두 팔을 내밀자 곧 아나샤가 주저하지 않고 그의 위로 뛰어내렸다.

폭삭 안기는 가벼운 소리를 뒤로 하고 눈을 뜬 아나샤는 안정적으로 자신을 받아낸 그를 올려다보았다. 이마 위로 흘러내린 옅은 색의 머리카락만 소리 없이 흐트러졌을 뿐 그는 매우 평온한 얼굴이었다.

“미안해요. 그래도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요.”

가볍게 웃으며 아나샤는 땅위에 내려섰다.

“그보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황녀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나샤는 당연히 그런 거라 여겼다. ‘황녀님께 안내해드릴까요?’ 하고 말을 이으려는데 그전에 그가 먼저 다물려있던 입술을 뗐다.

“옷차림이,”

“아, 이거요. 지금 황녀님 시녀로 위장 중이에요. 비밀호위 같은 거죠! 황녀님께서 아직 다 낫지 않은 저를 신경 써서 준비해주신 거 있죠? 이름은 사샤예요.”

쫑알쫑알 이어지는 발랄한 목소리를 들으며 리히르트는 그녀 모르게 그녀의 모습을 눈에 담았다. 뒤늦게 그녀가 올려다보자 아무렇지 않은 척 시선을 옮겼지만 살짝 달아오른 귓불은 숨길 수 없었다.

“…일은 어떻습니까?”

“말도 마세요. 물만 다섯 번 채워온 거 있죠? 방금도 물 채우러 나온 건데 주방이 얼마나 먼지 물채우고 오는 데만 30분이 걸려요.”

성 내부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 투덜대며 아나샤는 그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다. 중간 중간 복도를 지키고 서있는 호위병들이 보일 때마다 그녀는 공손한 목소리로 바꾸었다.

“공작님.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뇨. 단장님은 절 편하게 대하셔야 의심을 안 받죠. 전 시녀라구요.”

작게 소곤거리며 아나샤가 타박 아닌 타박을 했지만, 리히르트는 희미한 미소를 입가에 띄울 뿐이었다.

아나샤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그를 데리고 서둘러 계단을 타고 올라갔다. 자연스레 물병을 놓아둔 곳으로 향하려다가 아차 하고 걸음을 멈췄다.

“아니다. 황녀님 있는 곳에 먼저 데려다드리고 저는 따로 물을 채우러가는 게 낫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공작님이 물 채우러 같이 가면 이상해보일 테니까요.”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가 괜찮다면 괜찮은 거겠지, 아나샤는 단순히 넘어가며 먼저 발을 움직였다.

“이 일 말고는 하루 종일 황녀님 곁에 있는 게 다였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임무를 하니까 기분은 좋아요. 좀 심심한 게 흠이긴 하지만요.”

“무리한 일은 시키지 않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마음씨 좋으신 황녀님 밑에서 일하는 거라 그런지 힘든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단장님이랑 일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요.”

이렇게 같이 떠들 수도 있고, 차와 간식도 먹을 수 있으니 말이다. 아나샤는 물병을 내려둔 곳에 도착하자마자 물병을 들기 위해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전에 먼저 뻗어져온 손이 대신 물병을 쥐었다.

“무거운 건 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 한 손으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어있어서 별로 안 무거워요.”

“물을 채우면 무거울 겁니다. 들어주겠습니다.”

아나샤는 괜찮다고 그에게서 물병을 빼앗으려했으나 그의 악력이 얼마나 강한지 도저히 뺏을 수가 없었다. 결국 그의 말대로 방에 들어서기 전까진 그가 들기로 하고 주방이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보다 단장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나샤는 자신의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그를 힐끔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줄곧 물어보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던 참이었다.

“암살자 잡는 일이요. 단장님이 나서서 맡았다고 들었어요. 혹시…,”

순간 리히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렸다. 혹시라도 무언가 눈치 채지는 않았는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희미한 기대감이 일었다.

“황녀님을 몰래 사모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바라지 않던, 혹은 바라던 말은 들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반짝반짝 눈을 빛내며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모습에 리히르트는 왠지 모를 허탈함마저 느꼈다.

“아닙니다.”

“흐음... 그렇구나.”

여전히 의심을 버리지 못한 두 눈을 애써 외면하며 리히르트는 고개를 돌렸다.

“그래도 섭섭해요. 왜 저한텐 아무 말도 안 해줬어요.”

“그 사건 때문에 한동안 기분이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평소와 같이 침착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배려를 알아차리지 못할 아나샤가 아니었다.

뒤이어 아나샤는 크게 놀랐다. 아무렇지 않은 척 굴었는데 제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귀신같이 눈치 채고 있었다는 것에 한번 놀랐고, 그 사건을 언급해서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까봐 몰래 일을 맡았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조금, 아니 엄청 바보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요. 혹시…저 때문에 직접 사건 맡겠다고 한 거예요?”

아나샤는 걸음마저 멈춘 채 그를 보았다. 이윽고 그녀를 따라 걸음을 멈춘 리히르트가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것에 괜히 움찔하게 된 아나샤는 슬며시 눈을 피해버렸고 말이다.

“그, 그럴 리가 없겠죠! 안 물을게요!”

“만일… 맞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들려온 낮은 목소리에 아나샤는 그를 바라봤다가 그대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온전히 자신만을 담고 있는 그의 두 눈이 무언가를 바라듯 간절하면서도 조심스러워보였다.

곧 그가 먼저 시선을 피하며 반걸음 물러섰다. 아나샤는 그 벌어진 간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불편하게 만들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금 한 얘기는 그저, 아샤 경?”

그 부름에 아나샤는 그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신의 손을 알아차렸다.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라 급하게 손을 떼고 횡설수설 말을 이어야했다.

“부, 불편할리 없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단장님인데. 오히려 저 때문에 그 일까지 떠맡느라 그렇게 바빴던 건가 싶으니까, 뭔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아무튼 마음이 찡한 거 있죠! 물론 제가 눈을 피한 건 그러니깐, 불편하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렇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딘가 쓸쓸해보이던 벽안이 부드럽게 사르르 접혔다.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 다행이라는 듯이 말이다.

아나샤는 뻣뻣하게 따라 미소 지었다. 속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다행이라고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아까 자신이 왜 그랬는지 이상하기만 했다. 왜 순간적으로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건지 말이다.

하지만 뭐 하나 붙잡고 오랫동안 진지하게 생각하는 성격은 못되는 그녀였다. 단 1분 만에 머릿속에서 훌훌 털어내고서 아나샤는 그와 함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리히르트는 황녀궁을 찾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그를 보며 황녀궁의 시녀들은 각자 속으로 탄성을 삼켰다.

매번 갑작스레 방문해오는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엘리시아도 어딘가 즐거워보여서 시녀들은 더 들떴다. 드디어 자신들이 모시는 황녀님께 진정한 사랑이 찾아온 거라 의심치 않으며 말이다.

“솔직히 황녀님께 어울리는 남자가 세상에 존재할까 의문이었는데, 웨일그레슬 공작님 같은 완벽한 분이 계셨을 줄이야.”

“매일같이 찾아오시니 마음이 있으신 게 분명해.”

“당연한 거 아니니? 듣기론 무도회장에서 처음 뵈었다던데 그날 황녀님께 단단히 반하신 거지.”

오늘도 두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밖으로 나온 시녀들은 속닥속닥 이야기꽃을 피웠다. 차갑고 무심해 보이는 표정과는 달리 며칠째 하루도 빠짐없이 황녀궁을 찾아오는 그는 시녀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에 충분했다.

얼음 같아보여도 그 속엔 열을 품었을 게 분명한 푸른 눈동자는 황녀님만을 가득 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일처럼 설레어하는 그녀들을 보며 아나샤는 ‘그런가?’하고 갸웃했다.

자신도 처음엔 그런 쪽으로 오해하긴 했지만 단장님이 아니라고 말했으니 말이다. 아마 시녀들을 전부 나가게 한 걸 보면 암살자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닐까하고 추측이 되었다.

한편, 방안의 모든 시녀들을 물리고 그와 단둘이 차를 마시던 엘리시아가 찻잔을 소리 없이 내려놓았다. 상냥한 눈웃음을 그리며 그녀가 매끄러운 입술을 뗐다.

“오늘은 암살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낸 게 있을까요?”

“아직 입니다.”

남녀의 다과자리에 오갈만한 대화라 하기엔 지극히 일적인 대화가 이어졌다. 시녀들이 듣는다면 통탄할 대화였지만 두 남녀는 조금도 사무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보였다.

“노력해주고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충분히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

“이번 주까지만 시간을 드릴게요. 그래도 알아내지 못한다면 오라버니께 수사 권한을 넘길 생각이에요.”

조용히 침묵만 지키고 있는 사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읽어내기 힘들었다. 엘리시아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찻잔을 들어 올릴 때,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배후로 짐작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엘리시아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변화 없는 표정으로 그녀만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뒤늦게 리히르트는 형식적인 대답을 내놓았다.

“심증일 뿐입니다. 아직은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엘리시아는 한 박자 느리게 대답했다. 아쉬운 기색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추궁한다고 해서 입을 열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아 다른 주제로 전환했다.

“오늘도 잠깐 있다가 갈 생각인가요?”

입가에 미소를 그려 넣은 그녀는 흥미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실례가 된다면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실례라고 생각하지 않으니 편하게 있다가 가세요.”

그렇게 말한 그녀는 차를 옆으로 치우고서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책을 읽기 시작했다. 대화소리를 대신해 사락사락 책장을 넘기는 소리가 이어졌다.

침묵이 내려앉은 방 안은 평온함을 넘어서 서늘할 정도였다. 대략 10분 정도가 지나자 리히르트는 지체 없이 몸을 일으켰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안내해줄 시녀가 필요하겠죠.”

엘리시아는 책을 덮고 다과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은색 종을 흔들었다. 경쾌하게 울리는 종소리에 곧 문이 열리며 시녀 하나가 안으로 들어섰다.

“사샤를 불러오렴.”

“네.”

익숙하다는 듯이 시녀는 곧바로 아나샤를 불러왔다. 문 안으로 들어선 그녀를 발견하자마자 무표정하던 그의 눈동자 위로 처음으로 부드러운 기색이 스쳤다.

엘리시아는 아나샤에게 부탁한다는 양 웃으며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였다. 공작님을 밖까지 안내해드리라는 지시는 따로 필요 없었다. 매번 그의 배웅을 맡는 것은 아나샤였기 때문이다.

아나샤는 그와 함께 다시 문을 나섰다. 며칠 새에 완전히 몸에 밴 예의바른 태도로 그를 안내하던 그녀는 아무도 없는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공손히 모으고 있던 양손을 위로 쭉 폈다.

“끄으응! 이제 살 것 같다!”

아예 멈춰 서서 기지개를 켠 아나샤는 시원한 표정을 지었다. 열려있는 복도창문으로 솔솔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서있는 그녀를 보던 리히르트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무슨 일은 없었습니까?”

“전혀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방안에만 있었는걸요? 물 떠오는 것도 갑자기 다른 시녀가 하게 돼서 할 게 없어졌거든요. 진짜 그거라도 해야 그나마 몸을 움직일 수 있었는데 말예요.”

투덜거리는 목소리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는 어투였다. 그에 반해 리히르트는 잘되었다는 듯이 편안한 얼굴이었다.

“그보다 단장님은 별일 없으시죠?”

“네.”

“기사단은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씰룩 웃은 아나샤는 멈췄던 발을 움직였다.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아 부러 느릿느릿하게 걸음을 옮겼다.

“그래도 단장님 덕분에 이렇게 잠깐이라도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서 망정이지, 정말 단장님도 안 오셨으면 지루해서 돌아가실 뻔했어요. 아참, 내일도 오실 거죠?”

“내일도 오겠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제 걸음걸이에 맞춰 느릿하게 걷는 그가 고마워 배시시 미소가 지어졌다. 역시나 단장님을 배웅해주는 시간이 제일 좋았다.

황녀님의 비밀호위를 하는 동안은 단장님의 코빼기도 못 보겠지 싶었는데 매일같이 이곳에 와주는 그가 고맙기까지 했다. 물론 단장님은 황녀님께 암살자에 대한 보고를 하러 오는 거겠지만 말이다.

아나샤는 신나서 떠드느라 발이 가는대로 막 걷다가 잠시 길을 헤매기까지 했다. 이제는 익숙하다는 듯이 아예 길을 외운 그가 도리어 아나샤를 안내하고 있었다.

결국 도착하게 된 황녀궁 후문 앞에서 두 사람은 길고 긴 대화를 끝내야만 했다. 마차에 오르기 전 그는 늘 그랬듯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단장님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아나샤도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녀를 바라보던 시린 색의 눈동자가 잠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그가 마차에 오르고 이윽고 마차가 출발했다.

그가 떠난 후에도 봄기운처럼 따스한 둘만의 기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채였다.

아나샤는 평소와 같이 변화 없는 잔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황태자의 방문만 아니었다면 말이다.

“바쁘실 텐데 이곳까지 걸음하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동생을 보러오는 것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겠니?”

황태자와 황녀의 대화를 들으며 아나샤는 지정석인 창문 옆에 서있었다.

사이좋은 남매사이를 보여주듯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기 시작했다. 황태자 에르디온은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얘기하다가 문득 떠오른 것이 있는지 입가에 짙은 미소를 걸었다.

“그보다 방금 웨일그레슬 공작이 다녀간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역시나. 매일 같이 이곳에 방문한다는 얘기가 귀족들 사이에서 자자하더구나. 흠…, 그가 너에게 구애를 하고 있다는 소문도 사실이니?”

“아뇨, 그런 거 아니에요. 오라버니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분이 암살자에 대한 수사를 맡았잖아요.”

보고차 들리는 것뿐이라고 엘리시아는 얘기했지만, 에르디온은 의심쩍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아무리 일 때문이래도 그렇지, 그 무뚝뚝한 사내가 번거로움도 감수하고 매일같이 찾아온다? 조금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었다.

애당초 자신의 동생을 위해 직접 사건을 맡겠다고 나서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분에게는 따로 사랑하는 분이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 사근사근한 목소리에 에르디온은 물론, 앞에서 듣고 있던 아나샤까지 놀라 휘둥그레 눈을 떴다. 엘리시아는 태평하게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잠시나마 아나샤와 눈을 마주했다.

“물론 안타깝게도 짝사랑인 것 같지만요.”

“그 상대가 네가 아니란 말이니?”

에르디온은 애써 침착함을 가장하며 되물었다. 그 웨일그레슬 공작이 따로 사모하는 상대가 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 상대가 제 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그보다 오라버니, 저번에 부탁드리고 싶다고 했던 것에 대해 얘기해도 될까요?”

왠지 모르게 아쉬워 보이는 그의 모습에 엘리시아는 모른 척 매끄럽게 웃어보였다.

“제 휘하에 기사단을 하나 두고 싶어요.”

“기사단을 말이니? 이건 또 예상 밖의 말이구나.”

“…저번 사건으로 절실히 느꼈어요. 저만을 위해 움직여줄 자들이 필요하다는 걸요. 저번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까요.”

남에게 수사권한을 줄 바에야 자신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자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잠시 깊게 고민하던 에르디온은 손끝으로 턱을 문지르며 대답을 내놓았다.

“일단 아버지께 말씀은 드려보마. 하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거란다. 안 그래도 달러스 영지 건으로 많은 병력을 차출해야 돼서 말이야.”

“...달러스요?”

그 멍한 중얼거림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엘리시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에르디온은 창가 옆에 서있는 한 시녀를 돌아보았다. 못 보던 얼굴인 게 최근에 새로 뽑은 모양이었다.

“무례라 생각지 않으니 긴장할 것 없다.”

에르디온은 웃으며 창백하게 굳어있는 어린 시녀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다시 엘리시아와 시선을 마주하고 대화를 이어나갔다. 두 사람의 얘기는 길어졌다. 대략 삼십 분 넘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에르디온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른 시녀들이 예를 갖추는 동안 단 한 사람만이 방 안에 서서 굳어만 있었다.

“아샤 경?”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엘리시아가 시녀들을 내보내고 그녀를 따로 불렀을 때였다. 언제 멍한 얼굴이었냐는 듯이 아나샤가 엘리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단호함마저 서린 얼굴이었다.

“황녀님, 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달러스 영지라...”

엘리시아는 달이 떠오른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단실처럼 매끄러워 보이는 머리카락 위로 달빛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부탁을 들어줘야할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목소리는 방안을 맴돌다 사라졌다. 엘리시아는 창틀에서 떨어져 뒤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생각해? 자넌.”

어둠 속에서 한 인영이 한쪽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머리에 쓴 검은 복면으로 인해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흘러나온 거친 저음의 목소리는 남성의 것이었다. 그의 주위로 희미하게 피비린내가 풍겼으나 엘리시아는 약간의 두려운 기색조차 없었다.

“괜히 그곳에 보냈다가 죽기라도 한다면 아깝잖아? 네가 굳이 살려뒀을 만큼 유능한 아이인데.”

오히려 매끄럽게 입술을 휘어 올리며 엘리시아는 익숙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목격한 자는 모두 가차 없이 제거했던 자넌이 살려두었단 것은 그만큼 죽이기 아까운 상대란 얘기였다.

물론 자넌을 ‘황녀를 해하려고 기습한 암살자’로 오해했기에 살려두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겠지만.

“지금이라도 처리하라고 명하신다면…,”

“나도 아샤 경이 꽤 마음에 들어서 하는 말이야.”

이 말은 사실이었다. 자신의 심복들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이가 자넌이었다. 자신을 지키려던 자넌보다 더 빠르게 제 앞을 막아서서 방어 태세를 갖췄던 아나샤는 확실히 제 마음에 들기 충분했다.

전투실력은 아직 자넌에게는 못 미치지만 민첩함만큼은 그와 비등하게 겨룰 정도는 되었다. 기사단 소속 첩자만 아니었다면 제 밑에 두고 싶을 만큼 탐이 나는 인재였다.

“그리고 그 속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패인 만큼 소중히 다뤄야지.”

“남자를 다루는 패…말입니까?”

“첩자들은 모두 이런 쪽으로는 둔감한 건가? 다른 건 기민하게 잘만 눈치 채면서 말이야.”

엘리시아는 혼잣말로 낮게 중얼거리며 자넌에게서 시선을 거두었다. 좋아하는 여인을 잠시라도 보기 위해 매일같이 찾아오는 그 사내나, 그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아샤 경이나 둘 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말이다.

“저번에 말한 부탁 들어줄게요.”

다음날 엘리시아는 아냐사를 따로 방에 불렀다. 엘리시아의 깜짝 발언에 아나샤는 댕그랗게 눈을 떴다가 곧 고마움을 가득 담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신 내 부탁도 들어준다면 말이에요.”

“뭐부터 하면 될까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듯이 아나샤가 즉각 대답해왔다. 이에 엘리시아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은 채 종을 흔들었다. 딸랑딸랑, 울리는 종소리에 문밖에 대기하고 있던 시녀들이 일제히 안으로 들어섰다.

“준비해요.”

준비? 아나샤가 그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 골똘히 머리를 굴리려던 순간이었다. 시녀들이 다가와 아나샤를 양쪽에서 덥석 붙잡았다. 그러곤 어딘가로 재빠르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황녀님? 황녀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당황한 아나샤와 달리 엘리시아는 여유롭게 시녀가 내온 차를 들이켤 뿐이었다.

“그대로 가만히 계세요. 입꼬리도 다시 위로 올리시고요.”

아나샤는 현재 황녀궁의 뒤편에 위치한 꽃밭에 앉아있는 중이었다. 그것도 피어난 꽃들 사이에서 리본이 달린 하늘색 보닛을 쓰고 레이스 양산을 든 채로 말이다.

어설프게 입꼬리를 올렸지만 이내 다시 파르르 떨리며 아래로 내려갔다.

상황은 이러했다. 엘리시아가 후원하는 젊은 화가들은 정기적으로 황녀의 궁에서 인물화를 그리는데, 오늘 그 모델이 되어주기로 한 영애가 그만 아파서 오지 못한 것이다.

모델이 필요한 그때, 마침 엘리시아의 눈에 아나샤가 들어왔고 말이다.

풍성한 프릴이 달린 귀족드레스를 입어본 것은 아나샤의 인생에 있어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야 마냥 기쁘고 들떴던 그녀지만, 두 시간 동안 돌처럼 가만히 있으려니 엉덩이가 배기기 시작했다. 거기다 표정관리까지 해야 하니 죽을 맛이었다.

“저기요… 얼마나 더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나가요. 자, 다시 활짝 웃어보세요.”

아나샤는 억지로 입술을 끌어올렸다. 예쁜 옷을 입고 고문을 받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더 버텼을까, 분명 낮이었을 텐데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화가가 완성되었다는 듯이 만족한 얼굴로 붓을 거두자 아나샤는 양산도 버리고 뒤로 벌러덩 누웠다. 한동안 화구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안가 화가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아마도 황녀님께 끝났다고 얘기하러 가는 것 같았다. 그동안 자신은 잠깐 쉬어도 되겠지. 이대로 10분은 더 누워있을 생각으로 편하게 대자로 뻗어있을 때였다. 지척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아나샤는 속눈썹을 살짝 움직였다.

머리위로 그림자가 지자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을 떴다. 노을을 등진 낯익은 얼굴이 보이자 아나샤는 반가움에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단장님!”

오늘은 못 바래다줘서 당연히 못 볼 줄 알았던 그가 바로 앞에 있으니 반가움이 두 배로 밀려왔다. 아나샤는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냐며 그의 주위에서 종알거리다가 뒤늦게 그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려던 찰나, 문득 제 옷차림이 어떤지 떠올랐다.

“어, 앗, 이게요! 그, 황녀님한테 들으셨는진 모르겠지만 사정이 있어서.”

드레스까지는 그렇다 쳐도 하늘하늘한 레이스가 달린 보닛은 조금 창피했다. 버벅거리는 손으로 턱 아래 리본부터 풀려고 했지만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

“어떤 사정인지는 이따가 얘기해줄게요. 그보다 이거 어떻게 묶은…,”

그때, 볼 옆으로 커다란 손이 다가왔다. 순간적으로 아나샤는 얕게 숨을 들이켰다. 솜털을 스치는 간질간질한 감각을 뒤로하고 커다란 손은 금방 멀어졌다.

아나샤는 뒤늦게 긴 손가락 끝에 들려있는 작은 꽃잎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단순히 꽃잎을 떼어줬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자 언제 긴장했냐는 듯 몸이 느슨해졌다.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 맞다! 이거 좀 풀어주실래요?”

리본매듭 좀 풀어달라고 아나샤는 제 턱 밑을 가리켰다. 리히르트가 순순히 손을 움직여 리본매듭을 풀어주자 아나샤는 잽싸게 보닛을 벗었다.

“이제 가요. 바래다드릴게요.”

하지만 화원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녀는 걸음을 멈춰야했다.

“밖으로 안내하러 가는 길인가요? 성실하기도 하지.”

마침 화원으로 들어오던 엘리시아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아니에요. 이것 말고는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걸요.”

쑥스럽다는 양 아나샤가 대답하자 엘리시아는 입가에 띠운 미소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이왕 예쁘게 꾸몄는데 고생만 하고 바로 풀면 아깝잖아요. 밖에 나갔다오는 건 어때요?”

“네?”

“우아한 곳에서 식사도 하고, 공연도 보고, 마지막으로 야경까지 보고 오면 딱 이겠네요. 그러니 아샤 경의 에스코트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어진 말은 아나샤를 향한 말이 아닌, 그녀 옆에 서있는 리히르트를 향한 말이었다. 아나샤는 입을 떡 벌렸다. 에스코트? 자신과는 평생 인연이 없을 것 같은 단어가 아닌가!

마음이 들뜨고 설레는 것과는 별개로 너무 갑작스러웠다. 거기다 단장님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나샤는 그의 바르고 친절한 성격상 거절을 못할 거라 여기고 재빨리 끼어들었다.

“조금 갑작스럽지 않을까요? 단장님도 오늘 저녁엔 바쁠 수도 있고…,”

“설마 바쁘실 리는 없겠죠?”

곱게 눈을 휘며 엘리시아는 리히르트를 바라보았다. 분명 부드럽고 상냥한 시선일 텐데 아나샤는 왠지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제가 나가면 황녀님 비밀호위는…,”

“오라버니께서 오늘 새로운 호위들을 보내주셔서 말이에요. 평소보다 더 안전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그치만 드레스가 더럽혀지기라도 하면,”

“더럽혀도 괜찮아요. 원래는 아샤 경에게 줄 생각이었는걸요.”

“아뇨! 저 주셔도 저는 입고 갈 데도 없고 혼자 입을 수도 없는 걸요.”

“그렇네요. 평소엔 입을 수 없는 옷이니 지금 입었을 때 즐겨두는 게 좋겠네요.”

어떤 말도 부드럽게 넘겨버리는 황녀님의 말발에 아나샤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뻐끔거렸다. 더 반박할 거리를 찾지 못하자 엘리시아는 기분전환 겸 다녀오라며 가볍게 그녀의 등을 밀어주었다.

“그럼 아샤 경, 아니 라이나 영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와요.”

아나샤는 떠밀리듯 몇 걸음 옮기다가 제 옆에 따라선 그를 올려다보았다. 정말 괜찮겠냐고 눈으로 물었으나 그는 입매를 가다듬듯이 입술 끝을 매만질 뿐이었다.

‘단장님 뭔가 들떠 보이잖아?’

제 착각인가 싶어서 그의 옆얼굴을 다시 살펴보았으나 역시나 그는 어딘가 들뜬 모습이었다. 물론 입가만 살짝 올라갔을 뿐이었지만 아나샤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일에 치이며 바쁘게 지냈으면 놀다오라는 말에 저렇게 사람이 행복해보일 수 있을까 싶었다. 매일 야근을 하던 그를 생각하면 충분히 나올 만한 반응이었다.

‘노는 게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나샤는 속으로 짠한 기분을 느끼며 동시에 다짐했다. 이렇게 된 거 그에게 완벽한 휴일을 선물해주기로 말이다.

“가요. 어디든!”

언제 마지못해 움직였냐는 듯이 아나샤는 위풍당당하게 태세를 전환했다. 풍성하게 부풀려진 드레스자락을 펄럭이며 당차게 걷는 그녀 뒤로 커다란 키의 사내가 따라붙는 요상한 모습이 되었지만, 엘리시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볼 뿐이었다.

“가고 싶은 곳 있습니까?”

마차에 오르고서 리히르트가 처음 꺼낸 말이었다. 일단 마부에게는 수도 번화가로 가달라고 말했으나 두 사람 다 뚜렷한 행선지가 없는 상태였다.

“단장님은요?”

“저는 어디든 좋습니다.”

“그러면 밥 먹고 싶어요.”

치장을 받느라 점심도 못 먹었다고 아나샤가 말하자 그는 곧바로 행선지를 수도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으로 바꾸었다.

“레스토랑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휴, 이게 뭐라고 떨리네요. 단장님이 보기엔 어때요? 저 좀 귀족 같아보여요?"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잠시 만요! 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뜸을 다 들이나 싶었다. 아나샤는 과하게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다. 어떤 혹평에도 담담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듯이 그녀가 해도 된다고 사인을 주자 리히르트는 잠시 주저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상과 다른 말에 아나샤는 잠시 당황해버렸다.

“…그, 고마워요. 마음의 준비를 다른 쪽으로 했거든요. 정말 예상 밖이지만 기분은 정말 좋네요.”

“아닙니다. 귀족 같은 게 어떤 것인지 몰라 그저 솔직하게 느낀 점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됐을 진 모르겠습니다.”

“그만, 그만 말하셔도 돼요.”

어느새 머리로 열이 서서히 올라오자 그녀는 딴청을 부리듯이 손부채질을 시작했다. 그 모습을 빤히 바라보던 그는 그녀가 시선을 마주쳐오자 곧바로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리고 저도 그런 곳은 처음입니다.”

“정말요?”

“네. 그래서 기대됩니다.”

리히르트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잔잔한 푸른빛의 호수처럼 고요한 눈길이었으나 그의 심장은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거세게 뛰고 있었다.

“저도요! 엄청 기대돼요.”

자신도 마찬가지로 기대된다는 양 활짝 웃는 모습에 리히르트는 다시 눈길을 옆으로 돌렸다. 그녀와 눈을 마주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만큼 순간순간이 떨리고 설렜다.

어느새 꽉 쥐어진 그의 손등 위로 힘줄이 돋아났다. 마음은 접을 것이다. 하지만 단 하루만, 하루정도는 바라도 되지 않을까.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기로 결정한 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으나 리히르트는 오늘도 이것을 뒤로 미루었다. 단 한 번도 제 결정을 미뤄본 적도,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했던 적이 없던 그답지 않은 행동이었다.

날이 갈수록 실행을 미루는 게 일상이 되고 있었지만 그 자신은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크리스는 오랜만에 외출을 나와 있었다. 항상 땀내 나는 사내들로 복작거리는 기사단 식당에서만 밥을 먹다가 아름다운 연주소리가 흐르는 넓은 공간에 앉아 식사를 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수도에서 가장 큰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기로 한 것은 자신이 생각해도 탁월한 선택이었다. 상위층 귀족들이 자주 찾는 곳답게 예약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지만 크리스는 이 정도 수고는 감수할만하다고 여겼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세실리아 그녀도 감동한 눈치였고, 음식도 입에서 녹아내릴 것처럼 맛있었다. 모든 게 완벽한 하루였다.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갈 때였다. 갑작스레 주위에서 작은 술렁거림이 일었다. 약혼녀와 대화를 나누던 그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대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보기 무섭게 식당 입구로 들어서는 한 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차마 안 보려 해도 눈에 안 띌 수 없는 인물이었다.

한 올 흐트러짐 없이 포마드로 쓸어 넘긴 백금발은 깔끔했다. 곧고 유려한 선이 흐르는 조각 같은 얼굴을 든 채 걸어 들어오고 있으니 눈이 띄지 않을 리가 없었다. 거기다 새하얀 황실제복까지 입고 있어 모두 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고 가녀린 체구의 여인이 함께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대충 어느 귀족가문의 영애이겠거니 하고 시선을 흘리려던 크리스는 왠지 모르게 익숙한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컥, 쿨럭쿨럭!”

그리고 크리스가 사레에 들리기까지 단 3초도 걸리지 않았다.

“크리스?”

세실리아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복잡한 머릿속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샤가 왜 여기에 있는…? 아니 아니아니, 저 옷은 또 뭐고. 왜 단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지?’

크리스는 기침을 하며 벌겋게 얼굴을 물들인 상태에서도 두 사람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자상한 태도로 의자를 빼주는 저 신사 같은 남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무표정하던 얼굴은 어디다 던져두고 왔는지 입가에 온화한 미소까지 지은 채 아나샤와 얘길 나누고 있었다.

‘뭐야, 저 둘이 대체 왜...’

주위의 시선이 힐긋힐긋 모아지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만의 세상에 푹 빠져있는 두 남녀의 모습에 크리스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할지 몰랐다.

그때, 문득 예전에 기사들이 우스갯소리로 떠들던 말이 머릿속을 스쳐지나갔다. 하도 붙어 다니니 저러다 애인사이로 발전해서 1년 안에 결혼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스갯소리였다.

물론 그 당시에는 개소리로 취급했지만,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을 눈앞에서 보고 있는 크리스는 도저히 개소리로 취급할 수 없었다.

막 성인이 된 딸아이가 외간남자와 몰래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한 아버지의 심경이 이럴까. 거기다 그 외간남자가 자신의 상관이라면...

“잠깐…바람 좀 쐬고 올게.”

크리스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참으로 복잡한 심경이었다.

식당을 나온 아나샤는 한숨을 내쉬었다. 언제 또 이런 곳에 와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 식탁 위를 빼곡히 채운 수십 가지 음식은 하나같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을 만큼 끝내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만족스럽게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처음 입어본건데, 드레스가 이렇게 불편한 옷일 줄은 몰랐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들을 눈앞에 두고 배터지게 먹지 못했으니 드레스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다. 아나샤의 투덜거림을 조용히 듣고 있던 리히르트는 마차에 오르려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지금이라도 갈아입으러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돼요?”

“저도 제복이라 갈아입어야할 것 같습니다.”

아나샤는 그제야 그의 옷차림이 놀러가기엔 많이 이목을 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녀가 손을 겹치자 리히르트는 곧바로 그녀와 함께 마차에 올랐다.

두 사람이 내린 곳은 의상점 앞이었다. 기사단 숙사나 그의 저택으로 가는 줄 알았던 아나샤는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너무 통이 크신 거 아니에요? 밥도 단장님이 사주셨잖아요.”

“예전에 단둘이 만났을 때도 그대가 전부 사줬지 않습니까.”

“그거랑 퉁친 게 아까 밥이잖아요.”

사실 퉁쳤다고 하기엔 가격차가 어마어마하다지만. 아나샤가 더 받을 순 없다고 우기자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빌려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빌려주는 것도 결국 사야되는 거 아닌가…?’

아나샤는 헷갈렸지만 헷갈려할 새도 없었다. 의상점에 들어서자마자 이 드레스는 어떠냐, 저 드레스는 어떠냐며 추천하는 직원들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바지요! 바지로 주세요!”

벌떼처럼 몰려드는 드레스들에 파묻히기 직전 아나샤는 다급히 외쳤다. 직원들의 표정엔 의아함이 묻어났지만 곧 그녀 말대로 바지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여러 옷 중에서 아나샤는 가장 편해 보이는 셔츠와 멜빵바지를 선택했다. 갈아입고 나오자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가 보였다.

가장 흔한 검정색의 무늬 없는 기성복으로 갈아입은 그였지만, 마치 그를 위해 제작된 세상에 단 한 벌뿐인 옷 같았다. 아나샤는 척 하고 엄지를 세웠다.

“엄청 잘 어울려요. 최고 멋져요.”

“그대도 잘 어울립니다.”

리히르트는 미소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아나샤는 괜히 부끄러운 기분에 볼만 긁적였다. 모른 척하긴 했지만 제게서 떨어질 줄 모르던 그의 시선 때문에 더 그랬다.

“흠, 아무튼, 이제 어디 갈까요?”

의상점을 나오며 아나샤가 물었다. 노을이 져 어두워진 거리에는 하나둘 가로등에 불이 켜지고 있었다.

귀족들이 다니는 거리라 마법가로등도 많구나, 아나샤가 형형색색 빛나는 거리에 작게 감탄하는 동안 리히르트가 슬며시 운을 뗐다.

“저번에 갔던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 좋죠. 근데 제가 돈을 안 챙겨 와서 뭘 사먹거나 할 수가 없을 텐데 괜찮겠어요?”

그에게 돈이 있다고 해도 보나마나 번쩍거리는 금화일 테니 시장은 무리였다. 어떡해야 될지 몰라 가만히 서있을 때였다.

아나샤는 제게 내밀어진 그의 손에 상념에서 벗어났다. 그는 웬 가죽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조금 묵직한 주머니를 받아들고 안을 열어본 그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언제 다 바꿨어요?”

가죽주머니 안은 1실루나 동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의 준비성에 아나샤는 순수하게 감탄했다. 정말 놀려고 작정하셨구나. 그런 그에게 맞춰 자신도 분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저번에 데려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갔던 데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오늘은 다 가봐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자신만 믿고 따라오라며 아나샤는 들뜬 얼굴로 조잘댔다. 두 사람은 곧장 시장거리로 향했다. 환한 빛을 내는 마법가로등은 없었지만 천막 새로 흘러나오는 불빛 때문에 더 고즈넉한 분위기가 났다.

지난번보다 사람이 적어 움직이기도 훨씬 수월했다. 아나샤는 그를 이끌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느 작은 천막 앞에서 멈춰 섰다.

“여기 카드점 진짜 잘 맞거든요. 한번 볼래요?”

그녀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기세인 리히르트는 당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좁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선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침묵을 지켰다.

램프 속 타오르는 작은 불씨가 밝히고 있는 천막 안은 협소하고 허름했다. 그리고 탁자 맞은편에는 칙칙한 옷차림의 노파가 앉아있었다.

“여기 앉아요.”

먼저 나무의자에 앉은 아나샤가 옆의 작은 의자를 탁탁 두드렸다. 그가 앉자 노파는 무엇이 궁금한지를 물었다.

“앞으로의 운세를 보고 싶어서요.”

“범위가 넓은데,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

“가까운 미래요.”

“그래, 그래. 일단 세 장 뽑아봐.”

노파가 섞은 카드들을 탁자 위에 길게 펼쳐놓았다. 아나샤가 한 장씩 빠르게 골라내자 노파가 바로 카드들을 뒤집어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디보자. 이 카드들은 하나같이 악재를 상징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카드들만 나온 건지... 몸조심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기겠어.”

아,하고 아나샤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었다. 부상 정도는 당연히 각오하고 부탁한 일이었지만 점의 결과도 안 좋게 나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마치 자신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반대라도 하듯이 말이다.

“안 맞길 바라야겠죠?”

하지만 이제와 무를 생각은 없었다. 언제 입술이 딱딱하게 다물렸냐는 듯이 아나샤의 입가에는 결심처럼 작은 미소가 피어올랐다.

“저희 운세 말고 다른 것도 봐요. 연애점은 어때요?”

리히르트를 돌아보며 물었으나 대답은 그가 아닌 반대편에서 들려왔다.

“연애점이면 두 사람이 같이 보는 거 말이지?”

“아뇨. 따로따로요.”

“궁합 보는 거 아니었어?”

“네?! 아니에요! 저희 연인사이 아니고 그냥 그, 친한 관계예요.”

“그래?”

노파가 의심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보자 아나샤는 얼굴이 다 화끈거렸다. 단장님이 옆에서 듣고 있기에 더 당황스러웠다.

그녀가 빨개진 볼의 열을 식히기 위해 열심히 손부채질 하는 동안 리히르트는 세 장의 카드를 뽑았다. 노파는 그가 뽑은 카드들을 살피고는 웃음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곧 애인이 생기겠네.”

“정말요?!”

당사자보다 더 놀란 아나샤가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그래, 그래. 아주 밝고 명랑한 아가씨랑 마음이 통하겠어.”

“세상에! 성격이 좋은 분인가 봐요!”

잘됐다며 아나샤가 눈을 반짝이는 동안 정작 당사자인 그는 조용히 침묵만 지켰다.

“어떻게 생겼어요? 단장님만큼 아름다우신가요? 어떻게 만나요? 원래 알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아나샤가 노파에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에 바빴다. 노파는 자신도 점으로 본 것이기에 자세한 것은 모른다며 적당히 둘러대며 그녀의 질문을 피했다.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아 아쉬운 얼굴로 아나샤는 자리에서 일어나야했고 말이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먼저 천막 입구에 선 아나샤가 그가 일어나길 기다릴 때였다. 어딘가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가 무겁게 운을 뗐다.

“따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잠시 기다려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안 엿들을게요. 편하게 점치고 나오세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나샤는 밖으로 튀어나갔다. 잠시나마 그 애인에 관한 질문이 아닌가 싶었지만 그런 것이라면 굳이 제 앞에서 숨길 필요가 없으니 다른 사적인 질문이겠거니 싶었다.

그녀의 인기척이 멀어지자 리히르트는 그제야 노파를 응시했다.

“정확히 맞는 겁니까?”

아까 점의 결과가 믿을 만한 것이냐고 그는 물었다. 그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에 노파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이 나이쯤 먹으면 굳이 점을 안쳐도 보이는 게 있어.”

“...”

“딱 보니까, 남이랑 가깝게 어울려본 건 저 아가씨가 처음이지? 그동안 마음 털어놓을 상대 하나 없이 삭막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말이야.”

자신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는 양 노파는 주름진 눈을 가늘게 접었다.

“자네 얼굴만 봐도 그래. 나는 다른 사람에겐 관심없습니다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 같어. 인상 좀 펴. 안 그래도 삭막한 인생인데 저 아가씨까지 없으면 어쩌려고. 당연히 붙잡아야지.”

꾸지람이라 하기엔 썩 부드러운 어투였다. 하지만 리히르트는 미약하게 찌푸려진 미간을 펼 생각이 없어보였다. 펼 수 없다는 게 옳았다.

“그런 것 따윈 상관없습니다. 아까 그녀의 운세에 대해 묻는 겁니다. 몸조심해야 될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그의 진지한 물음은 노파의 웃음소리로 인해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

“정말이지, 웃긴 사내구먼. 껄껄껄.”

“...”

“그래, 그래.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데 이걸 묻는 게 당연하겠지. 사랑이 무슨 대수겠어.”

오랜만에 재밌는 손님을 상대해본다는 양 노파는 웃음소리를 흘리다가 어느 순간 웃음기를 싹 거두었다.

“아까 그 아가씨한테도 얘기했지만, 나도 어디까지나 점을 통해 나온 것만 볼 수 있어. 그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그런데 아까 그 점괘는 정말 불길해.”

“...”

“점이 안 맞길 바라야겠지만 정말 운이 나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점괘야. 그러니 그쪽 청년이 떨어지지 말고 잘 지켜보고 있어. 무슨 일 안 생기게.”

“…도움 됐습니다.”

여전히 그는 점을 믿지 않았으나 노파의 말은 귀에 새겼다. 만에 하나라도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면 새겨들어서 나쁠 것은 없으니 말이다.

돈을 치르고 밖으로 나온 그는 멀찍이서 물건들을 구경하고 있는 아나샤를 볼 수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신기하게 생긴 장식품들을 보고 있던 그녀는 그의 발소리에 바로 고개를 들었다.

“점 잘보고 왔어요?”

“네.”

“어때요? 잘 맞죠?”

“아쉽게도,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나샤는 그의 표정이 조금 어둡게 가라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안 좋은 결과를 들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 이제 뭐하고 놀까요?”

리히르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미소를 입가에 가득 띠운 채 아나샤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원래 점은 좋은 얘기만 듣는 거랬어요. 안 좋은 얘긴 훌훌 털어내고 저흰 마저 신나게 놀아요.”

이끄는 손은 작았지만 리히르트는 마치 큰 힘에 의해 이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저조한 기분 속에 빠져있던 자신을 이렇게 쉽게, 단번에 위로 끌어올려주니 말이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것도 불가항력이 아닐까, 하는.

거리를 돌아다니는 내내 맞잡은 두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어스레한 빛이 내려앉은 새벽, 리히르트는 잠에서 깼다. 쌀쌀한 새벽공기에 공허한 기분이 몰려들기도 전에 그는 자신의 왼손을 움켜쥐었다가 폈다.

이 손에 닿았던 따스한 온기가 떠올랐다. 꿈같았던 어젯밤 풍경이 떠오르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가에 미소를 띠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아직도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일에 익숙지 않아 제대로 에스코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신경 썼어요?’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던 그녀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고 생생했다. 조금 심통이 난 것 같은 얼굴이었었다.

‘단장님도 참! 저 그런 거 신경 안쓰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단장님보다도 이런 거에 무지한 사람이 전데!’

‘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가 즐거우면 됐다고 생각해요. 전 오늘 무척 즐거웠거든요. 평생 동안 한번 입어볼까 말까한 옷도 다 입어보고,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하고, 솔직히 지금도 꿈꾸는 기분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며 아쉬워하는 얼굴로 툴툴거리는 목소리가, 여전히 포개고 있는 손이 사랑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했다. 황녀궁 앞에 도착했을 땐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충동마저 느껴야 했다. 그녀와 있을 땐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기분이었으나,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 저택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만은 지극히 현실적이었다.

리히르트는 깊게 감고 있던 눈을 떴다. 공허하리만큼 넓은 침실 안에서 옷을 갖춰 입고 방을 나섰다.

그의 하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흘러갔다. 기사단에 출근하여 서류를 보았고, 홀로 점심식사를 했으며, 잠깐의 휴식도 없이 다시 일을 했다.

서류를 보는 도중에도 문득문득 떠오르는 어젯밤의 기억에 그는 습관적으로 왼손을 쥐었다 펴길 반복했다. 어서 그녀를 보고 싶었다. 평소에도 떠오른 생각이었지만 오늘은 그 생각이 한층 더 강했다.

그리고 물어보고 싶었다. 어젯밤 일들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면,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진 않을까. 자꾸만 맞잡았던 손의 온기가 떠올라 마음이 들떴다.

결국 리히르트는 평소보다 일찍 업무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황녀궁에 들어서자 전속시녀들이 가장먼저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녀의 얼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손이 다 낫기 전까진 심부름은 시키지 말아 달라 황녀에게 따로 부탁했었기에 그녀가 다른 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황녀와 함께 있는 건가 싶어 황녀가 있는 곳으로 곧장 안내받았으나 그곳에도 그녀는 없었다.

“아샤 경은…,”

“아샤 경은 제가 따로 시킨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운 상태예요.”

시녀들이 나가자마자 묻는 그에게 엘리시아는 차분히 대답해주었다.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하지만 이번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아샤 경이 원했거든요.”

“언제 돌아옵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기세로 묻는 사내를 보며 엘리시아는 옅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샤 경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이 남자 앞에서는 역시 숨길 수 없는 일이었다.

“오늘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샤 경에게 비밀임무가 내려졌어요. 오늘 새벽에 달러스로 출발했고요.”

리히르트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다. 그것이 아니라면 황녀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제국과 제국의 속국인 전 라오드 왕국의 국경에 위치한 지역이 달러스였다.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고 도망친 라오드의 귀족들이 몸을 숨긴 지역이기도 했다.

제국은 내몰릴 대로 내몰린 그들이 스스로 고립되어 자멸하기를 기다렸으나 긴 세월 동안 상황은 반대로 흘러갔다. 범죄세력과 내통하며 그 안에서도 세력을 키운 것이다.

2년 전, 이를 뒤늦게 알아차린 황실이 달러스에 기사들을 보내었으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달러스의 세력은 황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견고했고, 라오드의 추종자들은 귀족이자 기사로서의 존엄마저 버린 채 추악한 범죄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더 내몰릴 곳조차 없는 자들의 독기를 우습게 본 제국의 실수였다. 제국의 부대 하나가 전멸하고, 민간인 희생자 수가 수백에 이르자 어쩔 수 없이 후퇴한 것이 재작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섬멸전이 일어나려하고 있었다. 그 위험한 지역으로 아나샤 그녀가 떠났다고 황녀는 말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생각이신 겁니까...”

격양된 감정을 한껏 내리누른 듯 낮은 목소리는 서늘했다. 리히르트는 엘리시아를 직시한 채 억누른 목소리를 내뱉었다.

“아직 부상이 다 낫지 않은 이에게 출정명령을 내린 겁니까?”

“전 그저 아샤 경의 부탁을 들어줬을 뿐이에요.”

엘리시아는 차분히 말했으나 그의 모습에 내심 놀라있었다. 도저히 그 감정 없는 사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제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녀가 그런 부탁을 했을 리가,”

“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한 치의 거짓도 없는 사실이에요.”

리히르트는 무겁게 입을 다물었다. 납득한 것은 아니었다. 이유야 어찌됐든 그녀가 달러스로 간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테니 더 이상 황녀를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다.

리히르트는 급히 황녀궁을 나섰다. 어째서 그녀가 그곳으로 향한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그녀는 평소와 같았다. 자신이 무엇을 놓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어지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던 중 문득 어제 본 점괘의 내용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각오했던 것일까. 그래서 크게 다칠 거란 불길한 점괘에도 아무의문 없이 넘어갔던 것일까. 다칠 것을 알고도 그곳으로 향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했다.

깊게 고민하는 동안에도 그는 쉬지 않고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움직여 그가 도착한 곳은 황태자의 집무실이었다.

문 앞을 지키고 있는 근위병들을 지나쳐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업무를 보고 있는 에르디온을 향해 다가갔다.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에르디온은 책상 바로 앞에 멈춰선 사내를 올려다보았다. 목소리에서 이미 누군지 눈치 챘으나 막상 마주한 얼굴에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 간 데 없이 옷깃과 머리칼을 흩트리고 서있는 사내는 정말이지 다른 사람 같았던 탓이다.

“무슨 일로 찾아온 건지 용건부터 듣지.”

“달러스에 저를 투입시켜주십시오.”

“…이것 참 갑작스러운 부탁이군.”

진중한 눈빛의 기세가 도저히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애초에 부탁이라는 말을 쉬이 입에 담을 위인이란 말인가. 에르디온은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서 의자에 등을 기댔다.

“이미 제2기사단에 작전 지휘권을 넘겨주었지 않나? 지난번 회의에 참석한 자네도 알고 있을 텐데.”

“독단으로 움직이려 합니다. 허가해주십시오.”

“…혼자서 말인가?”

더더욱 그의 생각을 알 수 없다는 듯이 에르디온은 눈썹 끝을 일그러뜨렸다. 갑작스러운 건 그렇다 쳐도, 무슨 일이기에 당장 안 떠나면 죽을 사람처럼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당황스럽긴 하지만 알겠어. 공이 참전한다면 기사들의 사기도 높아질 테니까. 다만 단독으로 움직이기 전에 제2기사단 단장과 미리 상의해두는 게 좋을 것 같군.”

“그리하겠습니다.”

“그보다 내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다하고 말이야.”

그간 혁혁한 공을 세우고도 욕심이라곤 없는 사람처럼 굴던 자가 이런 부탁을 해오니 신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에르디온은 다시 봤다는 듯이 느긋한 미소를 지었다.

“무엇 때문에 자네가 이렇게 조급하게 구는지 궁금하지만, 이건 나중에 천천히 듣도록 하지.”

리히르트는 곧바로 기사단으로 돌아왔다. 모든 업무를 부단장 칼리프에게 위임하고 막 떠날 채비를 갖췄을 때였다. 단장실 문밖에서 노크소리가 울렸다.

“단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누구지?”

“크리스 벨덴 이라고 합니다.”

뒤늦게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지자 크리스는 문을 열었다. 짐짓 무거운 분위기로 들어선 그는 더 무거운 분위기로 서있는 백금발의 사내를 발견하곤 그대로 굳어버렸다.

성가시게 누구냐는 듯 노려보는 서슬 퍼런 눈은 흉흉하기까지 했다. 크리스는 금방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을 애써 억눌렀다.

오히려 기사단장의 기세에 밀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섰다. 뭐 때문에 저렇게 기분이 안 좋은 진 몰라도 이쪽도 만만치 않게 기분이 좋지 않은 참이었다.

밤새 두 사람의 관계를 추측하느라 눈 밑으로 다크써클이 내려앉았을 정도니 말이다.

“하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아샤 경의 보호자나 다름없는 입장으로서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꼬치꼬치 캐묻고 싶은 것을 크리스는 간신히 참아내었다. 둘 다 성인이고 어련히 잘 하겠거니 싶어도 아샤를 어릴 때부터 봐왔던 입장으로서는 불안한 게 사실이었다.

나이차도 나이차지만 둘 사이엔 어마어마한 신분차가 있었으니 말이다. 귀족이 평민과 진지한 연애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더군다나 상대는 공작이었다.

“사실 어제 아샤와 데이트하시는 걸 우연히 봤습니다. 아샤와 정말 진지하게 미래를 약속하고 만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전 이 관계를 도저히 인정할 수가!”

“크리스 벨덴 경.”

눈을 부릅뜬 채 강경하게 외치려던 크리스는 지나치게 낮은 목소리에 흠칫 정신을 되찾았다.

“아샤 경이 비밀리에 달러스의 잠복임무를 맡은 것 같다.”

이어진 말에 크리스는 잠시 제 귀가 잘못되었다고 여겼다. 그러나 맞은편에서 심각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서있는 기사단장의 모습에 저가 옳게 들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왜 그곳에 간 건지 짐작 가는 것이라도,”

“이런 미친…, 달러스 라고 했습니까? 아샤가 달러스에 갔다고요?!”

믿기 힘든 사실을 들은 사람처럼 크리스는 방안을 빠르게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한동안 불안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그는 밖에서 들려온 노크소리에 그제야 걸음을 멈췄다.

“단장님. 모든 출발준비를 마쳤습니다.”

기사의 목소리에 리히르트가 곧장 검을 챙겨들고 나가려하자 크리스가 그 뒤를 따랐다.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리히르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는 것으로 허가했다. 아나샤 그녀가 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전에 투입되기를 자처했는지 그에게서 들을 필요가 있었다.

마차에 오른 두 사람은 긴 침묵을 지켰다. 각자의 생각에 잠겨있느라 심각한 표정만 짓던 중 크리스가 먼저 운을 떼면서 가까스로 침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까 왜 아샤가 그곳에 간 것인지 물으셨죠. 거의 2년 전일입니다. 달러스에 기사단이 투입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절로 튀어나오려는 한숨을 삼키며 크리스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첫 작전 때 저희 기사단의 기사들도 투입됐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스 영지성에 저희 기사단 소속 첩자가 잠입했었죠. 아샤 말고 아샤 위에 있던 녀석이었는데,”

크리스는 잠시 괴로운 듯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가 다시 담담히 말을 뱉어냈다.

“그놈은 아샤를 거둬 키운 양부였습니다. 그리고 달러스 잠입 임무 중에 죽었습니다. 하필이면 지원나간 아샤가 그 시신을 발견했고요.”

“...”

“아샤가 달러스에 지원한 것도 이 때문일 겁니다.”

그 얘기까지 한 크리스는 잠시 긴 침묵을 지켰다. 덩달아 깊은 침묵을 지키던 리히르트는 한 가지 추측이 떠오르자 무겁게 운을 뗐다.

“혹시 그 자의 이름이 리온인가.”

“단장님께서 어떻게 아시는…, 아샤가 얘기해줬습니까?”

아직도 리온 이름만 꺼내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아나샤를 알기에 크리스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먼저 리온에 대해 얘기를 하다니, 생각보다 이 남자에게 푹 빠진 모양이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크리스는 더 많은 얘기를 풀어놓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날 사건 겪고, 아샤가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었습니다. 방안에 틀어박혀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며칠을 지냈었죠.”

“...”“저희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문 앞에서 죽치고 앉아서 녀석이 괜찮은지 매일 확인하고…, 다들 마음 같아선 문을 부숴서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든 아샤에게 상처를 주면 기사단 삼촌들이 합심해 너를 부수겠다, 라는 의미의 경고도 담긴 말이었다. 크리스는 큼 하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그때는 이런 일을 겪었으니 첩자 일은 두 번 다신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트 단장님도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샤에게 억지로 리온의 뒤를 맡을 필욘 없다고, 언제든 첩자 일을 관두고 평범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예전 일을 떠올리니 크리스는 괜히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다 여겼다.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아샤가 방에서 나오지 뭡니까.”

꼴이 말이 아니어서 기사단이 한바탕 뒤집어지고 난리도 아니었었다. 안 그래도 바짝 마른 애가 거의 다 죽어가는 꼴로 나왔으니 말이다.

먹여야 될지, 재워야 될지, 의원부터 불러야 될지 몰라 허둥대는 기사들 사이에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는 계속 첩자 일을 할 거라고 말하던 아샤의 모습이 지금도 선명했다.

“어느새 기운을 차리더니 리온 녀석 뒤를 이어서 첩자 일도 다시 시작했죠. 처음엔 걱정밖에 안 들었는데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임무도 잘 해내고, 평소처럼 장난도 잘치고 잘 지내니까 어느새 걱정도 사라졌었죠.”

“...”

“한동안 괜찮아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만...”

땅이 꺼져라 깊은 한숨을 내쉰 크리스는 창문 밖을 응시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스쳐가는 풍경만 바라보고 있을 때, 여태껏 조용하기만 하던 맞은편에서 중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샤 경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었다고 했던가.”

“그렇죠. 아샤가 요만했을 때 기사단에 왔으니 커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서로 아샤를 키웠다며 싸우는 놈들과 동류가 되고 싶지는 않다지만, 아샤의 가장 친한 삼촌이라는 자부심은 가지고 있었다. 그도 그럴게 리온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자신이었으니 친삼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녀에 대한 얘기를 더 듣고 싶다.”

어쭈, 요것 봐라? 하는 눈으로 크리스는 맞은편 사내를 바라보았다. 늘 타인에겐 관심 없다는 듯 침묵만 고수하던 남자가 아샤에 대해 알고 싶다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것이 괘씸하면서도 썩 나쁘진 않았다.

“큼, 가는 길이 머니 얘기해드리죠.”

달리는 마차 안에서 그렇게 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대는 거대한 나무 위. 까마득하리만치 높은 곳에 한 남자가 서있었다.

온통 검은 복장의 남자는 훤히 내려다보이는 아래를 둘러보다가 멀리서 다가오는 열 명의 기사들을 발견했다. 눈 아래까지 검은 천을 끌어올린 리온은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지면위에 내려섰다.

착, 하고 가벼운 발소리가 끝나기 무섭게 그의 앞으로 말을 타고 다가온 남자가 입을 열었다.

“발견한 거라도 있나?”

“아뇨. 이 주변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야영한다.”

제8기사단 단장, 허드슨의 말에 기사들은 야영준비에 들어갔다. 뿔뿔이 흩어진 기사들을 뒤따라 리온도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산속을 걷기 시작했다.

‘이정도면 부족하다고 욕먹진 않겠지.’

리온은 두 팔 가득 들린 나뭇가지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다. 제법 깊은 곳까지 들어온 건지 사위가 조용했다. 다시 돌아가기 위해 한 걸음을 뗀 순간이었다.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아주 작은 기척을 잡아낸 그는 걸음을 멈췄다. 안 그래도 식량이 거의 떨어져가던 중이었다. 들짐승이면 잡아서 저녁식사 재료로 써야겠단 생각이 들었다.

허나 기척을 죽이고 빠르게 도착한 그곳에는 예상했던 들짐승은 없었다.

“아이…?”

너무나도 예상 밖의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작디작은 체구는 얼마나 마른지 뼈만 앙상해보였다. 산발처럼 엉킨 긴 머리와 오랫동안 빨지 않은 듯한 옷은 까만 흙먼지로 얼룩져있었다.

단순히 산속에 길을 잃고 헤맨 아이로는 보이지 않았다. 조금 착잡한 생각으로 이어지려 할 때, 자신을 멍하니 보고 있던 아이가 움찔 뒤로 물러섰다.

그제야 리온은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몸을 낮추고 자신의 머리에 쓰고 있던 두건을 끌어내렸다. 어두운 천에 숨겨져 있던 연한 금색머리칼이 어둠속에 드러나자 아이의 눈이 크게 떠졌다.

"음, 이러면 조금 더 안심될까?”

“...”

“이름이 뭐야? 난 리온이라고 하는데.”

리온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며 “리온.”이라고 천천히 얘기해주었다.

이에 조금은 경계심을 낮춘 듯 보였지만 입술만 오물거리는 아이의 모습에 리온은 다시 고민에 빠졌다. 혹시 소리를 못 듣거나 말을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으로 기울었을 때였다.

“…샤.”

들려온 작은 목소리에 리온은 귀를 기울였다.

“아…나샤.”

그를 따라하듯 작은 손가락을 펴 자신을 가리키며 아이가 말했다.

리온은 아이가 제국어를 할 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애초에 이 산 근처에는 인가가 없었다. 말을 타고 꼬박 하루를 달려야 나오는 영지밖에 없다는 것과 생소한 억양의 이름을 생각한다면 아마 이민족의 아이인 것 같았다.

동시에 이민족에 대해 스치듯 들었던 정보 몇 가지가 떠올랐다.

이민족은 보통 겨울이 다가오면 식량을 아끼기 위해 체구가 왜소한 여자아이들을 버리는 풍습이 있다고 들었었다. 남자아이는 힘을 쓸 수 있으니 키우지만, 여자아이의 경우 자식을 낳기에 적합해보이지 않으면 밖에서 죽게 만든다고 말이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리온은 눈앞의 아이가 안쓰럽기만 했다. 리온은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주머니에서 견과류와 건과일 조각 몇 개를 꺼내었다.

아이는 언제 경계했냐는 듯이 곧바로 리온의 앞으로 다가와 그 자리에서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굶었는지는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배를 채운 아이는 아예 경계를 허문 채로 똘망똘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기까지 했다.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그 뒤를 따라올 것 같은 모습이었다.

“같이 갈까?”

리온은 먼저 아이에게 손을 내밀었다. 기껏 모은 나뭇가지들 중 반은 땅바닥에 내려두고 나머지 반을 한 팔에 안아들었다. 그리고 반대 손으로는 작은 손을 잡은 채 진영으로 돌아왔다.

역시나 눈길은 마냥 따스하지만은 않았다. 아이에게 쏘아지는 차가운 눈길들에 리온은 씁쓸한 기분을 느꼈다.

같은 기사단의 동료라면 어떻게든 설득해보겠지만 하필이면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각기 다른 기사단에서 차출된 기사들이었다. 리온은 아이를 따뜻한 불가에 앉히고서 작전부대의 총책임자인 허드슨 앞에 섰다.

“그래서, 저 아이는 뭐지? 리온 라이나 경.”

“산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보나마나 이민족의 아이겠군.”

“네.”

리온은 한번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수도에 도착할 때까지, 제가 보호하고 싶습니다.”

“설마 저 이민족 애를 데리고 가겠다는 건가?”

“이런 산속에 두고 갔다간 어떻게 될지 아시지 않습니까?”

“동정심에 호소하는 건가? 이민족을 몰아내러 와서는 이민족의 아이를 거두다니 어처구니가 없군.”

“이 아이는 이미 이민족에게 버림받은 아이입니다.”

따가운 시선들이 느껴졌으나 리온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아직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산속에 두고 갔다간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굶어죽거나, 얼어 죽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약자를 보고도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기사도에 어긋나는 일이지 않느냐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분명히 그것을 꼬집고 있는 말이었다.

“제가 책임지고 보살피겠습니다. 절대 작전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연한 소릴. 쯧... 절대 작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도록.”

“네. 명심하겠습니다.”

탐탁지 않은 얼굴로 마지못해 허가한 허드슨이 등을 돌렸다. 리온은 그가 사라질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예상한 일이었으나 이민족 아이에게 호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기사는 없었다. 리온은 진영에서 조금 떨어져 따로 아이를 챙겼다.

원래도 첩자신분 때문에 다른 기사단 기사들과 섞이지 못했기에 새삼스럽지는 않았다. 오히려 아이와 단둘이 다니는 상황이 편하기까지 했다.

각 기사단의 정예들만 모인 가운데 출신성분을 알 수 없는 첩자가 그들과 같이 행동하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겉도는 것은 당연했다.

황실의 기사라면 한 벌쯤 소지하고 있을 제복도 리온에게는 없었다. 첩자라는 특수한 직업이기에 정식기사 작위조차 없었으나, 기사단 소속이기에 경의 호칭으로 불리기는 했다.

그것이 마음에 안든 것인지는 몰라도, 자신을 묘하게 배척하는 듯한 시선을 못 알아차릴 리가 없었다. 리온은 대부분 시간을 그들과 동떨어져 움직였으나 문제는 배식을 받아야할 상황이었다.

“한 사람마다 한 개씩이야. 저 애 먹일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 순간 툭, 하고 누군가가 리온의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

“언제 이민족의 기습을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팔자 좋군.”

리온이 입을 다물자 다른 기사 하나가 이죽이듯 말했다. 리온은 인상을 찌푸린 채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몫의 찐 감자를 손에 쥐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배고팠지? 아나샤.”

리온은 감자를 아이의 작은 두 손에 쥐어주고서 얼른 먹으라며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매일 먹는 찐 감자였지만 아이는 음식투정도 하지 않고 밝은 표정으로 먹어치우기 바빴다.

볼이 빵빵해진 채로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이 꼭 작은 초식동물 같다고 여기며 리온은 아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리온으로서는 울지도 않고, 힘들다고 보채지도 않고, 조용히 따라오는 아이가 기특하기만 했다. 오히려 자신을 보며 방긋방긋 웃기까지 했다. 예전에는 지칠 때마다 돌아갈 기사단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아이의 미소를 보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수도로 갈 수 있을 거야. 수도에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응!”

제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진 모르겠지만, 이틀 전에 배운 ‘응’으로 열심히 대답해주는 아이가 예뻐 리온은 푸스스 웃었다.

“너는 참 씩씩하구나?”

“…?”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던 걸까...”

“응!”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씩씩한 대답에 리온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인지 모르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돼. 아나샤.”

“응!”

“아니면 나랑 빨리 대화가 하고 싶은 거야?”

감자 부스러기가 묻은 입술 주변을 천으로 문질러 닦아준 리온은 아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다.

“오늘도 단어공부 할까?”

“응!”

낙엽을 깔아놓은 땅위에 모포를 깔고 그 위에 아이를 눕힌 리온은 자신의 로브와 여분용 모포를 아이의 몸에 덮어주었다. 잠들기 전 리온은 하늘, 달, 별, 땅, 나무 등 보이는 것을 가리키며 단어를 알려주고 있었다.

“저건 뭐였지?”

“별!”

“저건?”

“나무!”

“그럼 저 위에 있는 건?”

“우우움… 하누? 하는?”

열심히 머리를 굴려 답을 내놓는 아나샤의 모습에 리온은 웃음을 터뜨렸다. “정답은 하늘이야.” 하고 말해주자 백점을 못 맞아 아쉬운지 아이는 작게 볼을 부풀렸다.

그래도 잘했다고 말해주려는데, 그 전에 짧은 손가락이 뻗어져왔다. 콕 하고 리온의 뺨에 손가락이 닿기 무섭게 아나샤가 외쳤다.

“리온!”

“푸흡.”

이건 꼭 맞출 수 있다는 듯이 당찬 목소리가 귀여워 차마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소리 내어 웃던 리온은 손을 들어 작은 머리에 손을 얹었다.

“맞아. 아나샤는 똑똑한 걸?”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그제야 만족스러운 얼굴로 아이가 방긋 웃었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자신을 올려다보던 아이는 어느새 졸린 지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졸려? 이제 잘까?”

“…응.”

리온은 아이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다. 배를 토닥이던 그는 뒤늦게 몸을 일으켰다.

머리에 검은 두건을 눌러쓴 그는 가직한 곳에 있는 거대한 나무 위로 올라갔다. 나무의 꼭대기에서 혹시라도 기척을 숨긴 채 접근해오는 적은 없는지 아래를 살폈다.

이 근처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곧바로 조용히 처리할 생각으로 무기를 꺼내들었으나, 다행히 동이 터올 때까지 수상한 인기척은 없었다. 불침번 외에도 다른 기사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것이 보이자 리온은 나무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서 잠시나마 눈을 붙였다. 이대로 수도에 복귀할 때까지 아무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말이다.

식량은 점차 떨어져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넓은 산맥을 따라 움직인 지 벌써 보름이 다되어갔으나 이민족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 기사들 모두 지친 기색을 보였으나 이 작전의 총책임자 허드슨은 계속해서 수도 복귀를 미루었다.

“겨울 산에서 식량을 얻을 수 없을 테니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거다. 적어도 어디로 숨은 지 찾아내야 될 거 아닌가.”

“초기 작전목적은 발견된 이민족들을 이 산에서 몰아내는 것이지 그들의 토벌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책임자의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허드슨이 험악하게 인상을 찌푸렸다.

“총책임자인 내 명령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아닙니다.”

허드슨이 선두에서 말을 몰자 기사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리온은 맨 뒤에서 아이와 함께 말을 탄 채 움직였다. 얼마나 멀리 왔을까, 말을 타고 달리기 힘든 경사진 절벽이 나오자 선두에 있던 허드슨이 말에서 내려섰다.

“여기서 부터는 걸어간다.”

근처 나무에 말을 묶어두고서 기사들은 낭떠러지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끝의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아득한 절벽 아래가 두려운 듯 기사들이 하나같이 진지하게 굳은 얼굴일 때, 리온의 품에 안긴 아이는 눈만 말똥말똥 뜬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섭지 않아? 무서우면 눈 꼭 감고 있어.”

어려서 두려움을 모르는지, 아니면 이런 길을 자주 지나다녀서 익숙한 건지 아이는 덤덤해보였다. 리온은 어찌 됐든 아이가 울지 않아 다행이라 여겼다. 여기서 울었다면 보나마나 아이를 버리라는 말이 나왔을 테니 말이다.

한 시간 가량 절벽 길을 지나자 더 험준한 산길이 이어졌다. 바위와 나무가 우거진 깊은 산골에 들어선 순간이었다.

“다들 숙여요!”

리온의 외침이 끝나기 무섭게 사방에서 화살이 날아들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기사 두 명이 화살에 맞았다. 그 중 한 명이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자 더욱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대열을 벗어나지 마라!”

허드슨의 외침에도 기사들은 적을 찾아 베기에 바빴다. 그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도 리온은 부상을 입은 기사를 챙겼다. 이민족의 아이를 챙길 여유가 있냐며 비꼬았던 기사들 중 한 명이었으나 리온은 그를 어깨동무를 한 채 최대한 먼 곳까지 그를 옮겼다.

기사를 나무 밑에 앉히고서 그는 아나샤를 그의 옆에 숨기듯 내려놓았다.

“아이를 부탁합니다.”

“...”

피가 흘러나오는 배를 꾹 쥔 채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온은 다시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향했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고작해야 열 명의 기사들 중 반이 부상을 입었고, 설상가상으로 허드슨은 이민족의 우두머리로 추정되는 사내에게 붙잡혀 무릎이 꿇린 채였다.

날카로운 날붙이를 목에 가져다댄 채 위협해오는 이민족들의 모습에 나머지 기사들도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 열 명 모두 포위당한 상황을 숨어서 지켜보던 리온은 조용히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잘게 떨리는 손끝을 억누르며 그는 근처에 있던 이민족 사내의 목뒤를 찔렀다. 곧바로 달려드는 다른 이민족들을 단도 하나로 해치웠으나 홀로 수십 명을 해치우기엔 무리가 있었다.

결국 리온마저 붙잡혀 땅에 처박히게 되었다. 머리를 짓밟힌 그가 어떻게든 몸을 일으키려했으나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일어난다 해도 이미 무기를 빼앗겨 싸울 수도 없었다.

‘이렇게 죽게 될 줄은 몰랐는데…,’

허탈한 기분을 느끼며 리온은 눈을 감았다. 삶에 미련은 없었지만, 문득 죽기 전에 떠올릴 만한 부모도, 가족도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 켠이 허전했다.

제 죽음을 슬퍼해줄 사람은 동료들뿐인가. 그렇게 생각할 때, 멀리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리온은 눈을 떴다. 설마, 하고 옆으로 눈동자를 굴리자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이가 보였다. 눈물로 푹 젖은 작은 얼굴은 자신과 눈이 마주치자 더 서럽게 구겨졌다.

“아나샤! 이쪽으로 오면 안, 큭…!”

머리위에서 강하게 내려찧는 발힘에 리온은 다시 한 번 고개를 처박혔다. 차갑게 언 흙바닥을 긁으며 안간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이었다.

“윽!”

이민족 사내가 갑작스레 고통을 호소하며 주춤거렸다. 달려든 아나샤가 그대로 남자의 팔을 힘껏 문 것이다.

리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몸을 일으켜 다리에 걷어차이기 직전의 아나샤를 끌어안았다. 품안에 아이를 감싼 채 구른 그는 바닥에 버려진 검을 쥐었다.

리온은 빠르게 몸을 일으켜 이민족들을 향해 검을 겨눴다. 한 번도 장검을 다뤄본 적이 없어 제대로 휘두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와 이민족 간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를 때였다.

“흐…끄윽,”

그의 품속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껏 꾹 억누르고 있던 설움이 터져버린 건지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더욱 커져가기 시작했다.

조용한 산속을 쩌렁쩌렁 울리는 울음소리에 리온은 검도 내려두고 아나샤를 달래야만 했다. 아이를 안아들고 이제 괜찮다며 등을 토닥였지만 그동안 겪어온 공포스러운 상황 속에서 안도하기란 쉽지 않은지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그때였다. 이민족의 우두머리가 돌연 무기를 내린 것은. 그가 무어라 말하자 이에 다른 이민족 사내들도 하나둘 무기를 거두었다. 인질로 삼고 있던 허드슨을 팽개치듯 내버려둔 채 빠르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시작했다.

얼떨결에 목숨을 건진 기사들은 하나같이 믿기지 않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혹여 라도 다시 공격해올 것을 대비해 서둘러 무기를 주워 부상자들을 챙겼다.

리온은 자신의 품에서 겨우 울음을 그친 아이를 살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보였다. 리온은 이민족들이 무기를 거둔 이유가 아나샤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에서인지, 단순히 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음이 약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어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작은 아이가 자신들을 구했다는 것이었다.

황실 제5기사단, 기사견습생 크리스는 지친 몸을 이끌고 식당으로 향했다. 엄격하기로 유명한 단장 아버트가 직접 훈련을 지도해 오늘은 더더욱 죽을 맛이었다.

뻐근한 팔을 간신히 움직여 식사를 하던 크리스는 문득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내었다.

“리온 그 녀석은 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다른 기사단 녀석한테 들어보니까 다들 어제 밤에 도착했다던데? 방에서 쉬고 있는 거 아냐?”

약 한달 전 북방의 산맥으로 떠났던 리온이 돌아왔다. 그 반가운 소식에 크리스는 속으로 안도하면서도 괜스레 투덜거렸다.

“참나, 왔으면 왔다고 말을 해야지. 꼭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니까.”

“쉬게 놔둬. 고생 많이 한 것 같던데. 이민족에게 포위당하고 간신히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

“뭐?!”

크리스는 쾅 하고 식탁을 내리치며 몸을 일으켰다. 다른 기사들이 말릴 새도 없이 빠르게 식당을 벗어난 그는 기사단 숙소로 향했다.

익숙한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 문이 열렸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살이 더 빠져 보이는 옅은 금발의 남자가 얼굴을 드러냈다.

“크리스. …무슨 일이야?”

리온은 곧바로 문밖으로 나와 문을 닫았다.

“무슨 일? 섭섭하게 시리, 왔으면 말을 해야 될 거 아냐.”

“아 미안. 피곤해서…오자마자 바로 누워서 자느라.”

“그보다 어디 다친 곳은? 이민족들한테 포위당했다면서? 사실이야?”

“다친 곳은 없어. 말하려면 길어서, 나중에 얘기해줄게.”

리온은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뒤로 미루었다.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크리스가 한숨을 삼키며 말했다.

“다들 네놈 언제 오나 걱정했어. 지금이라도 식당에 가서 얼굴 비추지 그래?”

“그럴까?”

조금은 당황스러운 미소를 지어보이던 리온이 먼저 걸음을 뗐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크리스가 뒤따라오지 않자 다시 걸음을 멈췄다.

왜 같이 안 오냐고 의문을 띠는 눈길에 크리스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이며 방 문고리를 잡았다.

“너 식당 내려갔다오는 동안 방에 앉아있게.”

“…굳이? 그냥 같이 내려가서 식사하지 왜.”

“아니 난 이미 먹어서.”

“같이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느새 다가온 리온이 크리스의 앞을 가로막듯이 섰다. 방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행동에 크리스는 역시나 하고 눈썹을 꿈틀거렸고 말이다.

“너 뭐 숨기는 거 있지?”

“...”

“날 속일 생각마라. 내가 이래봬도 한때 독심술사라 불렸던 사람이야.”

방에 들어가려는 자와 막는 자의 끈질긴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2분간의 사투 끝에 승리는 결국 크리스가 가져갔다.

“대체 이 방에 뭘 숨기고 있길래, 우억!”

문을 열어젖힌 크리스는 침대 위에 곤히 잠들어있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크게 눈을 떴다.

“뭐, 뭐야! 저 애는, 읍.”

“쉿.”

어느새 뒤에서 크리스의 입을 틀어막은 리온이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해보였다. 두 사람은 방 한편에 놓인 의자에 앉았다.

“그러니까… 산속에 버려진 이민족 애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말이야? 그것도 아무도 몰래?”

긴 이야기를 들은 크리스는 어이가 없다는 눈으로 리온을 바라보았다.

“너 미쳤어? 아버트 단장님이 알면 어쩌려고, 기사단에 애를…,”

“부탁할게. 제발 한번만 모른 척 해주라.”

리온은 두 손을 쥐었다 펴며 크리스와 시선을 마주했다.

“나를 살려준 아이야.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나뿐만 아니라 다들 그 자리에서 죽었을 지도 몰라.”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크리스로서는 리온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었어도 일단은 아이를 이곳으로 데려왔을 테니까.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키우고 싶어.”

“뭐? 미쳤냐?”

단순히 임시로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자신이 키우겠다고 싸고도는 친구의 모습에 크리스는 이마를 짚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어린애였다.

21살 남자가 혼자서 애를 키우겠다니, 이 무슨 생뚱맞은 소리란 말인가.

“나도 처음엔 수도까지만 보호할 생각이었어. 수도 고아원에 맡기거나 좋은 부모를 찾아줘야겠다고 말이야.”

“…그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도저히 다른 곳에 보낼 수가 없었어. 나만 보고 여기까지 따라온 아이인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 손에 맡기려니까 힘들더라.”

“...하.”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아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무슨 소리야. 고작해야 얼마나 봤다고, 길어봐야 한달 본 애를…,”

“나만 보면 안심하고 웃는 아이인데 어떻게 나한테서 떨어뜨려. 현실적으로 좋은 집에 입양을 보낸다 해도 거기서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게 자랄지 확신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민족 출신인 걸 알면 더 배척받을 텐데...”

아이를 볼 때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떠올라 더더욱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가 없었다.

열악한 시설의 마을 고아원에서 배를 곯으며 지냈던 기억. 부유한 가정에 입양이 되었지만 끝내 학대를 받고 거리로 도망쳐 나왔던 기억. 그 뒤의 삶이 어땠는지는 돌이켜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좋지 않은 기억뿐이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보호자 하나 없던 이 세상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리온은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는 것이 망설여졌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네 나이에 양녀를 들인다는 게 쉬운 결정도 아니고,”

“…리온?”

그때였다. 침대 위에서 부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조그마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안 떠지는 눈을 비비면서도 리온을 찾으려고 몸을 일으키자 리온은 곧장 아이에게로 달려갔다.

“더 자지. 왜 벌써 일어났어? 응?”

아이를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거의 애 아빠에 가깝다고 크리스는 여겼다. 한동안 그 광경을 동떨어져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

어느새 아예 잠에서 깬 것인지 아나샤는 말똥말똥 뜬 눈으로 크리스를 응시했다. 그러곤 리온에게 저게 뭐냐고 묻듯이 짧은 손가락으로 크리스를 가리켰다.

“아 저건 크리스. 크리스 라고 하는 내 친구야.”

“저거라니...”

크리스가 미약하게 인상을 찌푸렸으나 그것을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키리스?”

“크리스.”

“크리스!”

“쉬잇.”

“…쉿!”

코앞에 검지를 갖다 댄 리온을 똑같이 따라하며 아이가 방싯 웃었다. 그 모습을 투명인간처럼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미리 말해두지만 난 안도와줄 거야.”

서로를 마주보고 있던 둘은 그제야 크리스를 향해 시선을 주었다. 뚫어져라 쏘아져오는 아이의 똘망똘망한 눈빛을 외면하듯이 크리스는 고개를 돌리며 재차 말했다.

“애를 몰래 키우든 말든 신경 안 쓰겠지만, 진짜 안 도와줄 거야. 애 돌봐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면 접어둬라. 나는 아무것도 못 봤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자신까지 휘말리게 하지 말라는 경고는 단호했다. 하지만 옆얼굴을 뚫을 듯이 빤히 이어지는 눈빛도 만만치 않았다.

한동안 아이의 눈길을 애써 모른 척하던 크리스는 결국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번만이야. 진짜로!”

“고마워, 크리스.”

“우아!”

무슨 상황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함께 기뻐하는 아이의 모습에 크리스는 남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머리색도, 눈동자색도 전혀 다르게 생겼으면서 어째 웃는 얼굴은 둘이 판박이처럼 똑같다 여기며 말이다.

리온과 크리스, 두 사람만의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다. 기사단장과 부기사단장을 제외한 기사단 전원에게 아이의 존재를 들키고 만 것이다.

나름 조용조용히 지낸다 해도 한계가 있었다. 리온의 옆방 기사들을 시작으로 비밀을 알아챈 공범들이 하나둘 늘어나더니 결국 모르는 이가 없어지게 되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기사들 전원 모두 비밀을 지켜주기로 결정했다는 거였다. 아이의 딱한 사정과 그런 아이를 거둔 리온의 결정을 이해해준 것이다.

리온의 일상은 아나샤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낮에 눈을 뜨면 아이의 식사부터 챙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갈아입혔다. 저녁에는 옆에서 책읽어주며 아이를 재우고 밤샘 임무를 나갔다.

최대한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게 일어나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함께 있으려 노력했지만, 가끔 임무가 며칠 동안 이어지는 날에는 어쩔 수 없이 크리스에게 아이를 부탁해야 했다.

물론 크리스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줄 수가 없었기에 나머지 시간은 아나샤 혼자 방안에 남아있어야 했다.

“미안해. 아샤. 오늘도 혼자 있게 했지?”

“...”

최대한 서둘러 돌아온 것이었지만 이미 늦은 밤이었다. 리온은 침대 위에서 볼을 부풀린 채 앉아있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오늘은 임무 안 나가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졸리면 자고 있어.”

단단히도 삐친 모양인지 아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리온은 난감한 얼굴로 욕실로 들어갔다. 방이 어두워서 다행이었다. 아무리 검은 옷이래도 먼지와 피로 얼룩져있는 것을 아이에게 보이는 것은 좀 그러니 말이다. 첩자복을 벗어 빠르게 빤 그는 혹시라도 피비린내가 배었을까 몸을 여러번 씻었다.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아직까지도 침대 위에 앉아 있는 아이가 보였다. 이제는 부루퉁하게 입까지 튀어나와 있었다.

“아샤, 안 잘 거야?”

“...”

“그럼 어쩔 수 없네. 오랜만에 무릎베개 해주려고 했는데,”

언제 돌처럼 꿈쩍 않고 있었냐는 듯이 아이가 홱 뒤를 돌아보았다.

“무릎베개 해줘!”

자신의 무릎 위에 그대로 냅다 엎어지다시피 눕는 아이를 내려다보며 리온은 미소 지었다. 토닥토닥 아이의 몸을 도닥여주는 동안 어느새 졸음이 몰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평온한 밤이었다.

아나샤가 기사단에 온 지도 약 세 달이 지났다. 리온의 방은 기사들의 필수 방문코스로 자리 잡았다.

“이거 봐라~ 삼촌이 뭐 사왔게?”

“와아아!”

오늘도 리온의 방에는 훈련을 마친 기사들이 몰려와있었다. 선물로 받은 토끼인형을 안고 신나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아이의 모습에 기사들은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아샤는 누구 삼촌이 제일 좋다고?”

“마브릭 삼촌!”

“야 치사하게, 선물은 또 언제 준비했대. 아샤야 여기도 삼촌있다~”

“하나같이 덩치만 커서는! 좀 비켜봐, 애 간식 좀 먹이게.”

“그만 먹여 이 자식아. 너무 많이 먹이면 이따가 저녁을 못 먹잖아!”

기사들이 아나샤와 놀아주는 동안 리온은 밀린 집안일을 처리해나갔다. 차곡차곡 아이 옷을 개는 리온의 옆에 앉아 정신없는 광경을 바라보던 크리스가 한숨을 내쉬었다. 조만간 그의 입이 열렸다.

“돈은 좀 모였어?”

“어느 정도는. 앞으로 한 반년 정도만 더 모으면 수도 외곽에 작은 집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리온은 아나샤와 단둘이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중이었다. 일단 아이를 키우려면 제대로 된 집이 필요했다. 이왕이면 아나샤가 맘껏 뛰어다닐 수 있는 마당이 딸린 집이면 더 좋겠다고 리온이 생각할 때였다.

“야 도움 필요하면 말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안 그래도 이미 많이 도움 받고 있는걸.”

리온은 작게 미소 지으며 이어 말했다.

“그리고 친구한테까지 빚져서야…,”

그때였다. 문 밖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무겁게 울리는 발소리와 따라붙는 여러 개의 발소리가 다급했다.

기척을 알아차린 방안의 기사들은 언제 시끄러웠냐는 듯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이윽고 문 앞에서 여러 개의 발소리가 뚝 끊겼다.

“단장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사들이 아이흉내를 낸답시고…,”

기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쾅 하고 문이 열어젖혀졌다.

문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선 회색머리의 중년사내의 모습에 방안에 있던 모든 기사들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무거운 존재감을 풍기는 그는 다름 아닌 제5 황실기사단장 아버트 벨더스였다.

“리온 라이나.”

리온은 곧바로 아버트의 앞으로 다가가 한쪽 무릎을 꿇었다.

“단체로 기사단의 규율을 어긴 것도 모자라, 감히 단장인 나를 속여?”

“단장님…따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기사들은 제가 끌어들인,”

“시끄럽다.”

아버트의 엄한 눈초리가 리온의 머리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눈을 들어 천천히 방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좁은 침대 구석에 멀뚱멀뚱 앉아있는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침대에서 내려오더니 근엄한 얼굴로 서있는 아버트에게로 다가갔다.

“누구세요?”

제법 제국어에 익숙해진 아나샤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방안을 울리는 또랑또랑한 목소리에 기사들이 모두 숨을 삼키며 허옇게 질리는 동안, 아버트의 엄격한 눈은 아이를 뚫어지게 내려다보기만 했다.

곧 아버트는 거대한 몸을 숙여 아이에게 손을 뻗었다. 착 하고 작은 머리에 손을 얹더니 그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다.”

“할아버디?”

“그래그래.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때 기사들의 눈앞에 보고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스윽 아버트의 입술이 올라가더니 그가 한없이 인자한 할아버지처럼 웃는 얼굴을 한 것이다.

아버트는 다른 이들의 시선 따윈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아이를 품에 안아들었다.

“할아버지가 기사단 구경시켜주마.”

“응!”

“리온 라이나, 네놈은 조금 있다가 나와 따로 얘기하지.”

“할아버지!”

“그래, 오냐오냐. 어서 가자꾸나.”

“그 좁은 곳에 애를 가둬놔!!”

그리고 몇 시간 뒤, 단장실 안에선 크나큰 호통이 울려 퍼졌다. 응접용 소파에 앉아있는 리온은 눈앞에 있는 아버트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한창 뛰어놀아도 모자랄 나이에, 그 좁은 곳에서 얼마나 답답했을지 생각해봤냔 말이다!”

“...”

“좋은 보호자가 되어주고 싶으면 그럴 자격부터 갖춰야지. 무턱대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끝이냔 말이다.”

“…면목 없습니다.”

리온은 꾹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트는 크흠 소리를 내며 턱수염을 문질렀다.

“아샤에 대한 얘기는 전해 들었다.”

“…네.”

“돈을 모으고 있다고?”

“집을 사서 아샤와 따로 나가서 살 생각이었습니다. 아샤를 방에 숨긴 채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아이한테 미안해해야지.”

그 말에 리온은 결국 손을 들어 눈가를 문질렀다.

“아샤에게도 당연히 미안합니다. 제가…능력이 없어서 결국 이렇게 돼버렸으니까요.”

“그래. 고작해야 3년 치 기사 봉급으로 집을 사는 건 아무래도 무리겠지.”

“…사실은 돈을 빌릴 생각이었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 곳도 몇 군데 알아봤고요. 일단 집이 있어야 아샤를 키울 수 있으니까,”

“집을 구하면? 네놈이 임무에 나가있는 동안은? 그 어린애를 혼자 두고 나갈 생각이었겠지. 보호자가 없는 집에서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런 일은 고려해보지도 않았겠지.”

“...”

리온은 진심으로 할 말이 없어졌다. 집만 구하면 어떻게든 될 거라 여겼던 제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던 것인지, 거기까지 생각 못한 자신이 진심으로 한심하게 느껴졌다.

만일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아나샤가 크게 아프거나 강도가 침입한다거나 하는 상상을 하니 머릿속이 아득해지기만 했다.

“기숙사 방 중에 제일 괜찮은 방으로 비워두라고 했다.”

그때, 맞은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리온은 고개를 들었다. 여전히 엄한 눈초리를 한 단장 아버트가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이어갔다.

“아이 방도 생겼으니 굳이 집을 구해서 나갈 필요도 없겠지. 네가 임무에 나가있는 동안은 나나 다른 기사들이 돌봐줄 테고, 아이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사주면 되는 일일 테고. 흠 그럼 되겠지.”

그 말을 멍하니 듣고 있던 리온은 고개를 푹 숙였다. 목이 메여 한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그는 힘겹게 말을 꺼냈다.

“감사...합니다.”

“널 위해서가 아니다. 다 아샤를 위해서지.”

3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새 아나샤는 9살이 되었다.

이제는 제국어를 완벽히 구사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아나샤는 다른 공부도 하게 되었다. 또래 귀족아이들이 배우는 역사, 지리, 산술 등의 다양한 공부였다. 단장실에서 아버트가 틈틈이 공부를 가르쳐준 덕분에 아나샤는 날이 갈수록 똑똑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만큼 리온의 증세도 심각해져갔다.

“있지, 크리스. 아샤가 나중에 커서 훌륭한 학자가 되려나봐... 단장님께서도 아샤가 다른 또래에 비해 똑똑한 것 같다고 칭찬하시고. 어제는 간단한 시험을 봤는데 세 개 밖에 안틀려온 거 있지?”

“그래. 열 개 중에 세 개 틀렸지.”

크리스는 포기한 얼굴로 담담히 중얼거렸다. 중증도 이런 중증이 없었다.

아샤가 뭐만 해도 ‘우리 아샤 천재인가 봐.’를 시작으로 칭찬을 늘어놓기 바쁜 이 딸바보가 진심으로 성가셨다. 뭐 한두 번이여야지.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아샤 아카데미 입학시킬 거야. 중등부부터는 평민도 받는다고 하니까.”

“너…정말 아카데미에 보내게? 13살 때 입학한다 치면 못해도 6년은 떨어져 지내야 될 텐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방학이라는 것도 있다니까, 일 년에 두 번은 볼 수 있을 테니 아예 못 보는 것도 아니고.”

리온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크리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있잖아. 이런 소리해서 미안하지만…, 아샤 생각은 어떤지 물어봤어? 내가 보기엔 아샤는 공부에 관심이 없어 보여. 오히려 연무장에서 기사들 따라서 훈련받을 때 제일 열심히 던데.”

흙투성이가 되도록 연무장을 뛰어다니는 것도 모자라 기사들과 힘겨루기를 한답시고 달려들기까지 했다. 요즘엔 단검 던지기를 기사들한테 배워서 과녁이 된 나무가 단검투성이가 되어있을 지경이었다.

어린애라 체력이 남아돌아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크리스가 봤을 땐 아나샤는 얌전히 앉아 공부하는 타입은 전혀 아니었다.

“어쩌지, 공부도 잘하는데 운동신경마저 좋으면...나중에 학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지도. 원래 천재는 어릴 때부터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낸다잖아. 역시 우리 아샤는 천재인 게 아닐까...”

정말 그런 것 같다며 심각하게 중얼거리는 말에 크리스는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다.

기사단에서 매년 빠지지 않는 중요한 행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아나샤의 생일이었다. 아나샤의 태어난 날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아나샤가 기사단에 처음 온 날을 생일로 정한 것이었다.

아나샤는 생일이 좋았다. 신나게 연무장에서 뛰어놀고, 방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선물을 받고,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날이었으니까.

그리고 늘 저녁부터 나가 다음날이 되어야오는 리온이 밤새 곁에 있어주는 날이기도 했다.

“아샤, 이제 눈떠도 돼.”

리온의 등에 업혀있던 아나샤는 눈을 떴다. 시원한 바람이 앞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빛들이 쏟아지듯 눈 안으로 들어왔다.

아나샤는 탄성을 내질렀다. 수도 저 멀리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는 높은 곳에 자신이 있는 것도 신기한데, 온 세상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밤하늘의 별들이 아래로 내려온 것만 같았다.

리온은 아나샤를 근처의 널찍한 바위 위에 내려주었다. 좀처럼 야경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나샤의 모습에 그는 미소 지으며 앞을 바라보았다.

“이런 멋진 곳은 어떻게 알아낸 거야?”

“다 방법이 있지.”

“역시 리온은 대단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아나샤는 외쳤다. 오늘 받은 선물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든다며 흥분해 조잘대는 아이의 말에 리온은 푸스스 웃었다.

뒤늦게 웃음을 그친 리온은 아나샤를 돌아보았다. 부드럽게 휘어진 눈동자 속에는 애정이 가득 담겨있었다.

“앞으로 네가 자라면서 많은 걸 보게 되겠지만, 항상 이 풍경처럼 아름다운 것만 보길 바라. 아샤.”

“...”

“아홉 살 생일 축하해.”

그 말이 끝나기도 아나샤는 리온의 품에 와락 안겼다. 머리에 손을 얹은 그는 다정하게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아샤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뭐든 이루어지게 같이 소원 빌까?”

“나 이미 정했어.”

“정말? 섭섭한 걸.”

대체 무슨 꿈이기에 자기한테도 말 안 해주고 꽁꽁 숨겨두었냐며 리온이 살짝 몸을 간질였다. 간지럼에 약한 아나샤가 꺄르륵 대며 뒤로 넘어가자 그제야 그는 간지럼을 멈추었다.

“그래서 정말 나한테 얘기 안 해줄 거야?”

“아니, 나 있지.”

뜸을 들이던 아나샤가 별안간 작은 주먹을 움켜쥔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 리온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뭐…?”

학자든, 기사든, 멋진 꿈이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던 리온은 당황스러웠다. 나처럼 이라니? 그런 의문어린 눈길에 아나샤는 다시 한 번 당당하게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크면 첩자할 거야.”

“…첩자라니.”

예상과는 다른 리온의 반응에 아나샤는 놀라 입을 다물었다. 한 번도 자신의 앞에서 인상을 쓴 적이 없던 리온이 미약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곧 그것을 알아차린 리온은 애써 얼굴을 폈지만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다.

“나는 찬성 못해. 네가 이 직업이 어떤 일인지 몰라서 그래. 절대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훌륭한 직업이 아니야. 오히려…,”

인정은커녕 괄시를 받으면 모를까. 같은 기사단 동료들은 자신의 노고를 이해해준다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

더러운 하수로든, 천장이든 임무를 위해서라면 기어들어가야 했다.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숨은 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고된 일을 홀로 해내야하는 직업이었다.

그래서 아나샤 만큼은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했다. 그랬는데, 리온은 눈앞의 울상인 아이를 바라보았다.

“싫어! 왜 나는 리온처럼 첩자하면 안 돼?”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인 채 아나샤가 고집스럽게 눈썹을 모았다.

“나도 첩자할거야! 리온이 못하게 하면 할아버지한테 따로 부탁할거야!”

“하아. 아샤, 분명 할아버지도 반대하실 거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지? 그러려면…,”

“어른이 돼서도 리온이랑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그렁그렁 맺혀있던 눈물이 떨어졌다. 작은 손등으로 벅벅 눈가를 문지르며 아나샤는 꿋꿋이 말을 이었다.

“나 나무도 잘 타! 단검도 잘 던지고, 달리기도 빠르다고…흡, 삼촌들도 칭찬해줬단 말이야.”

“...”

“아직은 리온처럼 엄청 멋지게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래도 노력했단 말야. 나도 리온처럼 되려고...”

그 말에 리온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자신처럼 되고 싶다니, 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인정과 칭찬을 한꺼번에 몰아 받은 것처럼 머릿속이 멍했다. 그에 반해 가슴속은 저릿하기만 했다.

아이에게 나는 훌륭해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목 위로 뜨거운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다. 그는 아나샤를 품속에 끌어당겨 안았다.

아나샤의 훌쩍이는 소리는 얼마안가 멎었지만, 반대로 아나샤의 어깨는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리온 울어?”

“…아니.”

“내가 말 안 들어서 그래? 그러면, 나 리온 말 들을게. 첩자 안할게...”

“아냐, 아냐. 그냥…아샤가 날 멋있다고 생각해주니까 고마워서 그래. 그냥 고마워서...”

“그럼 나 첩자해도 돼?”

“응. 아샤는 분명 나보다 멋진 첩자가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있었다. 이에 아나샤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활짝 웃었다.

“좋아! 내가 크면 리온 옆에서 도와줄게.”

“응.”

“같이 임무도 하고, 계속 같이 있는 거지?”

“응.”

리온은 올라오려는 울음기를 애써 꾹 누르며 대답했다.

“아샤!!”

본관 4층 외벽에 올라가있는 아나샤를 발견한 누군가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사단에서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벽에 튀어나와있는 구조물은 어린아이 발 하나 겨우 디딜 수 있을 만큼 좁다래보였다.

그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모습에 기사들은 새파랗게 질린 얼굴들이었다.

“대체 저기를 어떻게 올라간 거야!”

“으아악! 위험하잖아!!”

“내가 올라갈 테니까 좀 잡아봐!”

“아니 네가 저길 어떻게 올라가! 누가 리온녀석 좀 데려와!”

아래가 소란스러운 와중에 아나샤는 벽에 달라붙은 채 한발 한발 옆으로 움직였다. 이에 기사들 사이에서 다시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터져 나왔다.

만에 하나 아이가 떨어질 상황을 대비해 서로 받아주기 위해 기사들이 우왕좌왕거릴 때였다.

“역시 우리 아샤!”

기사의 말을 듣고 달려온 리온이 순수하게 감탄을 터뜨렸다.

“언제 저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야? 난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금 감탄할 때냐?!”

크리스가 경악해서 외친 순간이었다. 아나샤가 아래에 도착한 리온을 발견하고는 손을 흔들었다. 이에 다시 “허억!”하는 숨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세찬 바람에 작은 몸이 기우뚱하더니 아나샤가 벽을 붙잡기도 전에 몸이 뒤로 기울어졌다.

추락하는 아찔한 느낌에 아나샤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몇 초 뒤, 눈을 뜨자 햇살을 받아 반짝거리는 연한 금빛머리카락이 보였다.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낙법부터 배우는 게 좋을 거야.”

리온의 품에 안정적으로 안겨있던 아나샤는 입을 큼지막하게 벌렸다. 역시 리온이었다!

“혼자서 저기까지 올라간 거야?”

“응!”

“우리 아샤 대단할 걸! 벌써 나랑 같이 임무하러 다녀도 되겠는 걸?”

아나샤를 두 팔로 번쩍 들고서 리온이 천재라고 기뻐하는 동안 기사들은 하나같이 십 년은 늙은 얼굴이었다.

첩자가 되겠다는 아나샤의 결심은 13살이 되어서도 변하지 않았다.

이젠 혼자서도 가뿐히 벽과 나무를 오르고, 천장과 지붕 위를 쏘다니니 리온도 아나샤를 말릴 수 없었다. 낙법 같은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던 리온은 본격적으로 임무에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체술과 은신술, 그 외에도 열쇠 없이 자물쇠를 따는 법이나 표적을 감시하는 법, 건물 안에 잠입하는 법 등 첩자로서 필요한 기술들을 아나샤에게 전수해주었다.

리온도, 기사단의 다른 이들도 눈치 채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아나샤는 첩자가 되기엔 정말 천부적일 정도의 재능을 갖추고 있었다.

반사 신경과 균형 감각은 웬만한 기사들보다 뛰어났으며, 몸도 날랬다. 거기다 몸집이 작으니 어디에 숨거나 잠입하기에는 최고였다. 거기다 악착같은 면이 있어 배우는 속도 또한 빨랐다.

아나샤가 17살이 됐을 때는 리온의 임무에 따라 나섰다.

아직 임무를 시키기에는 어리고, 그렇다고 임무를 안 시키기에는 아나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결국 1년 동안은 리온을 따라다니며 옆에서 보고 배우는 것으로 단장 아버트와 합의를 본 것이었다.

그렇게 어엿한 18살이 됐을 때 아나샤는 혼자 첫 임무를 맡게 되었다. 그리고 당당히 완수해내었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라는 듯이 콧방귀를 껴대며 말이다.

리온과 함께 임무를 맡는 날도 머지않았다며 아나샤는 하루하루 들떠있었다. 매일 단장실에 찾아가 리온이랑 같이 임무에 보내달라고 조르기 일쑤였다.

하지만 첩자가 하는 일은 혼자서 수행하기 적합한 일들뿐이었다. 둘이서 할 만한 임무는 없었다. 그러던 중 달러스 잠입 작전에 리온이 투입되었다.

아나샤는 따라가려 했지만, 리온은 이제 막 첫 임무에 성공한 아나샤에게는 조금 위험할지 모른다며 만류했다. 대신 달러스에서 돌아오면 함께 임무에 나가자고 얘기했다.

평생 바라왔던 일이었기에 아나샤는 그날만은 고집을 꺾었다.

리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뛰어난 첩자가 되겠단 꿈이 바로 코앞에 와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며칠 밤을 부푼 마음을 달래며 아나샤는 리온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아나샤가 꿈꿔왔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은 영영 오지 않았다.

달조차 뜨지 않은 짙은 밤이었다.

낡은 고성을 둘러싼 성벽 위였다. 캄캄한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아나샤가 벽을 오르고 있었다. 검은 옷으로 전신을 위장해 멀리서보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아나샤는 고개를 들었다. 성벽 위쪽에는 횃불이 밝히고 있었다. 별다른 장애물이 없는 성벽은 쉽게 타넘을 수 있는 구조였지만 내려갈 때 눈에 띌 가능성이 있었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성벽의 둘레를 따라 움직이던 아나샤는 아치형 구멍을 발견했다. 바람이 윙윙 부는 통로 안에선 걸걸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 많은 노예 중에서 한명 빼돌린다고 알아차리겠어?”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애초에 네 놈 거길 보고 고분고분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

낄낄거리는 목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아나샤는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구멍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통로 안의 기척이라고 해봐야 앞쪽에서 걷고 있는 사내들이 전부인 것 같았다. 아나샤는 그들을 조용히 미행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끄윽, 급하다, 급해.”

그들은 나타난 나선형 돌계단 위로 허겁지겁 올라가기 시작했다. 급하다며 바지 버클을 푸는 모습이 감시탑 위에서 뭘 하려는지 안 봐도 훤했다.

범죄자들의 소굴로 함락되어버린 성이었다. 진지하게 보초를 서는 병사가 있는 것도 이상했다. 아나샤는 그들과 반대로 돌계단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래에는 횃불이 드문드문 걸린 넓은 통로가 있었다. 아나샤는 통로를 따라가다가 맞은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오자 황급히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또 한소리 듣겠군.”

“알면 빨리 움직여.”

“짜증나네. 왜 우리만 술 심부름꾼 노릇이나 해야 되냐고.”

“그럼 대신 밤시중이라도 들던가. 듣기론 바칸님께선 남자여자 안 가린다던데 혹시 알아?”

“미친 새끼... 그걸 말이라고.”

이어진 거친 욕설을 무시하고 아나샤는 바칸, 그 이름에만 집중했다. 익숙한 이름에 머릿속에 새겼던 정보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노예상단을 운영하는 바칸, 반제국파의 수장인 더글라스. 현재 이 성을 차지한 범죄조직의 간부들 이름이었다.

아나샤의 임무는 아침 해가 뜨기 전까지 간부 두 명을 암살하고, 성안에 붙잡혀있는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한 후 구출신호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몸을 숨기고 있던 아나샤는 뒤늦게 묵직한 술통을 나르는 사내들을 뒤쫓기 시작했다.

성 안에 들어서는 것은 수월했다. 관리가 잘 되지 않아 큼큼한 냄새가 나는 고성의 복도 안은 술을 마시며 노는 듯한 왁자지껄한 소음이 메아리처럼 울리고 있었다.

사내들은 어둠이 깔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벽 뒤에 숨은 아나샤는 사내들이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어느 방향을 가는지 기다렸다가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다.

‘왼쪽으로 돈 것 같은데...’

3층으로 올라선 아나샤는 사라진 사내들의 인기척을 뒤쫓았다. 그들은 복도의 왼쪽으로 돌아 어느 방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두 명의 문지기와 짧게 대화를 나눈 후 문 옆에 술통을 내려놓았다.

사내들은 왔던 길을 다시 돌아나갔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숨어서 듣고 있던 아나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를 수 있을 기둥과 그 윗부분에 일어난 천장 타일의 작은 틈새가 보였다.

어떻게 움직일지 머릿속으로 구상할 필요도 없었다. 곧바로 민첩하게 기둥을 타고 올라간 아나샤는 타일 틈사이에 단검을 박아 넣었다. 우드드득,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래된 타일은 쉽게 벌어졌다.

아나샤는 어두운 천장 위로 기어 올라가 타일을 대충 제자리에 돌려놓고 움직였다.

“천장 위에서 무슨 소리 나지 않아?”

“보나마나 큰 쥐겠지. 소리 한두 번 들어보냐?”

밑에서 떠드는 두 명의 문지기를 작은 구멍 틈새로 내려다보다가 아나샤는 소리가 들려오는 방 쪽으로 몸을 움직였다.

“제발…제발, 그만둬주세요.”

천장 아래에선 작게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방 안의 상황을 침착하게 파악할 새도 없었다. 아나샤는 단검 손잡이를 입에 물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휘장이 길게 쳐진 침대 위에서 여자를 희롱하고 있던 바칸이 갑작스러운 소리에 뒤를 돌아본 순간이었다. 휙, 하고 빠르게 그어진 단검이 그의 두꺼운 목을 그어내었다.

“그, 으윽!”

벌거벗은 채로 발버둥치는 바컨을 짓누르고 아나샤는 온힘을 다해 그의 목에 더 깊게 단검을 찔러 넣었다. 침대시트가 붉은 피로 흠뻑 적셔지고 얼마안가 바컨의 몸뚱이가 완전히 멈췄다.

아나샤는 단검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소리도 지르지 못한 채 침대 헤드보드에 바짝 붙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금발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소리를 지르려는 낌새를 보이자 아나샤는 빠르게 여자의 입을 틀어막았다. 붉은 피가 여자의 입 주변과 턱에 묻자 그제야 아차 싶어 손을 떼어냈다.

“쉿. …구해주러 왔어요. 정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아나샤는 빠르게 검은 복면을 벗어 얼굴을 드러냈다. 살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한 얼굴이 드러나자 금발 여인은 오히려 당황한 듯 중얼거렸다.

“…여자애?”

“…어, 잠시 만요.”

아나샤는 품에서 작은 병과 기다란 침 두 개를 꺼내었다. 조심스럽게 병의 마개를 연 후 기다란 은색 침들의 끝부분을 그 안에 담갔다.

“바칸님? 안에서 무슨 일…,”

아나샤는 두 개의 침들을 손에 쥐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 기다렸단 듯이 침을 던졌다. 두 개의 침은 한 명의 이마에, 또 다른 한 명의 목에 정확히 박혔다.

소량만으로도 거대한 짐승의 사지를 단번에 마비시킬 수 있는 독약이었다. 소지만 해도 극형에 처하는 금지된 독극물이었지만 황실에서 임무수행을 위해 직접 제공해준 것이었다.

“윽,”

문지기 둘은 얼마안가 바닥에 쓰러져 마비증세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이 큰 소리를 내기도 전에 아나샤는 재빨리 그들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병을 다시 갈무리해 품속에 넣고 여인을 돌아보았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빨리 구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보다 괜찮으세요?”

“...흐으윽. 구해주셔서 고마워요, 정말로...”

여인은 여전히 몸을 떨었지만 아나샤를 두려워하진 않았다. 잠시 눈물을 흘리던 여인은 거의 벗겨져있던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아나샤는 손에 묻은 피를 이불에 닦은 후 주위에 떨어져있던 가디건을 주워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고마워요...”

“아니에요. 전 아나샤에요. 아샤라고 불러주세요.”

“전, 루시에요.”

루시는 가디건에 팔을 끼우고서 시체를 피해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아나샤의 팔을 힘주어 잡았다.

“지, 지하에 여동생이 있어요. 여기 잡혀온 다른 사람들도요. 전부 지하에 갇혀있어요.”

도와달라는 그 말에 아나샤는 안심하라는 듯이 루시의 손을 마주잡아주었다.

“전부 무사히 나갈 수 있게 도울게요.”

“...”

“해가 뜨면 제국의 기사들이 이 성을 기습할 거예요. 저희는 그 틈을 노려 밖으로 도망칠 거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확신에 찬 그 말에 루시는 안도의 눈물이 차오를 것 같았다. 루시가 다시 고맙다고 말을 하려할 때 아나샤가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전에 간부 하나를 더 없애야 해요. 루시, 혹시 다른 간부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알면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다른 간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줄곧 지하에 갇혀 있다가 끌려나온 거라...”

간부 얼굴은커녕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며 고개를 젓던 루시는 뒤늦게 떠오른 생각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아…, 모르지만 제가 안내해드릴 순 있을 것 같아요.”

루시는 4층으로 올라갔다. 성 복도에서 시답지 않은 얘기를 나누며 킬킬대던 더글라스의 수하들이 루시를 발견했다.

“뭐야?”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루시의 앞으로 다가왔다. 노예로 끌려온 여자들은 지하감옥에 죄다 가둬놓았으니 홀로 이곳에 있는 루시가 수상쩍기만 한 것이다.

“바칸님께서…더글라스님을 모시라고 하셔서요.”

루시는 떨리는 손을 꾹 억누르며 말했다. 숙여진 고개와 간헐적으로 떨리는 어깨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는 여인 같았다. 그것에 의심을 푼 사내가 다른 사내에게 눈짓했다.

“데려가.”

다른 사내는 루시를 안쪽 복도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한참을 걷던 그는 어느 방문을 열어 루시를 밀어 넣었다.

“도망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다.”

투박한 손이 루시의 엉덩이 부근을 스치고 지나갔다. 수치심에 입술만 깨물고 있던 루시는 닫히는 문을 노려보다가 곧 제 할 일을 깨닫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다행히 더글라스로 추정되는 인물은 없었다. 루시는 커다란 침대 옆에 있는 창문으로 다가갔다. 4층이라 도망칠 수 없다고 여겼는지 창문은 수월하게 열렸다.

“아샤. 아샤.”

부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창문 밖에서 아나샤가 모습을 드러냈다.

“저 말곤 아무도 없어요.”

루시의 말에 아나샤는 곧바로 창문을 타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루시를 돌아보며 말했다.

“혼자서 무서웠을 텐데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루시, 침대 아래에 숨어있어요. 나머지는 저한테 맡기구요.”

루시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한편으로는 아나샤가 걱정되었다. 그녀의 실력을 의심해서는 아니었다. 혼자서 사내 여럿을 해치웠던 것을 눈앞에서 직접 보았으니 의심이 될 리 없었다.

그저 자신보다 작은 그녀가 제 여동생 같아서 괜히 다칠까 염려되었다.

“조심해요.”

“네.”

루시의 말에 아나샤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루시가 침대 밑에 들어가 있는 동안 아나샤는 더글라스를 기다렸다. 반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바깥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발소리는 방문 앞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고 짙은 붉은 갈색의 머리를 한 남자가 방안으로 들어섰다. 아나샤는 문 뒤에 숨은 채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암살대상인 더글라스의 인상착의와 맞아떨어졌다.

아무도 없는 침실에 남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다시 문쪽으로 몸을 돌린 순간, 아나샤가 독을 바른 단검을 쥐고서 신속히 남자의 목덜미를 노렸다.

“큭!”

단검이 목덜미를 얕게 파고들기 무섭게 남자가 곧바로 팔을 휘둘러왔다. 그 강한 힘에 단검은 아나샤의 손을 벗어나 바닥 위로 떨어졌다.

“여기 암살…,”

독에 시야가 울렁이는 와중에도 남자는 피가 흘러내리는 뒷목을 부여잡고서 달려 나갔다. 문밖으로 도망치려 하자 아나샤는 곧바로 등 뒤로 달려들어 남자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았다. 그리고 무게중심을 왼쪽으로 쏠리게 하며 남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강하게 돌렸다.

두둑, 하는 뼈가 어긋나는 듯한 소리가 울렸다. 얼마나 세게 돌렸는지 그녀의 왼손도 함께 꺾였을 정도였으나 아픔을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다.

남자와 함께 바닥위로 쓰러진 아나샤는 다리로 남자의 목을 감았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차한 다리로 남자의 목을 졸랐다. 컥컥대던 남자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게거품을 물었다.

몸을 일으킨 아나샤는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죽은 남자에게서 멀어졌다. 그 짧은 사이 필사적으로 힘을 써서인지 온몸에 땀이 흥건했다.

한숨을 내쉰 아나샤는 벽에 기대었다.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왼손 손목에서 고통이 밀려왔다. 한번 다쳤던 곳을 또 다쳐서 그런지 고통이 배가 된 느낌이었다. 아나샤가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자 루시는 침대 밑에서 나와 그녀에게 다가왔다.

“…아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거예요?”

“아, 크게 다친 건 아니고 손목이 좀 욱신거려서요.”

“어디 봐요.”

루시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나샤의 왼쪽 손목을 조심스레 살폈다. 조금만 만져도 아픈지 아나샤가 움찔거리자 루시는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가 아니라고 여겼다.

“…벽을 타는 건 무리겠죠?”

“네. 이 상태로는 절대 안돼요. 너무 위험해요.”

“일단 감옥으로 가야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루시.”

다행히 모든 암살임무는 완료한 상태였다. 이제 남은 임무는 인질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인질들의 탈출을 돕는 것이었다. 아나샤가 남은 임무에 대해 루시에게 설명하자 루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뒤늦게 그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는 듯 입을 열었다.

“인질들과 함께 숨어 있으려고 안에 원피스를 입고 있다고 했죠? 그럼, 지금부터 인질인 척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들어올 때 루시 한명이었으니까 들키지 않을까요?”

“아마도 자세히 기억하진 못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면 다들 술에 취해있거든요.”

작전이 새롭게 세워지자 아나샤는 곧바로 루시와 함께 시체를 침대 밑에 숨겼다. 방바닥에 떨어져있는 핏방울들을 지워낸 아나샤는 첩자복을 벗었다. 안에 입고 있던 얇은 재질의 원피스가 드러났다.

허벅지에 둘러진 가죽 끈에 필요할 만한 무기들을 꽂아 넣고 아나샤는 루시를 돌아보았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에 루시가 먼저 문을 열고 나섰다. 아나샤는 그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자 떠들고 있는 사내들이 보였다. 뿌연 연기를 허공에 뻐끔대며 뿜어대던 사내 하나가 루시를 발견하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빨리 나올 리가 없을 텐데.”

“생긴 거랑 다르게 안는 맛은 별론가 보네.”

사내의 투박한 손이 루시의 가슴을 콱 움켜쥐었다. 루시가 화들짝 놀라 몸을 뒤로 빼자 사위에서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빼기는.”

사내는 픽 웃으며 다른 사내들에게 설렁설렁 손짓했다.

“이년들 다시 가둬놔. 그리고 너는 더글라스님 방에 가보고.”

“더글라스님께서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무시겠다고요.”

다른 이가 움직이기 전에 아나샤가 황급히 끼어들어 말했다. 이에 사내가 “그래?”하고 성의 없이 대답하고는 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사내 둘이 아나샤와 루시를 끌고 내려갈 때 한 사내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렸다.

“들어갈 때 한 명만 들어가지 않았던가?”

“네가 못 봤나보지.”

“아닌데... 분명 한 명이었는데.”

“그럼 유령이게?”

“무시해. 저 새끼 술 마시고 헛소리하는 게 한두 번이냐.”

자신이 분명 기억한다며 사내가 항의했지만 다른 이들은 술과 마약에 취해 몽롱한 상태였다. 그렇게 사내의 말은 묵살되었다.

리히르트와 크리스가 탄 마차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달러스 영지 초입에 도착했다. 검은 어둠이 내려앉은 거리는 작은 불빛조차 없이 조용했다. 2년 전의 전투로 민가는 모두 폐허가 됐으니 사람의 기척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마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걷기 시작했다.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영주성까지 거리가 꽤 되었지만 마차를 타고 갔다간 들킬 위험이 있어 내린 것이다.

폐허를 무거운 눈으로 둘러보던 크리스는 앞에서 걷던 리히르트가 걸음을 멈추자 자연스레 검에 손을 가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진 벽 옆으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5기사단 단장님 되십니까?”

거리를 정찰하고 있던 기사였다. 리히르트가 굳이 황실 문장이 새겨진 검자루를 내보이지 않아도 기사는 이미 그의 신분을 짐작한 듯 입을 뗐다.

“서신 받았습니다. 단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안내를 받아 도착한 곳은 버려진 빈 여관이었다. 1층은 식당으로 사용되었었는지 식탁과 의자가 사방에 널브러져있었다.

리히르트가 2층에 올라서자 대기하고 있던 기사들이 어둠속에서 일제히 거수경례했다. 그러나 리히르트는 시선조차 주지 않고 바로 안쪽 방에 들어섰다. 복도에 남게 된 크리스는 머쓱함에 헛기침을 내뱉었다.

방 안에는 작전의 총책임 및 지휘를 맡은 제2기사단 단장과 제1, 제4기사단의 부단장들이 앉아있었다. 램프 하나 켜놓은 방안은 어두웠으나 희미한 불빛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창문은 두꺼운 모포로 가려져 있었다.

작전내용을 다시 읊고 있던 제2기사단 단장, 하멜은 방에 들어선 리히르트를 발견하곤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때마침 오셨군요. 제2기사단 단장 하멜 아돌프라고 합니다.”

하멜이 먼저 악수를 청하자 리히르트는 가볍게 그 손을 붙잡았다. 잠시 서로의 소개가 이어졌으나 곧바로 진지한 태도로 돌아와 작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날이 밝으면 부대 전체가 영주성으로 진격할 겁니다. 작전부대는 세 부대로 나뉘어 각 맡은 구역을 시작으로 소탕작전에 돌입할 겁니다.”

각 부대의 지휘를 맡은 부단장들이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독단으로 행동하시겠다고 하시니 원하시는 부대에 합류하셔서 적들을 처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작전설명은,”

“지금 바로 향할 생각입니다. 함께 온 기사도 대동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지원 부탁드립니다.”

리히르트는 말을 마치기 무섭게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하멜이 뒤늦게 몸을 일으켰다.

“잠깐, 멈추십시오! 지금 영주성에 쳐들어가겠다니요? 아직 날이 밝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을 자른 리히르트가 문고리를 쥐었다. 대답하는 이 순간조차 시간낭비로 느껴질 만큼 조급함을 느끼고 있는 현재 그에게 대화란 무의미했다.

정말 이대로 나갈 것 같은 태도에 하멜의 표정이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조급해하시는진 몰라도 이런 단독행동은 너무 무모합니다. 자칫하다간 이번 작전 모두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원치 않는다며 하멜은 강경하게 말했으나 리히르트는 대답도 하지 않고 문을 나가버렸다. 완전한 무시에 하멜은 기가 차 쾅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뭐 저런…,”

“입조심 하십시오.”

문밖에서 들을 새라 제1기사단 부단장이 그를 말리듯 말했다. 상대가 공작인만큼 괜히 험담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지 모를 일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작전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기사들에게 한 시간 내로 출정할 수 있게 준비하라고 이르세요.”

하멜은 애써 분을 삭이며 말했다.

아나샤는 차가운 벽에 기댄 채로 창살을 바라보고 있었다. 체감 상 몇 시간이 흐른 건진 알 수 없었다. 장소의 영향 탓인지 잠시 예전 일이 떠올랐다.

‘단장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감옥이었는데.’

이쯤 되면 감옥과 인연이 있는 게 아닐까. 실없는 생각을 하던 아나샤는 머리를 흔들어 잠기운을 완전히 떨쳐냈다.

자신과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여인들은 불안하게 몸을 웅크린 채였다. 하나같이 탈출할 수 있을 거란 희망은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었다.

아나샤가 감시자의 눈을 피해 곧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인들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었다.

하나는 왜소해 보이는 여자애가 과연 자신들을 탈출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한 의심스러운 반응이었고, 다른 하나는 괜히 탈출하겠다고 나섰다가 죽임을 당하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반응이었다.

아나샤는 그녀들을 이해했다. 이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누구라 해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일까. 아나샤는 더 이곳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희망을 되찾아 밝아진 얼굴들이 보고 싶었으니까.

“음, 몇 명이라도 좋으니까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아나샤는 웅크려있는 여인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루시가 가장 먼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경청할 준비를 하자 다른 여인들도 하나둘 아나샤의 주위로 모여들었다.

“아침이 되면 제국 기사들이 이 성에 쳐들어올 거예요. 모든 영주성의 병력이 성벽 쪽으로 가면, 저희는 그 소란을 틈타 이 감옥을 나갈 거구요.”

숨죽여서 듣고 있는 여인들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저희는 성의 뒤뜰로 가서 숨어있을 거예요. 성에서도 떨어져있고 몸을 숨기기 제일 적합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제3부대 기사들이 오면 기사들이랑 합류해서 무사히 성을 빠져나갈 거고요.”

“그게…가능할까요? 정말로요?”

“만약에 잡히기라도 하면...,”

두려움이 가득한 목소리들에 아나샤는 왼쪽 손목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확실한 건, 여기 있으면 더 위험해요.”

아까 전보다 훨씬 상태가 안 좋아진 것인지 손목 옆이 퉁퉁 붓고 있었다. 고통은 어떻게든 참으면 된다지만 문제는 제 생각대로 움직여주질 않는단 거였다. 아나샤는 제 손목을 쏘아보듯이 내려다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예전에도…이곳에서 전투가 일어났었어요. 성안에 내몰린 적군과 성을 탈환하려는 제국군 간의 전투였죠. 처음엔 저희 제국군이 우세했어요.”

“...”

“그런데 적군들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노예로 팔기위해 잡아온 민간인들을 인질로 삼았어요. 인질의 목숨을 앞세워서 제국군의 후퇴를 요구했고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인질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전세는 단번에 뒤집어졌고, 제국군은 인질을 구출하려다 더 큰 피해를 입고 물러나야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는지 성벽의 안과 밖에는 시신들이 한가득 쌓였을 정도였다.

아나샤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했다. 지원군으로 달러스에 도착했을 땐, 인질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끝까지 성에 남았던 자들은 모두 죽어있었다.

“아샤…?”

아나샤는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에 그제야 주위를 볼 수 있었다. 가라앉은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인질로 잔인하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젖어 하얗게 질린 얼굴들이 대부분이었다.

“아, 미안해요. 겁줘서... 여기 갇혀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까봐 사실대로 얘기한 거였어요. 진짜 겁줄 의도는 아니었어요!”

오른손을 저으며 아나샤는 급하게 변명해야했다. 허둥지둥 거리는 모습이 조금은 귀여워 몇몇의 얼굴이 풀릴 때였다.

“제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거 알아요.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으면 좀 믿음직스러웠을 텐데...”

“풉!”

진심으로 아쉽다는 듯한 그 중얼거림에 근처에 있던 여인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은 사방으로 전염되었다. 그 작은 웃음소리만으로 얼어붙어있던 분위기는 단숨에 부드럽게 풀렸다.

“아니에요. 아샤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제가 봤는걸요. 지금도 엄청 믿음직스러워요.”

루시가 말하자 주위 여인들이 정말이냐는 눈빛을 보내왔다. 믿지 못하겠다는 감정이 주로 섞여있었는데 이를 알아차린 루시는 간단하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얘기해주었다.

그 얘기를 들은 여인들은 새로운 감정이 깃든 눈으로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신뢰라는 희미한 감정을 읽어낸 아나샤는 그 감정에 보답하듯이 당차게 말했다.

“저 약속할게요. 절대 한 명도 다치지 않게, 끝까지 지켜드린다고요.”

단호하기까지 한 그 맹세에 여인들은 잠시 서로를 돌아보았다.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듯이 서로를 바라보던 여인들이 머지않아 하나둘씩 아나샤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믿어보겠다는 듯이 조금은 결연한 눈빛들이었다.

“그럼 일단 열 명씩 나눌까 해요.”

인원이 많으면 호위하기도 힘들고 들킬 위험이 컸다. 열 명씩 탈출을 할 거라는 말에 여인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상의하기 시작했다. 오랜 상의 끝에 나이순으로 해서 총 네 팀으로 나누기로 결정했다.

어린 팀부터 탈출을 하기로 순서가 정해지자 아나샤는 바닥에 영주성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그리며 탈출계획을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설명을 끝내고 아나샤는 벽에 편히 기대어 앉았다. 잠시라도 체력을 보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잠시 눈을 감기도 무섭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지하문 밖에서 들려왔다.

“…성문…에서…일…나는…,”

“…다…깨워…!”

외침과 다급한 발소리가 밖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벌써 해가 떴다고…?’

아나샤는 조금 당황한 상태였다. 체감상 해가 뜨려면 아직 멀었을 텐데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른 건지, 아니면 작전이 앞당겨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지하라 창문이 없는 게 아쉽기만 했다.

어찌됐든 계획대로 움직여야했다. 아나샤는 원피스 속에 숨기고 있던 무기와 가는 쇠핀을 꺼내들었다. 잠겨있는 철창문의 열쇠구멍에 쇠핀을 넣어 몇 번 돌렸을까, 끼이익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바깥으로 나가는 문 앞에 선 아나샤는 잠시 인기척이 있는지 살피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갔다. 감시자 한 명 없이 텅 비어있는 공간이 보였다. 좁은 계단통로 위에도 별다른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이제 나와도 돼요.”

다시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첫 번째 팀부터 밖으로 나오도록 했다. 그중에는 루시의 여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조금 이따 만나.”

“응.”

루시는 여동생과 짧은 포옹을 나누었다. 이윽고 아나샤를 포함한 11명의 여인들이 문밖을 나섰다. 탈출의 시작이었다.

검이 한번 휘둘러질 때마다 피가 튀었다. 리히르트는 그 피를 뒤집어쓴 채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이들을 묵묵히 베어낼 뿐이었다.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나무토막을 베는 것만큼이나 쉬웠다. 그러나 그는 평소보다 과하게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

눈으로 좇을 수 없을 만큼 빠른 궤도를 그리는 검이 팔 하나를 날려버린 것은 순식간이었다.

“…사, 살려줘!!”

용케도 기절하지 않고 살아남은 남자가 절박하게 외쳤다.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붙잡은 채 도망가려는 남자를 리히르트는 놓치지 않았다.

단말마의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잘린 머리가 피가 흥건한 땅바닥 위를 굴렀다. 널브러져 있는 시체들을 지나쳐 리히르트는 성 내부로 진입했다.

그런 그의 뒤를 뒤따르며 크리스는 질색한 얼굴을 했고 말이다.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물러져서 잊고 있던 사실이었으나 원래는 이렇게 손속에 자비라곤 없는 자였었다.

흐트러짐 없는 무감정한 얼굴로 적의 목을 꿰뚫고 다시 날카로운 검을 휘두른다. 레스토랑에서 아나샤와 단둘이 있던 모습이 떠올라 더욱 현재의 모습에 괴리감이 들었다.

‘이쯤 되면 아샤가 대단하다고 해야 될지...’

두 사람이 연인사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크리스로서는 사랑의 대단함을 몸소 체감하고 있는 중이었다. 물론 후방에서 도망치려는 떨거지들을 해치우는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며 말이다.

역시 살을 베는 감각은 언제 느껴도 기분 나쁘다 여기며 검을 회수한 크리스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피와 시체로 더럽혀진 복도의 풍경 어디에도 리히르트 그는 보이지 않았다. 자기 혼자 묵묵히 다 처리하고 또 다른 곳으로 사라져버린 것 같았다.

‘같이 좀 갑시다! 좀!!’

마음 같아선 그렇게 외치고 싶은 것을 억누르며 크리스는 그를 찾아 뛰었다.

성안이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도망치는 것은 수월했다. 감옥 안에는 이제 마지막 팀만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루시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초조하게 지하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리며 아나샤가 나타나자 그제야 다들 안심한 기색을 드러내었다.

“밖에 아무도 없어요.”

아나샤의 말에 여인들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문밖으로 나왔다. 모두 나오자 아나샤는 성의 뒷문으로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계획보다 이른 탈출이었지만 아나샤는 작전대로 움직였다. 이만한 소란이 일어날 정도면 기사단이 쳐들어온 것은 확실할 테니까.

“뒷문으로 나가면 서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럼 창고가 하나 보일 텐데 창고 뒤쪽부터는 뜰이 펼쳐져있어요. 뜰에 가면 어느 한곳만 나무들이 우거져있는데 그곳에 숨어 있다가 기사들과 합류할 거예요.”

긴 복도를 가로지르는 동안 아나샤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시 한 번 계획을 알려주었다.

성의 뒷문까지 가는 길은 수월했다. 성의 사용인들이 사용했을 낡은 문은 고작해야 성인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작았다.

“한 명씩 나갈 거예요. 나가면 제가 알려준 대로 바로 서쪽 방향으로…,”

말을 잇던 아나샤는 문밖의 희미한 인기척을 알아차리고 먼저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뒤에 서있는 여인들에게도 쉿 하고 제스처를 취해보였다.

“…인질이 있으면...도 지금처럼…날뛰진 못하겠지.”

뒷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점차 가까워지고 있었다. 아마도 이 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오려는 모양이었다.

“…고작해야 두 명인데 상대조차 안 되잖아. …제기랄!”

“...서둘러! 다들 뒈지고 싶은 게 아니면!”

느껴지는 기척은 대략 다섯 명 정도였다. 아나샤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휑한 복도 어디에도 열 명이 숨을 만한 마땅한 장소는 없었다. 그렇다고 다시 되돌아가기엔 사내들은 이미 뒷문 근처에 와있었다.

“제가 나가면 다들 힘껏 달려요. 그리고 제가 알려준 대로 가는 거예요.”

아나샤는 오른손으로 무기를 꽉 말아 쥐었다. 멀쩡하지 않은 왼손으로 전부 상대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내야했다.

잠시 심호흡을 고른 뒤 아나샤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그리고 가장 근처에 있던 사내의 급소를 베며 외쳤다.

“가요!”

갑작스러운 기습에 놀란 사내들은 무기를 들었다. 아나샤를 향해 날붙이들이 휘둘러지는 동안 여인들은 빠르게 좁은 문을 빠져나와 도망치기 시작했다.

막 일곱 명째 밖으로 나왔을 때였다. 남자 하나가 급작스럽게 타깃을 바꿔 어느 여인에게 달려들었다. 전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남자는 여인의 머리채를 단단히 틀어쥔 채 도망치기 위해 움직이려는 여인들을 향해 소리쳤다.

“노예년들까지 우리를 우습게 여겨! 당장 안 멈춰!”

“꺄아악!”

남자가 본보기로 여인을 찔러 죽이려할 때였다. 푹,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몸이 앞으로 허물어졌다. 쓰러진 남자의 목 뒤에 깊게 박혀있는 검이 드러났다.

아나샤가 첫 번째로 처리했던 남자가 떨어뜨린 검이었다. 바닥에 떨어져있던 그것을 루시가 주워들어 뒤에서 찌른 것이다.

루시는 처음 한 살인에 두려움조차 들지 않았다. 자신들이 당했던 일들을 생각한다면 수차례 난도질을 해도 모자라다고 여겼다.

"설 수 있겠어요?"

“고, 고마워요.”

“어서 가요.”

루시는 구한 여인을 일으켜 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나샤는 세 명을 동시에 상대하고 있었다. 한 명의 눈에 단검을 박아 넣고 곧바로 단검을 휘둘러 다른 이의 칼을 막아내었다.

강한 힘에 밀려났으나 그것도 잠시 빠르게 몸을 숙여 휘둘러진 칼을 피하고 남자의 손목을 베어냈다. 민첩함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그녀였다. 잘 벼린 단검 끝은 눈앞의 남자의 급소를 정확히 가르고 허공에 멈췄다.

다른 한 명도 빠르게 해치운 아나샤가 나머지 한 명을 찾아 고개를 돌린 순간이었다. 어느새 루시의 뒤에 바짝 따라붙은 남자가 보였다.

아나샤는 달렸다. 그리고 남자가 휘두르는 검이 루시의 등을 베려는 그 찰나의 순간, 단검을 날렸다. 곧게 날아간 단검은 남자의 손등에 정확히 꽂혔다.

“…윽!”

남자의 손이 멈칫 허공에 멈췄다. 그러나 끝내 검을 놓진 않았다. 검 끝은 정확히 루시를 향해 움직였다. 뒤를 돌아본 루시가 검에 찔리려는 순간, 아나샤가 그 앞을 막아서며 루시를 밀어냈다.

아나샤는 고통에 파르르 눈꺼풀을 떨었다. 순간 눈앞이 점멸될 만큼 강한 통증에도 아나샤는 손을 움직여 남자의 손등에 박혀있는 단검을 뽑아들었다. 그러곤 힘껏 남자의 턱밑에 단검을 박아 넣었다.

“컥... 커…윽.”

남자가 뒷걸음질 치자 아나샤의 배를 관통하고 있던 검도 함께 빠져나갔다. 뜨거운 피가 후두둑 바닥 위로 쏟아졌다.

“아샤!”

몰아닥친 통증과 함께 순식간에 시야가 흐려졌다. 바로 옆에서 붙잡아주는 손길이 느껴졌으나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아나샤는 결국 잠시 정신을 잃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울고 있는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다. 그것이 루시라는 것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물이 흐릿하게 보였다.

멀어져가는 의식 때문인지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 소리가 점차 멀어져가고,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져갔다.

아나샤는 눈을 감았다.

기사들이 뒤늦게 성 안에 쳐들어왔을 땐 복도엔 적들의 시체로 가득했다. 누가 한 일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경외감이 서린 눈들이 피로 물든 한 사내에게로 가닿았다.

리히르트는 그 시선들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성 안을 수색하기에 바빴다. 기사들은 그가 성 안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는 것이라 여겼지만 실상 그는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이미 성 안을 몇 번이나 수색했으나 성 안에 잠입해있을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리히르트는 초조함에 입술을 깨물었다. 핏줄이 도드라진 주먹은 도저히 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크게 다쳐 어디선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그의 뇌리를 가득 채웠다.

뒷목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는 불안한 예감에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점차 금이 가기 시작할 때였다.

“지하 감옥에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첩자가 원래 작전보다 이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온 기사의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우뚝 걸음을 멈췄다.

“다른 부대 상황은?”

“2부대는 현재 맡은 구역의 적들과 대치중입니다. 3부대는 부상자를 수습한 후 예정대로 성의 뒤뜰에서 첩자와 합류할 예정입니다.”

“이곳 상황은 얼추 정리된 것 같으니 다른 부대에 지원을…,”

성의 뒤뜰, 그 단어만을 머릿속에 새기기 무섭게 리히르트는 곧장 몸을 돌려 성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나 이상하게도 초조함은 가라앉지 않았다.

성의 정문을 빠져나와 뒤편으로 향하자 얼마안가 드넓은 뜰이 나타났다. 해가 뜨지 않아 어슴푸레한 뜰의 전경을 빠르게 둘러보던 그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있는 곳으로 무작정 걸음을 옮겼다.

“아샤 경!”

헐떡임이 가라앉지 않은 채로 리히르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부디 그녀가 이곳에 있기를 바라면서 어두운 나무 사이를 누빌 때였다.

“여기에요…!”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여성의 외침에 리히리트는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몸을 돌렸다. 우거진 수풀 뒤로 한 여인이 나타나고 얼마안가 막지 못한 훌쩍임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리히르트는 그곳으로 움직였다. 이윽고 다다른 수풀 뒤편에는 그토록 찾던 아나샤 그녀가 있었다.

터질 것처럼 가쁘게 뛰던 심장이 순식간에 조용히 멎은 듯했다. 삼키지 못해 튀어나오던 거친 숨소리가 단번에 사그라들었다.

“절 지키려다가…대신 찔려서,”

눈물을 훔치는 여인들 사이에 누워있는 그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미동이 없었다. 금방이라도 눈을 떠 ‘단장님!’하고 외칠 것처럼 익숙한 얼굴이었으나, 평소와는 달랐다.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 낯설었다. 리히르트는 선뜻 그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다. 크나큰 공포를 마주한 사람처럼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뒤늦게 리히르트는 그녀에게 다가가 몸을 낮췄다.

“아…샤 경.”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받쳐 안았다. 몸은 차게 식어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상체는 어둠속에서도 온통 붉은 색으로 젖어 있어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피를 흘린 것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전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무도회날 밤의 상황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자신이 늦지 않기만을 바랐으나 그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자신이 너무 늦었다.

아나샤는 눈을 떴다. 야외인지 솔솔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졌다. 하지만 하늘은 보이지 않았다. 햇볕을 비스듬히 막아주는 커다란 손이 자신의 눈 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나샤는 펼쳐진 손가락 사이로 보이는 연한 금색머리카락을 눈에 담았다. 누군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그런 몽롱한 기분으로 손가락 틈새를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왜? 잠이 안와?”

생소하면서도 너무도 익숙한 목소리에 뭉클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퍼져나갔다. 리온의 무릎은 기억 속 그대로 따뜻하고 포근했다.

아나샤는 손을 뻗어 리온의 손을 붙잡았다. 역시나 따스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의 손이 너무 작다는 걸 알아차렸다.

“리온, 있잖아. 나 첩자 할 수 있을까?”

자신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릴적 자신의 앳된 목소리였다.

“매일 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

“그냥…내가 리온만큼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리온은 너무 치사해. 싸움도 잘하고, 높은 곳도 쉽게 올라가고, 기척도 금방 지울 수 있고, 힘든 임무도 척척 해내고 말이야.”

‘어릴 적 기억이 꿈으로 나타난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 상황이 모두 이해가 되었다. 아나샤는 자신의 툴툴대는 목소리를 들으며 리온을 바라보았다.

“솔직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제복을 안주는지 모르겠어. 리온도 기사단 소속인데.”

웃음을 터뜨리는 리온은 새하얗게 빛이 나는 것 같았다. 쨍한 햇살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아 아쉬운 기분이 들었다.

“검은 첩자복 말고 새하얀 제복 입으면 엄청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야. 리온이 입으면 진짜 멋질 텐데. 머리도 금발이라 어디 나라 왕 같을 거야.”

“고맙네요. 공주님.”

맑은 웃음소리가 너른 들판 위를 울렸다. 포근한 기분에 아나샤는 눈을 감았다. 솔솔 잠이 올 것처럼 전신이 나른했다.

“졸려?”

“…응. 있지, 리온.”

아나샤는 입을 열었다. 방금까지 어린 모습이었을 텐데 이제는 다시 본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꿈속이라 그런지 전부 뒤죽박죽이었다.

“어릴 적 일 완전히 기억나진 않지만…아주 조금은 기억나. 리온이 나를 지켜줬던 거, 나를 안아줬던 것도.”

“...”

“그래서 고마웠다고 꼭 말해주고 싶었어.”

이제야 말해서 미안하다고, 아나샤는 속으로 꾹 말을 삼켰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입술을 뗐다.

“나는 있지. 어릴 때부터 항상 리온처럼 되고 싶었어.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

“응. 그렇구나.”

머리를 만져주는 손길은 다정했다. 아나샤는 이 시간이 계속되기를 바랐다. 이 꿈에서 깨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였다.

“어릴 적 일말인데 한 가지 바로잡아줄 게 있어. 그날 내가 널 지켜준 게 아니야. 아샤, 네가 날 지켜준 거지.”

기억 속 목소리 그대로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다.

“어릴 때도 얼마나 용감하고 씩씩했는지 몰라. 한번 울지도 않고, 떼는 좀 많이 썼지만.”

“참나! 어린애가 떼 좀 쓸 수 있지.”

아나샤가 대번에 바로 툴툴거리자 낮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나샤는 그를 따라서 입술을 끌어올렸다. 곧 웃음소리가 멈추고 리온의 목소리가 귓가로 흘러들어왔다.

“널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샤.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다는 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전부 널 만나서 알게 된 것들이니까.”

그 말에 아나샤는 가슴을 꽉 채우는 뭉클함을 느꼈다. 리온은 계속해서 천천히 머리를 쓰다듬어주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코가 시큰거렸다.

“너도 나처럼, 너 자신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

“리온이 그래주면 되잖아. 계속…, 있어주면 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지만 아나샤는 투정을 부렸다. 계속 곁에 있어달라고 말했지만 리온은 아무 말이 없었다. 동시에 방금까지만 해도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있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다.

“리온...?”

들려오지 않는 대답에 아나샤는 그제야 눈을 떴다.

어느새 자신은 어딘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주위에서는 병장기가 부딪치는 날카로운 소리와 누군가의 외침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리온!”

아나샤는 뛰었다.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기사들은 저마다 부상자를 부축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아나샤는 리온을 불렀다.

알 수 없는 기시감에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달려야할 것 같은 조급한 기분에 아나샤는 이유도 모른 채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 나갔다.

“리온! 어딨어, 리온!”

얼마나 뛰었을까, 아나샤는 바람에 실려오는 짙은 피 냄새를 맡았다. 펼쳐진 눈앞의 광경은 말 그대로 참혹했다. 누군지 모를 시체들이 아무렇지 않게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는 리온이 있었다.

아나샤는 쿵 내려앉은 심장에 잠시 멈춰 섰다가 빠르게 땅을 박차고 달렸다. 그리고 리온의 옆에 주저앉아 다급하게 그를 살폈다.

리온은 마치 자고 있는 것 같았다. 목 주변과 가슴을 적신 피만 아니었다면 정말 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아나샤는 몇 번이나 그가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맥박을 짚었다. 제발, 제발, 하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중얼거림은 거의 바람과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나샤는 싸늘하게 식은 그 손을 꽉 붙잡았다. 이미 온기가 없는 손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아나샤는 도저히그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계속…기다렸는데…,”

같이 임무에 나가자고 약속했는데. 아나샤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시큰한 눈가가 따가워서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리온의 곁에 설만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다. 어릴 적 자신을 지켜줬던 리온처럼 자신도 그를 지켜주고 싶었던 건데. 그랬는데, 자신이 늦었다. 너무 늦어버렸다.

아나샤는 꿈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도저히 그를 놓지 못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죽은 리온을 끌어안은 채 그 자리를 홀로 지켰다.

얼마나 오랫동안 꿈이 이어진 건지 알 수 없었다. 아나샤는 미약한 소리를 내며 눈을 떴다. 흐릿하던 초점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정신이 말갛게 깨어남과 동시에 느껴지는 강한 통증에 아나샤는 눈을 질끈 감았다.

“으으...”

배가 타들어갈 것처럼 아팠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목이 잠겨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힘들었다. 그저 소리 없이 끙끙댈 때였다.

아나샤는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온 발소리에 눈을 떴다. 가장 먼저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옅은 빛깔의 금색 머리카락이었다.

순간적으로 리온이 떠올랐으나 뒤늦게 드러난 얼굴은 리온이 아니었다. 하지만 익숙한 얼굴이었다.

평소에 깔끔하게 쓸어 넘기던 옅은 색의 머리카락들은 그의 이마를 덮고 있었다. 그는 흰 셔츠를 입은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조금도 쉬지 못한 사람처럼 많이 피로해보였다.

아나샤는 이곳이 단장님의 저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을 꺼내기 위해 입을 떼려는데 그전에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봉합한 곳이 다 아물지 않았을 겁니다.”

리히르트의 말에 아나샤는 왼손을 들려다가 시큰한 고통에 인상을 찌푸렸다.

왼손은 부목을 대고 붕대를 감아놓은 상태였다. 다시 왼손을 편히 늘어뜨린 그녀는 오른손으로 조심스럽게 제 복부 위를 손끝으로 더듬어보았다. 꿰맨 상처가 만져졌다. 따끔거렸으나 다행히 상처가 덧나거나 하진 않은 것 같았다.

아나샤는 안도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죽지만 않았으면 되었다고 여겼다. 물론 아픈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다시 끙끙 거리는데 이마 위로 온기가 닿았다.

“주치의를 불러오겠습니다.”

가볍게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주던 손길이 떨어졌다. 아나샤는 등을 돌려 문을 나서는 그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아나샤는 다시 눈을 떴다. 주치의가 몸 상태를 살피는 동안 그는 보이지 않았는데, 주치의가 검진을 끝내고 나가자 곧바로 단장님이 들어왔다.

“혹시 몰라 식사를 준비하라 일렀습니다. 물론 졸리면 더 자도 됩니다.”

“…아니요. 졸리진 않아요.”

아나샤는 목소리를 냈다. 오랫동안 감기에 걸린 사람처럼 목소리는 푹 잠겨있었다.

“갈증이 나진 않습니까?”

“조금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침대 옆으로 다가온 그가 몸을 숙였다. 조심스레 어깨 밑으로 들어온 손이 상체를 천천히 일으켜주었다. 그는 등 뒤에 푹신한 베개를 받쳐주고는 직접 물을 따라서 건네주었다.

이에 아나샤는 왠지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단장님이신데, 아니 그전에 공작님이신데 본의 아니게 부려먹게 됐으니 말이다.

“감사해요... 저 근데 얼마나 잠든 거예요?”

“이틀정도 잠들어있었습니다.”

“이틀씩이나요? 엄청 오래 잤네요.”

정확히 따지자면 사흘에 가까웠지만 리히르트는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잔을 쥔 채 무슨 말을 꺼내야할지 머뭇거리는 그녀를 보며 기다렸다.

“그…죄송해요. 단장님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멋대로 임무 받아서요.”

“...”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삼촌들의 귀에 들어가면 절대 못 가게 말렸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단장님에게까지 비밀로 한 것은 실수였다.

이렇게 다쳐서 온 것도 모자라, 심지어 단장님의 저택에서 신세를 지게 될 줄은 알았을까.

단장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수도에 있는 줄 알았던 부하가 뜬금없이 달러스에서 중상을 입고 수도에 실려 온 것일 텐데 얼마나 놀라고 어이가 없었을까 싶었다.

“저…, 혹시 화나셨어요?”

아나샤는 말이 없는 그를 힐끔힐끔 올려보며 살폈다. 이에 리히르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입을 열었다.

“화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리히르트는 며칠째 물도 대지 않아 퍼석한 입술을 잠시 다물었다가 뗐다.

“그저 걱정했습니다. 아샤 경.”

“...”

“몇 시간이 지나도, 하루가 지나도, 눈을 뜨지 않아서 많이 걱정했습니다.”

아나샤는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했음을 알 수 있었다. 가까이에서 본 얼굴은 더 혈색이 없이 파리했다. 며칠째 밤을 샌 게 아닌가 싶을 만큼 피곤이 덕지덕지 묻어나있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그보다 단장님 또 밤샌 거 아니죠?”

“일이 조금 많아서 말입니다.”

“저 말고 단장님이 누워서 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 말이었지만 그는 아예 농담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아나샤는 잠시 걱정스레 그의 낯빛을 살피다가 뒤늦게 떠오른 말을 꺼냈다.

“그보다 작전은 어떻게 됐어요? 저랑 같이 있던 여자분들은 모두 무사한 거죠? 혹시 들은 거 있어요?”

“아샤 경 덕분에 다들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휴… 다행이네요.”

아나샤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다. 검에 찔린 후 정신을 잃은 것은 확실히 큰 실수였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다. 덕분에 루시를 구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사실 이번 잠입임무요. 예전에 제 아버지가 맡았던 임무였어요. 물론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요. 왠지 리온은 리온이지 아버지라고 부르기엔 좀 낯간지럽다고 해야 되나. 암튼.”

오른손으로 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나샤는 리온에 대해 짧게나마 얘기하기 시작했다. 리온이 달러스 영주성의 잠입임무를 맡았고 임무 중에 사망했다는 얘기였다.

“처음엔 리온이 죽었단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나중에 상황을 알게 되니까 납득이 가더라고요. 끝까지 성에 남아서 인질들을 지키려했대요. 정말 멋지죠?”

작게 미소를 띠며 아나샤는 리히르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제 얘기를 경청해주고 있었다.

“이번 임무를 제가 맡고 싶다고 황녀님께 부탁한 건 뭐, 복수심 같은 것도 있었지만 리온이 해낸 일을 저도 똑같이 해내고 싶었어요.”

“...”

“사실 달러스에서 돌아오면 같이 임무 나가기로 약속했었거든요.”

“힘들진 않습니까?”

한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그가 물었다. 그것이 무엇을 묻는 건지 아나샤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정말이지 사려 깊은 단장님이 아닐 수 없었다.

“예전에는 리온 얘기만 꺼내도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리고 어찌됐던 달러스 임무는 리온이랑 둘이 같이 완수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렇게라도 이뤘으니까 이젠 슬픈 얘기는 아닌 거죠.”

아나샤는 후련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그녀를 응시하던 리히르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운을 뗐다.

“아샤 경의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이나마 들었습니다.”

“정말요?”

“네. 크리스 벨덴 경이 얘기해줬습니다.”

“삼촌도 참, 말이 많아서 탈이라니까요. 분명 이상한 얘기만 했죠?”

아나샤가 툴툴대는 것을 묵묵히 들어주던 리히르트는 한참 뒤에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 아버지도 제가 어릴 적 전투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낮고도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아나샤는 그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는 것이 신기해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거의 십년도 더 된 일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당시 며칠간은 식사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듯이 입술을 다물었다. 깊어진 푸른색 눈동자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흐릿해진 어릴 적 기억처럼 슬픈 감정도 충분히 무뎌졌다고 여겼습니다.”

“...”

“하지만 유품인 브로치를 잃어버렸던 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담담한 목소리였다. 그래서인지 왠지 마음을 다독여주듯 다정하게 느껴졌다. 아나샤는 그의 눈동자에 담긴 자신을 볼 수 있었다.

“아샤 경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분명 힘들었을 겁니다.”

살짝 입술을 끌어올린 건지, 아니면 입술을 구긴 것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아나샤는 그런 제 표정이 우스꽝스럽다고 여기면서도 도저히 표정을 가다듬을 수 없었다.

“아샤 경이 괜찮다고 해도 사실은 괜찮을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제 말이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아샤 경이 더는 혼자 숨어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괜찮은 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자신은 정말로 괜찮았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말에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자신은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모르겠어요. …리온이 죽고 나서 분명 많이 힘들었는데 어느새 다시 평소처럼 지낼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도 괜찮고요.”

아나샤는 눈을 내리깔고 잔을 만지작거렸다.

“이번 임무도 그랬어요. 사실 이번 임무를 완수하면, 분명 마음이 후련할 거라 생각했어요. 정말 이걸로 된 거라고 여기려고 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복잡했다. 조금도 후련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꽉 막힌 듯이 답답해 아나샤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더는, 리온을 떠올리면서 슬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은 기억만 떠올리고 싶었어요. 나쁜 기억 때문에 리온을 떠올리는 게 힘든 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달러스의 악몽에서 좀처럼 벗어날 수 없었다. 꿈에서조차 리온은 싸늘하게 죽어있었다. 달러스로 뒤늦게 지원을 간 날에도, 리온을 대신해 임무를 완수한 오늘날에도 자신은 이미 늦은 후였다.

괜찮을 리가 없었다. 첩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리온 때문이었다. 리온이 곁에 없는데 자신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쭉…같이 있고 싶었는데…,”

자신도 그날 달러스로 함께 떠났다면 좋았을 텐데. 아나샤는 열기가 몰린 눈을 감았다. 어느새 고여 있던 뜨거운 눈물이 이불 위로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꾹 깨문 입술 새로 작은 흐느낌이 터져 나오려할 때였다. 아나샤는 자신의 팔을 살며시 붙잡는 손길을 느꼈다. 힘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앞으로 끌어당기는 손에 살짝 고개를 드니 어깨 뒤를 감싸 안아주는 단단한 팔이 느껴졌다.

아나샤는 울음을 삼키고 눈을 떴다. 눈물이 맺혀 시야가 흐릿한 와중에 새하얀 금색머리카락이 보였다. 마치 햇살에 비친 리온의 머리카락과 닮아있었다.

혹여 라도 상처에 무리가 갈까 그는 침대에 걸터앉아 조심스레 자신을 안아주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그 든든한 품에 아나샤는 눈을 감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창밖에 어둠이 내려앉을 때까지도 리히르트는 아나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잔잔히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날 줄을 몰랐다.

“제가 떨어질 까봐 삼촌들이 놀라서 소리 지르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저 어릴 적에 엄청 사고뭉치였나 봐요.”

아나샤는 작게 키득거리며 이불을 끌어올렸다. 슬슬 노곤한 기분이 드는 게 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아나샤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아 눈만 깜빡이는 동안 리히르트는 기민하게 그녀의 몸 상태를 읽어내었다.

“졸리면 자도 됩니다.”

“괜찮아요. 막 엄청 졸리진 않거든요.”

“얼굴은 졸려 보입니다.”

“이틀씩이나 자서 그런지 정신은 말똥말똥해요. 그보다 단장님은 안 주무셔도 돼요? 피곤해 보이는데 어서 가서 주무세요.”

“괜찮습니다. 더 얘길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괜찮다며 자는 것을 미루던 두 사람은 결국 누구 먼저랄 것 없이 웃음을 보였다. 아나샤는 배시시 웃다가 이불 속에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더 나눌 얘기도 없을 텐데 이상하게 그와 얘기가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아마 단장님도 같은 마음인 것 같았다.

“그래서요. 어떻게 됐냐면요…”

떠오르는 아무 얘기나 조잘대던 아나샤는 옆이 너무 조용하자 슬쩍 옆을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다. 길게 내려앉은 옅은 속눈썹과 조용히 다물린 입술이 조는 사람답지 않게 아름다웠다.

오히려 잠이 든 자세마저 흐트러짐이 없어 아나샤는 조금 웃음이 새어나올 것 같았다. 아나샤는 잠시 소리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부드러운 불빛이 비친 얼굴은 평온해보였다.

아나샤는 바로 그를 깨우지 않았다. 아니 깨우지 못했다는 게 맞는 말일 테다. 오랜만에 안심하고 깊게 잠이 든 듯한 얼굴에 차마 깨우기가 미안했기 때문이다.

아나샤가 웨일그레슬 공작저에 머무른 지도 사흘이 지났다.

“다 나으면 일단 카드점을 다시 보러 갈 거예요. 원래 잘 맞는 곳으로 유명하긴 했는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맞았잖아요.”

“다른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음…, 아! 그리고 수도의 유명한 음식점들을 다 가볼 거예요. 유명하다고 얘기만 듣고 가보지 못한 곳이 많았거든요. 맛있는 걸 먹는 것만큼 행복한 일도 없잖아요.”

“그리고 먹는 것만큼 기력 회복에 좋은 것도 없을 겁니다.”

“역시 단장님. 뭘 좀 아시네요!”

쉬지 않고 조잘대던 아나샤는 제게 물을 따라 건네주는 리히르트의 행동에 겨우 입을 다물었다. 갈증이 나는 목을 축이는 동안 아나샤는 문득 든 생각에 눈을 가늘게 떴다.

“그보다 단장님, 기사단에는 안 가봐도 돼요…?”

물을 꿀꺽 삼키기 무섭게 아나샤는 물었다. 이제까지 너무 익숙하게 옆에 있어서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다.

“이번 주는 휴가를 냈습니다.”

“어쩐지, 너무 평온해 보이신다 했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은 계속 저택에서 쉬시는 거예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정말요? 그럼 계속 저랑 같이 놀아요. 단장님 없으면 저 진짜 심심해서 죽을 지도 몰라요.”

제발 제 옆에 있어달라는 양 눈을 빛내며 아나샤는 말했다. 침대에 가만히 있으면 세상 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고역이었다. 단장님이 없었다면 정말 몰래 탈출이라도 했을 테다.

"물론 같이 있겠습니다."

“와, 감사해요!"

리히르트는 아나샤에게서 빈 잔을 받아들고 다시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시녀를 붙여도 될 일이건만 그는 수발들기를 자처하는 중이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녀 곁에서 보내었다. 침대 옆에 놓인 의자는 거의 고정석이나 다름없었다. 물론 간호를 하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감시의 목적도 있었다.

그녀의 성격상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몰래 돌아다닐 가능성이 높았다. 본인의 부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니 말이다. 그렇기에 리히르트는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런 그의 무거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나샤는 나른하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 내일 크리스 벨덴 경이 병문안을 올 겁니다.”

“삼촌만 요?”

크리스 삼촌만 올 리가 없다는 확신이 담긴 물음이었다. 분명 다른 삼촌들도 함께 가겠다고 따라붙어 우르르 몰려올 것이 뻔했다.

벌써부터 쏟아질 잔소리들을 생각하며 끙 앓는 소리를 낼 때, 옆에서 차분한 음성이 들려왔다.

“다른 기사들에게는 아샤 경의 부상에 대해 알리지 않았습니다. 장기임무로 인해 타 지역에 나가있는 것으로 처리해두었습니다.”

“역시 단장님!”

아나샤는 그의 깊은 배려에 진심으로 감탄했다. 삼촌들에게 달러스에 간 것에 대해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막막했는데 한시름 놓은 기분이었다. 물론 크리스 삼촌이 남아있긴 했지만, 크리스 삼촌쯤이야 싶었다.

“정말 고마워요. 단장님. 다 나으면 진짜 크게 한통 쏠게요! 먹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만 하세요!”

눈빛을 반짝이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녀의 모습에 리히르트는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일 뿐이었다.

다음날 아나샤는 붕대를 새로 갈고 환복을 한 후 크리스를 만났다.

“너, 진짜...”

방안에 들어서기 무섭게 크리스는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쉬었다. 호화로운 객실의 풍경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양 크리스는 침대에 어색하게 웃으며 앉아있는 아나샤를 응시했다.

못 본 새 얼마나 야윈 건지 얼굴은 반쪽이 되어있었다. 낯빛은 또 얼마나 창백한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처럼 보였다. 평소의 아나샤 답지 않게 병약한 모습에 크리스는 마음이 다 울컥했다.

“왜 그렇게 인상을 찌푸려, 삼촌. 그러다 얼굴에 주름진다?”

“…녀석아. 너는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 나는 네가 죽는 줄 알고!”

방안을 울리는 크리스의 호통에 아나샤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다. 크리스 삼촌이 화를 내다니. 고작해야 잔소리 1시간 정도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생각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있는데 이보다 더 당황스러운 상황이 이어졌다.

“하필이면 왜 거기야. 왜... 나는 정말 두 명 다 잃는 줄 알고.”

크리스가 고개를 돌리더니 팔등으로 눈을 벅벅 닦기 시작한 것이다. 아나샤는 아까보다 더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진 않은지 한참동안 서서 눈물만 훔치던 크리스는 뒤늦게 아나샤의 곁으로 가앉았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탓인지 두 사람 사이엔 민망한 침묵이 흘렀다. 크리스는 큼큼 하고 목을 가다듬었고, 아나샤는 괜히 눈동자만 굴렸다.

“어, 음, 삼촌 내가 미안.”

“…미안한 줄 알면 어서 낫기나 해.”

“근데 진짜 삼촌이 울 줄은 몰랐어.”

“내가 언제 울었다고!”

괜히 아닌 척 목소리를 높이는 크리스의 모습에 아나샤는 작게 킥킥거렸다. 웃음소리에 조금은 둘 사이의 민망함이 풀리자 아나샤는 평소처럼 재잘대기 시작했다.

“나 다른 곳에 임무하러 간걸로 됐다며? 단장님한테 들었어. 다른 삼촌들은 의심 안 해?”

“의심은커녕, 네가 달러스에 갔을 거라곤 아예 생각도 안하던 눈치던데.”

“하긴 그렇겠지?”

“당연히 그러지. 우리 기사단에서 거기에 가고 싶은 기사가 어딨겠냐. 동료를 잃었는데.”

크리스는 착잡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그러곤 아나샤의 표정을 살폈다.

“그보다 너 이런 얘기해도 괜찮겠어…?”

“응. 이제 괜찮아.”

“너 괜히 괜찮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언제까지 그럴 순 없잖아. 리온 얘기가 나오면 화내는 것도, 피하는 것도 싫어. 그냥 마음 편하게 리온 얘기가 하고 싶어. 이제는 진짜 마음이 편해졌기도 했고.”

아마 단장님에게 털어놨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았다. 아나샤는 배시시 웃으며 크리스를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리온 얘기하자. 삼촌.”

그 말을 시작으로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레 리온에 대한 얘기로 흘러갔다. 그동안 금기시 됐던 주제였던 만큼 쌓였던 얘기 또한 많았다.

대부분 아나샤의 어린시절 얘기가 흘러나왔고, 간혹 아나샤는 모르는 리온의 얘기도 흘러나왔다.

크리스는 기사견습생 시절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리온과 처음 친해진 이야기, 처음으로 싸웠던 이야기, 화해한 날 기사단 뒤뜰에 누워 밤새도록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 아나샤는 그 따스한 추억들에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꼈다.

“너 묘지에 안간지 오래됐지?”

“응.”

“몸 다 나으면 같이 가자.”

“당연히 좋지!”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처럼 신나서 외치는 아나샤의 모습에 크리스는 피식 웃었다. 지금 상황이 낯설면서도 무척 반가웠다. 늘 이렇게 되기를 바라왔던 걸지도 모른다고 여기며 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제 쉬어. 난 갈 테니까.”

“벌써가게?”

“이미 1시간이나 지났다, 녀석아. 종종 찾아올 테니까 심심해도 좀 참아.”

그렇게 말하며 크리스는 아나샤의 머리를 한번 지그시 누르듯 문질렀다. 아나샤가 애 취급하지 말라며 눈을 부릅 치켜뜬 순간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지만…너 단장님께 잘해드려라.”

“갑자기 단장님은 왜?”

아나샤는 동그랗게 눈을 떴다가 뒤늦게 이해했다. 하긴 단장님이 편의를 봐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치료를 받고 편히 요양을 할 수도 없었을 테다. 한턱 크게 쏘는 걸로는 모자랄 지경이었다.

“삼촌이 말 안 해도 나 단장님께 잘하거든? 내가 언제 우리 단장님 실망시킨 적 있어? 오히려 기사단에서 가장 총애 받는 부하가 난데!”

“그래그래. 네가 어련히 잘하겠지.”

콧방귀까지 뀌어대는 자부심어린 얼굴에 크리스는 질린다는 양 걸음을 옮겼다. 그대로 나갈 것처럼 문을 연 그는 고개를 돌려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너무 좋아하진 말고.”

“뭐래.”

“녀석아 알았어, 몰랐어? 적당히 좋아하라고. 내가 안보는 것 같아도 다 지켜보고 있어.”

엄한 충고처럼 몇 번이나 말을 반복하고서야 크리스는 방을 나갔다. 아나샤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잠시 문을 쳐다보다가 단장님은 언제 오실까 생각하며 빈둥거렸다.

아나샤는 낮은 빗소리에 잠에서 깼다. 창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샤 경.”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아나샤는 졸린 눈을 비비며 침대 옆을 보았다. 의자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던 건지 그는 책을 내려놓은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금 몇 시예요?”

“다섯 시입니다.”

창밖이 흐려 순간적으로 새벽인가 싶었지만 그가 있는 것을 보니 오후인 모양이었다.

점심을 먹고 그와 한참동안 떠든 것까진 기억이 났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잠깐 졸려 헤드보드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가 그대로 잠들어버린 모양이었다.

잠든 자신을 편하게 눕혀주고 이불을 덮어준 사람이 누군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고마워요.”

아나샤는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히 잠에서 깨기 위해 깜빡깜빡 눈을 감았다 뜨길 반복하던 그녀는 뒤늦게 말을 이었다.

“다 나으면 진짜로 크게 열 번 쏠게요.”

그 말을 예상했다는 듯 리히르트는 덤덤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열 번도 넘게 들은 말이었고, 그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던 리히르트였으나 이번에는 달랐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그대에게 무언가를 원해서 베푼 게 아니듯이 그대도 저에게 무언가로 갚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요. 사람이 받았으면 돌려줄 줄도 알아야하는 거잖아요. 물론…제가 엄청난 무언가를 해드릴 순 없겠지만요. 조금이라도 뭘 해드리고 싶어요.”

식사라도 한턱 크게 쏘게 해달라며 아나샤가 재차 말했으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내저었다. 그러곤 차분하게 제 말을 이을 뿐이었다.

“그대가 건강해진 걸로 대신 받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나샤는 작게 툴툴댔다. 예전의 단장님은 정 없는 무뚝뚝한 사람 같았는데, 이제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무한으로 정을 퍼주고 있었다. 너무 일방적으로 듬뿍 퍼줘서 문제일 만큼.

“단장님은 사람이 좋으시니까 그걸로 된다고 쳐도 저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어떻게 입 싹 닦고 넘어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후, 역시 안 되겠어요. 양심이 콕콕 쑤셔서 편히 못 쉬겠어요.”

“…한번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고민하는가 싶더니 그가 말했다. 아나샤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역시 무른 단장님이었다. 확답에 이제야 만족스럽다는 양 아나샤는 홱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엄청 맛있게 잘하는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웃음기가 담긴 낮은 목소리가 허밍처럼 잔잔했다. 그는 조용히 손을 움직였다. 고개를 돌리고 있는 아나샤의 자세에 맞게 베개를 고쳐주며 그녀가 편히 벨 수 있게 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물론 편해요. 고마워요.”

아나샤는 그와 마주하고 있던 눈동자를 슬그머니 천장을 향해 굴렸다. 단장님과 계속 눈을 마주한다면 아마 심장이 조금 떨릴 것 같았다.

아나샤는 이것이 특별한 감정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보기 드문 아름다운 외모에다 모든 말과 행동이 다정하신 단장님이었다. 거기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몸에 배여 있어 괜스레 사람을 설레게 만들었다.

한동안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간질간질한 기분에 입술을 오물거리던 아나샤는 뒤늦게 한숨을 내쉬었다.

“단장님은 뭐랄까…, 너무 친절하세요. 저야 단장님이 원래 이렇게 천성이 좋으신 분인걸 아니까 그러려니 해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안할 수도 있다구요.”

“...”

“좋은 행동인 건 알지만요. 너무 좋아서 탈이라고 해야 될까, 음…어떻게 설명하면 좋을,”

“아샤 경.”

횡설수설하던 아나샤는 그의 나직한 부름에 고개를 돌렸다.

“좋아합니다.”

눈이 마주친 순간 그는 흐트러짐 없는 평이한 어조로 말했다. 듣는 아나샤조차 순간 그가 정말 대수롭지 않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 여길 정도였다.

“어..., 네?”

아나샤는 뻐끔뻐끔 입을 벌렸다. 당혹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만 크게 뜨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던 리히르트는 다시금 잔잔히 제 말을 이었다.

“깊은 뜻은 없습니다. 그저 이 말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아나샤는 눈을 느리게 두 번 깜빡였다. 순간 남녀 간에 할법한 사랑고백이 아닌가 싶었지만 담담해 보이는 단장님의 모습을 보니 그건 아닌 모양이었다.

아나샤는 빠르게 당혹감을 떨쳐내었다. 언제 크게 놀랐냐는 양 입가에 방긋 미소까지 띠었다.

“저도 단장님이 좋아요. 애초에 단장님처럼 좋으신 분을 싫어할 사람이 어딨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걸요?”

장난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으나 아나샤는 자신도 모르게 속으론 깊게 안도하고 있었다. 쿵쾅거리던 심장은 겨우 진정되어 있었다.

일주일 넘게 묽은 유동식만 먹던 아나샤는 이제는 가볍게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었다.

매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하루 세끼 건강식을 챙겨먹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아나샤는 이제껏 자신이 끼니마다 먹은 유동식에 그녀의 한 달치 봉급과 맞먹는 값비싼 식재료가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아나샤의 몸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자 리히르트는 기사단으로 출근을 시작했다. 모든 업무를 자택에서 처리하는 식으로 출근을 미뤄왔지만 그 방식에도 한계가 있던 것이다.

그가 기사단에 가있는 동안에는 아나샤는 따분하게 창밖을 구경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 생활을 한지 사흘째였다. 찾아온 깜짝 방문객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루시였다.

“세상에, 루시! 정말 루시예요?”

긴 금발머리를 가지런히 묶은 채 차분한 녹색 원피스를 입은 루시는 전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해진 모습이었다. 금방이라도 벌떡 일어날 것처럼 반가워하는 아나샤와는 달리 루시는 그녀를 보자마자 깊게 안도부터 했다.

“걱정했어요, 아샤. 정말로.”

루시는 의자에 앉자마자 아나샤의 손을 붙잡은 채로 눈시울을 붉혔다.

“몸은 괜찮은 거죠? 그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걱정 많이 했어요. 혹시라도 못 깨어났을 까봐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그날은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린다고 했는데 그렇게 쓰러져버리기나 하고...”

“아니에요, 사과는 제가 해야죠! 저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아샤에겐 얼마나 큰 빚을 진건지 모르겠어요.”

“빚이라뇨. 제가 멋대로 끼어들어서 다친 것뿐이에요. 루시가 책임을 느낄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절 대신해서 다친 거잖아요.”

울먹임이 담긴 목소리에 아나샤는 난처한 미소를 띠었다. 루시가 본인의 탓이라 여기고 슬퍼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틀려요, 루시. 사실 원래 제가 막았어야하는 일인데…제가 못 막아서 하마터면 루시가 다칠 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책임인 거죠. 애초에 처음부터 약속했잖아요. 한명도 다치지 않게 지켜드리겠다고요.”

좀 더 씩씩해 보이려는 듯 아나샤는 부러 허리를 세운 채 당당하게 말했다. 물론 얼마못가 배가 욱신거려 다시 편하게 기대야했지만 말이다.

“그리고요. 흠, 사실은요. 부끄럽지만…어릴 적에 로망 같은 게 있었어요.”

루시가 의문을 띤 얼굴로 바라보자 아나샤는 뺨을 긁적였다.

“그,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몸을 던져 구하는 상상 같은 거요. 많이 했었거든요. 소설 속에 나오는 영웅같고, 얼마나 멋져 보일까 하고...”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아나샤는 발갛게 볼을 물들였다. 쑥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에 루시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요. 웃긴 거 알아요. 루시.”

“흠흠, 아니에요. 웃긴 건 아니고 뭔가 귀여워서.”

“웃어도 돼요. 어차피 어릴 때의 로망이었는걸요. 어릴 때는 누구나 그런 멋진 상상 같은 거 하잖아요.”

“아샤도 충분히 소설 속 영웅처럼 멋있어요. 거기다 귀엽기까지 하구요.”

“…놀리지 마세요. 루시.”

토라진 것 같은 말투에 루시는 속으로 웃음을 삼키느라 애를 먹어야했다.

“그보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음? 아샤가 먼저 저를 찾은 게 아니었어요?”

루시의 말에 아나샤는 무슨 말이냐는 듯 휘둥그레 눈을 떴다. 이에 루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을 얘기해주었다.

“아샤를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할지 몰라서 소식을 기다리고만 있었는데, 이곳 공작가문의 집사님이 먼저 저를 찾아오셨어요. 아샤 얘기를 듣고 바로 수도로 온 거예요.”

아나샤는 문득 예전에 단장님과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루시와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혹시 연락할 수 있다면 자신은 괜찮다고 얘길 전하고 싶다고 얘기했던 것이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다.

잊지 않고 정말 루시와 만날 수 있게 해준 단장님의 배려에 아나샤는 작은 감동을 느꼈다. 애꿎은 입술만 꾹꾹 깨물다가 아나샤는 입을 열었다.

“맞다, 이걸 가장 먼저 물어봤어야했는데. 다들 무사히 잘 지내는 거죠?”

“감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다친 곳 없이 무사해요.”

루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사실, 그 전투가 있고나서 다들 며칠간은 많이 불안해했었어요. 당장 머물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했죠. 근데 기사단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빠르게 기운 차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다른 영지에 정착해있을 거라며 루시는 덧붙여서 얘기해주었다.

“동생에게 아샤를 보러 간다고 얘기했더니 자기도 가겠다는 거 있죠? 말리느라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에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저 혼자만 왔고요.”

루시는 웃음을 삼키고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소식을 말하자면요. 다 나을 때까지 여기서 지낸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같이 머무르려고요.”

“정말요?”

“네. 집사님이랑 얘길 나눴는데 제가 원하면 여기서 시녀로 일해도 된다고 하셔서요.”

아나샤는 거의 기쁨의 비명을 지르기 직전이었다. 그녀의 모습에 루시도 더욱 짙은 미소를 입가에 지었다. 마치 동생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한 언니 같은 모습이었다.

“아샤도 자주 볼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물론 동생에게는 이미 허락을 받았고요.”

“정말 잘됐어요, 루시! 그럼 하루 종일 저랑 있어줘요. 네? 저 진짜 심심했거든요.”

“물론이에요. 벌써부터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 리히르트는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위해 저택을 나섰다. 마차에 오르기 전 그는 습관처럼 저택의 한곳을 응시했다.

“단장님!”

동시에 기다렸다는 양 밝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리히르트는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는 아나샤와 눈을 마주쳤다. 먼 거리였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쩐지 유독 선명하게 보였다.

그녀의 표정 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와는 달리 아나샤는 하품까지 하며 느긋하게 그를 내려다보았다.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너무 먼 거리라 아나샤는 거의 외치다시피 말해야했다. 직접 내려가서 배웅해주고 싶어도 내려가기가 힘드니 매일 이렇게 창문 앞에서 배웅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요! 아침 안 드셨죠? 점심은 거르지 말고 꼭 드세요! 그리고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리히르트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였다. 어느새 그의 입가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피어올라있었다.

이윽고 그가 탄 마차가 저택을 떠나가자 아나샤도 침대로 돌아왔다. 다시 단잠에 빠져들기까지 몇 분도 걸리지 않았다.

아나샤는 느리지만 조금씩 재활운동을 시작했다. 배의 상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방 안을 걷는 것이 다였지만 확실히 효과는 있었다.

이제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가능해지자 아나샤는 대부분의 시간을 저택 후원에서 보내었다. 주로 루시와 같이 산책을 하거나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시간을 때웠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떻게 안 것인지 시녀들이 돗자리와 쿠션, 차와 피크닉용 간식거리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돼요! 물론 감사해요.”

“저희에게 일일이 감사인사를 하실 필요 없으세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루시를 통해서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시녀 하나가 예의바른 미소를 띠며 말했다. 시중을 드는 일을 하면 했지, 시중을 받는 일에는 어색한 아나샤는 고개만 끄덕이며 마주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럼 편히 쉬세요.”

곧 시녀들이 물러나자 아나샤는 그제야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어떻게 이 저택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 친절한 건지 모르겠어요. 단장님의 사람들이라 그런가…다들 단장님 닮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익숙한 손길로 차를 따른 루시는 아나샤에게 찻잔을 건네주었다. 그러곤 쿠키를 오독오독 씹으며 이어 말했다.

“아샤가 미래에 공작부인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요.”

“쿨럭, …제가요?”

당연한 듯한 그 말에 아나샤는 되레 놀라 하마터면 사레에 들릴 뻔했다. 루시는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결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은 딱히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기사단 때문에요?”

“음. 그것도 그거지만 뭐랄까, 결혼은 귀족들에게 중요한 거지 저 같은 사람들에겐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후계를 낳아서 이어야할 가문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아나샤에게 있어 결혼은 조금 먼 나라 사람의 얘기인 것이다.

“그보다 루시. 공작부인 얘기는 농담인거죠? 아까는 너무 놀라서 못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좀 웃기네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 소리였어요.”

아나샤는 해괴한 소리라도 들은 사람처럼 눈을 휘둥그레 떴다. 설마 진심으로 한 얘기일 줄은 상상도 못한 얼굴이었다.

“단장님이랑 제가요? 에이, 루시. 제가 어떻게 공작부인이 돼요. 애초에 공작부인이라고요! 그런 자리엔 단장님처럼 반짝반짝하고 고귀한 느낌의 귀족여성분이 어울리…,”

“무슨 소리에요. 아샤!”

옆에서 크게 들려온 목소리에 아나샤는 입을 다물어야했다.

“공작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애인이 그런 말을…,”

순간 스치듯이 들린 이상한 단어에 아나샤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3초정도 곱씹다가 황급히 루시를 돌아보았다.

“잠깐! 잠깐만요! 애인이요? 저랑 단장님이요?”

“설마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루시.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루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강하게 고개를 내젓는 아나샤를 보니 정말 아닌 것도 같았다.

“하지만 애인이 아니라고 하기엔…,”

루시는 당연히 두 사람이 애인사이일 거라 짐작해왔었다.

달러스에서 홀로 아나샤를 찾으러온 그를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처럼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사내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단장님이 워낙 부하인 저한테 잘해주셔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럼 짝사랑이신 건가?’

아샤는 모르는 것 같지만 일단 공작님 쪽은 확실하다고 루시는 생각했다. 애당초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아나샤부터 만나러 오는데 사랑이 아닐 리가 없는 것이다.

“단장님은 정말 성격이 좋으시거든요. 처음엔 조금 무뚝뚝해 보일 순 있는데 알고 보면 진짜 상냥하시다니까요. 배려심도 얼마나 깊은지!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짝사랑이 맞는 건가…?’

루시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다시 생각에 빠져야만 했다. 이쪽도 만만치 않게 좋아하는 것 같았으니 말이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무척이나 빠르게 흘러갔다.

아나샤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배를 바라보았다. 실밥을 제거한 이후로 흉터만 남아있을 뿐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있었다. 왼손도 이제는 부목을 댈 필요가 없어 깁스를 푼 상태였다.

물론 임무를 하거나 무거운 걸 드는 건 힘들겠지만 아나샤는 이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겼다.

장기임무를 나간 걸로 되어있다지만 너무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는다면 삼촌들의 의심을 살게 뻔했다. 지금도 크리스 삼촌을 통해 듣기론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무슨 임무이기에 안돌아 오냐며 다들 걱정하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더 이상 요양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전체적으로 몸 상태가 좋았다. 물론 천천히 재활훈련을 시작해야겠지만 말이다.

“아샤,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와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맞춰 아나샤는 들추고 있던 상의를 잽싸게 아래로 내렸다. 루시는 리본이 묶인 상자를 들고서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뭐예요? 그건?”

“별건 아니고 아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원피스 한 벌 샀어요. 내일 가는 거죠? 내일 갈 때 이거 입고 가요.”

“루시...”

“괜찮은지 한번 봐봐요.”

상자를 침대위에 내려놓고서 루시는 곧바로 그 자리에서 리본을 풀어 상자를 열었다. 그러곤 밝은 노란색의 원피스를 꺼내들어 아나샤의 몸에 대보았다. 허리 뒷부분에는 긴 끈이 달려있어 리본을 묶을 수 있는 귀여운 원피스였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당장 입고 싶을 정도로요! 고마워요, 루시... 정말 감동이에요.”

“건강해진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아샤에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샀는데 마음에 들어 해서 다행이에요.”

아나샤는 그대로 루시를 와락 끌어안았다. 언니처럼 매일 옆에서 챙겨주던 루시와도 이젠 떨어져야한다는 사실에 아나샤는 살짝 울상을 지어보였다.

“고마워요, 정말로요... 그리고 종종 보러올게요.”

“아샤도 참, 멀리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제 동생보다 더 하다니까요.”

작게 웃음을 터뜨린 루시는 그대로 아나샤를 꼬옥 안아주었다.

“언제든 와요. 기다릴게요. 그리고 기사단에서 무리하지 말고, 밥 잘 챙겨먹고요.”

루시는 공작가에서 계속 시녀로 일하기로 결정한 상태였다. 높은 봉급에 숙식까지 제공해주니 그녀에게 있어선 이보다 좋은 일자리도 없었다.

다음날, 아나샤는 루시가 선물해준 원피스를 입었다. 허리 뒤에 리본은 루시가 직접 매주었다. 아나샤는 거울 앞에 섰다. 무릎 위에서 둥글게 퍼지는 노란 빛깔의 치맛자락이 예뻐 괜히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기까지 했다.

날아갈 것처럼 좋아하는 아나샤의 모습에 루시도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생기가 가득한 모습이 진심으로 보기 좋다는 듯이 말이다.

열린 창문 밖으로 말들의 투레질 소리가 들려오자 루시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택의 정문 앞에 마차가 준비된 게 보이자 루시는 곧바로 아나샤를 이끌었다.

“이제 내려가요. 아샤!”

방을 나서기 전 아나샤는 방 풍경을 한번 돌아보았다. 다시 기사단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뜨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그동안의 꿈같았던 호화로운 요양생활도 이제 끝이구나 싶은 것이다.

“이게 누구야!! 아샤!”

“뭐야! 언제 온 거야? 이 녀석아!”

“아샤 돌아왔대요!!”

“아샤가 왔다고?! 어디?!!”

황실 제5기사단에선 작은 소란이 일었다. 다름 아닌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난 아나샤 때문이었다.

“말도 없이 임무 나가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맞다, 맞아! 무슨 임무가 한 달씩이나 걸려. 그동안 얼굴보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잔소리였지만 기사들의 얼굴에선 저마다 안도감과 반가움을 숨길 수 없었다.

아나샤는 이 왁자지껄한 분위기가 너무 그리웠다는 듯이 숨죽여 웃었다. 그러곤 더 긴 잔소리가 쏟아져 나오기 전에 먼저 선수 칠 생각으로 입을 열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다들.”

“아구, 이뻐죽겠네. 녀석!”

“야야, 아샤 찌그러지겠다!”

“마브릭! 네 덩치를 생각하라고!”

난장판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유유히 빠져나온 아나샤는 다른 기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엘빈을 비롯한 젊은 기사들과 그나마 얌전한 인사를 주고받고서 아나샤는 떠오르는 한사람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기사단 본관건물의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오르는 동안에도 마음이 설레어 절로 발걸음이 빨라졌다. 아나샤는 부풀어 오르는 마음을 계속해서 억눌러야했다.

이윽고 도착한 문 앞에서 한번 심호흡을 하고서 아나샤는 문을 열었다.

“단장님, 저 복귀했습니다!”

기세 좋게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의 모습에 리히르트는 하던 업무를 멈추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샤 경.”

이미 아침에도 봤다지만 두 사람은 오랜만에 봐서 반가운 사람들처럼 미소를 띠었다. 리히르트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러곤 먼저 응접용 소파로 걸음을 옮겼다.

차를 마시자는 것으로 알아들은 아나샤는 곧바로 그를 따라 소파에 앉았다. 익숙한 소파의 감촉에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도 잠시, 아나샤는 테이블 위에는 놓인 큰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열어보십시오.”

“정말 제가 열어봐요? 단장님거 아니에요?”

“아샤 경 앞으로 온 것입니다.”

리히르트는 고개까지 한번 끄덕여보였으나, 아나샤는 좀처럼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귀족인 단장님 앞으로 온 거면 몰라도 자신의 앞으로 온 것치곤 과할 정도로 질이 좋은 상자였다.

광택이 흐르는 고급상자의 뚜껑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간 아나샤는 꿀꺽 침을 삼켰다. 상자 뚜껑을 들어 올리자 안에는 믿기 힘든 물건이 들어있었다.

황실소속 기사만이 입을 수 있는 금수가 놓인 새하얀 제복이 반듯하게 개여 있었다. 아나샤가 눈을 크게 뜬 채 영문을 모르겠다는 양 리히르트를 쳐다보자 그가 입을 열었다.

“제복 밑에 문서가 하나 있을 겁니다.”

“…어, 어…네, 있어요.”

아나샤는 주섬주섬 옷 아래에 놓인 양피지를 펼쳤다. 금색의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양피지 중앙에는 몇 줄의 글이 적혀있었다.

“아샤 라이나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라이나의 성을 정식으로 인정한다...”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아나샤는 자신이 무엇을 읽고 있는지 모를 지경이었다. 멍한 얼굴로 문서를 보다가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그를 보았다.

마치 이게 뭐냐는 듯이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에 리히르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술을 뗐다.

“황실에서 이번 임무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라이나 라는 성의 기사작위를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문서입니다.”

차분하게 설명해주는 목소리를 들으며 아나샤는 잠시 숨까지 멈춰야만 했다. 뒤늦게 아나샤는 입을 떡 벌리고 외쳤다.

“세상에! 말도 안돼요!”

아나샤는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재차 문서와 제복을 번갈아 보았다. 이상했다. 분명 엄청나게 기쁜 일인데 도저히 환하게 웃을 수가 없었다.

아나샤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너무 행복해서 울 것도 같다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분명 이상한 표정일 거라 여기며 아나샤는 뒤늦게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저 진짜, 너무 행복해요. 어떡해요, 단장님.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걸까요... 혹시 꿈은 아니겠죠?”

“꿈이 아닙니다.”

“정말이죠?”

“네. 믿어도 됩니다.”

아나샤의 진지한 말에 리히르트는 잔잔한 웃음기를 드러내며 확신을 담아 얘기해주었다. 그의 차분함이 옮았는지 아나샤는 서서히 마음이 차분해짐을 느꼈다.

“저요. 앞으론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비장한 각오처럼 얘기한 아나샤는 그대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러곤 제복 상의를 꺼내들어 품에 끌어안았다.

“저, 이따가 다시 올게요! 미안해요, 단장님! 이것 좀 맡아주세요!”

해야 할 일이 떠올랐다는 듯이 아나샤는 곧바로 단장실을 벗어났다. 그리고 한참을 달려 연무장으로 향했다.

“삼촌!”

검을 휘두르고 있는 크리스가 보이자 아나샤는 바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러곤 크리스가 검을 내려놓기도 전에 그의 팔을 붙잡고 무작정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삼촌, 가자! 빨리!”

“갑자기 어딜? 일단 검 좀 집어넣자, 녀석아…!”

“리온한테 자랑하러!! 나 제복 받았어! 황실에서 나랑 리온을 인정해준 거야!”

“뭐?! 그게 진짜야!”

크리스의 큰 목소리에 근처에서 훈련 중이던 기사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로 쏠렸다. 아나샤는 보란 듯이 하얀 제복상의를 펼쳐보였다. 한동안 훈련도 잊은 채 연무장에서는 떠들썩한 축제분위기가 이어졌다.

지급된 황실기사단 제복은 다행히 아나샤에게 딱 맞았다. 바지는 타이트하면서도 신축성 있는 소재였고, 금단추가 달린 제복코트는 허리와 상체의 폼을 줄여 적당히 라인이 들어가 있었다. 장검까지 차고 다닌다면 폼이 날 것 같은 모습이었다.

아나샤는 매일같이 제복을 입고 다녔다. 아직 두 벌밖에 없었기에 하얀 옷감에 혹시라도 때가 탈까 조심하며 말이다.

“거기 아샤 경! 어디 가십니까?”

“제복이 아주 잘 어울리십니다! 아샤 경.”

“…삼촌들, 또 놀리는 거지?”

그리고 기사들은 아나샤를 볼 때마다 ‘아샤 경’이라고 꼬박꼬박 호칭을 붙여서 불러댔다. 그럴 때마다 아나샤는 자신을 놀리는 거냐며 투덜댔지만 내심 속으로는 뿌듯해했다.

자신도 이젠 당당히 경의 호칭을 달게 됐으니 말이다!

“아샤 경. 심심하면 연무장에 놀러와!”

“알겠어!”

아나샤는 삼촌들을 향해 손을 한번 흔든 뒤 본관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기사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대견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주 행복해보이네.”

제복을 받은 뒤로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는 아나샤였다. 기사들은 아나샤가 장기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쳐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 조그맣던 것이 이제는 황실에서 최초로 인정받은 첩자가 되었다. 이 성장이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진즉에 제복 좀 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말이야.”

“요만할 때부터 제복 입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얼마나 좋겠어. 녀석...”

“리온이 지금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해할까.”

“뿌듯하기만 하겠냐. …울고도 남지.”

리온 얘기에 기사들은 아련한 기분에 젖어들었다. 한동안 덩치에 맞지 않게 시큰한 코를 문지르던 그들은 훈련시작을 알리는 소리에 연무장으로 터덜터덜 걸음을 옮겼다.

아나샤는 단장실에서 그의 업무를 돕고 있었다. 임무를 맡을 수도 없어 한가한데다, 마침 리히르트의 일도 많아 보이니 옆에서 도와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넓은 업무책상 끝에 의자를 하나 더 놓고서 아나샤는 그가 처리한 서류를 분류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단장님. 이번 휴일에 시간 되세요?”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펜촉 아래 써내려지던 글씨가 순간 옆으로 살짝 삐져나갔다. 리히르트는 종이에서 펜촉을 떼어내며 그녀를 돌아보았다.

“…일정은 없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럼요. 휴일에 점심 같이 먹어요.”

“점심 말입니까?”

“네. 저번에 제가 한턱 크게 쏜다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죠?”

리히르트는 고개를 살짝 끄덕여보였다.

“단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먹고 싶은 걸로 고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드리는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단장님이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어요.”

음식 취향을 알려달라며 아나샤가 제법 강경하게 나오자 리히르트는 곤혹스러운 기분을 느꼈다. 아무리 고민해 봐도 딱히 취향이라고 여긴 음식이 없었던 탓이다. 그런 그의 고뇌의 흔적을 잽싸게 캐치한 아나샤는 그와 같이 고민에 빠졌다.

“음… 그럼 맛있게 먹었던 음식 같은 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거라도 없어요?”

“기억에 남는 거라면, 예전에…”

리히르트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먹는 것은 먹는 것인데 요리는 아니니 이것을 말해도 될지 고민되었다. 그러나 제 대답을 기다리듯 반짝이는 그녀의 눈과 마주한 순간 고민을 깔끔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

“먹었던 사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사과요?”

정말이지 예상외의 답변이 아닐 수 없었다.

“음. 사과라...”

더더욱 그의 음식취향을 알 수 없다는 듯 아나샤는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을 했다.

“사과로 만든 요리가…없겠죠? 사과파이나 사과케이크 같은 달달한 디저트는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냥 사과는 따로 후식으로 먹어요.”

“알겠습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미안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마음씨가 고울 수가 없었다. 새삼스럽지만 오늘도 단장님의 인품에 감탄하며 아나샤는 다시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보다 단장님이 사과를 좋아하셨다니, 정말 몰랐어요. 지금은 사과철이 지나서 사과를 팔지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사과철일 때 많이 가져다드리는 건데…,”

아나샤는 문득 스치듯 떠오른 기억에 눈을 한번 깜빡였다. 그러고 보니 오래전에 그의 책상 위에 사과를 몰래 올려놓고 간 적이 있었다. 물론 들켰지만 말이다. 그때가 사과철일 때라 사과가 무척 맛있어서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갔던 기억이…,

“아,”

아나샤가 순간적으로 따가운 느낌에 손끝을 내려다보았다. 종이 끝에 손가락이 베였는지 작게 핏방울이 배어나오고 있었다.

“아샤 경, 괜찮습니까?”

“별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 베인 것뿐이에요.”

“피가 나지 않습니까.”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든 리히르트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아나샤는 어정쩡하게 그에게 손만 내민 채 그를 올려다보았다.

비스듬히 내리깔린 벽안은 제 손 끝에 머물러있었다. 그는 세심하다 못해 정성스럽게 느껴지는 손길로 손가락 끝에 손수건을 감아주었다. 어쩐지 내려다보는 얼굴엔 서운한 기색마저 어려 있는 것 같았다.

“의무실에 가서 약을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고작 종이에 베인 거라서 그렇게 까진 안 해도...”

“그럼 제가 가서 약을 가져오겠습니다.”

“아뇨! 그냥 제가 갔다 올게요!”

아나샤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말 그가 나가기 전에 먼저 선수 치듯이 단장실을 빠져나왔다.

“금방 다녀올게요!”

문을 닫은 아나샤는 바로 움직이지 않고 잠시 제자리에 멈춰 섰다.

아나샤는 제 손을 내려다보았다. 정확히는 손가락에 둘둘 감긴 손수건을 말이다. 상처 때문에 따끔거려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간지러운 기분만 들었다.

‘에이, 그럴 리 없겠지.’

그가 살면서 먹어본 사과가 한두 개도 아닐 테고, 설령 그날 먹었던 사과가 기억에 남을 만큼 유독 맛있었다고 해도 그건 자신 때문이 아니라 사과철이었기 때문일 테다.

아나샤는 빠르게 머릿속에서 사과에 관한 기억을 떨쳐냈다. 그러지 않는다면 간질거림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손가락을 얕게 베였을 뿐이었지만 아나샤는 일을 쉬라는 명령을 받았다. 서류를 정리하는 일조차 하지 못하게 되자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빈둥대는 것밖에 할일이 없었다.

물론 업무도중에 종종 다과시간을 가지는 단장님 덕분에 심심하지는 않았지만 말이다. 평소라면 마냥 즐거웠을 다과시간이었겠지만 아나샤는 현재 아무 말이 없었다.

아나샤는 포크로 애꿎은 케이크를 콕콕 찌르기를 반복했다. 크림 겉면에 구멍이 늘어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던 리히르트는 한참 뒤에 운을 뗐다.

“아샤 경.”

“네, 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아나샤는 고개를 들어 그를 마주보았다. 걱정스러운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그의 시선이 다정해서 아나샤는 슬그머니 눈동자를 옆으로 굴렸다.

“어, 고민 있어 보였어요?”

“요즘 생각에 잠기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말에 뜨끔한 아나샤는 포크를 내려놓고 미지근하게 식은 차를 마셨다.

“도움이 될진 모르겠으나, 털어놓을 상대가 없다면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고민은 없어요. 고마워요, 걱정해줘서요.”

아나샤는 배시시 웃으며 테이블 밑에 둔 손을 꼼지락거렸다.

아마도 그에게서 사과 얘기를 들은 날부터일 것이다. 그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겠지만 아나샤는 드문드문 그 말이 떠올랐다.

그래서 일까. 그 후로 그와 단둘이 있을 때면 묘한 긴장감에 마음이 들뜨기 일쑤였다. 그는 평소와 같이 자신을 대해주는데, 자신은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평소처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대체 왜 이렇게 의식이 되는 거냐고…!’

아나샤로서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다.

그의 친절한 행동 하나하나를 의식을 하지 않으려할수록 더 의식이 되었다.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이 특별하기에 이렇게 잘해주는 게 아닌지 하고 말이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건 아나샤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사실이었다.

부하로서 특별히 애정 하는 것이면 몰라도, 아름다운 귀족아가씨들이 수도에 널려있는데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귀족아가씨와 결혼할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이어가던 아나샤는 뒤늦게 그의 시선을 알아차리고 퍼뜩 상념에서 깨어났다. 생각을 들킨 것처럼 괜스레 두 뺨이 화끈거렸다.

“맞다. 저, 그…약속이 있어서요! 이제 가볼게요. 케이크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나샤는 애써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빠르게 소파를 돌아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전에 나직한 목소리가 발목을 붙잡았다.

“이번 주 휴일 말입니다.”

아나샤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머뭇거리듯 잠시 입을 다문 그가 이윽고 입술을 떼었다.

“혹시라도 잊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당장 이틀 뒤가 휴일인데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다. 언제 어디서 만날 건지, 무엇을 먹을 건지도 말이다.

“…그 미안해요. 단장님. 혹시 약속 나중으로 미뤄도 될까요?”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으며 그의 얼굴을 살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담담한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그는 느리게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 모습이 꼭 실연이라도 당한 사람처럼 애처로워보여서 아나샤는 황급히 그에게서 시선을 뗐다.

“아무튼 죄송해요!”

대체 무슨 깍지가 씌인 건지 모르겠다고 여기며 아나샤는 도망치듯이 단장실을 벗어났다.

자리를 피한 것까진 좋았지만 나온 후에도 마음은 편치 못했다. 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기 때문이다.

‘맛집 가는 거 기대하고 계셨던 거면 어쩌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틀을 앞두고 상대가 갑자기 약속을 미룬다면 자신이라도 실망스러울 테다. 착한 단장님은 조용히 납득해주었다지만, 자신이라면 왜 약속을 미루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갑자기 양심이 콕콕 찔려왔다.

‘그냥 다시 휴일에 만나자고 할까…? 그치만 단장님이랑 단둘이 있기엔…아, 그럼 한명 더 부를까?’

이런저런 생각을 이으며 아나샤가 막 본관건물을 빠져나온 순간이었다.

“혹시 아나샤 라이나 경 되십니까?”

아나샤는 그제야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발견하곤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맞다고 대답하자 곧 그가 정중한 자세를 갖춰 인사했다.

“황녀전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황녀님께서 자신을 보기 원한다는 말에 아나샤는 곧바로 그를 따라 마차에 올랐다. 황녀궁에 도착한 아나샤는 안내를 받아 익숙한 방 앞에 도착했다.

응접실 안에는 엘리시아가 차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옆에서 차를 따르며 시중을 들고 있던 시녀 로니는 안으로 들어선 아나샤를 발견하고는 놀란 듯 눈을 키웠다.

“사샤…?”

한 달간 자리를 비웠던 막내시녀가 황실 기사제복을 입고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

“오랜만이에요.”

아나샤는 제게서 떨어질 줄 모르는 로니의 시선에 어색하게 웃으며 엘리시아를 향해 걸어갔다. 이윽고 그녀 앞에 멈춰선 아나샤는 한쪽 무릎을 꿇고 예를 갖췄다.

“아나샤 라이나, 황녀님을 뵙습니다.”

“어서 와요. 라이나 경.”

엘리시아는 웃으며 그 인사를 받아주었다. 그러곤 곧바로 시녀를 밖으로 물리고선 아나샤가 편히 자리에 앉도록 했다.

“먼저 찾아뵙어야하는 건데 죄송해요.”

아나샤는 제 앞에 있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먼저 말을 꺼냈다. 이에 엘리시아는 괜찮다며 고개를 내젓고는 걱정이 담긴 눈길로 그녀를 살폈다.

“크게 다쳤다고 들었어요. 다친 곳은 괜찮나요?”

“네, 보시다시피 아픈 곳 없이 멀쩡해요. 그리고 덕분에 이렇게 제복도 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서…황녀님께는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요. 아샤 경의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받은 거니까요.”

그 말에 아나샤는 수줍게 입을 다물었다. 황녀님이 이렇게까지 말해주니 몸 둘 바를 모르겠는 것이다.

“실은 사과할 일이 있어서 불렀어요. 아샤 경.”

그때, 잔잔한 침묵을 뒤로하고 엘리시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샤 경이 달러스로 출발하고 나서 웨일그레슬 공작이 이곳을 찾아왔었어요.”

“…단장님이요?”

“아샤 경을 찾기에 사실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미안해요.”

“아,아니에요! 어차피 지난 일이잖아요. 사과하실 필요 없으세요.”

아나샤는 서둘러 그렇게 얘기했으나 머릿속은 의문만이 둥둥 떠다녔다. 이제껏 작전이 모두 끝나고 나서 뒤늦게 단장님이 알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니 조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공작이 얘기해주지 않던가요?”

“네... 그보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에 엘리시아는 하는 수 없다는 양 작게 웃었다.

“아샤 경이 먼저 알아채기를 내심 기대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네요. 공작이 이제껏 계속 이곳을 찾아온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암살자에 대한 보고를 하러 온 게 아니었나요…?”

“그건 어디까지나 방문하기 위한 구실이었죠. 보고는커녕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나샤는 그녀가 무얼 말하려는 건지 알 수 없어서 눈만 동그랗게 뜬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엘리시아는 여전히 조용히 웃으며 차를 한번 들이켰다.

“저는 아샤 경을 보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아샤 경은 공작이 싫은 건…절대 아닌 것 같고, 한 번도 연애상대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걸까요?”

엘리시아는 순수한 궁금증을 드러내며 아나샤를 응시했다. 그런 자각이 아예 없다고 하기엔 아나샤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있었다. 콕 찌르면 터질 것처럼 말이다.

“여,연애상대라뇨. 제가 어떻게 단장님이랑 여,연애 같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어째서요?”

“그야, 단장님은 공작님이신데 제가 어떻게…아니, 그전에 진짜 절 좋아하시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나면 귀족사회에서 안 좋게 본다거나…,”

그 순간 들려온 맑은 웃음소리에 아나샤는 허둥지둥 말을 잇던 것을 멈추고 엘리시아를 바라보았다.

“그가 그런 걸 신경 쓸 남자로 보이던가요? 아샤 경은?”

정말이지 즐거워 보이는 미소였다.

“이미 아샤 경 때문에 오라버니까지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런 걸 신경 쓸 리가 없겠죠.”

“황태자 전하를요?”

“네. 아샤 경이 달러스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달러스로 떠나기 위해 오라버니에게 출정허가를 받으러갔죠.”

엘리시아의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마 몰랐겠지만, 누군가를 찾으러 작전도 무시하고 적진에 쳐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 과정에서 사령관들과 문제를 빚어서 조금 말이 나오긴 했지만.”

말끝을 흐리며 엘리시아는 손끝으로 찻잔 테두리를 쓸었다. 아나샤는 그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이어지는 말에 고개를 들어야만 했다.

“듣기로는 그렇게 영주성에 쳐들어가고 한 시간 뒤에 웬 죽어가는 부상자를 안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영지로 가서 직접 의원까지 찾아다녔다고 들었어요. 피칠갑을 한 채 영지 안을 돌아다녀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고도 요.”

멍한 아나샤의 얼굴을 바라보며 엘리시아는 살며시 눈웃음을 지어보였다.

“한동안은 저택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아서 오라버니가 직접 사람까지 보냈을 정도였어요. 듣기로는 하루 종일 부상자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

“정말이지 눈물겨운 부하애라고 해야 될지.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저, 죄송해요!”

갑작스런 외침에 엘리시아는 고개를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선 아나샤는 중요한 사실을 막 깨우친 사람처럼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다.

“급하게 가봐야 할 곳이 생각나서요! 다음에 다시 찾아봬도 될까요?”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죠. 어서 가봐요.”

“네! 진짜 죄송해요!”

허락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나샤는 서둘러 응접실을 벗어났다.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엘리시아는 조용히 숨죽여 웃었고 말이다.

기사단에 도착한 아나샤는 곧바로 단장실로 향했다.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당장 그를 봐야할 것 같았다.

“단장님!”

아나샤는 벌컥 문을 열어젖혔다. 그러나 단장실에 있어야할 그는 어디에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다. 아나샤는 비어있는 업무책상 앞을 서성이다가 잠시를 참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녁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복도 안은 한적했다. 길게 이어진 복도를 뛰어다니며 그를 찾아다니기를 이십분 째, 아나샤는 결국 지쳐 복도 중앙에 주저앉았다.

턱 끝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며 얼마나 앉아있었을까. 아나샤는 먼 곳에서 들려온 희미한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나샤는 그 발소리를 놓칠 새라 달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복도 코너를 돌자 그 너머에는 그토록 찾던 그가 있었다.

아나샤는 다시 힘껏 지면을 박차고 그에게로 달려갔다.

복도 위를 울리는 그 가벼운 발소리에 리히르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길이 아나샤에게 닿는 동시에 아나샤가 손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좋아해요!”

거의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말이었다. 갑작스레 그 말을 들은 리히르트도, 순간적으로 내뱉은 아나샤도 약속이라도 한 듯이 숨을 멈췄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아나샤는 먼저 슬그머니 그의 옷자락을 놓으며 입술을 뗐다.

“황녀님께 들었어요. 제가 달러스에 갔다는 얘길 듣고 바로 달러스로 떠나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절 의원에게 데려가줬다는 것도, 제가 눈뜰 때까지 계속 곁에 있어줬다는 것도요. 전부 듣고 엄청…많이 감동했어요.”

뜨끈뜨끈하게 열이 오르는 얼굴에 아나샤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열심히 바라보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와서 어떻게 그와 얼굴을 마주해야할지 알 수 없었다.

“…한 번도 사랑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연애감정인지는 모르겠지만...그래도 단장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요.”

“...”

“미안해요! 단장님도 저랑 같은 마음인건지 궁금해서…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다짜고짜 제 말만 한 게 아닐까. 막상 말하고 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기분만 들었다. 아나샤는 화끈거리는 양뺨을 숨기기 위해 팔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그,그게 저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진 모르겠는데, 다,다시 생각을 정리해서 올게요!”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아나샤는 황급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도망치려는 시도는 두 걸음을 떼기도 전에 무산되고 말았다.

“…좋아합니다. 아샤 경.”

뒤에서 울리는 나직한 목소리가 귓가를 간지럽혔다.

“…사랑합니다.”

아나샤는 제 몸을 뒤에서 단단히 끌어안고 있는 그의 팔에 점차 힘이 실리는 것을 느꼈다.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꽉 저를 끌어안으며 품속에 가두었다. 등 뒤에 닿은 온기가 너무 뜨거워서 이대로 녹아버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줄곧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대가 너무 좋아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다고, 그대를 잃는 것이 너무 무서웠다고... 줄곧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절절한 고백에 아나샤는 자신이 했던 말은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였다. 이제까지 그가 숨겨왔던 감정이 이토록 애절한 것일 줄은 몰랐기에 더욱 멍하기만 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의 고백을 듣고 있던 아나샤는 입술을 살짝 깨물었다. 심장은물론 온몸이 간지러운 기분이었다. 금방이라도 온 사방을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아나샤가 간질거림을 참지 못해 입술만 꾹꾹 깨물던 중, 별안간 리히르트가 포옹을 풀었다. 그러곤 작은 손을 부드럽게 그러쥐며 그녀를 자신 쪽으로 돌려세웠다.

이제야 마주친 눈에 리히르트는 쥐고 있던 손을 살짝 쥐었다놓았다.

"꿈만 같습니다. 아샤 경."

“...저도요.”

“괜찮다면 한번 더 얘기해주겠습니까?"

"무,뭘요?"

"…제가 좋다고 한번 더 얘기해주십시오.”

“…조,좋아해요.”

아나샤는 목까지 새빨개진 채로 기어들어가듯이 말했다. 하지만 아주 부끄럽지는 않았다. 마주한 단장님의 얼굴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붉었으니까.

“내, 내내일 봐요!”

짧은 눈 맞춤을 뒤로하고 아나샤는 먼저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복도에 그 홀로 남겨둔 채 잽싸게 도망갔다.

아침에 일어난 아나샤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가 이렇게 현실적일 수가 없었다.

꿈도 꾸지 않고 푹 잔 것 같은데 마치 긴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이윽고 생생히 떠오른 어제 일에 아나샤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는 비명을 내질렀다.

이불에 둘둘 말린 채로 아나샤는 좁은 침대 위를 굴러다녔다. 그리고 얼마못가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

“악!”

아나샤는 이불에서 꾸물꾸물 기어 나왔다. 이미 머리가 산발이었지만 그녀는 더욱 머리를 흐트러뜨리며 부산스럽게 방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단장님 얼굴을 못 보겠어!”

고백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다음이 문제였다. 벌써부터 홧홧 열이 오르는 얼굴을 식히기 위해 아나샤는 찬물로 세수부터 했다.

‘아냐, 이럴수록 평소처럼 행동해야 돼.’

그냥 평소대로 행동하자. 그렇게 마음을 굳히니 이 다음은 척척 진행되었다.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아나샤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앞에 서있는 시간만큼은 평소답지 않게 길었다. 혹시라도 눈곱은 끼지 않았는지, 뻗친 머리는 없는지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서야 방을 나섰다.

‘평소대로…평소대로만 하자...’

오는 동안 자기최면을 하듯이 몇 번이나 되새겼으나 막상 단장실 앞에서 아나샤는 들어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러야했다.

문 너머에 있을 그와 마주칠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쿵쾅거려 이게 떨리는 건지 무서운 건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일단 아침식사부터 하고 다시 와야겠다!’

그리고 아나샤의 포기는 빨랐다. 빠르게 몸을 돌려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문이 열렸다.

“아샤 경.”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들려온 목소리에 아나샤는 흠칫 몸을 떨었다. 아나샤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단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껏 긴장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얼굴이었다. 그래서인지 조금은 긴장이 풀렸다.

“갑자기 나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묻고 싶은 거요?”

“약속을 미루기로는 했지만, 혹시 내일 잠시라도 시간이 될까 해서 말입니다. 잠깐이라도 좋으니 제게 시간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아 맞다! 미안해요. 어제는 갑자기 미뤄서... 저 시간되니까 그럼 예정대로 내일 만날까요?”

아나샤는 미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럼 내일 기사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약속 시간은 이따가 정해요. 저는 이만 밥 먹으러 가볼게요.”

리히르트는 고개를 한번 끄덕여보였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끝마친 아나샤는 그대로 그에게서 등을 돌려 걸어갔다. 팔다리가 묘하게 삐걱거렸으나 리히르트는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뒤늦게 단장실로 들어섰다. 문을 닫기 무섭게 그의 입가에선 안도하듯 긴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평소와 같아 보였으나 자신은 그렇지 못했다. 얘기를 나누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심장이 요동쳐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으니 말이다.

어제의 일이 계속해서 떠올라 그는 밤도 지새웠을 지경이었다. 결국 한숨도 자지 않고 새벽부터 출근한 상태였다.

리히르트는 입매를 만지며 다시 표정을 가다듬었다. 애써 차분함으로 가장했지만 마음이 들뜨는 것은 막을 수 없었다.

아나샤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 서있었다. 루시가 선물해준 노란 원피스는 오늘따라 더 화사하고 예뻐 보였다. 그래서인지 머리가 아쉬웠다. 그냥 풀기엔 밋밋해 보이고, 반 묶음을 하려니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한참을 고민하던 아나샤는 서랍 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찾았다!”

맑은 푸른빛의 구슬머리핀을 꺼내든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아보았다. 조금 붉게 칠한 입술 위로 만족스러운 미소가 피어올랐다.

아나샤는 시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방을 나섰다. 기사단 앞으로 나가자 멀지 않은 곳에 세워져있는 검은색 마차가 보였다.

그녀가 걸어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확인한 리히르트는 곧바로 마차 문을 열고 내려섰다. 그는 눌러쓰고 있던 진갈색의 베레모를 살짝 위로 들어 올리고는 아나샤와 눈을 맞췄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샤 경.”

“네! 그보다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오셨네요.”

아나샤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입고 온 그를 보며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어디든 갈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 같았다. 내밀어진 그의 손을 붙잡은 아나샤는 마차에 올랐다.

소파에 앉아 편하게 등을 기대려는데 맞은편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정확히는 제 머리에 향해있는 것을 알아차린 아나샤는 작게 뺨을 긁적였다.

“맞아요. 단장님이 찾아주셨던 그 머리핀... 생각나서 하고 왔어요.”

그가 바로 알아볼 줄은 몰랐기에 괜히 낯간지럽기까지 했다. 손을 들어 머리핀만 만지작거리던 아나샤는 말이 없는 반대편을 돌아보았다. 그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숨죽여 웃고 있었다.

매끄럽게 휘어 올라간 입술에 아나샤는 심장이 쿵 떨어질 만큼 놀랐고 말이다. 리히르트는 웃음기를 조금 거두고서는 다문 입술을 뗐다.

“미안합니다. 처음 만났던 때가 떠올라서 말입니다.”

“하긴, 저희 첫 만남이 좀 강렬하긴 했죠. 그래도 워낙 위급한 상황이라 머리핀까지는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머리핀 덕분에 감옥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 것까진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 일단 광장 쪽으로 갈까요?”

민망함에 아나샤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다. 목적지를 말하자 마차는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늘에 떠있던 태양은 어느새 사라지고 환한 달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휴우, 오늘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밤바람을 맞으며 앞장서서 걷던 아나샤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두 걸음 정도 떨어져서 걷고 있던 리히르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며 동의한다는 듯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에 먹은 거 진짜 맛있었죠? 솔직히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서 배불렀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던 거 있죠?”

“저도 간만에 포식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았어요. 아까 단장님 엄청 배불러 보이셨거든요.”

어느새 긴장도 사라져 아나샤는 평소처럼 그와 편하게 떠들게 되었다.

“하루 종일 걷긴 했지만 저희 좀 더 걸을래요? 단장님 다리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그의 선선한 대답에 아나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걸음을 옮겼다. 시답잖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제법 멀리 온 것인지 강 위에 놓인 다리가 보였다.

두 사람은 거리 끝과 이어지는 다리 위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비친 불빛들로 인해 은은히 반짝이는 강은 아름다웠다. 아나샤는 강물 표면에 시선을 두고 있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걸음을 멈췄다.

“기억나세요? 예전에 여기서 단장님이 저한테 마차 양보하셨잖아요.”

“당연히 기억합니다.”

“사실 그날 테윌러한테 거절하러가던 중이었거든요.”

그를 돌아보며 아나샤는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나갔다.

“아, 테윌러가 누구냐 면요. 견습생 시절 때 저희 기사단에 있었던 친구인데 예전에 저한테 무도회 파트너 신청했다고 한…,”

조잘거리던 아나샤는 그가 걸음을 떼자 입을 다물었다. 그는 어느새 자신의 바로 앞에 다가와 있었다. 좁아진 거리에 이제 겨우 괜찮아졌다고 여긴 심장이 다시 쿵쿵 뛰기 시작했다.

“어…그때 자세히 못 물어봤는데, 강에 빠뜨렸던 서류철이요. 정말 안 중요한 거였어요?”

“네.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아나샤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필사적으로 다른 할 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도 그럴게 숨결이 의식되기 시작하자 가슴속이 간질거렸기 때문이다.

“아샤 경.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입을 연 리히르트는 살며시 시선을 아래로 내려뜨렸다. 옅은 색의 긴 속눈썹이 그녀를 담은 눈동자 위를 비스듬히 가렸다.

“그날은 경황이 없어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대의 애인이 되는 것을 허락해주겠습니까?”

마치 서약이라도 하듯이 정중한 고백이었다. 리히르트는 재촉하지 않고 그녀가 대답해주기를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뒤 아나샤는 달아오른 얼굴로 고개를 조그맣게 끄덕거렸다.

“…좋아요.”

아나샤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애꿎은 입술만 꾹꾹 깨물어댔다.

차마 눈을 마주칠 수 없어 바닥을 향해 눈을 내리깔고 있을 때였다. 아랫입술 위로 무언가가 닿자 아나샤는 깜짝 놀라 시선을 위로 들어올렸다.

순간적으로 입술인가 싶었으나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을 뿐 입술이 닿지는 않았다. 눈동자를 아래로 굴려 확인하자 그의 엄지손가락이 자신의 입술 위에 닿아있었다.

“키스해도 되겠습니까?”

속삭임과 같은 낮은 목소리에 아나샤는 눈을 꼭 감았다. 부드럽게 입술 위를 문지르는 엄지에 절로 입술에 힘이 풀렸다.

고개를 작게 끄덕이자 단단한 팔뚝이 허리 뒤를 받치듯 둘러져왔다. 이윽고 말랑한 감촉이 입술 위에 조심스레 닿았다. 아나샤는 숨을 참은 채 그와 가볍게 입술을 맞대었다.

조금 길게 이어지는 버드키스에 아나샤는 어떻게 호흡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숨만 참았고 말이다. 그 서툰 반응에 리히르트는 결국 낮은 웃음을 삼키며 살며시 입술을 떼었다.

그녀는 따스하고, 부드럽고, 달콤한, 온갖 어여쁜 단어들로 이뤄진 사람 같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만큼 사랑스러웠다.

한참동안 그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자 뒤늦게 아나샤는 눈을 떴다. 서로의 코가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눈이 마주치자 뺨이 절로 홧홧 달아올랐다. 아나샤는 뒤로 몸을 빼고 싶었으나 허리를 감은 팔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 없자 울상을 지은 채 그를 올려보았다.

“단장…,”

“이름으로 불러주십시오.”

“…네? 하지만,”

“아니면 애칭도 좋습니다.”

어투는 부드러웠지만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가 스며든 벽안은 단호했다. 아나샤는 다른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머리를 굴려야했다. 애칭으로 불러주지 않으면 절대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럼 리히…라고 불러도 돼요?”

자신의 애칭도 두 글자이니 그의 애칭도 두 글자인 게 좋을 것 같았다. 아나샤가 어떠냐고 그의 표정을 살피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그가 고개를 숙여 입을 맞춰왔다.

아나샤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은 채 어깨를 움츠렸다. 잔뜩 긴장한 것에 비해 키스는 짧았다. 조금은 허무할 만큼...

“아샤?”

그의 부름에 상념에서 깨어난 아나샤는 화들짝 놀라며 “네?!”하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김이 모락모락 솟아오를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리히르트는 그것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아직 그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하고는 허리를 감은 손을 풀었다.

두 걸음 뒤로 물러선 리히르트는 아쉬운 마음을 애써 감추며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밤이 늦었으니 데려다주겠습니다.”

마차가 있는 곳까지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뜨거운 손을 맞잡은 채로 말이다.

다음날 아나샤는 황녀궁을 방문했다.

“…그래서 단장님과는 어제부터 연인 사이가 됐어요.”

수줍게 얘기를 전하는 아나샤의 모습에 엘리시아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마치 딸의 연애 얘기를 들은 어머니 같은 반응이었다.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나요?”

“아뇨, 아직은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군요. 얘기해줘서 고마워요, 아샤 경.”

“아니에요. 애초에 황녀님께서 안 말해주셨다면 바보같이 혼자 계속 고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엘리시아는 알 수 있었다. 모든 감정이 얼굴 위에 투명하게 떠오르니 모를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엘리시아는 아나샤를 만나는 시간이 편했다. 적어도 복잡한 계산은 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저 혼자 너무 많이 떠들었죠? 전 이제 그만 가볼게요.”

“즐거웠어요. 혹시라도 연애상담이 필요하면 찾아와요. 언제든 들어줄 테니.”

“정말요? 저야 감사하죠!”

감사하다 못해 황송할 지경이라며 아나샤는 기뻐했다. 그런 그녀에게 조용히 웃어 보이며 엘리시아는 차를 들이켰다.

‘이제 남은 건...’

아나샤가 간 뒤 엘리시아는 시종을 시켜 별궁에 보관해두었던 그림 한 점을 가져오게 했다. 그것을 특별히 액자에 넣도록 지시한 뒤 그녀는 짤막한 서신을 써내려갔다.

서신을 보내고 정확히 세 시간 뒤, 황녀궁을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다.

“황녀저하를 뵙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리히르트는 무표정한 얼굴로 예를 갖추고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고는 노을을 등진 채 앉아있는 엘리시아의 맞은편에 착석했다. 엘리시아는 책을 덮고서 그를 향해 눈길을 옮겼다.

“슬슬 이 사건도 마무리지어야할 것 같아서 불렀어요.”

일주일 전 심복 중 하나가 급습을 당한 일을 떠올리며 엘리시아는 쓰게 웃었다.

왼쪽 팔을 못 쓸 만큼 자넌의 어깻죽지는 깊게 베인 상태였다. 가까스로 피했기에 이 정도에서 그칠 수 있었다는 자넌의 말을 떠올리며 엘리시아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은 없어요. 애초에 오해를 풀기 위해 부른 것이니까요.”

자넌을 해친 자가 누구인지는 굳이 알아낼 필요도 없었다. 애초에 자넌도 누군지 알기에 군말 없이 당한 것이지만.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아샤 경을 다치게 만든 건 내 뜻이 아니었어요.”

무도회에서의 일은 전부 오해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다고 엘리시아는 해명했다. 그 당시 그녀의 심복인 자넌은 숨어있던 아나샤를 기습하려는 적으로 오인하고 먼저 공격한 것이었다. 아나샤 또한 자넌을 황성에 잠입한 암살자로 오해하였고 말이다.

갑작스러운 전투에 그 당시 엘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암살자를 피해 도망치는 척 연기하는 것뿐이었다.

“제게 심복이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했기에 말릴 수 없었어요. 물론 드러낸다하더라도 과연 오라버니가 이 사실을 믿어줄지 모르겠지만요.”

엘리시아는 조용히 입술을 끌어올렸다. 동시에 휘어진 입술 사이로 작은 실소가 흘러나왔다.

“오라버니는 절 그저 지켜줘야 될 가냘픈 동생으로 생각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하고 예쁜 여동생말이에요.”

이복형제인 어린 황자를 견제해도 자신은 견제의 대상에도 들지 않았다. 제게도 계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예 망각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그런 그를 엘리시아는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끼는 편이었다.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는 그 덕분에 지금껏 뒷세계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것이니까.

“나 또한 계속해서 가녀린 여동생으로 있어줄 생각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공작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엘리시아는 차분하게 그를 응시했다. 잔잔한 웃음기까지 드러낸 눈은 모든 계산을 마친 것처럼 여유로웠다.

“공작의 의중을 알고 싶어요. 왜 오라버니에게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비밀을 지켜주기엔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나요?”

“공과 사를 구분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비밀을 지켜줄 건가요?　이 얘기까지 들었다면 오라버니가 가장 견제해야 될 상대가 누군지 이제는 똑똑히 알 텐데요.”

한때는 눈앞의 남자가 오라버니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적이 있었다. 함께 전장을 누볐던 사이인 만큼 웨일그레슬 공작을 향한 오라버니의 신뢰는 높아보였으니까.

하지만 직접 보니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권력이나 야심은커녕 세상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다는 것을 말이다.

“누가 황위를 계승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라버니가 들으면 섭섭해 하겠네요.”

엘리시아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웃었다. 그러곤 완벽하게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는 그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은 다른 이에게 암살누명을 씌우고서 적당히 끝내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호위가 늘어나는 건 원치 않거든요.”

적당히 혀가 잘린 범죄자를 준비해주겠다며 엘리시아는 상냥히 덧붙여 얘기했다.

“수사는 종결시키겠지만, 누명을 씌우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얘기가 끝났으면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킨 리히르트는 그녀의 부탁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몸을 돌려 그대로 나가려는 사내를 바라보며 엘리시아는 속으로 조용히 혀를 찼다. 예상은 했지만 쓸데없을 만큼 청렴하고도 고지식한 사내였다.

“협상을 하려면 그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옳겠죠?”

엘리시아는 일어나 소파 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행동에 리히르트는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안가 엘리시아는 하얀 천이 씌워진 네모난 물체 앞에 멈춰 섰다.

천 끝을 잡아 아래로 끌어내리자 그 안에는 커다란 액자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액자 속에는 아나샤가 그려져 있었다.

활짝 핀 꽃들 속에 앉아 수줍게 레이스 양산을 쓰고 있는 그림이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그리도록 지시한 만큼 웃고 있는 하얀 얼굴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생생했다.

“하나밖에 없는 초상화인데 필요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엘리시아는 그가 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거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상 모든 것에 무심해도 단 하나, 아나샤에 관련된 것만큼은 사족을 못 쓰는 남자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몇 분 뒤, 엘리시아의 예상은 정확히 적중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웨일그레슬 공작이 처음으로 뇌물에 매수된 순간이었다.

최근 들어 리히르트의 삶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물론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으니 그의 관점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었다.

창을 통과하는 햇살은 따사로웠다. 하얀 빛이 부서져 내리는 창밖의 풍경은 아름다웠고, 나무들은 더없이 싱그러워 보였다. 평소라면 관심도 없었을 복도바닥 구석 따위에도 눈길을 주게 되었다.

흔히들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겪는다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현상’이라지만, 리히르트는 그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

리히르트는 단장실에 들어서기 전 낮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를 보기 전 각오가 필요했다. 전장에서도 한번 긴장한 적이 없는 그였으나 현재 그는 답지 않은 긴장상태였다.

마침내 리히르트는 문을 열었다. 동시에 기다렸다는 듯 아나샤가 그의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왔다.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단장님!”

인사를 건넨 아나샤는 재빨리 문밖으로 몸을 내밀어 주위에 누가 없는지 확인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녀는 바로 문을 닫고 그를 돌아보았다.

“아니, 흠…리히.”

아직은 애칭이 낯간지럽게만 느껴져 순식간에 두 뺨이 발갛게 물들었다. 그 잘 익은 과일 같은 뺨을 바라보던 리히르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뺨에 입술을 맞추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최대한 절제하겠다는 각오는 오늘도 그녀 앞에선 거품처럼 사라졌다. 리히르트는 제 한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손을 슬며시 잡았다. 뺨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싶은 충동을 그나마 참아낸 것이 이 정도였다.

“아, 저희 밥 먹어요.”

그의 손을 포개듯 맞잡은 채 아나샤는 쭈뼛거리며 소파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식판과 포크 두 개가 놓여있었다. 그와 같이 먹겠다며 아나샤가 식당에서 배식을 받자마자 들고 온 것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여유롭게 아침식사를 즐겼다. 식사를 핑계로 앉아있었지만 실상은 아침데이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달콤한 시간은 두 사람의 시간감각을 잃게 만들었다. 자리에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여유로이 차까지 마시고 있을 때 노크소리가 단장실 안을 울렸다.

흠칫 놀란 아나샤는 시계를 한번 확인하고는 그대로 허둥지둥 몸을 일으켰다.

“…벌써 업무시간인가 봐요. 저는 이만 재활훈련 하러 가볼게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말과는 달리 그의 긴 손가락들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아쉬운 마음을 억누르듯 리히르트는 낮아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무리하지 말고, 이따가 봅시다. 아샤.”

“…리히도 요. 이따가 봐요.”

한동안 떨어질 줄 모르던 손을 놓고서 아나샤는 빈 식판을 들고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문 앞에는 부단장 칼리프가 예의 그 깐깐한 얼굴로 서있었다.

“뭡니까. 아나샤 경?”

“뭐,뭐가요?!”

칼리프는 이상하다는 얼굴로 그녀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평소라면 먼저 인사했을 그녀가 유난히 조용히 있기에 먼저 말을 걸었을 뿐이었다. 원래도 종잡을 수 없는 편이긴 했지만 오늘은 한층 더 이상했다.

“…저는 바빠서 이만!”

아나샤는 황급히 그를 지나쳐 복도를 뛰어갔다. 그 수상쩍은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던 칼리프는 이윽고 보고를 위해 안으로 들어섰다.

최근 들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리히르트뿐만이 아니었다. 아나샤 또한 그러했다. 특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황홀한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다.

마음씨 좋고, 다정하며, 완벽할 만큼 잘생긴 사람이 자신의 첫 애인이라니…! 마음이 벅차오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시달렸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을 바꾼 것이다.

서로의 첫 연인인 만큼 그에게 더 잘해주고 싶었다. 그가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만큼 자신도 더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과한 애정은 모든 행동에서 나타났다.

매일 아침마다 맛있는 것들로만 죄다 담은 식판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지는 행동도 그 중 하나였다.

기사들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습이 흡사 어린 새끼를 먹이기 위해 부랴부랴 먹이를 챙기는 어미다람쥐 같다고 여겼다.

왜 식당에서 안 먹고 자꾸 밖으로 가져 가냐는 물음에 아나샤는 밖에서 경치를 구경하며 먹을 거라고 했지만, 포크가 두 개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한 기사는 없었다. 애초에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달려 나가는데 말릴 수도 없었다.

“…단장실 쪽으로 가는 거보니까 단장님이랑 같이 먹으려나본데.”

“역시...”

오늘도 어김없이 아나샤가 식당을 나서자 기사들은 숙연한 분위기로 서로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목석같은 남자가 대체 무슨 짓을 했으면 순진한 애가 저렇게 홀려있나 싶은 것이다.

“아샤도 성인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

그때,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던 크리스가 목소리를 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크리스 네가 그런 말을 해…?”

“뭐. 왜.”

수상쩍다는 주위의 시선에도 아랑곳 않고 크리스는 뻔뻔하게 식사를 이어갔다. 이에 마브릭도 동조하며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노력했다.

“둘 다 성인 남녀인데 이성적으로 끌렸을 수도 있지. 그리고 크리스 말대로 아샤도 이젠 어린애가 아닌데 우리가 이런 걸로 간섭하는 것도 좀…,”

“아니, 그건 아니지. 아샤가 몇 살인데. 솔직히 우리 눈엔 아직도 애야.”

“거기다 남자랑 관련된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얌전히 있을 수 있겠냐! 단장님이 어떤 놈일지 알고!”

“옳소!”

“말 한번 잘했다, 바론!”

강경 삼촌파들의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자 크리스는 못 들어주겠다는 듯 귀를 막았다.

하여간 팔불출들... 차마 두 사람이 연인사이라고는 말은 못하겠고, 크리스는 답답함에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도 이 난리인데 만약 들킨다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피곤하기만 했다.

두 사람의 비밀연애는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기사들, 특히 삼촌들에게는 아직 비밀로 해달라는 아나샤의 부탁을 충실히 이행하듯 리히르트는 남들 앞에서 티를 내지 않게 주의했다. 정작 아나샤는 얼굴에서 이미 티란 티는 다 내고 있었지만 다행히 기사들의 눈에는 짝사랑 정도로 비춰졌다.

틈만 나면 그를 만나러 달려가는 그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평소에도 단둘이 붙어있던 적이 많아 딱히 의심을 살 행동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아나샤는 훈련이 끝나기 무섭게 리히르트를 찾아 연무장 뒤편으로 향했다. 수돗가에 홀로 있는 그를 발견하기 무섭게 아나샤는 그에게 달려들었다.

한번 뛰어 그대로 와락 안기는 그녀를 리히르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받아내었다.

십수 년동안 단련된 몸이었다. 아무리 아나샤가 전력으로 부딪혀 와도 그는 거뜬하게 그녀를 받아낼 자신이 있었다. 그저 그녀가 되레 다치진 않을까 조심스러울 뿐이었다.

“아샤. 젖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아요.”

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은 채 리히르트는 다른 손으로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그동안 아나샤는 물방울이 매달린 색소 옅은 금색머리카락을 바라보고 있었다. 햇빛을 만나 반짝이는 머리카락이 예뻤다.

“제가 닦아줄까요?”

“괜찮습니다.”

짧게 뺨에 입을 맞추고는 리히르트는 그녀를 놓아주었다. 등을 돌린 그는 수건을 집어 들고 머리의 물기를 닦아내었다.

그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시 등 뒤에서는 아나샤가 와락 안겨왔고 말이다.

눈만 마주쳐도 부끄러움에 쭈뼛거렸던 것도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가 다시 편해지기 시작하자 아나샤는 지금처럼 스스럼없이 굴게 되었다.

넓고 탄탄한 등에 착 달라붙은 채 아나샤는 작게 흥얼거렸다. 흡사 어미다람쥐 등에 매달린 새끼 다람쥐 같은 꼴이었다.

“얼른 점심 먹으러가요. 오늘은 뭐가 나오려나.”

“따로 먹고 싶은 건 없습니까?”

“먹고 싶은 거요? 나가서 먹게요?”

리히르트는 제 허리를 두르고 있는 그녀의 팔을 잡아 풀어내었다. 그러곤 그녀를 돌아보며 한 손으로는 내려온 앞머리를 쓸어 넘겼다.

“옷을 갈아입을 겸 저택에 다녀올 생각입니다만, 같이 나갔다 오는 게 어떻습니까?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놓도록 이르겠습니다.”

“...”

“아샤?”

아나샤는 잠시 아무 말 없이 멍을 때렸다. 새삼스럽게도 젖어있는 그가 치명적일 만큼 잘생겨서 또다시 반한 기분이었다.

“…아무거나 좋아요. 정말요.”

아나샤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허리를 꼬옥 끌어안았다. 매일매일 그를 볼 때마다 좋아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만 가서 큰일이었다.

리히르트는 최근 들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으나 동시에 그는 매우 고민스러웠다. 다름 아닌 아나샤 때문이었다.

짧은 입맞춤에도 얼굴을 붉히는 그녀였다. 그 반응이 사랑스러워 더 만지고 싶고, 더 깊게 키스를 하고 싶었으나 한편으로는 그녀가 놀랄까 조심스럽기만 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적응해 평소처럼 편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욕심을 부렸다가는 전처럼 다시 어색해질지 모를 일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짓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앞에선 늘 상냥하게 행동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는 최근 들어 그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다. 틈만 나면 제게 매달려오는 사랑스러운 연인 때문에 말이다.

“리히…!”

오늘도 단장실로 뛰어 들어온 아나샤는 그를 찾았다. 마침 단장실을 나서기 위해 일어서있던 리히르트는 제 품으로 냅다 달려오는 그녀를 익숙하게 받아내었고 말이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어요! 아무래도 크리스 삼촌이 눈치 챈 거 같아요. 리히 보러 가려고만 하면 어떻게 알았는지 엄청 눈치를 준다니까요?”

“...”

“저번부터 너무 좋아하지 말라느니, 저만 보면 자꾸 잔소리를 하길래 피해 다녔는데, 역시 눈치 챈 거 같죠? 리히 생각은 어때요?”

빠르게 말을 끝낸 아나샤는 넓은 가슴팍에 이마를 대었다. 그러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다는 양 그의 가슴팍에 머리를 비비적댔다.

“다른 삼촌들은 조용한 거 보면 크리스 삼촌만 아는 것 같은데..., 휴. 진짜 어떻게 눈치 챈 걸까요?”

“…아샤. 일단 앉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써 침착함을 되찾은 리히르트는 그녀를 달래며 소파로 데려갔다. 그러곤 붙어있는 그녀의 몸을 슬며시 떼어내 앉히고선 자신도 맞은편에 착석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어도 단둘이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슬슬 눈치 챈 자가 나올 만합니다.”

“역시 그렇겠죠... 그래도 아직은 의심 단계인 거겠죠? 저희가 그, 뽀뽀하거나 포옹하는 걸 본 건 아니겠죠?”

“주위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한 것이니 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는 차분하게 그녀와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벨덴 경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는 것이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계속 아닌 척을 하거나, 아니면 사실을 말하고 먼저 입막음을 해두는 겁니다.”

“크리스 삼촌정도면 뭐 입막음은 쉽겠지만…아마 사실대로 얘기한다면 계속 간섭해올 거예요. 지금도 이러는데.”

“저는 그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결정권을 내어주는 그의 말에 아나샤는 결국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일단 삼촌들에게 연애사실을 들키는 것만큼은 피해야했다.

기사작위를 받았을 때도 한동안 ‘아샤 경’이라고 귀가 닳도록 놀려댔는데, 연인관계라는 걸 들킨다면 ‘미래 공작부인’이라고 놀려댈지도 모를 일이었다.

자신이야 한 귀로 듣고 흘리면 그만이지만 리히르트 그가 들었을 때 곤란할까봐 걱정이었다.

“아무래도 아닌 척 잡아떼는 게 제일일 것 같은데, 그러려면 거리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의심이 누그러질 때까지만 요.”

자주 붙어있어서 오해받는 거라면 붙어있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다. 간단한 방법이었지만 아나샤는 자신이 말해놓고도 조금 못마땅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을지 그녀가 고민에 빠져있을 때였다.

“그렇다면 며칠 휴가를 다녀오는 건 어떻겠습니까?”

“휴가요?”

아나샤는 들려온 말에 동그랗게 눈을 떴다. 이에 리히르트는 옳게 들은 것이 맞다는 듯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말을 이었다.

“저번에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애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참에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

“원한다면 다녀와도 됩니다. 아직 재활훈련 중이기도 하고 지난번 임무에 대한 포상휴가를 준 것으로 하면…,”

“고마워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나샤는 테이블 위를 건너와 그를 와락 끌어안았다. 고민이 사라진 얼굴은 진심으로 기쁘다는 양 말갛기만 했다.

“너무 좋아요. 그럼 오늘 바로 할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내야겠어요! 분명 제가 온다고 하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아나샤는 그의 목을 끌어안고 떨어질 줄을 몰랐다.

목에 닿는 보드라운 피부와 작은 숨결에 리히르트는 잠시 속으로 심호흡을 한 뒤 팔을 움직였다. 얇은 허리를 감고서 닿아있는 그녀의 몸을 살짝 제 몸으로부터 떼어냈다.

아나샤는 순순히 상체를 뒤로 물렸지만 여전히 허벅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오히려 정면에 있는 그의 얼굴을 예뻐 죽겠다는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 고마워요.”

쪽 하고 아나샤는 재빨리 그의 뺨에 입술을 맞췄다.

“그대가 좋아하니 저도 기쁩니다.”

너무 좋다며 노래를 부르는 그녀를 따라 옅게나마 미소 지으며 리히르트는 얘기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마냥 평온하진 않았다.

안 그래도 날마다 늘어가고 있는 그의 인내심이었다. 매일 같이 인내심을 시험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리히르트는 맞닿아있는 몸 사이로 손을 넣어 그녀를 제게서 다시금 떨어뜨렸다.

“일이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어디 나가려던 참이었죠.”

아나샤는 황급히 그의 위에서 일어났다. 원래라면 당연하다는 듯이 그의 옆에 찰싹 달라붙었겠지만 아나샤는 문 앞까지만 그를 배웅해주었다.

“따라가고 싶지만…한동안은 조심해야 되니까 참을게요. 그리고 편지도 써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다녀와요.”

그녀의 인사를 받으며 리히르트는 단장실을 나섰다.

한동안 무표정하게 걷던 그는 복도 그늘 속에 들어서자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메마른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자 뒤늦게 입가에선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다. 마치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진정시키려는 듯이 한숨소리는 길게 이어졌다.

“어쩐지 저번에 왔을 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아나샤는 루시와 밖에서 만났다. 디저트를 먹으면서 아나샤는 루시에게만 조심스레 연애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리고 루시의 반응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담담했다.

애초에 처음부터 두 사람을 연인관계로 의심했었던 루시였다. 최근에도 몇 번이나 저택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던 것을 떠올리면 눈치 채고도 남는 것이다.

“다른 게 보였어요?”

“입이 아주 헤벌쭉해져서 다물어지지 않던데요?”

“제가 그렇게나 티를 냈다고요?!”

아나샤는 자신의 두 뺨을 찰싹 때리듯이 쥐었다.

“엄청 티가 나진 않아도, 아샤를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어느 정도 눈치 챌 정도라고 할까요?”

“몰랐어요. 저는 나름 숨긴다고 숨긴 건데...”

이러니 크리스 삼촌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아나샤는 조용히 수긍했다. 그때, 루시가 목소리를 낮춘 채 아나샤에게 말을 건넸다.

“그보다 연애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공작님이 먼저 제안한 건 아니죠?”

부릅 눈을 뜬 채 루시는 아나샤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눈빛이 제법 매서워서 아나샤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찔렸을 정도였다.

“리히는 공개적으로 알려도 상관없다고 했지만, 그냥 제가 신경 쓰여서요.”

“그럼 결혼에 대해선 얘기해본 적은 없고요?”

아나샤는 슈크림을 한입 크게 베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생크림을 듬뿍 묻힌 채 아나샤는 말을 이어갔다.

“뭔가 그런 얘긴 아직 어려워서 지금 당장은 생각 안하려고요. 훗날의 얘기겠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그, 두 번째 부인? 같은 걸로 들어가지 않을까요?”

“두 번째 부인이요? 어째서요! 유일한 공작부인이 돼야죠. 아샤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요!”

“루시, 쉿! 쉿...”

아나샤는 빠르게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자신들 말고도 가게 안에서 떠드는 손님들이 많아 들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물론…저도 리히랑 결혼까지 하게 된다면 단둘이가 좋겠지만, 아무래도 결혼은 귀족한테는 중요한 거니까요. 더군다나 리히는 대귀족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아나샤는 당연히 그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

“보통은 가문에 이익이 되는 상대랑 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가문 간에 결합이라나 뭐라나…, 아무튼 귀족의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보통은 높은 가문의 여식이 첫 번째 부인을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지위가 낮은 여인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는 식이라고 했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긴 하겠지만...”

루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로 차를 들이켰다. 하필이면 차 맛도 써서 미간은 더 좁아졌다.

아나샤는 그런 루시의 반응에도 해맑기만 했다. 여전히 입가에 생크림을 묻힌 채로 맛있게 디저트를 먹어댔다.

“그리고 저는 안주인이 뭐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걸요. 만약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부인 분한테 가문을 맡기고 저는 계속 기사단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좋겠지만, 정말 어렵네요.”

좋은 건가? 이제는 헷갈릴 지경이라고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샤가 너무 긍정적인 건지, 현실적인 건지 알 수 없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공작님이 이 얘기를 듣게 된다면 좋은 반응을 보이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였다.

아나샤는 금방 편지의 답장을 받을 수 있었다. 흔쾌히 영지로 놀러오라는 할아버지의 편지에 아나샤는 곧바로 짐부터 쌌다.

출발날짜에 가까워질수록 아나샤의 기분은 들뜨기만 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는 애인의 몸에 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리히도 같이 가면 좋을 텐데…아쉬워요.”

벌써부터 열흘간의 휴가동안 그를 못 보는 게 아쉽다는 듯이 아나샤는 더욱 질척였다. 거의 접착제 수준으로 그의 몸에 달라붙어 꿍얼대기 일쑤였다.

“그냥 확 공개연애하고서 같이 휴가 가버릴까요? 리히랑 가면 더 재밌을 텐데.”

할아버지도 만날 겸 리히와 열흘간 여행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나샤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는 듯이 실실거리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바로 코앞에 있는 수려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눈 주변을 손끝으로 살살 쓸자 그의 눈매가 부드럽게 접혔다. 자신만을 담고 있는 푸른 눈이 너무나도 예뻐 아나샤는 뽀뽀를 퍼붓고 싶을 지경이었다.

“리히는 아쉽지 않아요?”

“물론 아쉽습니다.”

“그럼 저희 못 보는 동안 뽀뽀도 못할 테니까 지금 많이 해놓을까요?”

입술을 쭉 내민 채 아나샤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마치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라도 다루듯 말이다. 그러나 리히르트는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아샤.”

“…네?”

“정말입니까?”

리히르트는 자신의 눈 아래에 위치한 손을 붙잡아 내리며 물었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엔 그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라있었다.

아나샤는 깜짝 놀라며 반사적으로 상체를 뒤로 물리려했으나 그전에 그가 허리 붙잡아 끌어당겼다. 도망가려는 작은 초식동물을 달래듯 그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붙여왔다.

다가온 숨결에 아나샤는 눈을 꾹 감았다. 말랑거리고 따뜻하고 촉촉한 것이 입술을 덮쳤다. 짧게 입술을 쪽쪽 부딪치는 키스와는 뭔가 달랐다.

아나샤는 그 촉촉하고 따뜻한 것이 그의 혀라는 걸 뒤늦게 알아차렸다. 입술을 열어달라는 듯이 그가 아랫입술을 핥자 간지러운 기분에 절로 허리의 힘이 풀렸다. 이에 아나샤는 조심스레 닫혀있던 입술을 벌렸다.

입술 안을 비집고 들어온 혀는 천천히 여린 안쪽 살을 건드렸다. 마치 입안을 간질이는 것처럼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뭔가 말랑말랑해...’

아나샤는 생각보다 기분 좋은 감각에 괜히 소름이 돋는다고 여겼다. 허리 뒤를 지탱하고 있는 그의 팔이 아니었다면 진즉에 주저앉았을 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사이 소리 없이 허리를 타고 올라온 그의 다른 손은 달아오른 뺨을 감쌌다. 커다란 손이 주는 온기에 아나샤는 안심이 되어 더욱 깊게 그와 키스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한참동안 서로에게서 떨어질 생각을 못했다. 뒤늦게 리히르트는 조심스레 그녀의 입술로부터 제 입술을 떨어뜨렸다.

그는 조용히 눈을 뜨며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어쩌면 눈이 마주치기 무섭게 민망함에 도망가려 할지도 몰랐다. 혹은 새빨갛게 얼굴을 물들인 채 입만 뻐끔거릴 지도 몰랐다.

어느 쪽이 됐든 둘 다 사랑스럽기 그지없는 반응일 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뜬 그녀는 자신과 살며시 눈을 마주쳐왔다.

“…리히.”

발갛게 익은 뺨까지는 그의 예상과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예상과는 달리 담담해보였다. 오히려,

“좀 더 해요. 네?"

작게 웃으며 아나샤는 조르듯이 말했다. 그 수줍고도 귀여운 유혹에 리히르트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칠 정도였다.

“리히?”

아나샤는 갑작스레 그가 뒤로 물러서자 깜짝 놀라 그에게 다가갔다.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픈 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리히르트는 금방이라도 제게 안겨올 것 같은 아나샤를 황급히 붙잡았다. 더는 다가오지 못하게 어깨를 붙잡은 채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아샤, 급한 용무가 떠올라서 가봐야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할 것까지야…, 그보다 갑자기요?”

놀람인지 아쉬움인지 동그랗게 눈만 뜨고 있는 아나샤와 시선을 마주한 리히르트는 미안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현재 그는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는커녕 대답할 여유조차 없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스스로를 절제할 수 없을까봐 매일 불안하다는 것을 말이다.

그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그보다 힘든 일이 그녀를 두고 나가는 일이라지만 리히르트는 오늘도 인내하며 단장실을 벗어났다.

출발 하루 전날, 아나샤는 황녀궁의 티타임에 초대받았다. 엘리시아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아나샤는 한참 뒤에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황녀님, 혹시 상담 괜찮을까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나샤가 조심스럽게 묻자 엘리시아는 흔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아나샤는 최근 리히르트 그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제가 키…키스를 못해서 하기 싫어진 걸까요?”

좀 더 키스하자고 말하기 무섭게 난감해하던 그의 표정이 떠올라 아나샤는 다시금 시무룩해졌다.

그날 황급히 자리를 뜬 날 이후로 계속해서 그는 묘하게 자신과의 스킨십을 피하고 있었다. 특히 키스는 두 번 다시 안할 거 같아서 아나샤는 울고 싶은 기분이었다.

“걱정 말아요. 아샤 경.”

조용히 차를 들이켜며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시아는 미소를 띠었다. 훤히 답이 보인다는 듯이 그녀는 가벼운 어조로 말을 이었다.

“아샤 경이 잘하든 서툴든, 애초에 아샤 경이 뭘 하든 마냥 다 좋아할 남자니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애초에 좋았으면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엘리시아는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눈앞의 순수한 얼굴을 보니 어디부터 어디까지 얘기해줘야 하나 망설여질 정도였다. 이러니 공작이 피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아사 경은 공작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나요?”

“어디까지 라고 하면...,”

“연인관계의 진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나샤는 얼굴이 홧홧 달아올랐다. 대놓고 말할 줄은 몰랐기에 괜히 자신이 더 민망하기까지 했다.

“그거야 물론…리히가 원한다면 뭐든 좋아요...”

따뜻한 찻잔만 꼼지락대며 아나샤는 고개를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 그대로 공작에게 얘기하면 해결될 것 같네요. 그럼 분명 안 피하고 예전처럼 다시 스킨십을 해올 거예요.”

그녀의 말에 아나샤는 확신이 서지 않아 고개를 들었다. 그 새빨갛게 익은 얼굴과 마주한 엘리시아는 싱긋 웃어보였고 말이다.

“만약 그래도 피한다면 내게 얘기해요.”

나긋나긋한 말투였지만 아나샤는 왠지 오싹한 기분이 들어 고개만 주억거렸다.

하지만 출발 당일이 되고 마차에 오를 때까지도 아나샤가 그 말을 꺼낼 기회는 오지 않았다. 그저 배웅해주는 리히르트와 포옹하며 절절한 작별인사만 나눴을 뿐이었다.

‘뭐, 다녀와서 얘기해도 되니까.’

아나샤는 그의 입술이 닿았던 뺨을 만지작거리며 소파에 등을 묻었다. 떨어진지 얼마나 지났다고 허전한 기분이 스멀스멀 치밀었다.

‘리히도 지금 이런 기분일까...’

자신처럼 허전함을 느끼진 않을까, 자신이 보고 싶진 않을까, 벌써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아나샤는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안으려다 아무것도 없자 아쉬움에 한숨을 내쉬었다.

지금 그가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두 팔 가득 끌어안고도 남는 커다란 몸이 좋았다. 드넓은 등에 얼굴을 묻고 있으면 얼마나 따스하고 평온한지 몰랐다.

그리고 제 몸을 어루만지는 그의 손길은 얼마나 부드러운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다. 또 그의 입술은...,

“아.”

아나샤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다. 아무도 없는 마차 안이었지만 혼자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다는 게 창피해서 괜히 주위를 살폈다.

잠은 오지 않았지만 아나샤는 애써 창밖의 먼 곳을 바라보며 잠들기 위해 노력했다. 안 그러면 계속 그에 대한 생각을 할 게 뻔했으니 말이다.

마차는 빠르게 수도를 벗어났다. 꼬박 한나절을 달려 영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는 저물어 있었다.

불이 켜진 저택의 계단 아래에는 거대한 풍채의 중년사내가 서있었다. 마차가 멈춰서기 무섭게 아나샤는 문을 박차고 뛰어내렸다.

“할아버지!”

전 단장, 아버트 벨더스는 달려와 폴짝 안겨오는 아나샤를 마주 안아주었다.

“내 손녀, 어디 얼굴 좀 보자꾸나.”

“그동안 잘 지냈어?! 어?”

“그래그래, 할애비야 늘 잘 지내지. 너도 그동안 아주 잘 먹고 잘 지냈는지 볼살이 빵빵하구나.”

아버트는 허허 웃으며 계단을 올라섰다. 아나샤가 달라붙어있었지만 전혀 무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태연히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피곤하지는 않고?”

“전혀! 이제까지 자다왔거든.”

“그래 보이는구나.”

침 좀 닦으라는 의미였지만 아나샤는 마냥 싱글벙글이었다.

한동안 영지에서 적적하게 지내고 있던 아버트도 만만치 않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 아들놈들과 손자놈들은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이라지만 손녀는 다른 것이다.

비록 친손녀는 아니어도 아버트에게 있어서 십년 넘게 오냐오냐 키워온 아나샤는 하나밖에 없는 손녀나 다름없었다.

저녁식사가 준비되자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다. 그동안 편지를 주고받아 서로의 안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대화는 끝을 모르고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아나샤는 객실로 들어가 편히 누웠다. 할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즐거웠다. 거기다 배는 불렀고, 잠자리는 따뜻했다.

모든 게 만족스럽고 행복했지만 아나샤는 문득 허전한 기분에 베개를 끌어안았다.

‘…리히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벌써부터 보고 싶다.’

아나샤는 몰려오는 잠기운에 눈을 감으며 생각했다.

다음날 아침, 아나샤는 느긋하게 일어나 시녀들의 시중을 받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아서 해주겠다는데 굳이 막을 필요는 없었다.

가만히 그녀들이 입혀주는 대로 입고, 머리 손질까지 받은 아나샤는 저택의 식당으로 안내받았다. 하품을 터뜨리며 들어선 그곳에는 할아버지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었다.

그것도 금발의 젊은 귀족이었다. 아나샤는 헙, 하고 입술을 다물며 조용히 멈춰 서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건 젊은 남자도 마찬가지였다.

“하하하, 둘 다 놀란 모양이구나.”

웃음을 터뜨린 아버트는 느긋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수염을 쓸었다.

“이쪽은 내 손자 길베르란다.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마침 둘이 소개시켜주려고 불렀단다.”

“할아버지 손자…?”

아나샤는 누가 봐도 준수하게 생긴 금발의 남자와 푸석한 은회색머리의 아버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손자라고 하기엔 전혀 안 닮았는데?”

“이것아, 내가 젊었을 때는 훨씬 잘생겼었어.”

“거짓말.”

절대 못 믿겠다며 아나샤는 눈을 흘겼다. 그러다 앉아있던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아, 손자분? 반가워요! 저는 아나샤 라이나라고 해요. 편하게 아샤라고 불러주세요.”

아나샤가 먼저 입을 열자 남자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나샤의 앞으로 다가왔다. 신사적인 생김새답게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 손을 내밀었다.

“전 길베르 벨더스라고 해요.”

아나샤는 그것이 악수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손을 덥석 붙잡았고 말이다.

“그러면 길베르 경? 길베르 씨?라고 부르면 될까요?”

“호칭은 빼고 편히 불러주세요. 그리고 한번은 직접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뵈니 반갑네요.”

“저를요?”

“네. 평소에 할아버지께 얘길 많이 전해 들었거든요.”

아나샤는 슬그머니 아버트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얼마나 자신에 대해 이상하게 얘기했으면 자신을 한번 직접 보고 싶었을까 싶었다.

그 사이 길베르는 먼저 떨어지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여성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인사가 아닌 악수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새로움이 벌써부터 신선하게만 다가와 그는 조용히 웃었다.

아침식사가 끝나고 아나샤는 아버트와 단둘이 서재에서 다과시간을 가졌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부스러지는 쿠키는 달았다. 조금 목이 막힐 정도라 아나샤가 차를 한 모금 들이켠 순간이었다.

“길베르는 널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던데,”

“컥!”

아나샤는 사레에 들린 채 콜록거렸다.

“천천히 마시지. 쯧쯧, 괜찮니?”

“…콜록,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서 그렇잖아!”

아나샤는 한쪽 눈꼬리에 눈물을 매단 채 외쳤다. 이에 아버트는 손수건을 건네주며 인자하게 웃을 뿐이었다.

“이상하기는. 그래서 내 손자녀석은 어때 보이든?”

“어떻긴 뭘 어때. 그냥 할아버지 안 닮아서 잘생겼다니까?”

“그럼 마음에 드는가보구나. 허허.”

“할아버지도 참, 만난 지 몇 시간이나 됐다고 얘기가 그렇게 돼? 그리고 할아버지 손자는 아무 생각도 없을 텐데.”

작게 투덜거리며 아나샤는 힐긋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막상 할아버지에게 털어놓으려니 살짝 민망했다.

“그리고 나…따로 좋아하는 사람 있어.”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깜짝이야!”

“이 할애비가 없는 동안 이상한 놈이 들러붙은 거냐? 언제부터!”

“이상한 사람 아니야! 절대로!”

“뭐가 아니야! 이것아!”

벌써부터 그 이름 모를 놈을 편드는 거냐며 역정을 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에 아나샤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왜 잊고 있었을까. 삼촌들보다 더한 사람이 할아버지라는 것을.

“제대로 된 놈이어야 될 텐데... 괜히 이상한 놈한테 홀랑 넘어간 건 아닐지 걱정이구나, 걱정이야.”

“아냐, 그냥 나 혼자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사람 아니라니까?”

아나샤는 흠흠, 하고 목을 한번 가다듬었다.

“할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속이 깊고 좋은 사람이야. 또 엄청 다정하고 세심하게 배려도 잘 해주고…,”

더 얘기했다가는 누군지 들킬 것 같아 아나샤는 슬며시 입을 다물었다. 그동안 아버트는 진정이 된 듯 조용히 짧은 턱수염을 쓰다듬었다.

“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는 놈인 거 보면 정말 괜찮은 놈인가 보구나.”

“그치? 내가 할아버지 닮아서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좋잖아.”

휴, 하고 아나샤가 막 숨을 돌리려는 찰나였다.

“그보다 말이다. 열흘씩이나 길게 휴가를 준거 보니까 이번 단장이랑은 꽤 사이가 좋은가보지?”

“무,물론 친하지. 근데 막 엄청 친하지는 않고 적당히 친해!”

아나샤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받아쳤지만 여전히 심장은 크게 벌렁거렸다. 갑자기 리히르트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다.

“그거 잘됐구나. 새 단장에 대한 소문이 썩 좋지 않아서 네가 잘하고 있으려나 걱정됐는데 말이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흐음 그래?”

“물론 지금 단장님보다야 우리 할아버지가 더 최고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아나샤는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아부까지 했다. 이에 아버트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지만 그는 별 다른 말없이 조용히 넘어갔다.

아버트의 제안으로 아나샤는 점심을 먹은 뒤 저택을 둘러보기로 약속을 잡았다. 당연히 할아버지와 단둘이 돌아다니겠거니 예상했으나 약속시간에 찾아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트가 다리가 쑤시다는 당치도 않는 핑계를 대며 손자 길베르에게 안내를 맡긴 것이다.

마침 할 일도 없었기에 아나샤는 그를 따라나섰다. 넓은 저택 안을 돌아다니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어느 정도 서로가 편해지기 시작하자 더욱 말은 많아졌다. 붙임성 좋은 아나샤와 편안한 분위기의 길베르였으니 단시간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었다.

“음, 저기 있잖아요. 길베르.”

잘 가꿔진 정원 산책로를 걷던 아나샤는 옆에 있는 그를 돌아보았다. 뺨을 긁적이며 아나샤는 조금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가 자꾸 저희 둘을 엮으려는 것 같은데 만약 할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면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저 때문에.”

“아니에요. 오히려 이 상황에 가장 난감한 사람은 아샤일 텐데, 대신 사과드릴게요.”

“난감하기는요. 길베르랑 친해져서 좋은걸요.”

아나샤는 웃으며 가볍게 손을 저어보였다. 그러곤 이제껏 그와 대화를 하며 느꼈던 점을 떠올리며 입을 열었다.

“대화도 잘 통하고 뭔가 친근하다고 해야 되나... 기사단 동기 중에 엘빈이라고 저랑 동갑인 애가 있는데 둘이 분위기가 좀 닮은 것 같아요.”

“하하, 남자인 친구들이 많은가보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여성분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본 적은 처음이거든요.”

“앗, 그랬어요? 혹시 불편한 건 아니죠? 그냥 기사단 동기 대하듯이 대해버렸는데...”

“그럴 리가요. 오히려 신선해서 좋았어요.”

길베르는 조용히 웃으며 아나샤와 눈을 마주했다.

“아샤만 괜찮다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혹시 어떠세요? 여기 머무르는 동안은 제가 대화상대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면 저야 당연히 좋죠!”

안 그래도 놀 상대가 할아버지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참이었다.

두 사람은 정원 정자에 앉아 더 긴 대화를 나누었다. 원래 말하기를 좋아하는 아나샤에게 있어서 그녀 못지않게 말이 많은 길베르는 최적의 대화상대가 아닐 수 없었다.

거기다 나이대도 비슷하고 손자손녀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지 은근 통하는 점이 많았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다고요?”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하지만요. 연회에서 몇 번 마주친 정도라서 그녀도 저를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요! 먼저 다가가본 적은 없어요?”

“한번 말을 건 적은 있어요. 비록 짧게 몇 마디를 나눈 게 다지만요. 저는 엄청 떨렸는데, 그녀도 저처럼 떨렸을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 마음 알아요! 저는 너무 떨려서 말을 더듬은 적도 있는걸요.”

“저는 아직 말을 더듬지는 않았는데 더듬을까봐 괜히 말할 때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하아.”

영락없이 사랑에 빠져 고뇌하는 모습이었다. 아나샤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눈빛을 빛냈다.

“저도 한때는 이게 사랑인지 몰라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본인의 감을 믿으세요!”

“감이라…더 어렵네요. 아샤는 혹시 현재 애인이 있나요?”

“아, 그게…길베르한테만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은…넵.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난리날 것 같아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군요. 걱정 마세요. 상담도 해주는데 당연히 비밀로 해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상담은 꽤나 길게 이어졌다. 자신의 경험담을 풀어놓으며 열띤 상담을 해주던 아나샤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겨우 엉덩이를 떼었다.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은 정원을 벗어나 저택으로 향했다. 그동안에도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한편, 리히르트의 하루는 숨 막히는 적막의 연속이었다. 온종일 업무에만 몰두해있던 그는 뒤늦게 몰려온 피로감에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는 고개를 뒤로 젖혔다. 시린 푸른 눈은 조용하기만한 천장의 한 곳을 응시하다가 이내 감겼다. 리히르트는 책상 표면에 얹은 긴 손가락들을 움직였다. 톡톡 두드려지는 소리가 넓은 집무실 안을 일정하게 울렸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고작해야 열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난 지금, 그는 하루를 기다리는 것도 버거울 지경이었다.

잠시 그녀와 떨어져있는 것도 좋을 거라고 여긴 적이 있었다. 그로서는 날이 갈수록 적극적으로 변하는 그녀를 계속 외면할 힘이 없었다.

슬슬 불안하던 참에 그녀가 휴가를 떠난 것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 여기려고 했다. 그녀를 마주하는 동안 욕정을 억누를 수 없어 불안하다면 아예 불안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만에 불과했다. 현재 리히르트는 과거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다.

그녀 말대로 연인사이임을 밝히고 함께 휴가를 떠나는 게 좋았을 것이다. 한순간 치미는 욕정을 참는 게 낫지, 아예 그녀를 안보는 것이 더 그의 피를 마르게 만들 줄은 과연 예상이나 했을까.

한동안 리히르트는 그녀를 떠올렸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른 채 상념에만 잠겨있을 때였다.

“단장님. 안에 계십니까?”

리히르트는 문밖에서 들려온 노크소리에 눈을 떴다.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자 이내 문이 열리며 행정관이 안으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지?”

“벨더스 가문에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리히르트는 행정관이 건네준 편지를 확인했다. 전 단장 아버트 벨더스가 보내온 것이었다. 편지는 아나샤에게 긴 휴가를 줘서 고맙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다. 리히르트는 무감정한 눈으로 빠르게 불필요한 문장들을 읽어 내렸다.

형식적인 감사편지인 만큼 중요한 내용은 없어보였으나 혹여 그녀의 소식이 짤막하게나마 적혀 있을까봐 건너뛰지는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에 접어들 무렵이었다.

"아차, 오늘 아샤에게 제 손자를 소개시켜준 참입니다. 서로가 마음에 드는 모양인지라 빠른 시일 내로 약혼을 추진할까합니다. 좋은 소식이 생기면 다시 편지 쓰도록 하지요."

딱딱하리만치 무표정하던 눈매가 일그러진 것은 한순간이었다. 리히르트는 자신이 읽은 내용이 맞는지 다시금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다시 읽어 내린 순간, 편지는 그의 손아귀에서 무참히 구겨졌다.

아나샤와 길베르는 오늘도 정원에 나와 있었다. 둥근 지붕의 대리석 정자 안에서 차를 마시는 두 사람은 누가 보아도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띠었다. 사이좋은 남매로 보일 만큼 말이다.

불과 나흘이었으나 두 사람이 친해지기엔 부족함 없는 시간이었다. 서로 비밀을 공유한 뒤로 유대감은 더욱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다.

“요새 할아버지가 이상하게 잠잠하단 말이에요. 길베르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나샤는 의심을 버리지 못한 얼굴로 조용히 얘기했다.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쉽게 포기할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은 아나샤가 더 잘 알았다.

어떻게든 길베르와 자신을 엮기 위해 혈안일 거라 여겼으나 막상 할아버지는 잠잠하기만 했다.

“저희가 서로 너무 편해 보이니까 포기하신 게 아닐까요?”

“흠…, 그런 거면 좋겠지만.”

“아니면 너무 붙어있어서 이미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샤의 애인은 아직 이 상황은 모르는 거죠?”

“네,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 편지는 안 썼어요.”

“하긴. 저희야 그런 뜻은 없다지만 애인 입장에서는 꽤 신경 쓰일 수도 있겠네요. 그보다 아샤는 주위에 남자인 친구들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애인이 질투하진 않나요?”

“질투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에 아나샤는 동그랗게 눈을 떴다. 그러곤 간만에 웃긴 얘길 들은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에이, 리히는 질투가 뭔지도 모를 걸요.”

질투라니, 늘 차분하고 청렴하기만한 그와는 매치가 되지 않는 단어인 것이다. 아나샤는 그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신나서 떠들어대던 그녀는 별안간 다시 추욱 쳐져 한숨을 내쉬었다.

“아아…, 리히 얘기하니까 또 보고 싶어졌어요! 아마 지금쯤 일하고 있겠죠? 리히도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을 거예요.”

길베르는 낮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위로했다. 그러던 중 들려온 인기척에 그는 고개를 돌렸다. 정원에 들어선 낯선 이를 발견한 것은 그때였다.

“아샤, 누가 이쪽으로 오는데 혹시 아는 사람이에요?”

길베르의 목소리에 아나샤는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이 향한 곳으로 시선을 주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곳으로 걸어오고 있는 장신의 사내는 리히르트와 매우 닮아있었다. 아나샤는 눈을 비볐다. 금술이 달린 흰 제복과 밝은 백금발은 거칠게 흐트러진 채였다. 단정치 못한 행색만 아니었다면 그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리히?”

아나샤는 멍하니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가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싶었다.

“정말 리히예요? 아니, 어떻게 온…,”

어느새 가까이 다가온 그와 마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이었다. 아나샤는 자신의 허리를 끌어안기 무섭게 들어 올리는 그의 행동에 깜짝 놀라 두 다리를 퍼덕였다.

"리히?!"

그녀의 다리에 가슴팍을 얻어맞은 리히르트였으나 그는 묵묵히 그녀를 어깨에 들쳐 멨다. 그대로 그녀를 데리고 가려하자 길베르는 급하게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아무리 연인사이라고는 해도…,”

사내의 앞을 막아선 것은 좋았으나 길베르는 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마주한 벽안은 금방이라도 저를 베어버릴 것처럼 서늘했기 때문이다. 그때, 대롱대롱 짐짝처럼 매달려있던 아나샤가 고개를 쳐들었다.

“아, 리히. 길베르한테는 저희가 연인사이인 거 말했어요.”

“…그렇습니까.”

리히르트는 길베르를 향해있던 냉랭한 시선을 거두었다. 방금 전만해도 풍겼던 살벌한 기세는 온데 간 데 없이 침착한 태도였다.

“먼저 실례하지.”

그는 길베르를 지나쳐 걸음을 옮겼다. 이에 길베르는 더는 끼어들 수 없어 조용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리히, 어디까지 가려는 거예요?”

무겁지 않을까 걱정하던 것도 잠시, 아나샤는 편하게 그의 어깨에 들쳐 메인 채로 떠들었다. 묻고 싶은 게 많았으나 그는 아까 전부터 계속 말이 없는 상태였다.

“좋아요. 리히가 가고 싶은 데로 가요. 근데 나가려면 반대쪽으로 가야되는…,”

그 순간 묵묵히 걷기만 하던 그가 걸음을 멈췄다. 나무 앞에 선 그는 아나샤의 엉덩이아래를 팔뚝으로 받치고서 안전하게 그녀를 내려놓았다.

아나샤가 그의 어깨에서 손을 떼며 고맙다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다. 입술이 막히며 동시에 뜨거운 혀가 입안을 파고들었다.

"으응…리,"

너무 갑작스러운 키스에 아나샤는 살짝 뒤로 밀려났다. 등 뒤에 닿은 단단한 나무기둥은 더는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자신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아나샤는 말을 꺼내기 위해 고개를 틀었다.

“잠깐…,”

하지만 그 잠시도 기다리지 못하겠다는 듯이 커다란 손이 그녀의 뒷머리를 받쳐왔다. 다시금 입술이 집어삼켜지며 그의 입술이 더욱 깊게 입술이 겹쳐왔다. 입술이 떨어지려고만 하면 그는 입술을 세게 빨며 다시 혀를 밀어 넣었다. 혀가 섞이는 야릇한 소리에 아나샤의 두 뺨은 점점 뜨끈뜨끈해져 갔고 말이다.

아나샤는 말하기를 포기하고 질끈 눈을 감은 채 그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호흡이 가빠질수록 정신은 몽롱해져만 갔다.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이어지던 키스가 마침내 끝났을 땐 조금 아쉬울 정도였다. 눈을 뜬 아나샤는 작게 숨을 골랐다. 그러곤 시선을 위로 들어올렸다.

그는 가쁜 숨을 가라앉히느라 조용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흐트러진 백금색 머리카락 아래로 푸른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애가 탄 사람처럼.

“…밤새 미칠 것 같았습니다.”

“...”

“당장 그대와 만나고 싶어서.”

동시에 그의 눈동자는 짙은 피로로 물들어있었다. 흰자 위로 군데군데 실핏줄이 터져있는 게 한숨도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나사는 두 손을 들어 걱정스레 그의 뺨을 감쌌다.

“어제 편지를 받았습니다.”

리히르트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애써 차분히 편지의 내용을 설명해주었다. 물론 얘기하면서도 서운한지 입술을 몇 번이나 짓씹었지만 말이다.

그런 그를 가까스로 달래가며 들은 내용은 아나샤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다.

“약혼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편지를 쓴 건진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

“물론 할아버지가 저랑 길베르를 처음에 엮으려고 하긴 했는데…제가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했었거든요. 길베르도 따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랑 그럴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고요.”

“...그런 거였습니까.”

“저한테 편지 쓰지 그랬어요. 설마 그 편지 때문에 밤새 잠도 안자고 달려온 거예요?”

어제 오후에 편지를 받았다고 했으니 받자마자 달려온 모양이었다. 어쩐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흐트러진 모습이라 했더니 밤새 말을 타고 오느라 그랬던 모양이었다.

아나샤는 마음이 짠하기만 했다. 편지를 받고 놀랐을 그가 안타까우면서도 너무 예뻐서 뽀뽀 백번은 퍼붓고 싶을 지경이었다.

“안되겠어요. 할아버지한테 가요.”

사뭇 비장한 목소리로 말한 아나샤는 커다란 손을 덥석 붙잡았다. 그러곤 먼저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리히가 제 애인이라고 당당히 밝힐래요."

리히르트와 손을 붙잡은 채 아나샤는 당당히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할아버지!”

“그래, 안 그래도 올 줄 알았다.”

무슨 일이냐고 놀랄 거라 여긴 아나샤의 예상과는 달리 아버트는 느긋하게 앉아 차를 마실 뿐이었다. 아버트는 문 앞에 서있는 두 남녀를 힐끗 보고는 맞은편 소파를 향해 눈짓했다.

“공작 각하도 앉으시지요.”

아나샤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앉다말고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기는. 이것아. 내가 직접 편지를 보냈는데 모를까봐.”

쯧쯧 하고 혀를 한번 찬 아버트는 섭섭한 기색을 드러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할애비한테까지 숨기고 말이야. 내가 널 봐온 세월이 얼만데, 이정도도 눈치 못 챌 줄 알고?”

아나샤와 새로 부임한 단장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아나샤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다. 그에 관해서 묻기 무섭게 혼자 찔려서 당황하던 것을 어찌 모를까.

애당초 새 단장, 웨일그레슬 공작은 열흘간의 휴가를 내줄 만한 인물이 못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다 못해 칼 같기로 유명한 그인지라 아버트는 자유분방한 아나샤가 꽤나 고생하겠거니 싶었다.

그러나 그동안 주고받은 편지에는 새 단장에 대한 불평 한줄 없었다. 아샤 성격에 참고 있을 리는 없으니 생각보다 잘 지내는 건가 싶어 의아하던 차였었다.

‘서로 마음이 있겠거니 싶었지만...’

사실 편지를 보낸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알아보기 위함이 컸다. 고작해야 약혼을 반대하는 편지를 보내올 거라 예상한 것과는 달리 공작은 직접 찾아왔고 말이다.

“할아버지한테 얘기안한 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할 것 같아서 그랬지. …흠, 아무튼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내 애인 리히르트야.”

아버트는 탐탁지 않은 눈으로 아나샤의 옆에 앉아있는 사내를 응시했다. 바로 달려온 건 솔직히 의외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든 건 아니었다.

“그래. 언제부터 눈이 맞아서 몰래 교제를 시작한 건지 들어나 보자꾸나.”

“얼마 안됐어. 한 보름 정도…,”

“보름씩이나 됐단 말이야!”

“아니, 보름이면 짧지!”

“이 할애비는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용납 못한다. 계속 사귈 거면 기사단에도 당당히 알리고 사귀려무나. 그전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며 아나샤가 벌떡 일어나서 항의하였지만 아버트의 고집을 꺾기엔 무리였다.

“그리고 일어난 김에 말이다. 나가서 길베르 좀 불러와주겠니. 아샤.”

“내가 왜?”

“혹시 알겠니. 손녀의 심부름에 감동받아 마음이 바뀔지.”

“하여간 순 할아버지 마음대로야...”

투덜대면서도 아나샤는 순순히 밖으로 나갔다. 서재의 문이 닫히자 아버트는 맞은편을 돌아보았다.

“편지는 사죄드리지요. 제가 좀 짓궂었던 것 같군요.”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아버트는 느긋하게 수염을 쓰다듬으며 사내를 관찰했다.

“아닙니다.”

고저 없는 무뚝뚝한 목소리에선 진심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해서 불쾌해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애인의 하나뿐인 할아버지라고 존대를 써주니 아버트는 그가 조금 흥미로웠다.

“아샤에게 진심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

“혼인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것이라면, 훗날 아샤를 공작부인 자리에 앉힐 생각인지요?”

아버트는 정면에서 그와 눈을 마주한 채 직설적으로 그에게 물었다. 대답을 듣기 전까지는 두 사람의 교제를 절대 허락해주지 않을 것처럼 굳건한 눈빛이었다. 이에 리히르트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녀가 원한다면 당연히 부인으로 맞이할 생각입니다.”

“허허, 그렇지요. 아샤가 원한다면 말이지요.”

제법 만족스러운 답변에 아버트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눈빛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다.

“아샤와는 신분차이가 많이 나기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만, 괜한 노파심이었나 보군요. 강압적인 분은 아니라 다행입니다.”

말이 통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말을 유연하게 돌려 말하며 아버트는 웃었다. 그러곤 습관적으로 수염으로 손을 가져가며 말을 이었다.

“공작께서도 그간 아샤를 봐왔으니 아실 겁니다. 아샤에게 중요한 건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나샤가 높은 지위와 막대한 부를 누리는 것에 야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버트는 진즉에 두 사람의 교제를 응원해줬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말이다.

“첩자 일이라는 게 남들 눈에는 그저 험하고 좋지 않은 일이어도 아샤에게 있어선 삶의 목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제 손녀가 더러운 천장을 기어 다니길 원하는 할아버지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공작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랄 테지만, 그것을 가장 원치 않을 사람이 아나샤라는 것을 아버트는 가장 잘 알았다.

어릴 적부터 첩자 일을 하겠다며 리온의 뒤를 쫓아다니던 아이였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을까.

“첩자로서 살지 못하게 됐을 때, 아마 아샤는 가장 불행하겠지요.”

무작정 아나샤를 공작부인 자리에 앉힐 생각을 가진 놈이라면, 또 그것이 아나샤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 여기는 놈이라면 죽어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아샤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샤의 배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말이 길어지긴 했지만, 하나뿐인 손녀가 걱정되어 하는 말이니 너그럽게 이해해주시지요.”

저녁식사를 마치고 리히르트는 3층의 객실에 머무르게 되었다.

몸을 씻고 나온 사이 창밖은 더욱 어두워져있었다. 그는 물기가 남아있는 머리를 수건으로 말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혼자 있을 때에도 완전히 풀어져있던 적이 없는 그였다. 편하게 있는 것이라 해봤자 셔츠 단추를 두어 개 잠그지 않는 정도로 느슨하게 있는 정도였다.

그런 그가 현재 상의를 완전히 풀어헤치고 있었다. 벌어진 셔츠 사이로 쇄골과 탄탄하게 잡힌 근육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나 리히르트는 개의치 않고 고개를 젖힌 채 조용히 두 눈을 감을 뿐이었다. 아예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옳았다.

현재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아까 낮에 들었던 말 때문이었다.

리히르트는 이제껏 한 번도 그녀와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현재에 너무 만족해있는 나머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오늘 들은 말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다주었다.

자신은 당연히 그녀와 오래도록 함께 있을 수 있는 선택지를 택할 것이지만, 그녀의 입장은 다를 수도 있었다.

물론 그녀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리히르트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놓아준다는 뜻은 되지 않았다.

리히르트는 한동안 긴 상념에 잠겼다. 몸은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피곤했지만 갑갑한 기분에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톡톡. 그 작은 소리에 그는 깊게 감겨있던 눈을 떴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자 창문을 두드리는 작은 손이 보였다.

“리히, 저예요.”

이윽고 창문 아래에서 끙, 하고 앓는 소리가 들려오자 리히르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그러곤 건물 벽에 매달려있는 아나샤를 빠르게 끌어올렸다.

“아샤, 위험하지 않습니까.”

리히르트는 굳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그녀를 끌어안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얇은 잠옷차림의 모습에도 그는 전혀 설레지 않았다. 맨발로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고 여기니 심장이 절로 서늘해질 지경이었다.

“할아버지가 복도로 못나가게 문을 잠가버려서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서 이 정도는 오를 만한걸요.”

“그래도 내일 보면 되지 않습니까.”

나지막이 한숨을 내쉰 리히르트는 아나샤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손을 꼼지락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에 자신이 너무 매정하게 말한 것은 아닌지 리히르트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을 때였다.

“저 근데 리히…, 설마 제가 옷 입는 도중에 들어온 거예요?”

그제야 리히르트는 그녀가 왜 시선을 아래에 두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뇨, 미안하긴요!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 제가 사과해야죠.”

아나샤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슬그머니 그의 복부에 시선을 가져갔다.

“…한번 만져 봐도 돼요?”

호기심과 묘한 설렘을 담은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리히르트는 셔츠 단추를 잠그기 위해 들어 올렸던 손을 내렸다. 그가 고개를 한 번 끄덕여보이자 아나샤는 곧바로 손가락을 들어 그의 근육을 콕 만져보았다.

근육이야 기사단에서 흔히 봐왔던 것이지만, 연인의 몸에 자리 잡힌 근육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괜히 한번 만져보고 싶은 것이다.

작은 손가락은 두터운 가슴팍을 시작으로 두드러진 복근을 따라 점차 아래로 내려갔다. 그 콕콕 닿는 손길에 리히르트는 알 수 없는 야릇한 자극을 받았고 말이다.

리히르트는 고개를 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언제까지 만질 거냐고 넌지시 묻는 시선에 아나샤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손가락을 떼었다.

“미안해요! 너무 막 만졌죠.”

“괜찮습니다.”

한 손으로 셔츠의 단추를 채우면서 그는 대답했다. 맨 윗단추까지 채운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방까지 데려다주겠습니다.”

리히르트는 걸음을 옮겨 문고리를 붙잡았다. 문을 연 채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으나 아나샤는 딴청을 부리며 서있을 뿐이었다.

“아샤?”

“문이 잠겨있어서 못 들어가요.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럼 가서 열쇠를 받아오겠습니다. 여기서 기다리겠습니까?”

“리히는 저랑 오래있기 싫어요…?”

툴툴대는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있었다.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을 기세에 리히르트는 하는 수 없이 다시 문을 닫고서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저, 밤이 늦었으니 침실로 데려다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한손에 들어오는 작은 손을 그러쥐었다. 이제는 자러가야 한다며 리히르트는 조용히 그녀를 달랬으나 아나샤는 고집스러웠다.

한동안 부루퉁한 얼굴로 있던 그녀는 뒤늦게 입술을 뗐다.

“…사실 오늘 리히가 먼저 키스해줘서 기뻤어요. 이 얘기 하러온 거예요.”

“...”

“이제까지 리히가 저랑 키스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아서, 저 많이 속상했었거든요.”

그녀의 말에 리히르트는 잠시 놀랐으나 곧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의 입술에 키스해왔다. 아나샤는 스르륵 눈을 감았다. 하지만 아나샤의 기대와는 달리 입술은 짧게 닿았다 떨어질 뿐이었다.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그의 입술 사이로 미안함이 스며든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흐음... 미안하단 사람이 웃고 있는데요?”

“미안합니다. 속상했다는 게 귀여워서 말입니다.”

여전히 토라져있는 모습이 사랑스러웠지만, 그렇기에 그는 그녀에게서 손을 거둘 수밖에 없었다.

“아샤. 그대가 원하는 것과 제가 원하는 것은 다를지도 모릅니다.”

리히르트는 아나샤를 바라보다가 이내 잔잔한 웃음기를 감추었다. 그의 입에선 한숨처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실대로 말하자면...그대를 마주하는 게 가끔은 힘이 듭니다. 특히나 그대가 이렇게 사랑스럽게 저를 받아줄 때 말입니다.”

“...”

“모든 걸 받아줄 것 같은 착각에 빠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아샤.”

“리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저도 알건 다 안다구요.”

그녀는 고집스러운 얼굴로 말했으나 여전히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만 보였다. 그리고 이 모습조차 그에게는 유혹적으로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인내심을 가지고 제대로 그녀를 설득할 자신이 없었다. 고개를 돌리며 다시 그녀에게 데려다주겠다고 말을 꺼내려던 찰나였다.

“만약…저도 리히랑 같은 걸 원한다고 하면요?”

그가 한발 내딛기도 전에, 아나샤가 팔을 뻗어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리히르트는 아나샤를 내려다보았다.

“리히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다른 연인들처럼 저도 리히랑 깊게 사,사랑을 나누고 싶단 말이에요.”

용기를 내서 꺼낸 말인 만큼 아나샤는 달아오르는 얼굴을 숨기지 않은 채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러곤 꿋꿋이 말을 이어나갔다.

“그러니까…, 리히가 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은 기폭제가 되어 그의 인내심을 단번에 한줌의 재로 만들었다. 리히르트는 그녀를 안아 올렸다. 순식간에 높아진 시야에 아나샤는 그의 어깨만 붙잡고서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넓은 침대가 보이자 아나샤는 침을 꼴깍 삼켰다. 이윽고 내려지는 몸에 눈을 감자 등 뒤로 푹신한 감촉이 느껴졌다. 몇 번 출렁이던 침대 위가 잠잠해지고, 코앞에서 간질간질한 숨결이 느껴졌다.

“아샤.”

그 나직한 부름에 아나샤는 눈을 떴다. 뜨거운 열망이 고인 눈동자는 평소의 차분한 호수를 연상시키던 눈과는 전혀 달라보였다. 하지만 다정함만은 변하지 않았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다가온 커다란 손은 자신의 머리를 조심스레 쓸어 넘겨주었다. 마치 자신이 대답하기 전까지는 조금도 거칠게 굴지 않겠다는 듯이 말이다.

이제껏 그와 함께했던 순간 중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첫 고백도, 첫 키스도 전부 황홀하고도 좋았을 뿐이다. 그러니 이번도 분명 좋을 것이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조용히 타이르듯 말한 그는 하얀 이마와 콧등, 뺨에 연이어 키스했다.

“그대가 울어도 안 놔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리고 울면 달래줄 거잖아요.”

작게 웃으며 아나샤는 다가온 그의 입술 위로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러곤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좋아해요, 리히.”

살짝 입술을 떨어뜨려 말한 아나샤는 다시 그에게 키스했다. 깊어지는 키스를 시작으로 두 사람의 밤 또한 점차 깊어져갔다.

아나샤는 부스스 눈을 떴다. 잠기운에 흐릿하던 시야가 맑아지며 푸른 벽안이 나타났다. 제 모습을 고요히 담고 있는 한 쌍의 눈과 마주하기 무섭게 아나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뒤로 뺐다.

허리를 감아 바짝 끌어당기는 그의 팔이 아니었다면 분명 침대 아래로 굴러 떨어졌을 것이다.

“잘 잤습니까?”

“…아, 고마워요. 리히도 잘 잤어요?”

“네. 덕분에 푹 잔 것 같습니다.”

쪽, 하고 이마에 닿는 감촉은 더없이 상냥하고 부드러웠다. 아나샤는 그를 올려다보던 시선을 슬그머니 아래로 내렸다. 사랑하는 사람과 처음 맞이하는 아침이 아직까지는 낯설었다.

고개를 내리자 눈앞에는 넓고 탄탄한 가슴팍이 펼쳐져 있었다. 그제야 아나샤는 허리를 감고 있는 그의 팔뚝이, 이불속에서 은근히 닿아있는 몸이 매끄러운 맨살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순식간에 온몸의 열기가 얼굴로 몰려왔다.

“리, 리히! 일단 저희 오,옷부터 입어요.”

어깨에 걸쳐져있던 이불을 눈 밑까지 끌어올리며 아나샤는 황급히 말했다. 리히르트는 “알겠습니다.”하고 나직이 대답하고는 이불 밖으로 나섰고 말이다.

아나샤는 힐끔 침대 밖에서 옷들을 주워 입는 그를 바라보았다. 널찍하게 벌어진 어깨와 등 근육을 훔쳐보다가 그의 등 윗부분에 나있는 손톱자국을 발견했다.

누가 그랬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나샤는 문득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아프면서도 기분 좋은 몽롱한 꿈을 꾼 것 같았다.

손가락 베이는 정도의 아픔일 거라 여겼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파서 중간에 울었던 것도 같다. 워낙 아프기도 하고, 열에 취해있어서 정신이 없다시피 했지만 그의 목소리와 표정만큼은 선명히 기억났다.

옅게 인상을 쓴 그는 줄곧 힘들어 보이는 표정이었었다. 하지만 거친 숨소리가 섞인 가라앉은 목소리는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속삭여주었었다.

살살 어루만져주던 그 뜨거운 손길이 하나하나 떠오르자 아나샤는 다시 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와 눈이 마주칠 새라 아나샤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그러곤 옷을 찾기 위해 이불로 몸을 감싸고서 침대에 앉았다.

“끄응...”

몸을 일으키기 무섭게 허리에서부터 퍼지는 둔통에 아나샤는 미약한 신음을 흘렸다. 그 작은 소리에 리히르트는 곧장 그녀의 앞으로 다가왔다.

“아샤, 많이 아픕니까?”

리히르트는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댄 채 침대에 주저앉은 그녀를 조심스레 살폈다.

“역시 어제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 것 같습니다. 그대 몸을 생각해서라도 자제했어야했는데…,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하자고 한 건데 자업자득이죠 뭐”

뺨을 긁적이며 아나샤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으나 걱정으로 굳은 그의 얼굴은 조금도 풀어지지 않았다. 리히르트는 그녀를 올려다보며 다정하게 얘기했다.

“오늘 하루는 가만히 누워 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아픈 건 아닌데…,”

“아샤. 부디 오늘 하루는 그대를 보살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려했으나 너무나도 진지해 보이는 그의 태도에 아나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옆에서 시중을 들어준다는 건 하루 종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좋았다.

“음, 그러면 지금 방으로 데려다줄래요? 제가 여기서 잔거 할아버지한테 들키면 큰일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옷 좀 주워주세요.”

그 말에 리히르트는 침대 아래에 떨어져있는 잠옷원피스와 속옷을 주워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곧장 옷을 넘겨주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불 속에서 나오면 바로 옷시중을 들겠다는 듯이 말이다.

“왠지 기대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입는 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넵, 그러니까 주세요. 그리고 뒤도 돌아야죠.”

아나샤는 걱정스러운 그의 눈길을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마냥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의외로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을 확인하고선 아나샤는 서둘러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방으로 돌아갔다.

아나샤는 감기에 걸린 것 같다는 핑계로 하루 동안 누워서 지냈다. 리히르트 또한 간호를 핑계로 그녀와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말이다.

그렇게 휴가 중 하루를 흘려보내고, 다음날 두 사람은 떠날 채비를 마치고 마차에 올랐다.

“할아버지, 편지 자주 할게. 말 안 해도 건강하겠지만 건강하고! 나중에 리히랑 같이 또 올게요.”

“누구 맘대로!　이 할애비 뒷목잡고 쓰러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혼자 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아버트는 여전히 손녀의 연애사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 눈초리였지만, 그렇다고 반대하지는 않았다.

이렇게나 좋아하는데 억지로 떼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한 번도 손녀의 고집을 꺾어본 적이 없는 할아버지다웠다.

길베르와도 인사를 나누고서 아나샤는 마차 문을 닫았다. 이윽고 마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몸을 내민 채 손을 흔들던 그녀는 저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서야 겨우 자리에 앉았다.

마차는 급하게 수도로 가지 않고 중간에 다른 영지에 들렀다. 아나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미리 여관을 잡아둔 채 두 사람은 함께 짧은 여행을 즐겼다. 새로운 장소를 구경하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밤이 늦어서야 마을 여관으로 돌아왔다.

“그럼 내일봐요. 리히.”

방에 들어서기 전 아나샤는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좋은 꿈꾸십시오. 아샤.”

리히르트는 그녀를 방 앞까지 데려다주고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머물 방으로 향했다. 멀어져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아나샤는 붙잡아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에 고민만 거듭했고 말이다.

두 사람 다 떨어지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각방을 쓰지 않는다면 어떤 흐름으로 갈지 잘 알기에 방을 따로 잡은 것이었다.

아쉬움에 발만 동동 구르는 것도 잠시, 아나샤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새겨보았다. 단둘이 여행을 한 것은 처음이었기에 무척이나 즐거웠었다. 아나샤는 밤새 기쁜 얼굴로 잠이 들었다.

다음날 두 사람은 느긋하게 수도로 출발했다. 아나샤가 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잠시 멈춰 둘러보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으면서 말이다. 그렇게 초저녁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수도에 입성할 수 있었다.

“벌써 이틀 뒤면 휴가 끝이라니! 아쉬워요.”

웨일그레슬 공작저에서 화려한 저녁식사를 한 뒤 아나샤는 그와 후식으로 차를 마셨다. 며칠 내내 붙어있었지만 그럼에도 부족하다는 듯이 말이다.

“휴가가 끝나기 전에 다른 하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요? 으음.”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아나샤가 별안간 눈을 빛내며 그를 쳐다보았다.

“리히 방 구경해도 돼요?”

사실상 더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꺼내본 말이었지만, 그가 안내하겠다며 몸을 일으키자 아나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껏 공작가에는 여러 번 놀러왔었지만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이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간 두 사람은 어느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아나샤가 이 방이냐고 그를 올려다보며 묻자 리히르트는 부드러이 눈을 접으며 말했다.

“아샤, 먼저 들어가도 됩니다.”

작은 설렘을 누르며 아나샤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이윽고 드러난 방 풍경에 아나샤는 작게 감탄했다.

방 전체가 채도 낮은 색으로 칠해진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의 지위에 맞게 호화로웠다. 품위 있는 가구들과 천장에 달린 샹들리에는 아름다운 빛을 띠고 있었다.

“가구들이 하나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보다 열배는 넓어 보이는 공간을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아나샤는 구경하기에 바빴다.

“헉, 진짜로 엄청 매끄러워요. 매일 기름칠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장식장의 표면을 슥 만져본 아나샤가 깜짝 놀라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모습이 꼭 놀라 달아나려는 작은 들짐승을 닮아 리히르트는 그녀를 잡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필요하면 가져가도 됩니다.”

“제 방에 이거 놓으려면 제 침대부터 빼야 될걸요? 근데 여기 이 방은 뭐예요?”

“침실입니다. 궁금하면 들어가도 됩니다.”

리히르트의 허락에 아나샤는 “그럼 실례할게요.”하고 말하고는 곧바로 문을 열었다. 침실 역시 넓었는데 가구가 적은 편이라 그런지 좀 더 단정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늘 그에게서 나던 시원하고 좋은 향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깔끔한 게 리히 성격이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될까…, 그보다 향이 너무 좋아.’

생각에 잠긴 채 아나샤는 천천히 침실 안을 둘러보았다. 커다란 창문과 벽 한 면에 걸려있는 액자가...

아나샤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다. 하지만 아무리 뚫어지게 봐도 액자 속에 그려져 있는 사람은 분명 자신이었다.

“악! …저게 왜, 왜 여기에...”

입술을 크게 뻐끔거리며 아나샤가 액자만 가리키고 있자 리히르트는 조금 난감한 듯 느리게 운을 뗐다.

“받았습니다.”

“아니, 받은 건 그렇다 쳐도 저런 걸 왜 방에다 걸어두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부끄럽다며 아나샤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었다.

“저거 내려주세요. 아니 제가 직접 내릴래요.”

“제법 무겁습니다.”

리히르트는 그녀가 다칠 새라 먼저 다가가 액자를 떼어냈다. 그러곤 침실 한편에 소중히 내려놓았다. 창피하니 뒤집어놓으라는 아나샤의 말에 벽을 보게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놀라긴 했지만, 아무튼 방 잘 봤어요...”

아나샤는 여전히 액자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침실을 나섰다. 제법 밤이 늦었으니 객실에서 자거나 기사단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여길 때였다.

“아샤. 나갈 겁니까?”

자신을 붙잡아 세우는 손에 아나샤는 뒤를 돌아보았다. 마주쳐온 푸른 눈은 부드러웠으나 숨김없이 따스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었다.

“좀 더 같이 있고 싶습니다.”

커다란 손에 감싸인 손이 어쩐지 뜨거웠다. 그는 금방이라도 놓아줄 것처럼 힘은 주지 않고 살며시 붙잡고만 있었지만, 아나샤는 그래서 더욱 놓기 힘들었다.

그의 손안에서 손가락만 꼼질거리던 아나샤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 조금만 더 있을까요?”

‘그러겠다고는 했지만...’

아나샤는 답지 않게 다소곳하게 무릎에 두 손을 얹고 침대에 걸터앉아있었다. 약간은 긴장한 얼굴이었다.

조금 더 같이 있겠다는 말을 하고 몇 시간을 더 그와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헤어지고 싶지 않아 계속 미루고 미루다 보니 어느새 밤은 깊어져있었고 말이다.

가벼운 뽀뽀를 시작으로 어느 순간 분위기에 휩쓸려 그와 소파에 누워 키스까지 해버렸다.

이대로 두 번째 밤을 맞이하는 건가! 싶을 때 그가 먼저 씻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고, 아나샤는 얼떨결에 그의 욕실로 들어가서 씻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그의 옷을 빌려 입고서 침실에 앉아있는 중이었다.

아나샤는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소리에만 집중한 채 침을 꼴깍 삼켰다. 얼마안가 물소리가 끊기자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역시 또 하는 거겠지?!’

처음도 아닐 텐데 이상하게 처음보다 더 떨렸다. 마음의 준비를 할 새도 없이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나샤는 다시 마른 침을 삼키고서 욕실에서 나오는 그를 힐끔 보았다.

그는 편하게 바지만 입은 채였다. 한번 앞머리를 쓸어올린 리히르트가 그대로 침대로 걸어오자 아나샤는 홱 고개를 숙였다. 심장 박동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머지않아 발소리가 그녀 앞에서 끊기고 짙은 그림자가 그녀의 머리위에 내려앉았다.

“아샤.”

낮은 부름에 아나샤는 슬그머니 시선을 위로 들어올렸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어깨에 걸치고 있던 수건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침대 위로 올라왔다. 그러곤 곧장 입술을 맞대어 왔다.

탄탄한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은 채 키스하던 그는 아주 천천히 그녀를 뒤로 눕혔다. 리히르트는 점차 손을 위로 움직여 그녀의 목덜미를 손끝으로 쓸었다. 긴장한 것인지 뒷목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리히르트는 조심스럽게 입술을 떼어내고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아샤. 무섭습니까?”

“무서운 건 아닌데 조금 긴장돼서...”

두 눈만 꼭 감고 누워있던 아나샤는 뒤늦게 눈을 뜨고서 눈동자를 굴렸다. 그 모습을 바로 위에서 지켜보던 리히르트는 이내 고개를 숙였다. 쪽 하고 이마에 입을 맞춘 그는 나지막이 운을 뗐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은 걸요.”

“그래도 긴장한 상태면 힘들 겁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테니,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뺨을 쓰다듬는 손길은 다정했다.

“그대가 먼저 만져달라고 할 때까지 그대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

아나샤는 작게 고개를 주억이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에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럼 제가 리히를 만지는 건요?”

“만지고 싶습니까?”

“엄청 만지고 싶은 건 아니구요! 그, 리히가 싫다면 안 만질게요.”

“아샤, 저는 그대의 것이니 허락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만져주는 거라면 언제든 좋습니다.”

마음껏 만져도 된다는 말에 아나샤는 부끄러운 기분이 들었으나 피하지는 않았다. 슬그머니 한쪽 손을 들어 올린 그녀는 그대로 그의 복부에 손을 가져다대었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반신은 매끄러웠다.

복부를 천천히 쓸어내리자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움찔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다. 아나샤는 그 반응이 귀엽게 느껴지는 한편, 좀 더 그를 자극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다른 곳도 한번 만져 봐도 돼요?”

“어디가 만지고 싶은 진 몰라도, 됩니다.”

“그럼요... 엉덩이 만져 봐도 돼요?”

장난기가 발동한 얼굴로 아나샤가 묻자 리히르트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머뭇거리던 것도 잠시 아나샤의 손은 과감하게 그의 엉덩이 위에 안착했다.

바지를 입고 있어 맨살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상 만지려니 왠지 부끄러웠다. 아나샤는 조심스레 손을 움직여보았다. 엉덩이에도 근육이 발달한 건지 살집 없이 단단하기만 했다.

‘리히, 지금 무슨 표정일까...’

어쩌면 붉게 얼굴을 물들이고 있을 지도 몰랐다. 부끄러워하는 그의 표정이 보고 싶자 아나샤는 슬쩍 눈을 들어올렸다. 여전히 엉덩이를 조물거리면서 그와 눈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가만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던 푸른 눈이 느긋하게 곡선을 그리며 휘어졌다. 그 눈웃음에 되레 당황한 아나샤는 손을 떼었고 말이다.

“더 안 만져도 되겠습니까?”

“이,이제 됐어요. 그보다 리히 은근히 즐기고 있죠?”

아나샤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그는 말없이 조용히 웃을 뿐이었다.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한참을 속삭이며 얘기를 나누었다. 웃는 사이 긴장은 자연스레 눈 녹듯 사라져갔다. 대신 알 수 없는 간지러운 열기가 발끝을 타고 올라왔다.

아나샤는 두 손을 뻗어 날렵한 뺨을 감쌌다. 그러곤 아래로 당겨 그의 입술에 먼저 입을 맞췄다.

“리히, 저 만져줘요.”

그 말에 리히르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입술을 겹쳐왔다. 입술 사이를 가르고 들어온 뜨거운 혀는 작은 입안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나샤는 눈을 감은 채 서툴게 그와 혀를 섞었다.

서로의 숨과 타액이 뒤섞이며 야릇한 소리가 침대 위를 가득 매웠다. 키스가 길어질수록 부드럽기만 하던 그의 움직임은 점차 조급해져갔다. 한참 뒤 그는 입술을 떼어냈다. 아래에 있는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리히르트는 입을 열었다.

“…아샤. 해도 되겠습니까?”

고르지 못한 숨소리가 아나샤의 귓전에도 내려앉을 만큼 그는 흥분한 상태였다. 그리고 아나샤 또한 마찬가지로 흥분으로 달뜬 얼굴이었다.

“좋아요... 얼른요.”

보채는 목소리가 사랑스러워 리히르트는 금방이라도 그녀를 안고 싶었으나 그는 대신 둥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서 미약하게 열이 오른 뺨과 콧등에도 키스하고선 그녀에게서 떨어졌다.

그는 잠시 침대에서 내려와 협탁 위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왔다. 그녀가 씻는 동안 준비해둔 피임기구와 윤활제였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할퀴지 말고 때리십시오, 아샤.”

“알겠습니까?” 하고 묻는 진지한 목소리에 아나샤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러웠으나 첫날밤에 비하면 창피함은 덜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녀 아래에 자리 잡은 리히르트는 아나샤의 오른발을 붙잡아 들어올렸다. 그러곤 어깨에 편히 올려놓은 채로 발목 안쪽부터 종아리, 허벅지를 따라 천천히 입술을 갖다 대었다. 쪽쪽 하고 작게 들려오는 소리와 그 야한 모습에 아나샤는 부끄러워져 질끈 눈을 감아버렸다.

그렇게 웨일그레슬 공작의 침실에서 두 번째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뺨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간지러움에 아나샤는 어렴풋이 잠에서 깼다. 그것이 누군가의 손길이라는 것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손길은 이내 이마에서도 느껴졌다. 한올 한올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손길에 아나샤는 비몽사몽한 채로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눈앞에는 그가 있었다. 다정한 시선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가 이내 고개를 숙여 뺨에 키스했다.

“더 안자도 되겠습니까?”

“으음, 네에...”

들려온 부드러운 저음에 아나샤는 가만히 그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깜빡였다. 아침햇살이 내려앉은 침대 위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어제 아프진 않았습니까?”

“…어제는 하나도 안 아팠어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

몇 번이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던 것 같다. 저번에 너무 아파했던 게 마음에 걸렸던 것인지 어젯밤 그는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써주었었다. 동시에 드문드문 떠오른 기억들에 아나샤는 조용히 이불을 끌어올렸다.

“리히를 위해서라면…뭐 아파도 상관없는 걸요.”

아나샤는 몸을 돌려 꼬옥 그를 안았다. 체격차이로 인해 안겨있는 모습에 더 가까웠지만 자신보다 큰 사내가 사랑스러워 죽겠다는 얼굴이었다.

그대로 두 사람은 침대 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지도 모른 채 누워있던 두 사람은 아나샤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리면서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아나샤가 옷을 입기 위해 이불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었다. 두꺼운 팔이 그녀의 허리를 휘감더니 다시 그녀를 이불 속으로 끌어당겼다.

“리히?”

“오늘 하루는 침실 안에서만 보내는 게 어떻습니까? 식사는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여기서 먹자고요? 음, 저는 딱히 상관없으니까 리히 마음대로 해요.”

리히르트는 침대 밖으로 나와 옷을 걸쳤다. 그러곤 여전히 이불안에 있는 아나샤에게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녀와요.”

어쩐지 만족스러워 보이는 그의 모습에 아나샤는 의아해하면서도 침실을 나서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침실 안에서만 보내자던 그의 말은 진심이었는지 아나샤는 그날 내내 침실 밖으로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나가려고만 하면 그는 귀신같이 알아차리곤 자신을 붙잡아 침대 위에 눕혔다. 그렇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의 방안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가 함께 있어 답답하지는 않았으나 몸이 조금 찌뿌드드했다.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자 아나샤는 잠을 깨기 위해 넓은 그의 방안을 돌아다녔다. 어느새 구경하는 것에 몰두해 보물찾기라도 하듯이 가구들을 일일이 열어보기 시작했다.

“리히, 이건 뭐예요?”

“장식용으로 둔 물건일겁니다. 가져도 됩니다.”

“이건 술이에요?”

“테리오산 와인입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셔도 됩니다.”

뭘 자꾸 주려고하는 그의 말에 아나샤는 푸스스 웃었다. 다시 장식장 안을 살펴보던 중 아나샤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다. 아래 칸에 놓여있는 작은 보석함이었다.

금테가 둘러져있는 보석함은 장인의 세공품이 아닌가 싶을 만큼 고급스러웠다.

“저 이거 한번 열어봐도 돼요?”

“그건,”

그는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으나 이내 곧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나 귀중한 물건이기에 그가 보여주는 것을 다 망설이는 건가 싶었다.

아나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석함을 열었다. 희귀한 보석이나 번쩍거리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 여기며 말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게도 꾸깃꾸깃하게 접은 쪽지들이 담겨있었다. 아나샤는 실망스러운 눈으로 종이쪽지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익숙한 기분이 들어 쪽지 하나를 펼쳐보았다.

"단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역시나 자신의 필체였다. 아나샤는 놀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설마 이거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수북한 것을 보니 자신이 그의 책상 위에 몰래 올려놓았던 쪽지들을 전부 모아둔 모양이었다. 아나샤는 더 읽기 부끄러워져서 보석함을 닫았다.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다시 읽은 건 아니죠?”

“혼자 있을 때 종종 읽습니다.”

“아악! 부끄럽게 왜 읽는 거예요!”

뭐라고 썼었는지 자세히 기억나진 않지만 날씨가 좋다는 둥, 밥이 맛있었다는 둥, 아무 말이나 썼을 게 분명했다. 이렇게 그가 보관하고 있을 줄 알았다면 좀 더 고민하며 근사한 말들로만 썼을 테다.

“편지야 언제든 써줄 테니까요... 이런 거 일일이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당연히 예전에 버렸을 줄 알았는데...”

“그대가 처음으로 직접 써준 것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간지러운 소리를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 때문에 아나샤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다. 동시에 이런 쪽지 하나도 소중히 여겨주는 그가 고마웠다.

자리에서 일어난 아나샤는 그대로 펄쩍 뛰어 그에게 안겼다. 그가 너무 예뻐서 얼굴 이곳저곳에 입술을 찍어대자 곧 그가 자신을 번쩍 안아들었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아나샤는 다시 침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마지막 휴일도 방안에서만 보낸 두 사람은 다음날 같은 마차를 타고 출근했다. 연애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앞으론 당당하게 붙어 다니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황실 제5기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함께 출근하는 모습에 기사단이 발칵 뒤집힌 지도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리히르트와 아나샤의 연애사실에 기사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그럴 줄 알았다는 부류와 절대 인정 못한다는 부류로 말이다.

갑자기 휴가를 내고 사라진 기사단장이 아나샤와 함께 돌아왔다. 휴가 내내 두 사람이 함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기정사실화되자 강경 삼촌파 기사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이런 불건전한 관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갈았던 기사들이었으나 그들은 곧 잠잠해졌다. 매일 행복한 듯 웃고 있는 아나샤의 모습에 다들 마음이 약해져버린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아나샤를 아끼는 만큼 그들의 눈에는 리히르트의 모든 행동들이 전부 아니꼽기만 했다. 숨을 쉬는 것조차도 말이다.

“저거 저거, 또 아샤한테 포옹하는 거봐라.”

“…어쭈. 허리를 만져? 허리르으을?”

“…저 도둑놈 안 되겠는데?”

스무 쌍의 눈들은 오늘도 리히르트를 주시하고 있었다. 정확히는 수돗가의 나무 뒤에서 아나샤를 끌어안고 있는 그의 등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뭔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모습들에 크리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덩치 큰 사내놈들끼리 모여서 또 뭘 하나했더니…, 참 질리지도 않는다고 여겼다.

“너네…, 아무리 그래도 단장님이신데 말을 너무 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몰래 하잖아. 그리고 내가 아샤 삼촌인데 지가 뭐 어쩔 거야.”

“바론 말이 맞다. 단장님이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있는 거지, 아니었어봐. 확 그냥!”

“그래. 우리들도 할 말이 많지만 안하고 있다 이 말이야!”

기사들이 한마디씩 거들며 외치자 크리스는 머리가 다 지끈거렸다. 이 바보들을 어떻게 말려야할지 알 수 없었다.

“진정들 좀 해. 너네 요즘 도를 넘을 만큼 적대적인 눈으로 단장님을 노려보고 있다고. 암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기강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불경죄로 잡혀들어 가고 싶어?”

“허, 기강?”

기가 차다는 듯 콧방귀를 뀐 바론이 별안간 눈에 핏대를 세웠다.

“그런 걸 생각하는 인간이 대낮부터 기사단에서 저러고 있겠어? 지금 저놈 머릿속에는 말이야! 순진한 애를 어떻게 구워삶을까 하는 생각밖에 없단!! 읍, 읍!”

격분한 외침에 크리스는 황급히 바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곤 미쳤냐고 욕을 했으나 바론은 배 째라는 양 당당하기만 했다. 바론뿐 아니라 다른 기사들의 반응도 비슷하기만 했다.

“설령 들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을 걸. 그냥 무시하고 말았겠지.”

“내 생각도 그래. 그리고 기강을 유지하긴 개뿔이... 제일 기강이 해이해진 사람이 단장님인데 누가 누구의 기강을 바로 잡아?”

기사들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이유라면 있었다. 늘 서느렇게 위압감을 풍기던 기사단장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 같던 기세는 어디가고, 지금은 사람이 이렇게 여유로울 수 없다는 듯이 느슨하기만 했다. 여전히 다가가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으나 굉장히 물러진 것은 사실이었다.

무엇보다 ‘아샤의 삼촌’이라는 가장 큰 무기가 있으니 두려울 게 없을 정도였다.

“그래, 단장님은 들어도 그냥 무시하고 만다고 쳐. 아샤가 들으면? 너네가 이러는 거 아샤가 모를 줄 알아?”

“...”

“...”

크리스의 말에 기사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 기세를 몰아 크리스는 이제껏 참아왔던 말들을 쏟아내었다.

“용기내서 연애사실을 얘기해줬는데 너네가 이러면 애가 얼마나 속상하겠냐. 응원은 못해줄망정 그러고도 니네들이 삼촌이냐? 어?!”

“...”

“애초에 말이야.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 난 솔직히 단장님정도면 남자로서 괜찮다고 보는데. 8살 어린 애를 만나는 건, …그래. 도둑놈이라고 쳐. 하지만 아샤가 또래랑 만났으면 그건 그거대로 불안했을 걸.”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기사들은 더욱 주눅이 든 채 크리스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샤한테 잘하는 거보니까 일단 합격이고. 성격도 책임감 있고 진지하니까 안심은 되잖아? 어디 사는지 모를 어린 놈보다는 백배 낫지.”

“…이봐, 크리스. 누가 그걸 몰라?”

조용히 듣고만 있던 기사들 중 하나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말이다! 그래서 더 짜증난다고! 뭐 꼬투리 잡을 게 있어야지, 쓸데없이 완벽한 인간이라 말리지도 못하겠다고!”

연애는 물론 결혼상대로도 너무 완벽해서 더 불안했다. 이러다 아나샤가 덜컥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을까, 기사들은 모두 두려운 심정이었다.

그들로서는 아나샤가 정말로 원하는 일에 반대할 재간이 없었다. 결국 아나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모두 축하한다고 웃거나 혹은 울고 있을 것이다.

“난 아직 우리 아샤 못 보낸다!”

“요만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옳소! 연애도 불안해 죽겠구만, 결혼?!”

분통을 터뜨리는 기사들의 모습에 크리스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이 팔불출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크리스는 두 사람의 미래가 조금 걱정되었다. 연애는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다. 지체 높은 공작가문의 가주가 언제까지고 후계를 두지 않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아샤를 부인으로 맞이하든, 다른 귀족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든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테다.

‘아직은 먼 얘기겠지만...’

중요하게 할 얘기도 있겠다, 이참에 아샤의 생각은 어떤지 물어봐야겠다고 여겼다. 그날 오후 크리스는 저녁약속을 잡기 위해 아나샤를 찾았다. 보나마나 단장실에 있을 게 뻔했기에 그는 바로 단장실로 향했다.

문 앞에 도착한 크리스가 노크를 하기 위해 손을 들어 올린 순간이었다. 크리스는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 순간 귀를 의심했다.

분명 쪽쪽거리는 소리였다. 그리고 대낮부터 뽀뽀에 열중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지 크리스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고 여겼다. 애초에 이 안에 있을 사람이 두 사람 빼고 더 있겠냐만 은.

크리스는 눈썹을 꿈틀거렸다. 딸아이의 방에 쳐들어가 딸의 남자친구를 끌고 나오고 싶은 아버지의 심정이 이러할까.

그러나 크리스는 인내했다. 자신은 기사단의 팔불출들과는 다르다고 여기며 애써 침착하게 문을 두드렸다.

노크소리에 그제야 단장실 안에서 울리던 쪽쪽 소리가 멈췄다.

“…어떡해요. 누가 왔나 봐요.”

급하게 입술을 뗀 아나샤가 작게 속닥거렸다. 이에 리히르트도 모든 행동을 멈춘 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저희 뽀뽀하는 소리…들리진 않았겠죠?”

발그레한 뺨과 살짝 흐트러진 옷매무새, 그리고 작은 입술은 투명하게 젖어 반질거리고 있었다. 놀란 모습조차 사랑스러워서 리히르트는 고개를 숙여 통통한 아랫입술을 삼켰다.

누르고 있던 흥분은 다시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그녀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 숨겨놓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 아니 그녀와 함께 아무도 없는 곳에 평생 단둘이 있고 싶다. 이 짧은 순간도 방해받지 않도록.

그 수많은 생각들을 누른 채 리히르트는 조용히 입술을 떼며 속삭였다.

“…좀 더 키스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어서 다시 입술을 맞추려하자 아나샤는 손을 들어 그의 입을 막았다.

“…안돼요. 듣고 있을 지도 모르잖아요.”

“아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작은 손바닥에 쪽 하고 입술을 찍었다. 따스한 숨결이 손바닥 안을 간질이자 아나샤는 손가락을 움츠렸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에게 이따가 오라고…,”

“크흠!”

그때였다. 뒤에서 들려온 헛기침 소리에 아나샤는 화들짝 놀라며 널찍한 품을 밀어냈다. 언제 들어온 것인지 문 앞에 선 크리스 삼촌이 못마땅한 얼굴로 이쪽을 보고 있었다.

“멋대로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분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대답이 없으셔서 문 좀 열어봤습니다. 얼마나 열중해 있었으면 노크소리가 다 안 들렸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절대 죄송하지 않은 얼굴로 크리스가 사과하자 아나샤는 대번에 당황한 얼굴로 버벅댔다.

“뭐,뭘 열중해. 그냥 생각에 잠겨있느라 못들은,”

“입에 침이나 바르고…, 아니 이미 발라져있네. 그것도 잔뜩.”

아나샤는 황급히 팔을 들어 입술을 문질렀다. 그 모습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던 크리스는 한숨과 함께 다시 입을 열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비지? 아샤.”

“…비는데 왜?”

“오랜만에 얘기나 좀 하자고. 아무튼 저녁에 거기 어디냐, 단골 술집 앞에서 만나.”

“뭐야, 이 얘기하러 온 거야?”

“아니 한 가지 더 얘기하러.”

크리스는 아나샤를 보고 있던 시선을 옮겨 리히르트를 바라보았다.

“앞으로 아샤랑 단둘이 있을 때는 단장실 문 좀 활짝 열어놓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실례했습니다.”

최근 들어 물러졌다는 평이 자자한 그답게 리히르트는 별말이 없었다. 그녀만 생각하느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귀에 들어오지 않는단 게 옳았지만 말이다.

대신 아나샤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발끈한 얼굴로 외쳤다. 그러거나 말거나 크리스는 유유히 단장실을 빠져나갈 뿐이었다. 정말 문을 활짝 열어둔 채로.

“정말…유치하게.”

아나샤는 씩씩대며 문으로 걸어가 직접 문을 닫았다. 그러곤 리히르트에게 다가가 그에게 포옥 안겼다.

“안되겠어요. 오늘 삼촌한테 크게 한턱 쏘라고 해야지... 리히도 갈래요? 맥주랑 안주가 엄청 맛있는 곳인데.”

“처리해야 될 서류가 많아서 같이 못갈 것 같습니다.”

리히르트는 양손을 들어 아나샤의 뽀얀 얼굴을 감쌌다. 엄지로 보드라운 뺨을 천천히 쓸며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늦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기사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피곤하잖아요.”

“어차피 밀린 일 때문에 남았어야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적당히 2시간 정도 마시다가 돌아올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나샤는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자신이 맛있는 걸 먹고 오는 동안 그는 일을 해야 되니 말이다.

아나샤는 까치발을 들어올렸다. 그의 입술에 쪽하고 입을 맞춘 뒤 말했다.

“저녁에 미리 힘내라구요. 그, 이걸로 힘이 날진 모르겠지만...”

뺨을 긁적이며 아나샤는 슬쩍 그의 표정을 살폈다.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각은 채 몇 초도 이어지지 못했다. 곧바로 그가 고개를 숙여 쪽쪽 소리가 날 만큼 입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리히, 그만... 일 밀렸다고 했…,”

그렇게 단장실에서는 다시 한동안 쪽쪽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해질녘이 되자 크리스는 약속장소로 향했다. 술집 안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서 언제 올지 모를 아나샤를 기다리며 안주 몇 개를 주문했다.

주문한 음식이 모두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나샤는 나타났다. 뒤에 커다란 사내 둘을 달고서 말이다.

“부단장님이 여기 맥주 좋아하거든. 그래서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좋다고 해서 데려왔어. 그리고 엘빈은 오다가 만나서 데려왔고. 물론 당연히 삼촌이 쏘는 거 알지?”

“뭘 멋대로…,”

“다들 들었죠? 오늘은 크리스 삼촌이 쏜다니까 많이들 드세요!”

해맑은 얼굴과는 달리 목소리에는 사악함이 섞여있었다. 미소를 띤 채 아나샤는 크리스의 옆자리에 앉았다. 칼리프와 엘빈이 맞은편에 착석하자 아나샤는 자연스럽게 맥주 네 잔을 주문시켰다.

크리스는 눈썹을 꿈틀거리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원래 자신이 살 생각이었으니 쏘는 건 그렇다 쳐도 이게 대체 무슨 조합인가 싶었다.

‘엘빈이야 그렇다 쳐도 부단장님이랑은 언제 저렇게 친했대? 그래도 단장님 안 데려온 게 다행인가...’

크리스는 잠시 이 술자리에 무표정한 백금발의 사내가 앉아있는 상상을 했다. 상상만으로도 이질감과 어색함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크리스는 생각을 접고서 옆에서 떠들고 있는 아나샤와 엘빈을 바라보았다.

“…왠지 다 좋아할 것 같아서 말이야. 으음, 보통 남자들은 선물로 뭘 받으면 좋아해?”

“나는 먹을 거.”

“너 생일 말고 엘빈.”

아나샤의 말에 엘빈은 담담한 얼굴로 질문했다.

“생일이 언제이신데?”

“겨울.”

“겨울이면 몇 달이나 더 남았잖아.”

“그래도 미리 생각해두면 좋잖아. 안 그래요? 부단장님?”

아나샤는 칼리프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던 칼리프는 의외라는 듯이 한쪽 눈썹을 들어올렸다.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있나봅니다?”

그의 말에 순간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다. 뒤늦게 엘빈은 드물게 놀란 얼굴로 칼리프를 돌아보았다.

“부단장님. 혹시나 해서 묻는 건데, 정말 모르십니까?”

“뭘 말입니까? 엘빈 경.”

“정말 모르실 줄이야...”

엘빈과 크리스는 믿기 힘든 눈으로 칼리프를 바라보았다. 기사들이 그 난리를 피워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는 눈빛이었다.

“…대체 뭔데 그럽니까?”

“큼, 정말 모른다고 하니 알려드리죠. 아샤와 단장님은 연인사이입니다. 사귄지 좀 됐죠.”

크리스의 말에 칼리프는 맥주를 들이켜다 말고 그대로 다시 천천히 잔을 내려놓았다. 그러지 않았다면 턱 밑으로 맥주가 줄줄 흘러내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단장님과…그런 사이...라는 게 진짭니까?”

“뭐예요. 그 반응은!”

경악스러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난 얼굴은 도저히 믿기 힘든 얘길 들은 사람 같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단장님이라니... 그럴 리가...”

칼리프는 다시 잔을 들어 올리고선 빠르게 술을 들이켜기 시작했다. 어떻게든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는 듯한 모습이었다.

“내가 그렇게 리히랑 안 어울리나...”

아나샤는 툴툴대며 술을 홀짝였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샤. 너 요즘 퇴근하고 단장님 저택으로 가지?”

그때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아나샤는 뜨끔하며 하마터면 사레에 들릴 뻔했다. 그 당황한 모습을 빤히 지켜보고 있던 크리스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다...하아. 요즘엔 숙소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고 말이야. 너 때문에 네 삼촌들이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렇게 시작된 크리스의 잔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져갔다. 아나샤는 안 들리는 척 딴청을 피우면서 계속해서 맥주를 들이켰다. 맛있는 맥주가 없었다면 진즉에 도망쳤을 것이다.

“연애도 좋지만 네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 너도 알겠지만 연애는 언젠간 끝이 있잖냐.”

“...”

“지금은 마냥 행복해도 결국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면 헤어지게 된다는 소리야. 단장님은 나중에 후사도 둬야할 텐데 그 문제를 언제까지고 생각안할 수도 없잖아.”

“푸하, 삼촌이 말 안 해도 나도 알거든?!”

괜히 울컥한 아나샤는 맥주잔을 내려놓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한 번에 많이 마셔서 그런지 벌써부터 조금 알딸딸한 기운이 올라왔다.

“결심했어. 나 삼촌이 짜증나서라도 리히랑 결혼할거야.”

그 폭탄발언에 크리스는 아이고 소리를 내며 뒷목을 잡았다. 술을 들이켜고 있던 칼리프와 엘빈도 놀라긴 마찬가지였다.

“너…결혼얘길 그렇게 쉽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 짜증나게 하래? 확 해버려?”

“그래, 해라! 해! 누가 말린 댔냐?!”

두 사람의 말다툼에 엘빈은 “와 둘 다 똑같네요”하고 중얼거렸다.

“근데 나 진짜 결혼 생각 있어. 쉽게 얘기한 거 아니야.”

“뭐...”

“물론 삼촌이 짜증나서 한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사실 예전부터 생각해오긴 했단 말이야. 아무래도 내 인생에 리히가 없는 건…도무지 상상이 안 가서 만약 리히가 결혼하자고 하면 할 거야.”

“아샤. 그럼 일은 그만두게?”

“아니, 나 일 안 관둘 건데?”

엘빈의 물음에 아나샤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첩자 일을 내가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어. 할머니 되기 전까지 안 관둘 거니까 걱정 마셔!”

“공작부인이 돼서도 기사단 첩자일을 하겠다고? 그게 무슨…,”

너무 당당해서 크리스는 어디부터 따져야 될지 알 수 없었다.

“애초에 단장님이랑 얘기해본 거야? 너.”

“그건 아니지만, 리히라면 분명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거니까...”

“이 녀석아. 원래 연애 초에는 별도 달도 따다준다고 할 때라고. 뭐든 들어줄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 말 바꾸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단장 리히르트가 그렇게 가볍게 말을 바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의를 줄 필요는 있었다.

‘너무 좋아하진 말라고 그렇게나 말했는데...’

지금 연애하는 것을 보면 어릴 적에 리온 뒤만 졸졸 따라다녔던 것과 하나도 다른 점이 없었다. 만약 어떤 이유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다면 아샤가 그 상실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아샤가 평범하게 어디 가문의 영애이고, 미래가 약속된 사이였다면 이렇게까지 걱정이 들진 않았을 텐데…, 크리스는 답답함에 연거푸 맥주를 들이켰다.

“두 사람 완전히 뻗었네요.”

엘빈은 맞은편 자리에서 나란히 뻗어있는 아나샤와 크리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샤. 정신 들어?”

“으응... 무울...”

“아샤는 저희 중 누가 부축하면 될 것 같은데, 크리스 선배가 문제네요.”

그나마 정신이 있는 아나샤와는 달리, 크리스는 아예 뻗어 꿈쩍도 하지 않았다. 세 시간 동안 주구장창 술만 들이켰으니 그럴 만도 했다.

“마차를 불러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그동안 두 사람 좀 봐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엘빈 경.”

엘빈이 술집 밖으로 나가고, 칼리프는 자리에 앉아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기사단 숙소까지 이 둘을 어떻게 옮겨야할지 벌써부터 막막하다고 여길 때였다.

“무울...”

작게 웅얼거리는 목소리에 칼리프는 물을 따라 그녀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그러나 아나샤는 푸욱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다.

“…무울…줘어어...”

“여기 물 있지 않습니까.”

“...무우울.”

“하여간…,”

칼리프는 직접 물잔을 쥐고서 아나샤의 앞으로 걸어갔다. 고개를 들게 하고서 입 앞에 잔을 가져다 대주기까지 했으나 아나샤는 끔뻑끔뻑 눈을 감았다 뜨길 반복할 뿐 입을 꾹 다물 뿐이었다.

“아나샤 경, 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입을 제대로 벌리든가 해야…,”

그 순간, 칼리프는 자신의 목을 와락 끌어안으며 매달리는 아나샤의 행동에 고개가 아래로 숙여졌다. 얼마나 강하게 당겼는지 잔에 담긴 물이 반쯤 밖으로 쏟아졌을 정도였다.

“…미쳤습니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리이히...뽀뽀...”

“이런 미친.”

칼리프는 와락 인상을 썼다.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제게 매달려있는 아나샤를 떼어놓고 싶었으나, 놓으면 바로 뒤로 넘어져 버릴까봐 그럴 수 없었다.

어서 엘빈이 돌아오길 기다릴 때였다. 술집으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들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에 칼리프는 당연히 엘빈이라 의심치 않으며 고개를 돌렸다.

“...”

나오려던 목소리는 순식간에 종적을 감췄다. 불쾌함을 숨기지 않은 벽안은 날카롭다 못해 매서웠다. 칼리프는 이쪽을 보고 있는 리히르트와 눈을 마주하자 목이 졸린 듯 말을 꺼내기가 힘들었다.

‘하필이면 또...’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떠올리며 칼리프가 빠르게 예를 갖추려던 순간이었다. 뺨에 쪽 하고 닿는 감촉에 칼리프는 느리게 눈을 감았다 떴다.

“뽀…뽀해조...”

그 웅얼거림을 뒤로하고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날 칼리프는 살면서 뽀뽀에 이토록 간담이 서늘해져본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했다.

두 시간만 마시고 돌아온다던 그녀는 세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초조한 기다림 끝에 리히르트는 보고 있던 업무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섰다.

다행히도 크리스 벨덴 경이 말한 ‘단골 술집’은 다른 기사들도 아는 곳이었다. 그렇게 술집의 위치를 아는 기사를 대동한 채 어느 작은 술집에 도착한 것이 대략 30분 전의 일이었다.

침실에 들어선 리히르트는 아나샤를 침대위에 내려놓았다. 편하게 잘 수 있게 겉옷을 벗기고 눕혀주기까지 했으나, 술이 덜 깬 아나샤는 누웠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다.

“…조올려. 누울 거야…”

콧잔등을 찌푸리며 웅얼대는 말에 리히르트는 조용히 위에서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왜 또 심술이 났는지 살짝 튀어나온 아랫입술이 사랑스러웠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다른 이의 뺨에 닿았던 것이 떠오르자 조금은 얄미운 마음이 들었다.

술김에 착각을 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안다. 부단장의 뺨에 입술을 찍은 뒤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을 불렀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순히 넘어가줄 마음은 없었다.

“…조올러어...”

“아샤.”

여전히 웅얼대는 그녀의 아랫입술을 엄지로 지그시 누르자 아나샤가 답답한지 작게 끄응 소리를 내었다. 그는 엄지 끝에서 조금 힘을 빼고서 아랫입술을 살살 쓸었다.

“다른 사람한테 또 술주정으로 뽀뽀할 겁니까?”

“으응...”

“대답 안하면 앞으로 다시는 술 약속은 금지입니다.”

엄한 목소리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 그의 눈빛은 녹을 듯이 달달하기만 했다. 리히르트는 손을 옆으로 가져가 뺨을 쓰다듬다가 긴 손가락으로 톡톡하고 살며시 뺨을 두드렸다.

“다른 사람에게 뽀뽀한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으으응, 아니이.”

금방이라도 잠에 들 것처럼 잠기운이 어린 목소리였다.

그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뺨을 만지작거렸다. 평소에는 그녀의 장난을 너그럽게 받아주었다면 지금은 역으로 그녀를 괴롭히는 것에 조금 흥미를 느끼는 중이었다.

“그럼 안할 겁니까?”

“으응. 그치마안…,”

아나샤는 커다란 손에 뺨이 잡힌 채로 배시시 웃었다.

“리히는 뽀뽀 처언번 해줄게에.”

“정말입니까?”

“응. 뽀뽀 처언번...”

“약속했습니다.”

“응...”

“정말로 해줘야합니다.”

입술을 살짝 벌린 상태로 아나샤는 그대로 잠들었다. 리히르트는 그녀의 뺨에서 손을 거둔 채 고개를 숙였다. 세상모르게 잠이 든 얼굴이 사랑스러워 그는 한동안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은 그는 그녀의 입술에 짧게 키스했다. 떨어진 입술사이로 낮은 속삭임이 흘러나온 것은 그때였다.

“아샤.”

“...”

“저와 함께 살지 않겠습니까? 응, 아샤?”

그러곤 재촉하듯이 그녀의 입술에 한 번 더 입을 맞추었다. 리히르트는 그녀가 깨지 않게 조용히 침대에 걸터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술김에라도 대답해주길 바랐으나 깊이 잠든 그녀는 색색 숨소리를 낼 뿐이었다.

사실 잠든 그녀에게 청혼을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전에는 결혼을 이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여긴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선 결혼에 대한 모든 생각이 달라져있었다.

먼 미래에도 그녀와 함께 있고 싶었다. 오붓하고 따스한 방안에서 그녀와 웃으며 보내는 일상은 더 없이 행복할 것이다. 만일 아이가 생긴다면 그녀를 빼닮아 사랑스러울 터였다.

결혼에 대한 어떤 기대도, 생각도 없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그는 진심으로 결혼을 바랐다. 지금도 거의 매일을 함께 지내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욕심이 들었다.

기사단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면 그녀는 제 청혼을 받아들여줄 지도 모른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있고, 그걸 가능케 할 재력과 권력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그녀가 진심으로 결혼을 원할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녀를 위한 일인지도 말이다. 애당초 그녀가 원하는 삶은 첩자로서 사는 것이지 결혼이 아닐 테니까.

리히르트는 그녀의 몸에 이불을 덮어주고서 또 한참동안 잠든 얼굴을 감상했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제 욕심도 포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행복감이었다.

뒤늦게 그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아나샤는 멍한 눈을 굴렸다. 하얀 햇살이 내려앉은 침대 위의 풍경은 익숙했다. 옆자리에 그가 없다는 것만 빼면 평소의 아침과 다를 바 없었다.

어제 얼마나 마셨으면 이곳까지 어떻게 온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뜻언뜻 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 어젯밤 그가 자신을 데리고 온 건가 싶었다.

아나샤는 하품을 터뜨리며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썼다. 푹신한 침대위에서 얼마나 더 꾸물거렸을까.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제야 아나샤는 이불 밖으로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다.

한 손에 투명한 잔을 든 채 리히르트는 아나샤에게 다가왔다. 그러곤 일어나 앉은 그녀의 머리에 입을 맞추고선 물었다.

“속은 괜찮습니까?”

“네에…그럭저럭요. 그건 뭐예요?”

“숙취에 좋은 차입니다.”

“역시 리히, 목말랐는데 고마워요.”

제 몸을 챙겨주는 건 그밖에 없다고 여기며 아나샤는 냉큼 그가 건네주는 잔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들이켜고선 고개를 들었다.

“어제 리히가 저 데려온 거예요?”

“네. 기억 안 납니까?”

“하나도요. 혹시 밤새 저 찾아서 돌아다닌 건 아니죠? 술집이 한두 개가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술집을 알고 있는 기사에게 안내받았습니다.”

“휴…다행이다. 미안해요. 어제 두 시간만 마시기로 했는데 약속 못 지켜서요. 괜히 고생만 시키고…,”

“그렇게 말하면 섭섭합니다. 아샤. 사과 대신에 아침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얘기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부드럽게 웃으며 리히르트는 그녀의 손에서 빈 잔을 가져가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아나샤는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가 어제 이상한 말하거나 그러진 않았죠…?”

취하기 전 크리스 삼촌과 결혼 얘기로 열을 올렸던 것이 또렷하게 기억났다. 혹여 라도 술에 취한 채 그에게 결혼 어쩌고 했을까봐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상한 말은 아니지만 약속은 했었습니다.”

“약속이요?”

“네. 뽀뽀 천 번을 해주기로 말입니다.”

아나샤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어느새 침대 앞으로 다가온 그는 이불자락 밖으로 나온 발목을 쥐고선 조용히 자신을 끌어당겼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얼굴에 아나샤는 숨을 삼켰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자신을 바라보았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만큼 집요한 눈빛이었다.

“…리히, 진짜로요? 진짜 천 번을 해달라고요?”

아나샤가 슬며시 꺼낸 말에 리히르트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서운한 감정이 깃든 푸른 눈동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냐고 묻는 것만 같았다.

“술김에 한 약속이잖아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솔직히 이건 무효죠.”

“...”

“으으음... 계속 그렇게 볼 거예요? 저 진짜 못해요. 열 번이면 몰라도 어떻게 천 번을 해요?”

물론 뽀뽀가 싫은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와 뽀뽀하는 걸 좋아한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천 번은 심했다. 입술이 닳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여기며 아나샤가 속으로 기겁할 때였다.

“하루에 열 번씩 백일동안 해주는 건 어떻습니까?”

들려온 잔잔한 목소리에 아나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열 번 정도면 뭐…”하고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에 리히르트는 이미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뺨을 내밀었다. 일단은 뺨에 한번 해달라는 듯이 말이다. 아나샤는 그 모습에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뺨에 쪽하고 입을 맞추고서 떨어졌다.

“이제 아홉 번 남았죠?”

리히르트는 대답 대신에 아나샤를 안아 그대로 침대 위로 무너뜨렸다. 포근한 향이 나는 가녀린 몸을 끌어안고서 하얀 살결에 쪽쪽 소리를 내며 키스하기 시작했다.

이어지는 뽀뽀세례에 아나샤는 간지러워 작게 발버둥 쳤으나 그는 멈출 줄 몰랐다. 어느새 열 번의 횟수는 무의미해진지 오래였다.

바람에 실려 오는 우렁찬 구령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들어있던 아나샤는 눈을 떴다. 상체를 일으키자 몸을 덮고 있던 제복외투가 스르륵 내려왔다.

커다란 외투를 품에 안고서 아나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의 주인은 어디에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시간을 확인한 아나샤는 그대로 입을 떠억 벌렸다.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세 시간이나 지나있었다.

“오늘도 엄청 자기만 했네...”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런지 요즘 부쩍 잠이 늘었다. 점심식사를 하고나면 어느새 노곤한 기분에 취해 낮잠을 자지 않으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졸음이 몰려왔다.

아나샤는 반쯤 열려있는 창문을 닫고서 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에 있는 주홍빛 잎들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모두 훈련을 하느라 연무장에 가있어서 그런지 건물 주위는 조용했다.

‘뭔가 평온하네.’

아나샤는 작게 하품을 터뜨렸다. 그동안 이렇다 할 큰 사건 없이 조용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다.

사건이라고 해봐야 부단장 칼리프가 3일간 근신 처분을 받은 일 정도였다. 함께 술을 마신 다음날 갑자기 근신 명령이 떨어진 것이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아나샤는 그가 술을 먹고 리히한테 추태라도 부린 모양이라고 넘겨짚었다.

아나샤는 다시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다. 10분을 조금 넘게 기다렸을까, 문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아나샤는 곧바로 튀어나가 문을 열었다.

“리히! 어디 갔다 왔어요?”

“주방에 다녀왔습니다.”

“헉 그건!”

그의 한손에 들린 바구니에는 잘 익은 노란색 껍질의 과일들이 담겨있었다. 점심에 그에게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긴 했지만 진짜 가져와줄 줄은 몰랐다.

직접 깎아주려는 것인지 바구니 안에는 접시와 과도도 들어있었다. 감동이 물밀 듯이 밀려오자 아나샤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들었다.

커다란 몸에 달라붙어 그의 뺨에 뽀뽀를 퍼부어댔다. 아침에 이미 열 번도 넘게 했다지만 기쁨에 멈출 수 없었다.

폭풍 같던 뽀뽀세례가 끝난 뒤, 리히르트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소파에 앉혔다. 그는 차분히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다. 그러곤 어서 먹어보라며 포크로 과일 한 조각을 찍어 그녀에게 건네었다.

아나샤는 곧바로 과일을 한입 베어 물었다. 새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맛있습니까?”

“네! 엄청요. 딱 원하던 맛이에요.”

리히르트는 자신의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과일을 오물거리는 아나샤를 바라보았다. 차분한 표정과는 달리 현재 그는 속으로 매우 인내하는 중이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미칠 것만 같은 기분을 억지로 누르기위해 그는 과일에 손을 가져갔다. 침착해지기 위해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

그렇게 정확히 열두 개째 깎았을 때였다. 들려온 아나샤의 놀란 외침에 그는 비로소 칼질을 멈출 수 있었다.

아나샤는 깎은 과일들의 반을 삼촌들과 다른 기사들에게 가져다주었다. 그리고 반은 혼자서 거의 다 먹어치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과일로만 배가 빵빵해질 정도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나샤는 호화로운 음식들을 앞에 두고 입을 틀어막았다. 아나샤는 재빨리 밖으로 뛰쳐나와 그의 방으로 향했다. 얼마나 날쌘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욕실에 틀어박혀서 욱욱 소리를 내던 그녀는 한참 뒤에 욕실 밖으로 나왔다.

“아샤.”

내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리히르트는 곧바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러곤 그녀를 안아들고 조심스레 소파에 앉혔다.

“주치의를 부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졌어요.”

메슥거리는 속이 진정되어서 이젠 아무렇지 않다고 아나샤는 얘기했으나 리히르트는 걱정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얼굴 곳곳을 세심히 살피는 그의 눈길에 아나샤는 괜히 머쓱해져 뺨을 긁적였다.

“아까 과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체했나 봐요. 적당히 먹을 걸 그랬어요. 괜히 욕심 부려선...”

“정말 괜찮습니까? 혹시 모르니 진찰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떻습니까?”

“한 시간정도 기다려보고 계속 울렁거리면 받을게요. 진짜로 지금은 괜찮아요. 그보다 리히 밥 먹다가 저 따라 나왔죠?”

보나마나 중간에 일어선 자신을 따라 왔을 게 뻔했다. 배고플 텐데 자신이 걱정되어서 식사도 못했을 그에게 미안하기만 했다.

“저 걱정 말고 식사하고 와요. 얼른요.”

아나샤는 그의 등을 꾹꾹 밀어내며 문밖으로 내쫓았다. 그는 순순히 그녀가 미는 대로 밀려나면서도 걱정되어 나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 미세하게 표정을 굳혔다.

“그런 표정 짓지 말고요.”

“제 표정이 어땠습니까?”

“음, 마치 억울하게 혼난 커다란 강아지 같았어요.”

그녀의 말에 리히르트는 작게 웃음을 흘렸다. 굳은 표정은 풀어졌으나 그럼에도 걱정스러운 감정은 사리질 줄 몰랐다.

“식은 건 다시 데워달라고 하고요. 알았죠?”

아나샤는 그의 과한 걱정을 모른 체하며 그에게 당부했다. 같이 내려가곤 싶지만 음식냄새를 맡으면 또 울렁일 것 같아서 그의 방에 남아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